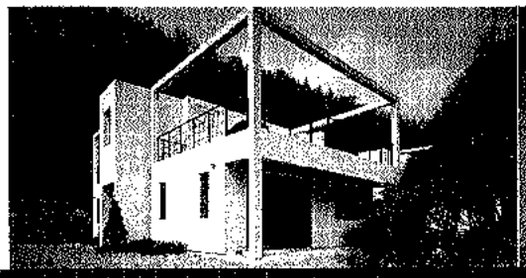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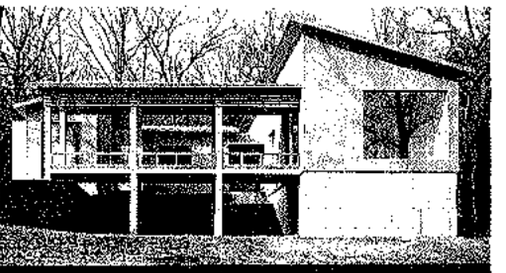




건축사

2000 03 vol. 371

칼럼_____ 건축단상 2제
작품리뷰___ 부평순복음교회
작품노트___ 아름다운 주택을 꿈꾸며
테마기획___ 지역건축탐방 16 :북한(상)

KOREA ARCHITECT

밀레니엄 특급세일

TOMATO series LineTek

제안1/보급형

- Celleror 466MHz
- 64MB Memory/8.4GB HDD
- 46x CD/Sound Card
- LAN Card/Windows98

+

- 17″ Samsung Color Monitor

+

- AutoCAD LT98
- 라인아크 토마토
- 세한글

➡ ~~2,900,000~~ ⇓ **2,350,000**(V.A.T별

제안2/전문가형

- HP Brio Pentium III 550 Mhz
- 64MB Memory/8.4GB HDD
- 46x CD/Sound Card
- LAN Card/Windows98

+

- 17″ Samsung Color Monitor

+

- AutoCAD LT98
- 라인아크 토마토
- 세한글

➡ ~~3,295,000~~ ⇓ **2,750,000**(V.A.T별도

제안3/일체형

- HP Brio Pentium III 550 Mhz
- 64MB Memory/8.4GB HDD
- 46x CD/Sound Card
- LAN Card/Windows98

+

- 17″ Samsung Color Monitor

+

- AutoCAD LT98
- 라인아크 토마토
- 세한글

+

- HP디자인젯 450C
- SIZE: A1
- Roll & 다리포함

➡ ~~7,210,000~~ ⇓ **5,900,000**

- 상기 제품은 3.6개월 원리금 무이자 균등상환이 적용됩니다.
- 상기 LT버전은 AutoCAD LT98버전입니다.
- AutoCAD LT2000토마토의 UPGRADE 250,000이 추가됩니다.
- 상기 시스템 사양은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AutoCAD그대로"

가격을 완전한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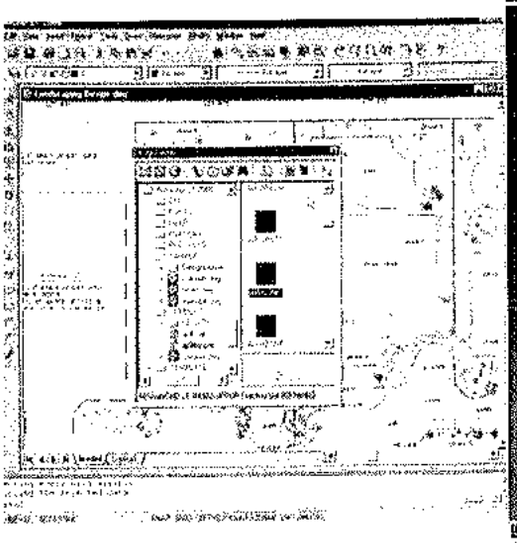
http://www.linetek.co.kr , http://www.aec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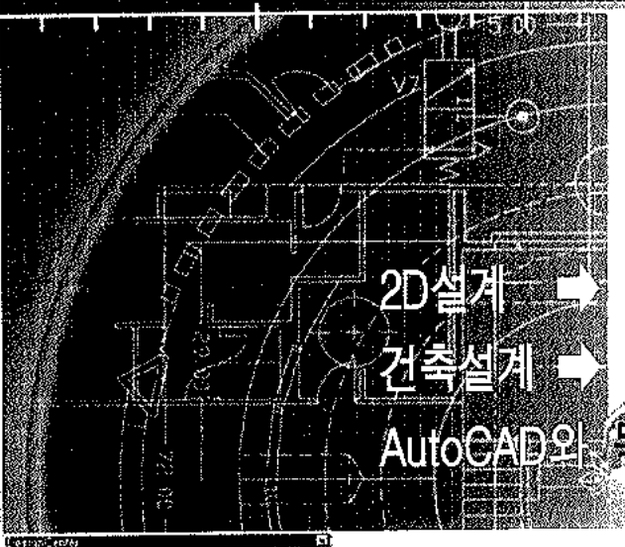
12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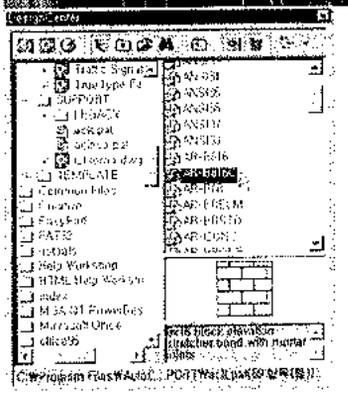
Tomato 2000
AutoCAD LT 포함

"2D AutoCAD를 AutoCAD LT 2000

더 이상 적산/견적 프로그램은 고가일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건축인 모두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백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말한 AutoCAD LT

"AutoCAD는 제가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기사와 계약자들이 선호했던 설계소프트웨어입니다. 2D 및 제도용으로 AutoCAD LT는 광범위한 건축 설계노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James Larson
교장 및 일등건축가
Larson Architects

AutoCAD LT2000 소프트웨어는 100% AutoCAD 2000도면과 호환되기 때문에 AutoCAD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도면파일을 교환할 경우 가시적 동일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AutoCAD 릴리즈 14 및 13과도 호환되므로 이전 버전에서 작업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utoCAD LT2000 주요기능

1. **AutoCAD Design Center**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도면의 블록, 해치 및 여러가지 속성을 작업도면에 쉽게 복사 할 수 있다.
2. **극좌표 추적 기능으로 제도 효율성 향상**
3. **선 가중치 및 다중 배치의 지원으로 다양한 출력효과 창출**
4. **명령 Undo/Redo 무제한적 실행**
5. **다중도면 설계환경**
   다중도면을 동시편집 및 도면간의 데이터 교환가능
6.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의한 써브메뉴 감지기능**
7. **AutoCAD2000과의 완벽한 호환**
8. **AutoCAD2000의 2D설계기능 모두 수용**
9. **편리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웹도구 지원**

Aut AutoCAD LT 2000

WWW.AECKOREA.COM
정보화 사업의 유능한 파트너, 충실한 동반자로서 AECKOREA는 건축, 엔지리어링, 건설 전문 웹사이트로 각각의 사업분야에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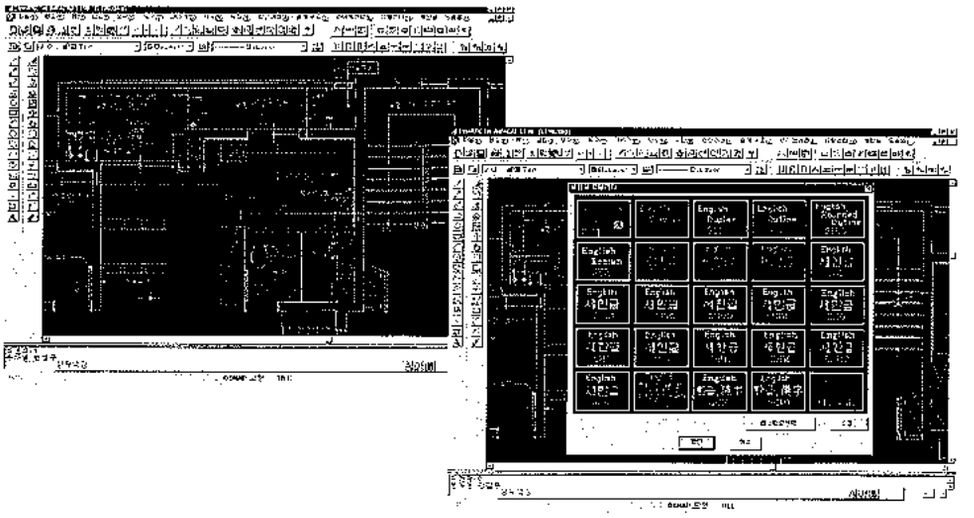
저렴하게 구입하십시오!!!"

Millennium시대개막 2D CAD에는?

LineARC Tomato 98/2000

These programs will be at the top in the 2D CAD world for the future

TOMATO series



2D CAD의 확실한 왕좌 -
자체 기능의 99% +알파의 기능을 발휘 -
진정 건축설계의 필수품입니다.

라인아크 토마토98/2000 주요기능

■도면제도 환경설정
- 도면의 Scale size를 한번의 선택으로 자동설정
- 레이어 자동설정
- 치수환경 설정 관리자를 이용한 손쉬운 치수환경 변수 설정

■건축도면 요소 작성
- 벽 및 창호의 종류를 라이브러리화하여 자동입력
- 다양한 벽체 수정기능
- 자동치수 기입, M/C설계에 의한 치수기입
- 치수 기호 자동 변경기능

■구조도면 작성
- 보,기둥,계단,슬라브, 파일기초,옹벽기초등 각종 일람표 자동 작성
- 구조마크 자동 입력기능
- 구조마크의 형태 및 크기 사용자화
- 표준규격에 의한 철골 라이브러리 제공

■구적도 작성
- 지적도 면적 계산 및 자동 변경
- 구적도 및 면적 산출표 자동 작성
- 면적 단위 자동 환산

■심볼 라이브러리
- 건축 도면 작성시 필요한 심볼 라이브러리 제공 (엄선된 1100여개의 블록)
- 심볼을 종류와 Size별로 평면, 정면도 제공
- 편리한 심볼 라이브러리 관리도구 제공

전 국 딜 러 모 집 중

라인아크 토마토 98/2000 특징

■순수 C++/ARX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속도 1.5배이상 빨라졌습니다.
결국 진정한 C++/ARX 프로그램만이 LT위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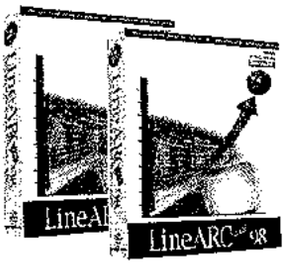
■건축설계를 위한 모든 내용을 Programing 했습니다.(AutoCAD용 라인아크와 동일)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Win95/Win98/Win NT/WinNT2000)

■PULL DOWN MENU에서 명령어를 실행 가능합니다.(Win95/Win98/Win NT/WinNT2000)

■명령어 입력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찾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인아크 Utility)

■가장 어려운 기하해석을 C/C++로 코딩했습니다.

■Vector폰트와 타 한글의 Convert기능을 제공합니다.
(세한글 폰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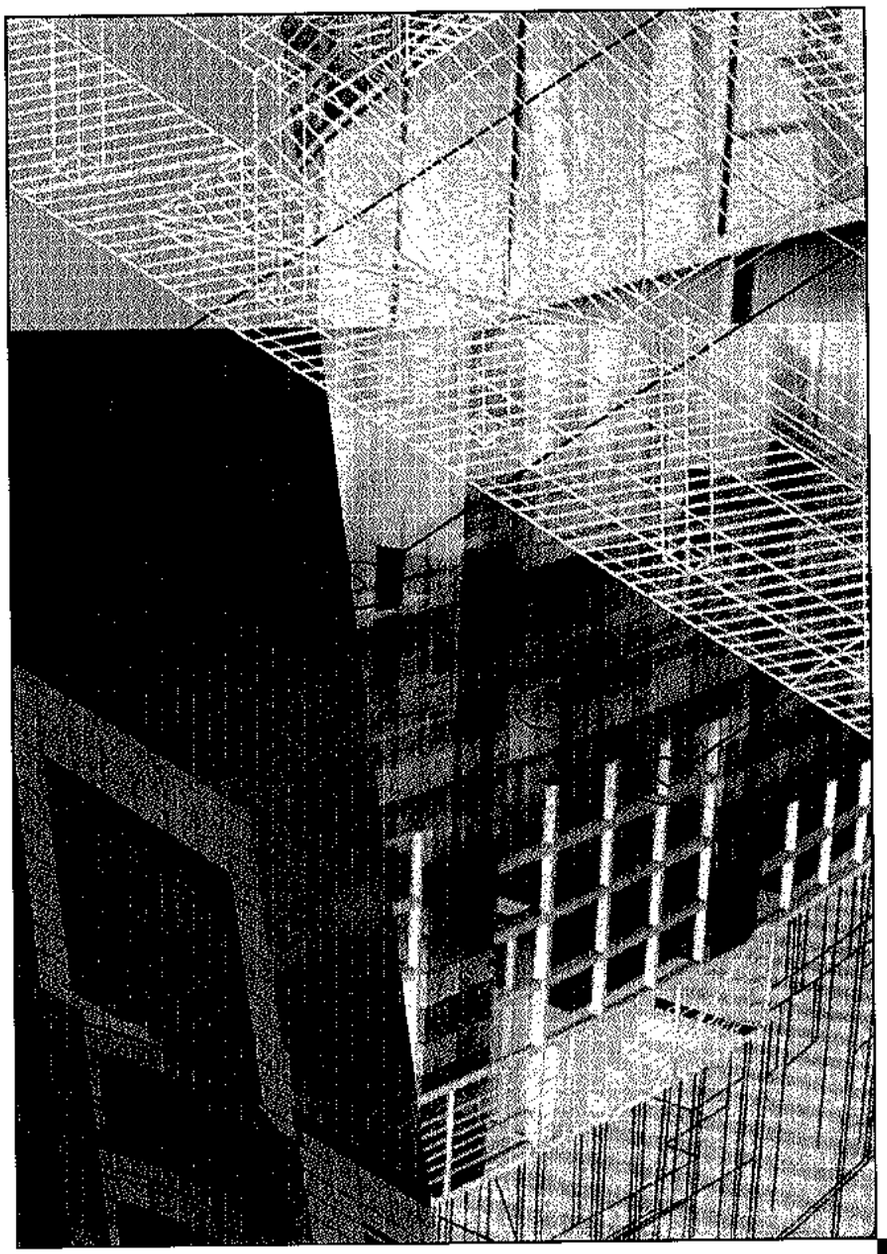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 http://www.aeckorea.com

준비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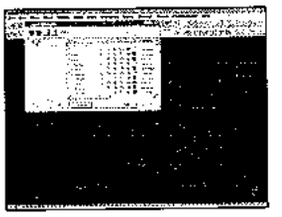
비교불허!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 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가동,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와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 + 3DSVIZ R3통합패키지

ADT 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가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냅

Architectural Desktop

ADT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 http://www.aeckorea.com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intel inside
pentium® III

건축인을 위한 인터넷 PC-
LAN 카드와 CD롬 드라이브는 기본으로
6개월 무이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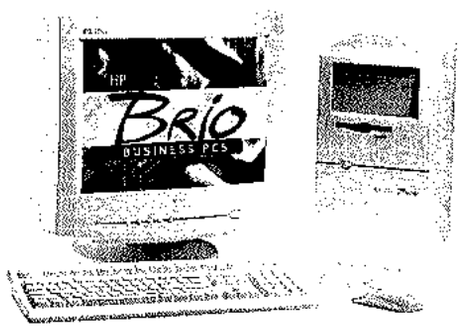
건축 CAD 분야에서 10년간 독보적인 위치를 다져온 저희 (주)라인테크시스템이 당신의 비지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HP 브리오 PC를 특별히 부담없는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Engineered on a human level.

● 최상의 S/W와 신뢰성 있는 HP 브리오 PC	● 최상의 S/W와 신뢰성 있는 HP 브리오 PC
● 17" 모니터 (Resolution 1600×1200)	● 17" 모니터 (Resolution 1600×1200)
● 라인테크 세한글 건축전용 프로그램 포함	● 라인테크 세한글 건축전용 프로그램 포함
+	+
● ADT(Architectural Desk Top) 포함	● ADT + 3DS Viz 통합 패키지
~~₩6,579,600~~ ⇨ ₩6,000,000 (VAT별도)	~~₩7,579,600~~ ⇨ ₩7,000,000 (VAT별도)

HP 브리오 BA 비지니스용 PC:

Intel® Pentium® III 프로세서 550 MHz
128 MB RAM, 8.4GB HD
48배속 CD-ROM 드라이브
10/100 BT LAN CARD
Windows 98® 기본 장착



hp invent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HEWLETT PACKARD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 천지빌딩 (우)135-080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http://www.aec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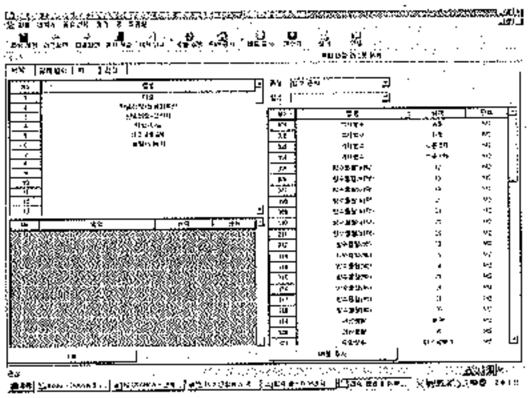
Intel, Intel의 둥근 로고 및 Pentium은 등록 상표이며 Pentium III Xeon은 인텔사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나 등록상표는 각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1999 휴렛 팩커드사. 모든 권리 보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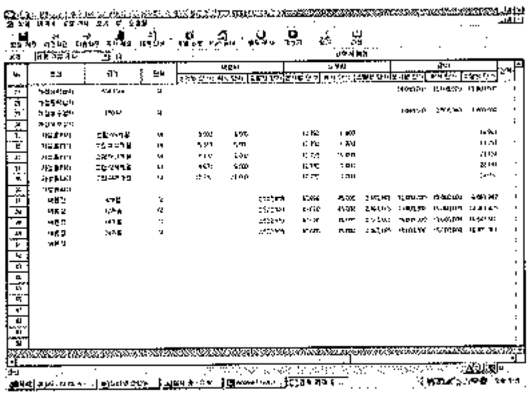
건축 적산/견적 프로그램 CITIS/Estimation Ver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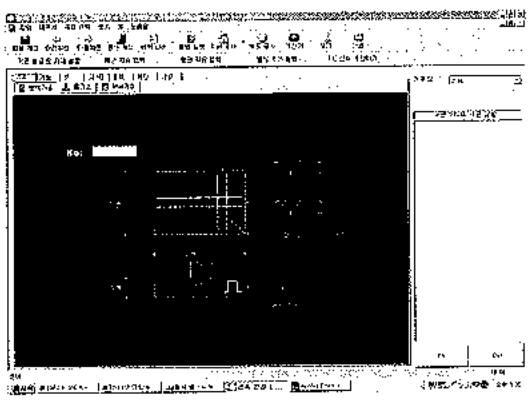
더 이상 적산/견적 프로그램은 고가일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건축인 모두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비교불허"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 사용자 동영상까지

35 만원







■실무자 위주의 편리성

수많은 실무자/현장여건/설계환경 조사로 누구보다도
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사용법 제시
Windows 95/98 NT등 어느 환경에서도 작업과 호환성이 가능하다.
예) 공통, 일반 가설 공사는 품셈 기준으로 산식이 되어 있으며,
1분안에 내역집계까지 완성 할 수 있다.

■최상의 환경에서 모든 작업이 물량산출과 동시에

역대 최강의 DB엔진으로 물량산출과 동시에
산출서, 내역서, 내역집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분기별 단가와 최저단가, 조달청 단가를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임의 단가를 적용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산출자가 입력한 DATA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Auto Save 기능으로 보호된다.

■상세한 산출근거를 공정관리에 접목

물량산출과 집계표상에서 공정별 주요자재(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의 소용량을 층별로 체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정/자재관리를 할 수있다.
예) 조적공사는 m^2계산하면 벽돌량, 쌓기량, 운반량, 시멘트, 모래 등을
자동으로 계산

■가장 중요산 적산/견적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핵심기능은 현장 실 투입 물량산출이다.
특히, 철근부분의 교과서적인 산출과 임의 산출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1군 업체와 각 현장별 투입 물량을 근거로
완성된 골조물량 산출방식은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예) 경사지붕/모임지붕은 배근상태 입력후 중시도면 입력하면 된다.
APT 계단실 1~20층까지 1분안에 완성가능, 각 TYPE별로 철근 지름별 정착계산

■도입기대 효과

Estimation Ver 2.1 정품을 구매하신 고객에게는 최상의 업그레이드와
각 실무에 필요한 데이타를 인터넷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단가표/각 현장 물량 등

■DEMO CD는 www.aeckorea.com으로
신청하십시오.

WWW.AECKOREA.COM

정보화 사업의 유능한 파트너, 충실한 동반자로서
AECKOREA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전문 웹사이트로
각각의 사업분야에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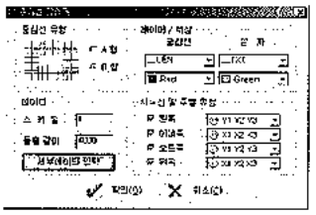
21세기 건축 · 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http://www.aec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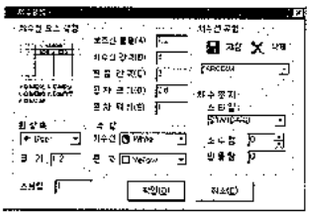
6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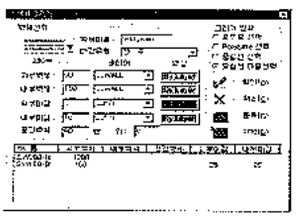
IntelliCAD/IntelliA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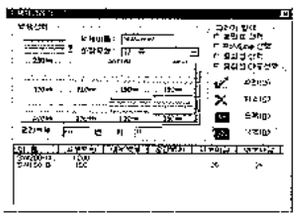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인텔리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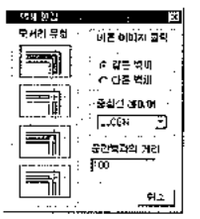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IntelliARC의 Upgrade 기능 안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많은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다이나웨어 홈페이지 http://www.iarc.co.kr에서 지금 다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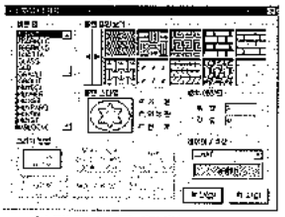

▲개선된 중심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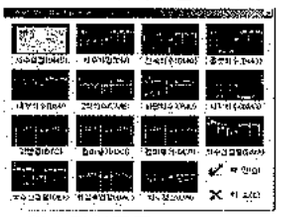

▲개선된 치수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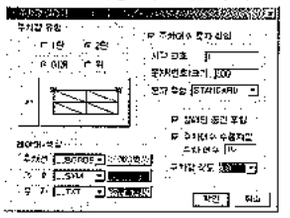

▲다중 벽체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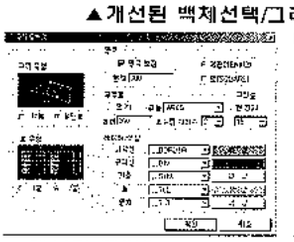

▲개선된 백체선택/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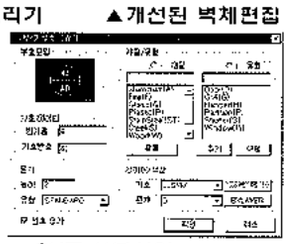

▲개선된 벽체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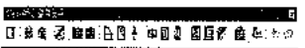

▲인텔리아크 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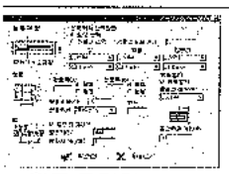

▲치수기입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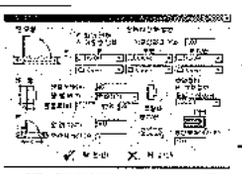

개선된 주차장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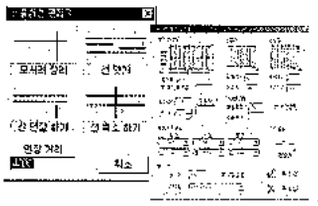

▲개선된 구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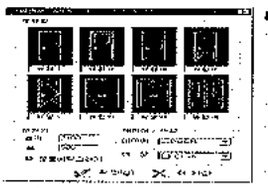

▲창/문 심볼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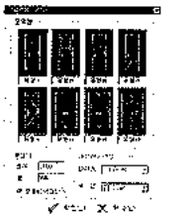

◀물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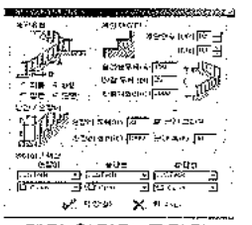

▲창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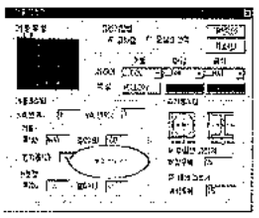

▲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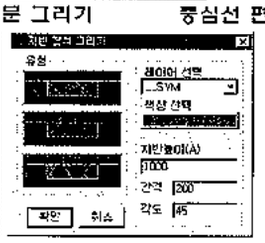

중심선 편집기▲ ▲계단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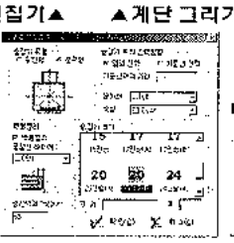

▲창문 그리기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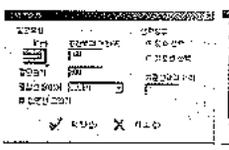

▲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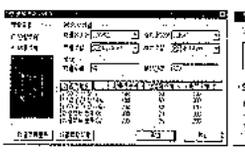

▲계단 입단면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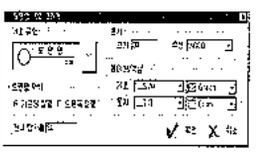

▲기둥 그리기


▲지반/잡석 그리기


▲승강기 그리기


▲벽체 열가


▲단면 벽체 벽돌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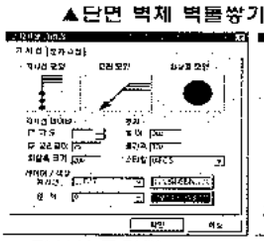

▲도면명 그리기

▲실내 면적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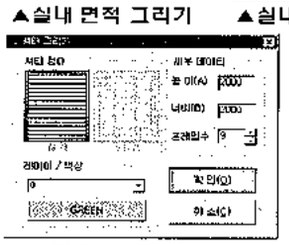
▲실내명 등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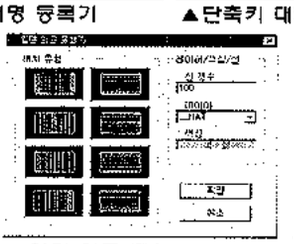
▲단축키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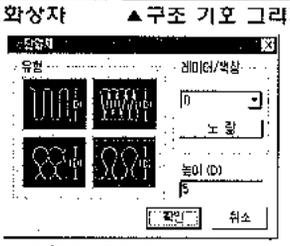
▲구조 기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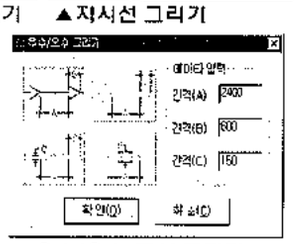

▲지시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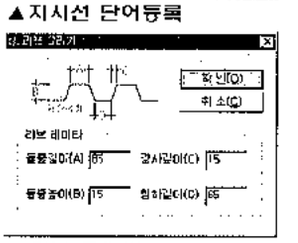
▲지시선 단어등록


▲셔터 표현기


▲입면 원근 표현기


▲단열재 그리기


▲우수/오수 통선 그리기


▲리브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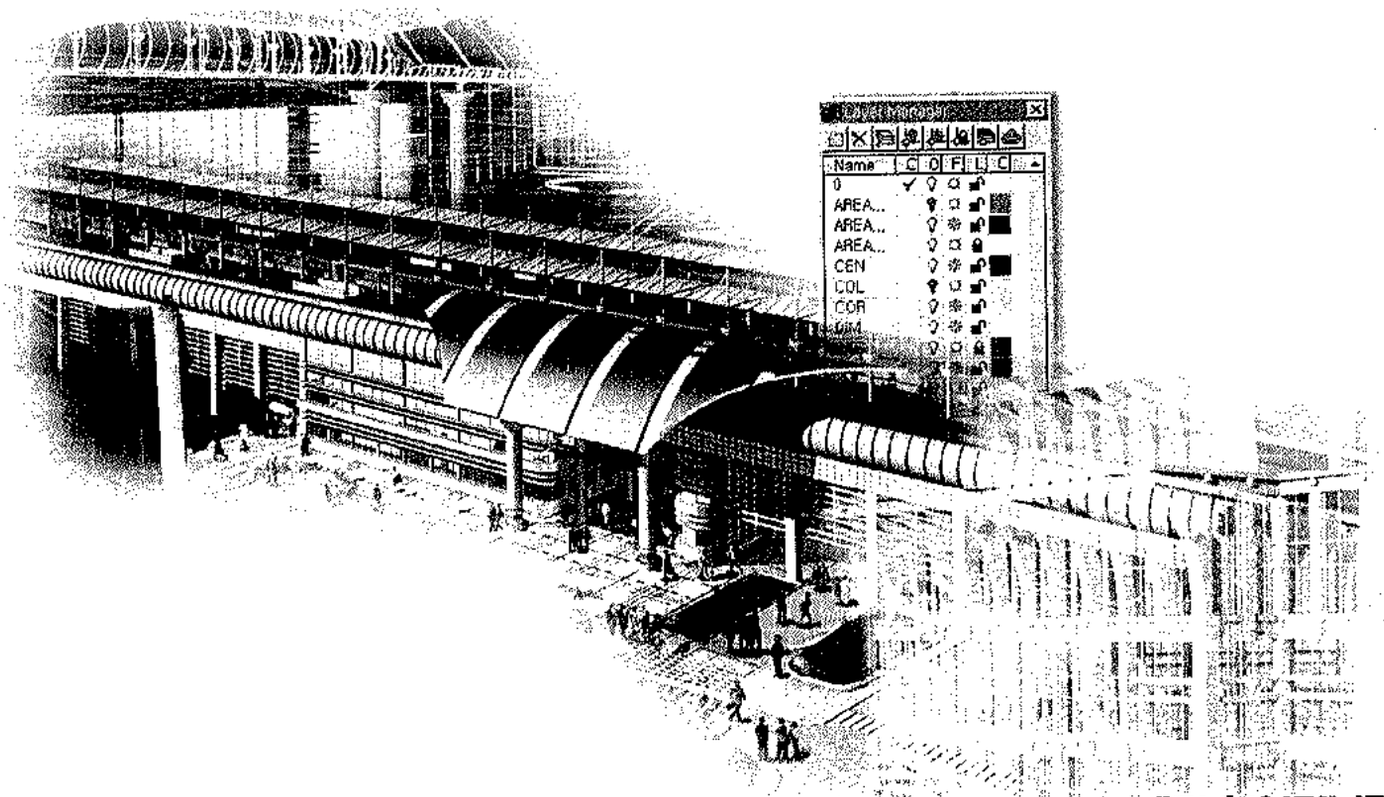
IntelliARC개발사
다이나웨어 씨지
http://www.iarc.co.kr
TEL:02-2214-0586 FAX:02-2244-0386

총판
[주]인텔리코리아
http://www.icad.co.kr
TEL: 02-323-0286
FAX:02-322-0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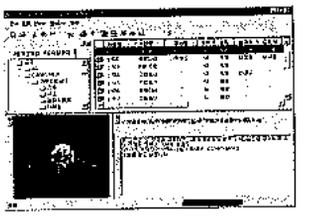
IntelliARC는 제3회 CAD/CAM학회 공모전에서 2000년도 2월 동상 수상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이나웨어 홈페이지에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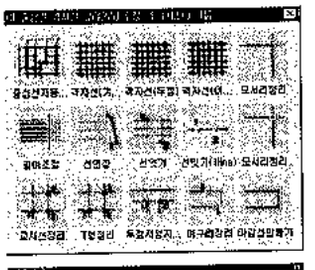
21C와 건축설계지원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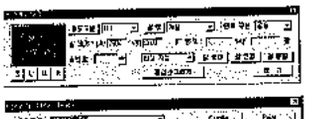
CADPOWER 21
RELEASE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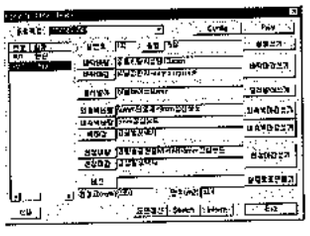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과 최고의 프로그램머 그룹이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CADPOWER 21의 새로운 기능

- 계획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재 작성
  마감재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공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주) 건 캐 드
GAUN CAD CO., LTD.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갑목빌딩 4F
Tel:584-6480 Fax:587-1803
http://www.ait.co.kr e-mail:info@gauncad.ait.co.kr

절취선을
잘라 경함과 함께
(주)건캐드에
보내주시면 CADPOWER 21
이 다한 데모CD와 자세한
성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autodesk solution 2000

Come & Touch
오토데스크 솔루션2000

새 천년, 디자인 세상을 주도해 갈 최고의 디자인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십시오

- **Construction Track**
  건축/토목/건설/엔지니어링
  /시설물 관리 분야 도면 설계
- **Telecom, Utilities, GIS Track**
  텔레콤/지리정보/지도제작/시설물 관리
  /웹GIS 도면 설계
- **Manufacturing Track**
  기계/전자/우주/항공/중공업
  /자동차부품 부품 설계
- **Multimedia Track**
  시각효과/애니메이션/디지털편집/방송 및 영상
  /게임개발/디자인 비쥬얼라이제이션

국내외 최고의 디자인 솔루션을 최대규모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오토데스크 솔루션 2000!
'Design Your World'를 주제로 Construction/Manufacturing/TUG/
Multimedia등 4개 Track, 총 48개의 세미나에서 최신의 관련 기술동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보, 시스템 적용/
통합/운영 기법에 관한 성공사례 들을 만나보십시오.
새 천년 디자인 세상을 앞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세션별 대상 인원: 20명 (각100분)
- 제 품: AutoCAD, AutoCAD Map, AutoCAD/M, Mechanical Desktop, Inventor, ADT, LDDT

- **행사일 : 2000.3.29, 30일(이틀간)**
- **시 간 : 오전 9:00~오후 18:00**
- **장 소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터넷 및 팩스를 통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autodesk.co.kr, Fax:527-0799)
사전예약자 전원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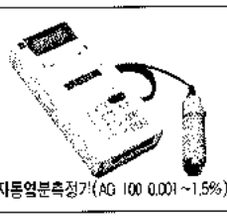
autodesk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527-0790 FAX:527-0799 www.autodesk.co.kr

계측기 및 전설공구·법정장비

건축감리·전기감리·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자동열분측정기(AG 100 0.001~1.5%)

콘크리트테스터 함마 NSR거록식

철근탐지기 ss-30

도막두께 측정기 HSE-8601

목제함수율측정기 M5700 5~36%

진동계3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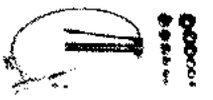
KYORIT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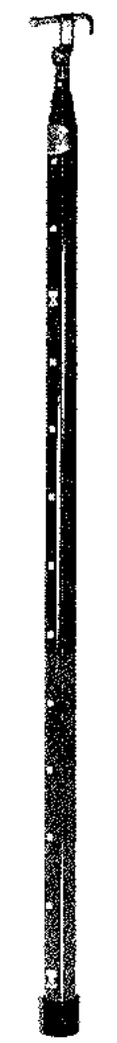
접지 저항계 디지털 4105 0~2000Ω

누설전류계 Multi 140 φ40 m/m 0.01mA~300m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축기 9H-150(14°~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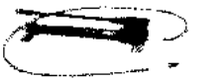
전선압축기(유압식) EP 430(Y-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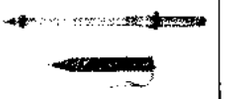

유압식 철판천공기 SH-10(2"3"4")


특고압 COS조작봉 3단4M 5단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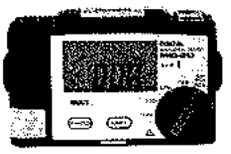
누설전류계 MCL-800D φ80 m/m 0.1mA~1,000A 누전사고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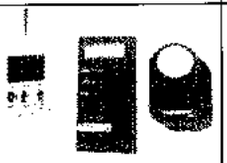
유압 압착기 12호 A (14°~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저압검전기

접지저항계4102 0-1000Ω


DIGITAL절연저항계 250V 50M 500V 100M 1,000V 2,000MΩ MIS-3D


DIGITAL 소음계(1350) 35-130db

DIGITAL 조도계(1330) 0.1~20,000

비접촉식온도계 ST3Lxu -32~400℃ ST6Lxu -32~500℃

비접촉식온도계 -50-500℃ UT-01

훅크메터 MODEL 2007 600A 750V MODEL 2002 2000A 750V

절연저항계3213A 500V 1,000M 1,000V 2,000

DIGITAL 훅크온 메터 234301 650V1,000A

접지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 3165 500V1,000M 3166 1,000V~2,000M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P 702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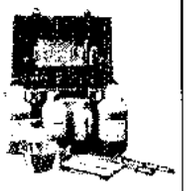
절연장갑 장화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온식 접지저항계

절연저항계(3123)10,000V

DC Hydot tester 60kV 5mA


절연유산가측정기(HD 101)

절연유 시험기(HD55)

계전기 시험기(8510)

접지공구

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

취급회사 제품

KYORITSU 내전압 시험기

MULTI 누설전류계 MUSASH O.T 테스타

IZUMI 압착기 HIOKI 계측기

국산 메가 혹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YOKOGAWA 기록계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주)현대전기 계측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79-0427. 278-3944

FAX: (02)273-8758

POWER PLAN 의 더블데이트!

동시에 두개의 CAD 와 만난다!

AUTOCAD 2000,R14 는 당연하고 ,2000년부터는
Intelli CAD 2000과 한 꾸러미에 !!

건축사 사무소 3고1저 시대!! 바꿔! 바꿔!

.....POWER PLAN 2000이란?

DOPS PRO + DOPS DESIGN + DOPS 3D (CAD지원프로그램)!
회사별 DB접목!
개략견적기능이 추가!
저가형 CAD 'Intelli CAD' engine이 내장!
CAD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UTOCAD와 호환되므로 사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1992년 출시 후 계속 발전되어 안전성이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기능을 향상,추가합니다!

IMF는 3고 1저로 풀어가야 하는시대!

성능!! 업무능률!! 경쟁력!!은 대폭올리고---가격부담!!은 낮춘다!
바로 POWER PLAN 2000입니다!!
지금 POWER PLAN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同居同樂업체

지산정보 : 02-711-3350 CMS : 042-545-2641
0431-372-1024
안컴 : 0343-397-8377 0591-762-0958

(주)엘콘시스템 (el-con system) 02-585-8880으로 연락하십시오.

(주)엘콘시스템은 199 년 (주)소라정보로 시작,건축설계,견적,공정관리의
통합솔루션을 지향하여 CAD지원.
SOFTWARE개발 및 WEB SITE건설사업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벤쳐기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21-2 서초타운빌딩 3층 #137-073
Tel:02-585-8880, Fax:02-585-9066, E-mail:webmaster@el-con.co.kr
WWW.el-con.co.kr : POWER PLAN에 관한 기술관련자료,제품평가,After service.

(주)엘콘시스템 ● 엘콘기술연구소
EL-CON SYSTEM CO.,LTD EL-CON TECHNICAL LABORATORY
137-073: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21-2 서초타운빌딩 3층
TEL : (02)585-8880(代) FAX : (02)585-9066
HTTP : www.el-con.co.kr

"세계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하니타 디펜스 필름"

AMERICAN HOME
3억원보상책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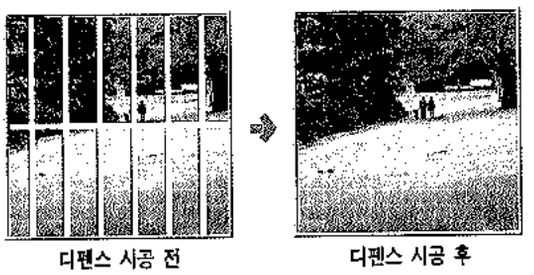
"유리에 방탄조끼를 입힌다?"

"기존 유리를 벽보다 강한 유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니타 디펜스 -도난 침입방지 필름

방범 창틀 대신 사용하는 건물 및 주택 유리창의 유리면 내부에 부착하는
방범 · 침입방지 기능을 가진 투명한 필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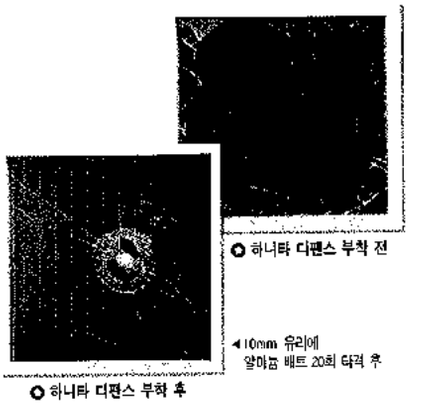
창문을 통한 도둑 · 강도 등 어떠한 외부침입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 "하니타 디펜스"



디펜스 시공 전 ⇨ 디펜스 시공 후

**필름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제규격인증 획득!**

- 국제유리필름협회
- 독일표준규격
- 미국 표준규격
- 영국 표준규격
- ISO 9002 국제표준화기구
- 국제건축용 Film 생산자 연합회
- 이스라엘 표준규격
- 미국재료 시험협회



◀10mm 유리에 알마즘 배트 20회 타격 후

○ 하니타 디펜스 부착 후

○ 하니타 디펜스 부착 전

- **유리창을 통한 도둑 · 강도의 무단침입 원천봉쇄 및 조형미 유지**
  도난 및 테러방지, 감옥 아닌 감옥인 방범철창 · 셔터 불필요,
  이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 **이웃의 화재, 가스폭발 및 태풍으로부터 보호**
  파괴 · 폭발 · 내부의 화재나 위급상황시 밖으로의 탈출이 용이합니다.
- **유해 자외선 99% 까지 차단**
  기미 · 주근깨 · 피부병 발생저지, 고급의류 및 커텐, 쇼파 등
  탈색 변색 방지합니다.
- **셔터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품 홍보효과 극대화**
  야간에도 전시 ·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의 절감 및 유리파손으로 인한 인명보호**
  열차단 효과로 단열 및 보온효과 30~70% 절감 및
  실내 · 외 유리파손시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Color Defense 선택시 외부시선 차단으로 사생활 보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이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주)삼명데코
http://www.Defens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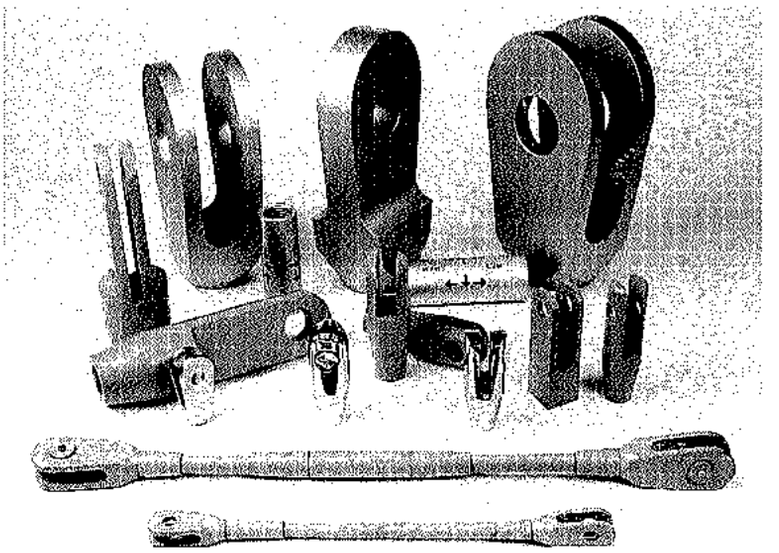
- 삼명데코 본사: (02)556-0618 • 강원: (0361)244-0114 • 대전: (042)632-6833 • 대구: (053)767-2255, 744-1578 • 호남 · 광주: (062)523-7246
- 부산 · 경남 · 제주: (051)611-7220
- 취급품목: 안전 · 방범 · 방탄 · 태양열 조절 및 자외선 차단 필름 • 3억원보상책임보험 · 국제규격인증 마크를 획득한 하니타 디펜스 제품을 꼭 확인하세요.
- 이곳에서 하니타 디펜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삼성본사서옥 · 서울C백물관 · 영동성당 · 재사관 · 경주현대호텔 · H통신본부 · 안동문화방송 · 함양우체국 · 국립나주정신병원 · 성변센트병원 · S은행 · 주택은행 · 국립중앙박물관 · 부산문화회관 · 제주사직장 외 다수

대공간 강구조나 투명건축을 계획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 철골을 긴장한 SEMALLOY® 고장력 인장봉이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및 제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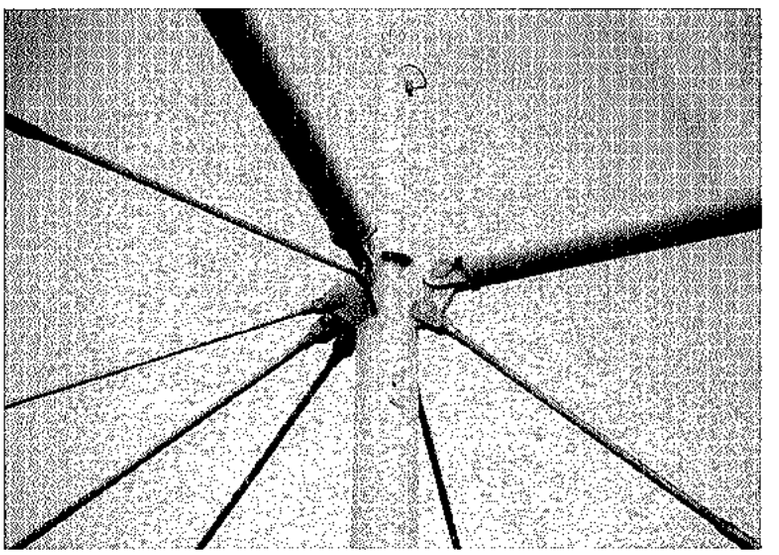
- 강구조건축, 교량의 긴장 및 내진용 고장력 인장봉 셋트
  (H.TENSION TIE BAR SET FOR STEEL STRUCTURE)
  : SEMALLOY® 460, 835
- 유리구조용 스테인레스 인장봉, 케이블 셋트
  (STAINLESS PARTS TENSION BAR, TENSION CABLE SET FOR GLASS STRUCTURE) : SEMALLOY® STS
- 프리스트레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스트텐션용 고장력강봉 셋트
  (H.TENSION BAR SETS FOR P.P.C POST TENSION)
  : SEMALLOY® P.C BAR



■생산제품규격

Grade	Diameter	Length	Remark
SEMALLOY® 460 SEMALLOY® 835	25ø ~120ø	12m	H.T BAR
SEMALLOY® STS	12ø ~60ø	8m	STS BAR
SEMALLOY® P.C	25ø ~75ø	8m	P.P.C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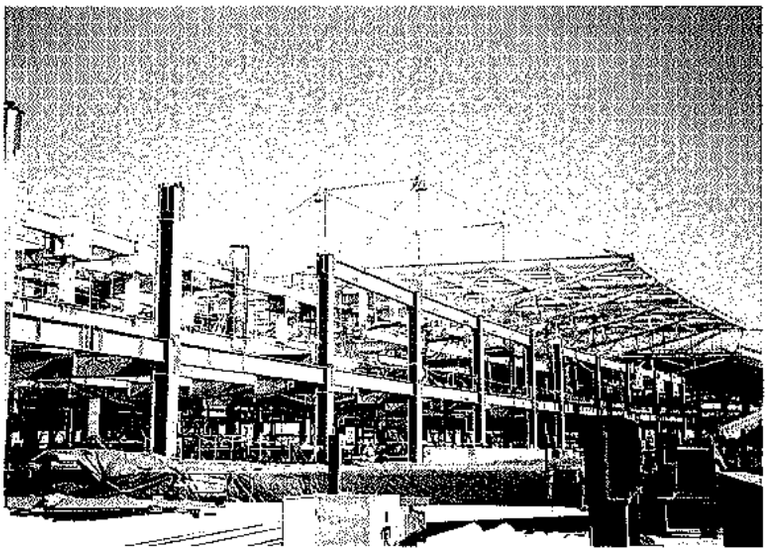
• Coupler 사용으로 길이의 연장이 가능함.



■제품의 기계적 특성

Properties / Grade	Min Yield Stress (N/mm2)	Ultimate Tensile Stress (N/mm2)	Min elongation (%)
SEMALLOY® 460	460	610	20
SEMALLOY® 835	835	980	20
SEMALLOY® STS	205	515	30
SEMALLOY® H.T STS	690	860	12
SEMALLOY® P.C BAR	930	1080	5

• P.C Bar는 사양 별도협의 요망.



■공사실적

현장명	원청 시공자	사용규격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한진, 삼성, 대우	M24~M100
대림대학 체육관	(주) 삼호	M56~M64
메리어트 호텔	삼성중공업(주)	M56~M64
반포천 복개 고가도로	센트럴 건설(주)	M36~M140
서울대 생활체육관	POSCO개발	M36~M64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현대산업개발(주)	Ø56
고속전철 천안역사	한라건설(주)	Ø24~Ø32

SEMALLOY®
세일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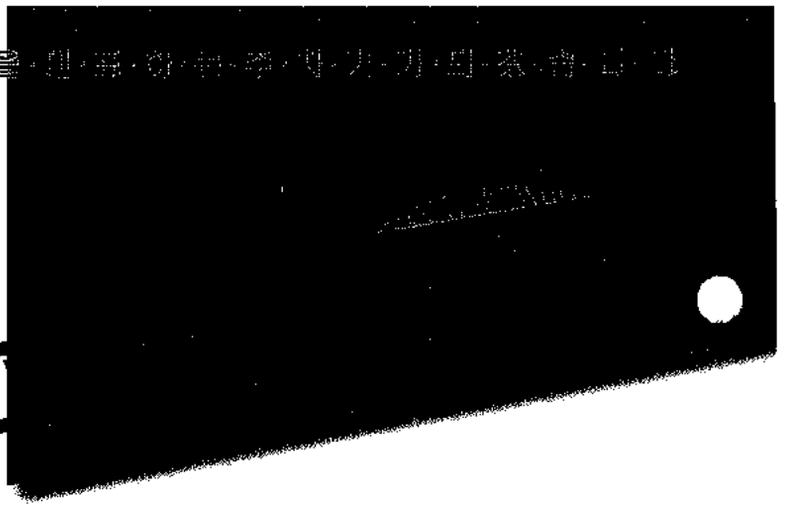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1108-75

TEL : (0523)387-7070 FAX : (0523)387-7074 E-mail : seil7070@chollian.net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인·증·하·여·주·셨·습·니·다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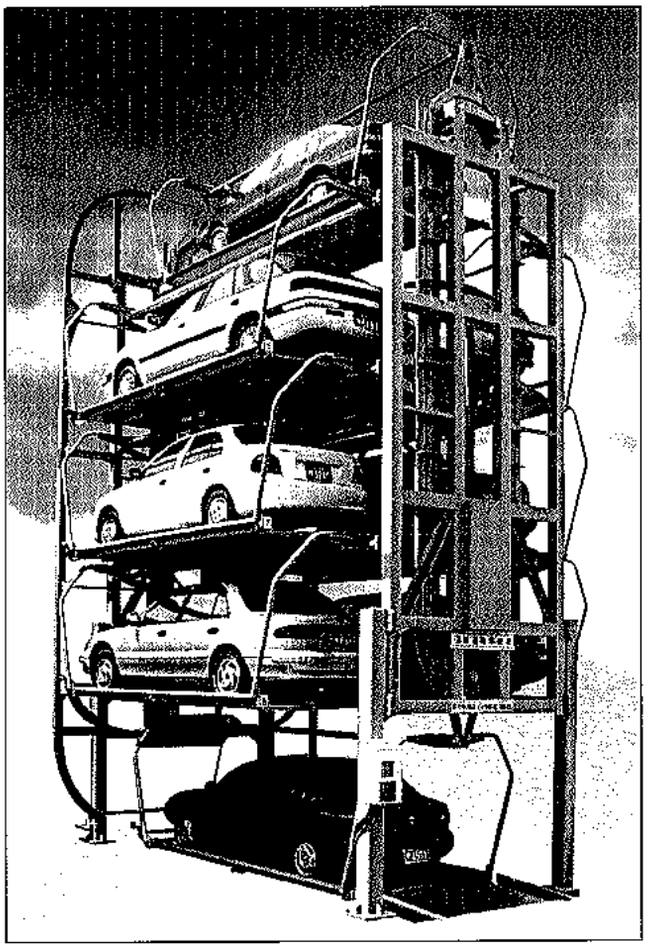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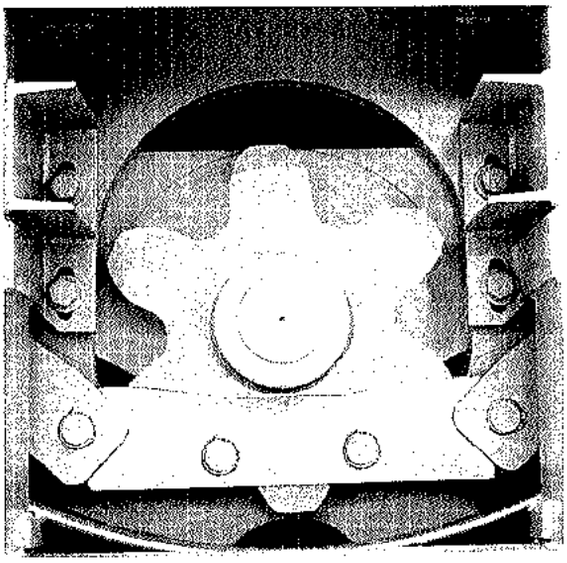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더 이상의 고품질은 사치다!!
더 이하의 저가격은 덤핑이다!!
더 이하의 주차기 폭은 불가능하다!!

세계최소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이렇게 다릅니다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직결구동의 新메커니즘



사양

모 델 명	수용 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 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5990	6830
SKY PARK-6	6대	4570	5990	7720
SKY PARK-7	7대	4570	5990	8600
SKY PARK-8	8대	4570	5990	9380
SKY PARK-9	9대	4570	59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59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59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5990	13060

※뉴그랜저급 수용가능 ※턴테이블 내장형도 개발중

지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따라서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수출상담 및 전국대리점 모집중

since 1989
21세기 신주차개념의 주차기 전문회사
창공駐車産業
CHANG GONG INDUSTRY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ADD:#756-271, Gum Sa Dong, Dong Gu, Tae Gu, Korea
TEL:(053)956-8838(代) FAX:(053)984-1998 E-mail:cgp21@chollian.net
H·P:011-507-8838

ADPRO
Architecture Design Professional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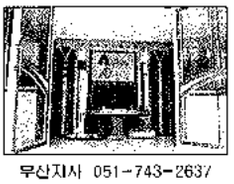
건축 용역의 프로페셔널 그룹.... 에이디프로

이제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050-2638를 이용하십시오.

강남지사 02-3462-2638

서초지사 02-582-2638

인천지사 032-471-2636


부산지사 051-743-2637

광주지사 062-234-2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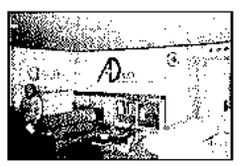
ADpro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용역전문회사입니다.

- 설계수주는 했는데 설계인원이 모자라십니까?
-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그려야할 도면이 많습니까?
- 아르바이트로 외주를 처리하자니 신뢰가 안가고 납품 도면의 질이 걱정됩니까?
- 외주처리 이후의 설계변경시 도면 수정이 걱정됩니까?
- 건축,구조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설비도면,구조계산, 내역서,투시도 등의 모든 업무를 한군데서 턴키로 처리하고자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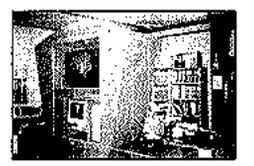
ADpro가 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계획설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업체입니다.
- 독자적인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첨단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귀사의 컴퓨터시스템을 원격으로 컨트롤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설계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싸고, 빠르며, 도면품질이 뛰어납니다.
- 특별히 아파트설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경기지사 032-698-2638


춘부지사 0337-881-2638

대전지사 042-254-2638


울산지사 052-257-2637

충남지사 0417-578-1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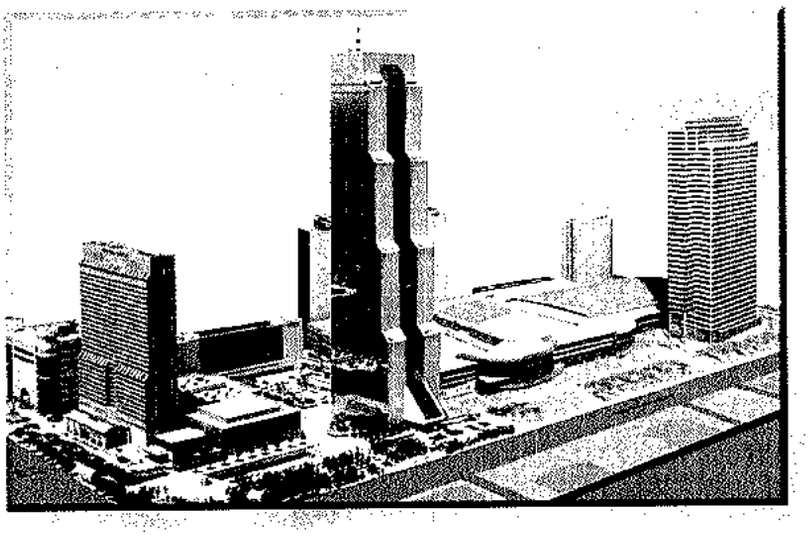
주식회사 부림캐드네트워크

본 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4-3 부림빌딩 2층 전화 02-571-2638 팩스 02-573-7424
연구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7 남동빌딩 6층 전화 032-464-2638 팩스 032-464-2637

5 창사53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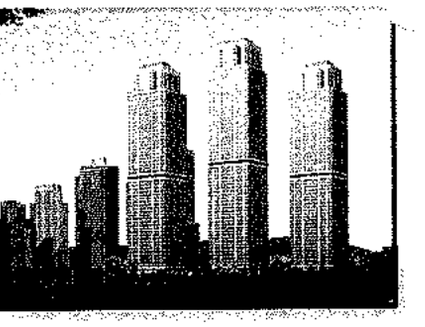
귀하가 설계하는 건축물의 방재(防災)에 관한 모든 것 (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기술협약
- ▶ 미국 RJA(Rolf Jensen & Associates, Inc.)
- ▶ 일본 防災Servic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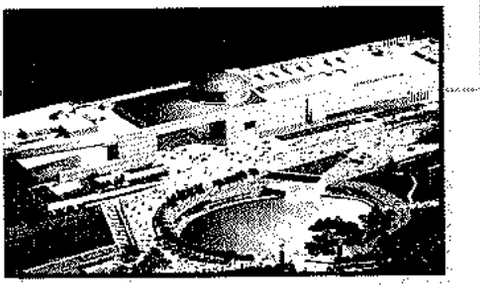


ASEM 및 한국무역센터확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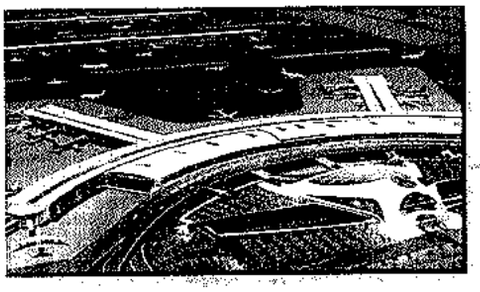
용역분야
- ▶ 방재계획 및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 ▶ 방재분야 안전진단
-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유지관리(점검)·공사
- ▶ 전력시설물의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도곡동 타워 팰리스



세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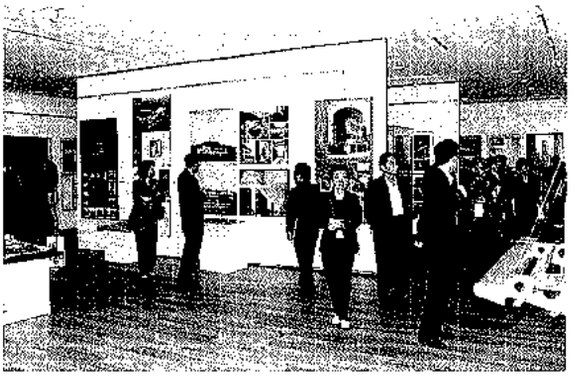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

방재계획 주요실적
- ▶ 포항종합제철 POSCO센터
-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 ▶ ASEM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 ▶ 대우 수영만 타워
- ▶ 부산 제2롯데월드
- ▶ 도곡동 타워 팰리스
- ▶ 고속철도 천안역사
- ▶ COEX부지내 Multiplex
- ▶ 인천국제공항 기내식 시설 "A"
- ▶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 ▶ 현대 목동 시티월드
- ▶ 대우전자 사옥
- ▶ 훈련원 공원 지하주차장 (서울 을지로6가)

http://www.kfpe.co.kr
KFPE 1947
(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ing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8-4 한방빌딩
TEL : 579 - 4111 FAX : 579 - 9045 / 9046
E-mail: kfpe@kfpe.co.kr

대한건축사협회전시장 대관안내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m²)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5만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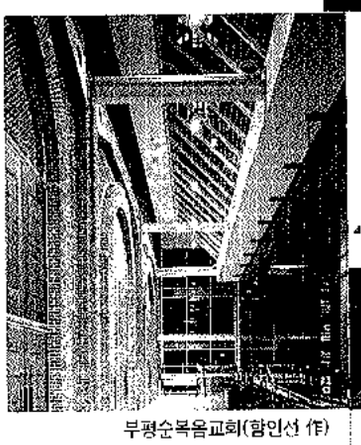
대관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 지점)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0년 3월호, 통권371호

차례 2000 03 371호



부평순복음교회(함인선 作)

제34회 정기총회

	개회사	이의구	22
	축 사	김윤기	24
칼럼	건축단상2제	김낙중	25
작품리뷰 / 부평순복음교회		함인선	27
	대담 : 건축의 구조적 정직성	이은석	34
	비평 : 건축의 방식 ; 형식 ; 양식	함성호	38
회원작품	곤지암주택 II	김석환	42
	미제루	방철린	46
	메탈릭	김인철	50
	경기공업대학	이충언	54
	서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부대진 · 김무현	58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황일인	62
	두산주얼빌딩	강철희 · 이 원	66
작품노트	아름다운 주택을 꿈꾸며	이관직	68
건축만평		유원재	72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6 : 북한(상)		편집디렉터/이왕기	73
	북한현대건축의 변천	이왕기	74
	북한의 도시계획과 그 전망	김현수	80
	북한건축 답사기	김봉건	84
	북한건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김병성	89
건축마당	협회소식		94
	건축계소식		95
	해외잡지동향		101
	통계(2000년도 1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8
	회원현황		110

발행인: 이의구
편집 · 기획 : 편찬위원회
위원장 : 장양순
위원 : 김정회, 조현군, 최동규
편집 · 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 http: //www kira.or.kr
E-mail : hkjo@kira.or.kr hsjoung @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천풍전산인쇄
광고 : (주)이두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D.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 참고: "건축사"는 한국건축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심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사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ntents Vol. 371 March 2000

The 34th General Meeting

Oppenning Address	Lee Eui-Koo	22
Congratulatory Address	Kim Yoon-Gee	24

Column

Two Thoughts on Architecture	Kim Nak-Jung	25

Review / Bupyung Full Gospel Church	Ham In-Sun	27
interview The Structural Honesty of Architecture	Lee Eun-Suk	34
critique Method, Form and Style of Architecture	Ham Sung-Ho	38

Works

Gonjiam Residence Ⅱ	Kim Suk-Hwan	42
Mijeru	Bang Chul-Lin	46
Metallic	Kim In-Cheurl	50
Kyonggi Institute of Technology	Lee Chung-Eon	54
Enterprise Foundation Education Center, Sogang University	Bou Dae-jin & Kim Moo-Hyun	58
The 600th Anniversary Memorial Hall, Sung KyunKwan University	Hwang Il-In	62
Doosan Juyeop Building	Kang Cheol-Hee & Lee Won	66

Design Note

Dreaming the Beautiful Home	Lee Kwan-Jeek	68

Cartoon	Yoo Won-Jae	72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16 : North Korea	Lee Wang-Gee	73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odern Architecture	Lee Wang-Gee	74
Urban Planning of North Korea and its Prospects	Kim Hyun-Soo	80
A Survey on North Korea Architecture	Kim Bong-Geon	84
How are We to Approach the Architecture of North Korea?	Kim Byung-Sung	89

Architects' Plaza

KIRA News	94
Archi-net	95
Overseas Journal	101
Statistics	108
Members	11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7 · 강동구건축사회/484-63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3-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7-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노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6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6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5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90-0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6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7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9-728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6)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6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2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9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3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9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943-5090 · 김해시건축사회/(052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1-8403 · 진해시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601

단합된 힘과 지혜로 새천년 내실있는 협회를…

Towards a Solid Institute of the New Millennium Through Unified Strength and Wisdom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 - Koo

대의원 여러분 !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
특히,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강윤모 건설교통부 차관님 !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
굴곡으로 얼룩졌던 지난 한세기가 지나고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됐습니다. 의욕에 찬 새천년의 출발점에서 첫 총회를 맞고 보니 전과 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총회는 희망찬 내일을 향한 우리 건축사들의 각오와 의지를 확인하고 미래의 비전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여서 더욱 기대가 앞섭니다.

대의원 여러분 !
오늘의 우리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 건축과 건축사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달라졌으며, 또한 세계건축계에도 국가간의 협정과 룰이 강조되는 등 큰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변화의 흐름은, 심지어 건축에 대한 고정된 가치관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구시대의 경직된 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식 개혁과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시대를 맞은 우리 건축설계분야 역시 때묻은 과거의 의식과 관행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해 선진한국건축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진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제살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이나 덤핑 등 구시대의 고질적 병폐들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건축사의 명예와 자존심이 빛나는 새시대를 만듭시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이어 새천년이 시작되는 올해의 건축계 화두 역시 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입니다. 본인은 자격상호인정 문제가 비단 건축분야 뿐만이 아닌 교육, 건설, 통상 등 국가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기에, 취임초부터 수차에 걸쳐 정부 당국과 언론에 그 파급영향 등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관련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고, 사회 각분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이를 참고로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건축관련단체들이 주축이 돼 공청회를 여는 등 현재도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

전문직서비스시장 개방 및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국가간 협상은, 각국 건축계에 구조변화라는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의 돌풍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글로벌시대 건축환경의 변화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우는 발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격상호인정 문제만 해도 우리나라는, 건축관련 국제기구조직들인 ARCASIA와 UIA에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각기 가입돼 있어 국제사회에 한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건축계의 여론이 그렇듯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실무건축사 단체인 우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협회의 UIA가입이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입준비작업을 계속해 왔고 결국 이러한 노력끝에 ARCASIA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UIA본부에 정식 가입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UIA가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7천여 회원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그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대의원 여러분 !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 건축사사무소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협회 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 등을 주요골자로 건축사법을 개정, 곧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이에대해, 군소단체들이 난립해 이익단체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보장 위에서 그 실행이 검토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굳은 결속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전 제도권내에서 보다도 더 활발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전문자격사단체, 영향력 있는 사회전문가단체로의 변신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협회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는 비단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임의단체화의 길을 걸어온 여타 단체들의 경우,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조직이 분할 또는 난립되는 일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타 분야들 보다 더 높은 전문성과 인격을 지닌 우리 건축사들이 소아적 이해에 얽혀 이합집산하는 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의단체 든 법정단체 든 협회의 존립은 회원을 위한, 회원의 것이며 강한 결속력만이 우리 모두의 권익과 위상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근시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분열된다면 공멸의 결과 밖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축설계시장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므로써 말그대로 적자생존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건축설계업계가 시장경제원리와 개방체제를 기초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축문화의 저변확대와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중소 건축사사무소들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아울러 각종 업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관련 필요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같이 협회가 새천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내실있는 단체로 거듭나는 데에는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총회에 건축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건축의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협회가 새로운 세기에 걸맞게 거듭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오늘의 총회가, 단합된 힘으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힘찬 출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합니다.

건축열정이 한국 건축의 새바람으로 승화되길…

Architectural Passion as Catalyst for a New Wave of Korean Architecture

김윤기 / 건설교통부장관
by Kim Yoon-Gee

존경하는 이의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천년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장기간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건축계도 국가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이제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어려웠던 시기를 건축사 여러분과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 나왔다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적지 않은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건축설계시장 개방과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건축사 자격제도의 선진화가 요구되며, 국내적으로도, 주택 보급률 증가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건축수요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축시장의 변모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우리 건축의 발전과 건축문화의 장래가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건축인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에 맞춰 건축사 여러분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그간 건축사 여러분의 기여와 노고에 힘입어 수많은 아파트와 건축물들이 설계되어 주택보급확대와 도시화 진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건축의 질적 발전을 다소 등한시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건축수요의 다양화 · 고급화 · 첨단화 추세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부조리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축인 모두가 합심하여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1세기는 문화와 지식이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건축은 인간의 창작력과 기술의 조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해가는 문화지식산업으로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협상 진전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축교육학제 변경, 응시자격 조정 등 건축사 자격제도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건축사 여러분께 혼란과 어려움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단일시장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설계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로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시장에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건축사 여러분과 협회, 나아가 건축계 전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세계 건축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여러분을 도와 한국건축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이제 대망의 21세기 새천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흥분과 기대만큼이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새시대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서 나간다면 보다 큰 결실이 우리에게 찾아들 것입니다. 지금껏 건축사 여러분이 일구어낸 많은 일들과 그 뜨거운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한국건축의 새바람으로 승화되길 기대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건축단상 2제
Two Thoughts on Architecture

김낙중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by Kim Nak-Jung

정보화 시대

금년도에 들어와서, 새천년이다 정보화 시대다 하여 세상이 더욱 떠들석하다. 똑같은 날인데도 2000 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갑작스레 새 날과 새 세상을 맞은 듯 하다. 실제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기말을 지나왔고, 다가올 새세기는 더욱 심한 변화와 속도를 예견케 한다.

건축도 금세기에 들어 모던과 탈 모던의 큰 흐름중에 다양한 분화를 겪어 왔으며, 한 흐름이나 주장들이 이해되고 검증되어질 여유도 없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접하곤 해왔다. 그것도 과거의 계몽주의적 시대와는 달리 한시대를 주도하는 큰틀이 없이 동시 다발적인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라는 거울에 비추어 현재의 좌표를 읽고, 앞날의 좌표를 예측하여 보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좌표를 읽을 틈을 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군림해오던 형이상학적 틀이 흔들리고 다원, 불확실, 관계, 타자...등의 상대적 가치관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중심없이 이동하는 - 부유하는 좌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듯 다원화되고, 불확실하며, 상대적 가치관이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답게 건축도 다양한 해석과 제스츄어로서 부유하는 듯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통하는 -anything goes-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진리, 본질, 영원, 순간, 절대, 상대, 고급, 저급....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선택으로 남아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의 당연한 현상으로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는 초조하게 우리들의 선택을 재촉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극대화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보는 오히려 그 의미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서 진실을 담고 있는 정보를 가려 내야만 하는 처지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여과장치와 기준, 참조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참조점은 그 시대의 급변하는 취향에 편승하는 공시적 관점으로만은 얻을 수 없고, 역사와 전통속에서 변하지 않아온 가치를 찾아내는 통시적 관점속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적 역사와 공간적 우주는 그 자체가 순환의 장(場)이다. 건축도 그안에서 항성을 유지한 채 단지 시대의 취향에 따라 그 모습(appearance)만을 달리할 뿐이다. 역설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반(反)속도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시대의 취향(fashion)보다 고전의 가치를 탐구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홍수속에서 진실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참조점을 찾을 수 있고,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속도와 변화의 시기일수록 과거의 교훈에 눈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축을 평가한다는 일

우리 사회에 건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각종 설계 경기가 급증하여 왔으며, 그 방법도 다양해졌다. 설계경기가 결국 여건에 맞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 아쉬움이란 선정된 안이 최선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주된 원인은 크게 건축을 평가하는 안목의 미흡과 평가방법의 불합리로 볼 수 있다. 건축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그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기능, 형태, 공간의 구성을 통하여 미(美), 상징, 시대성 등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어렵고 모자란 일이다. 미술이나 건축을 평가한다는 일은 통합적 관점에서 평가될 일이지, 분석적, 계량적 방법으로 평가될 일이 아니다. 즉, 깨달음의 차원이지 지식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건축심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수결이나 점수제와 같은 계량식의 심사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턴키(turn-key)심사와 같이 형태의 의미나 공간의 질, 통합적 상징성들과 같은 건축의 핵심가치가 구조적 안정성이나 기계설비의 효율성, 경제논리 등과 같은 부차적 가치에 의해 전도될 수 있는 평가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가치가 중요한 경우의 건축도 있다. 그러나, 건축에서 핵심가치는 절대성을 갖고 있지만, 부차적 가치들은 대개 선택의 문제이다. 통합적 안목은 건축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탐구하는 중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은 나눠줄 수 있지만, 깨달음은 나눠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 한방울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건축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지식에 직접 의존하여서는 불가능하고,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다수결이나 점수합산제와 같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건축을 평가한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통합적 안목을 갖춘 현자 한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다수의 그렇치 못한 전문가 보다 나을 것이다. 세계적 걸작으로 꼽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심사회에 늦게 도착한 에로사리넨에 의해서 낙선작 중에서 부활하여 실현된 일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깨달음을 통해 통합적 안목을 갖춘, 이러한 현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이다. 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역시 현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후손들에게 건축문화 유산으로 남겨질 중요한 작업을 현재의 모양갖추기식의 제도로 계속해 나갈 수는 없다. 최선이란 항상,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여건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선, 평가의 결과를 좌우하는 심사위원의 선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교수 등 학계에 종사하거나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라면 무조건 이러한 현자에 해당할 것이라는 단순한 관념을 버리고, 그사람의 연구분야, 작품성향, 경력 등의 일반적 배경(background)외에 그사람이 심사에 참여했던 프로젝트(project)의 사후 평가를 조직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람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즉, 해당 프로젝트의 심사후 평가와 입주후 평가, 각자의 심사평 및 발언록 등을 데이터화 함으로서 심사실명제를 통한 심사위원, 즉 현자 pool을 평소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올바른 심사위원의 선정이 훌륭한 건축문화를 남기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다. 다시 말하지만, 건축을 평가한다는 일은 지식과 계량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과 질의 문제이다. 건축의 핵심가치와 부차적 가치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모양 갖추기식의 심사를 거치는 지금의 심사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부평 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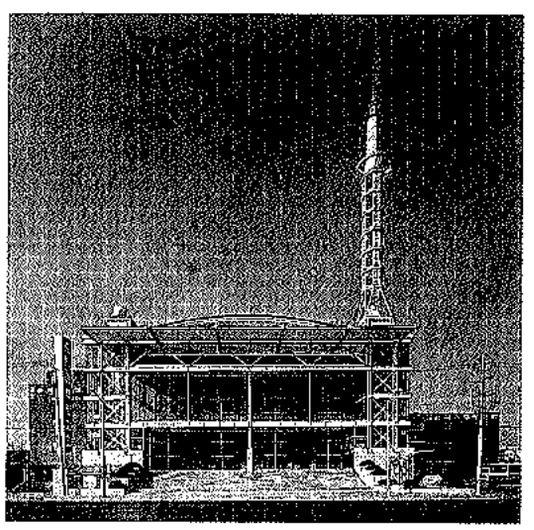
작품리뷰 review

Bupyung Full Gospel Church

함인선 /인우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m In-Su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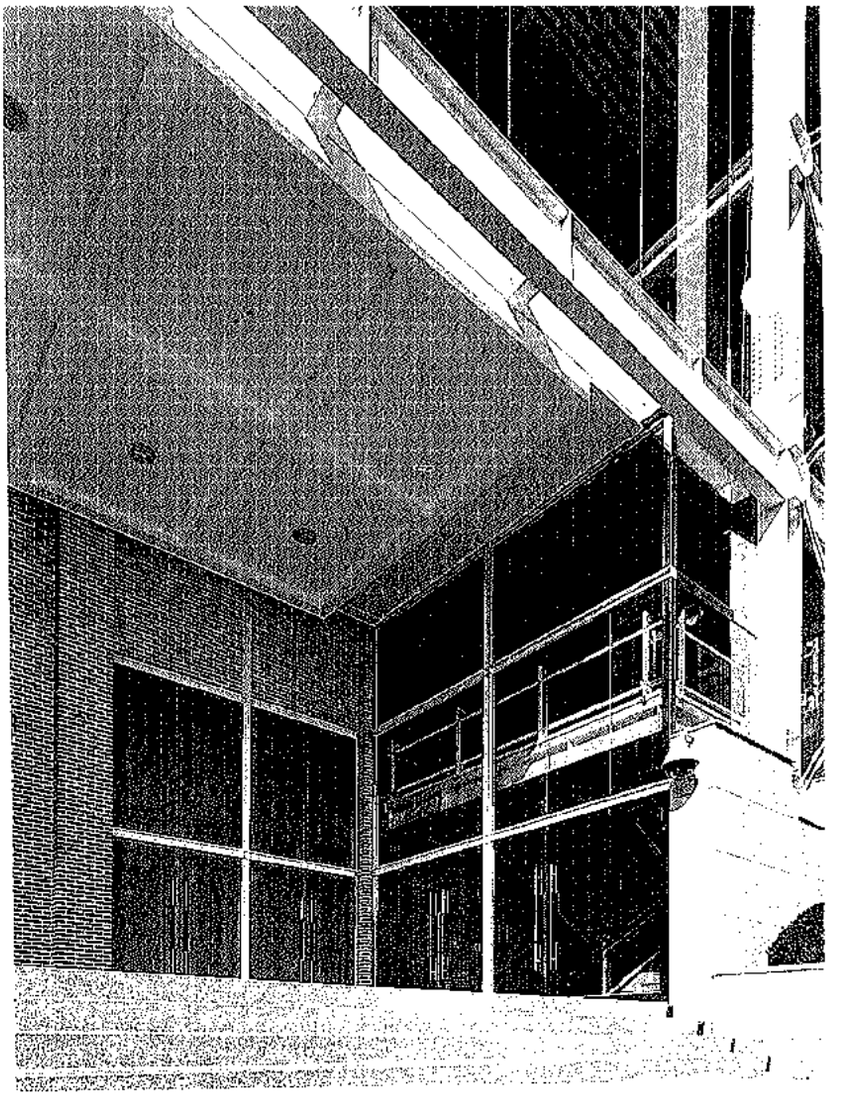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15-1외 3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5,567.90㎡
건축면적	3,101.83㎡
연면적	9,702.87㎡
조경면적	885.04㎡
건폐율	55.71%
용적률	152.79%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베이스패널
내부마감	ALC블럭위 전용마감재
시공	장학건설(주)
설계기간	98년 2월~98년 12월
공사기간	98년 10월~99년 12월
기계	대웅산업
전기	불이전력
구조	창 · 인우구조
설계담당	황세열, 이채신, 윤돈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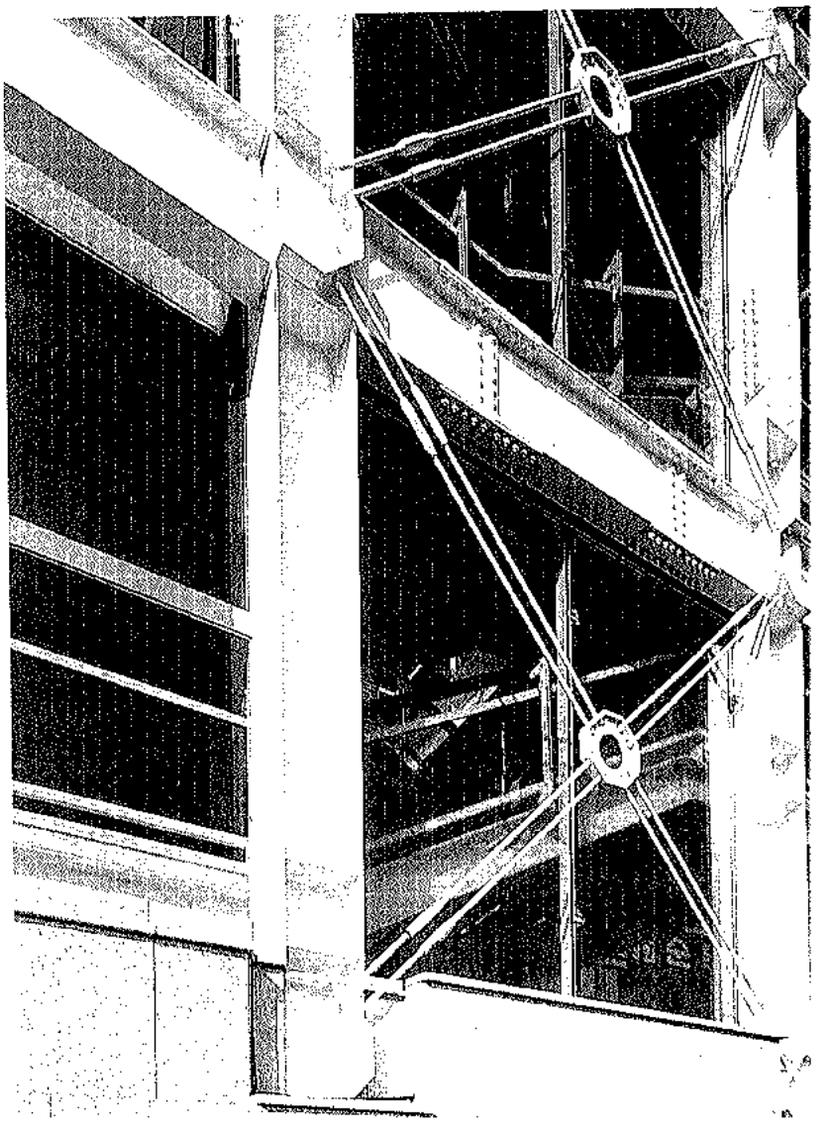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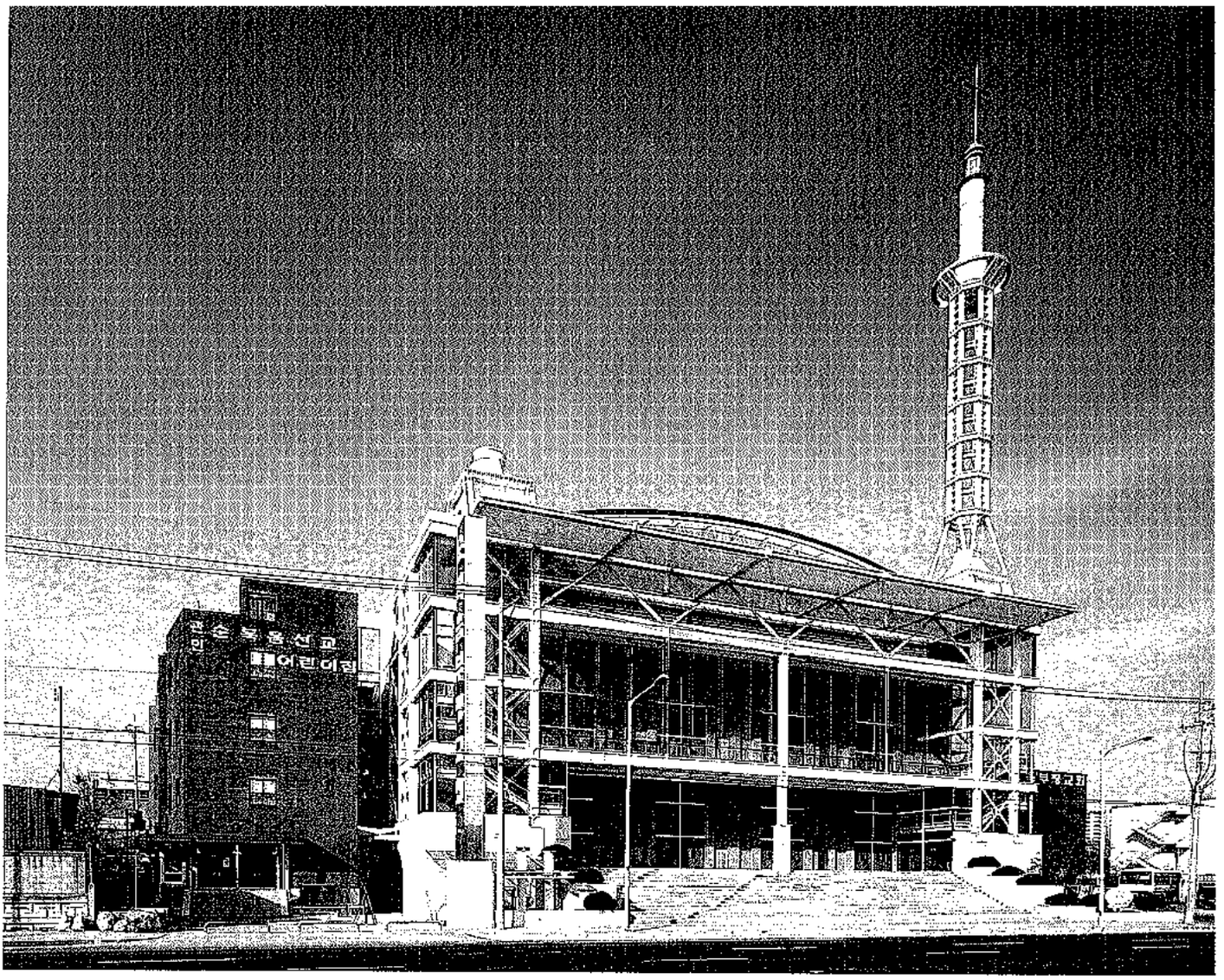
개신교 교회 건축은 개신교 그 자체만큼이나 딜레마로 가득 차 있다. 교회이지 않으면서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의 기획은 신을 내재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의 신이 교회의 제도, 공식적 성경해석, 교회당 등으로 외재화 되어 있었다면 이제 개신교는 신의 거처가 각자의 내적 공간임을 가르친다. 이로써 중세 천년 서구를 지배하던 교회의 독재는 끝났지만 그것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교회건축 역시 사실상 종료되었다. 교회당이 더 이상 '천국의 모형'도, '신의 거처'도, '천상으로 통하는 통로'도 아닌데, 교회건축에 어떤 캐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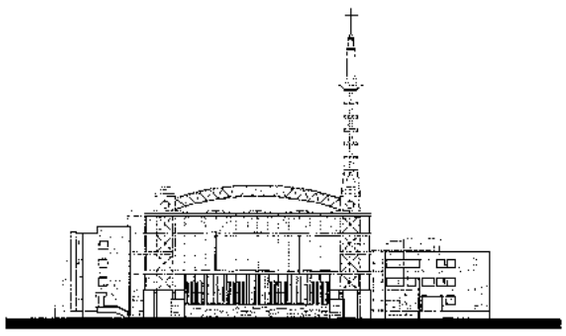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에 있어 신의 표상은 견고한 물질성이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차폐된 신의 도성. 이것이 고딕에 이르면 비물질화가 된다. 공중에 떠있는 듯한 가는 구조, 빛으로 충만한 공간. 물질에서 빛으로 주소를 옮긴 신은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는 아예 인간의 마인드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신의 화육(incarnation)을 경험하는 성례전 대신 말씀 선포가 교회당의 주요 기능이 되고 신의 대리인과 인간의 만남이 각자가 신의 처소인 성도들끼리의 만남으로 바뀐다.요컨대 개신교 교회당은 상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신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현식의 주장이야말로 가장 개신교적이라 할 수 있다. 성약교회를 통해 그는 "칼뱅이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구별된 자)의 모임'에 있다"고 보고, 성소(alter)와 회중석(nave)으로 이분된 전통적 양식을 거부하는 파격적 평면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그는 "초월성의 건축적 표현이 성스러움의 부정적 단면만을 조장하는 폐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은 오브제적 또는 감동의 공간 등에서 떠나 오히려 지극히 프로그램, 즉 이벤트 또는 사건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한다. (이상 '건축과 환경 9711'에서 인용)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인간은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대로 '만인제사장'이 되어 그 어떠한 종교적 권위의 매개 없이도 '신'을 만날 수 있는가? "너희 두세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예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교회의 조직, 제도, 교리 물리적 장소 같은 것은 모두 '필요악'일 뿐인가? 초월적인 것을 암시하는 건축적 장치는 민현식의 말대로 "위압감, 두려움, 경악, 숭배,

왜소, 무의미"만을 조장하는 것인가? 근대 이후 권력은 신으로부터 개인으로 옮겨졌다.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신이 사라지고 이제 신은 개인의 종교적 행위의 대상으로 '소비' 되어지는 위치로 바뀌었다. 이제 세상은 어른이 되었다. 어린아이가 '상징'과 '意'로써만이 신을 알 수 있었다면 어른은 그런 것 없이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성전을 헐라"고 명했던 예수의 가르침에 가까운 기독교적인 태도일 것이다. "'삶이 없는 것처럼' 신을 살 것이 아니라, '신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참 기독교도"라고 주장하는 본훼퍼의 언급을 기대어 말한다면 '인간이 없는 듯한' 신의 공간을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신이 없는 듯한' 인간의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니 교회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이 차라리 현대 교회건축의 목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아마도 그것은 영원히 미완성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식과 존재조건 때문일 것이다. 현상학이 밝히듯이 즉자적(in-itself) 지각 즉 구체적인 맥락 혹은 상황을 벗어난 순수한 지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영역' 역시 데카르트식의 순수 코키토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지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월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육화된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른 된 세상'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징과 제도가 살아남고 유효한 이유이다. 이 교회는 대중이 원하는 교회당의 상징 즉, '뾰족탑'과 '붉은 벽돌'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공장건물의 적벽돌 벽을 연장하여 본당 외벽을 구성하였고, 투명한 새 표피를 구성하는 철 구조의 연장으로 첨탑이 올라갔다. 그 두 요소를 직설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 귀결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어쨌건 순수한 모더니스트들이 본다면 '대중추수주의'이고 좋게 봐주어야 '절충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건축의 한계'라는 것을 감히 고백한다. 근대건축이 그토록 치열하게 순수공간과 절대미학을 찾았건만 그런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이던가? 건축을 비움으로써 순수한 건축이 탄생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루터가 신의 대리자를 없애고, 각자를 신으로 만든 결과가 절대 고독이고, 결국은 다시 이 시대의 개신교가 그들이 대항(protest)했던 구교를 닮아 있듯이, 건축에서도 대리자(상징)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그렇듯이 건축도 땅의 소산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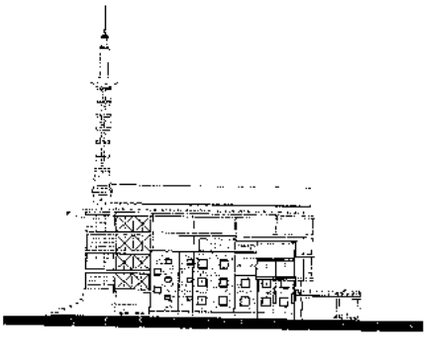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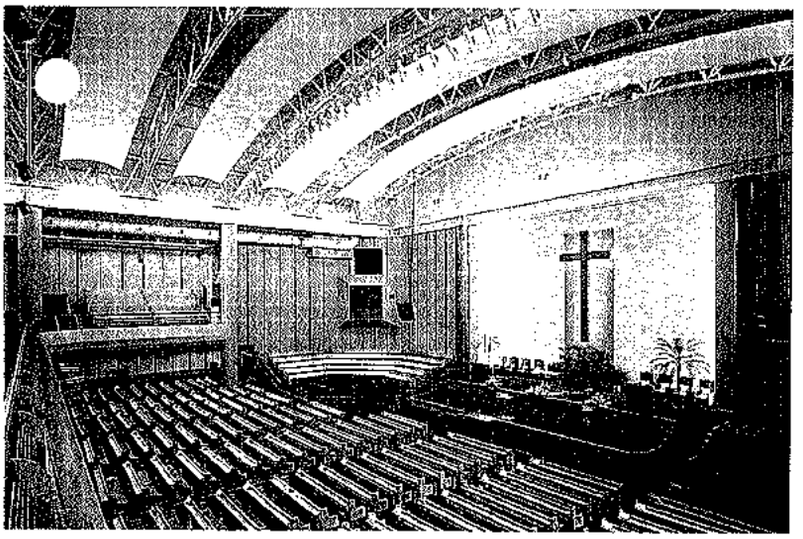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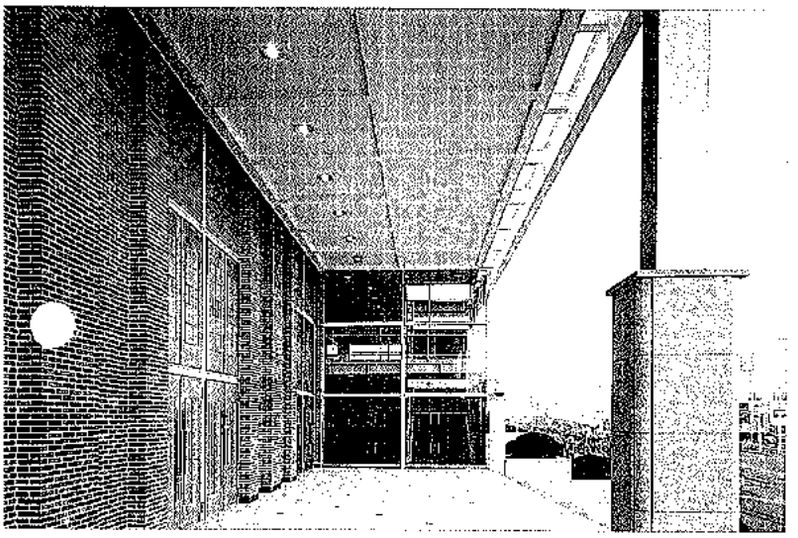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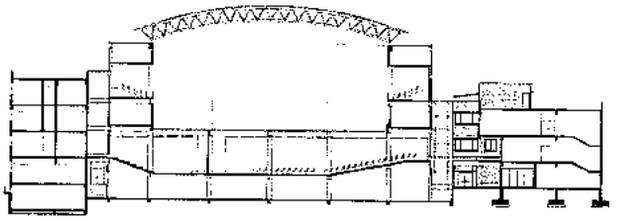
The architecture of Protestant church is as complex and dilemmatic as the history and acceptance of Protestant church itself - it needs to be a church without asserting itself too much as such. What Martin Luther and other Reformists sought after was to internalize the presence of God. When God was externalized as the church system, dogmatic reading of the Bible or church architecture, they on the other hand taught that the place of God was in people' s own hearts. This put an end to the Western Church that has dominated its society for a thousand years of the Middle ages, but that was not all. It also terminated the tradition of church architecture. Since churches were no longer 'a model of heaven,' 'the place of God' nor 'the gateway to heaven,' it was quite evident that there couldn' t be any more canon to them.

In the Romanesque churches, God was in the solidness of materials. This kind of religious fortress, protected from the evils of the world, was then dematerialized in the Gothic era. The skeletal structures floating in space, filled with light, present the transfiguration of God from substance to light. And since the Reformation, He again relocated Himself to the mind of the people. The main role of churches' holy ceremonies for recognizing the incarnation of God was replaced by Bible readings. In short, the churches of the Protestants were, both symbolically and functionally, space for man, not for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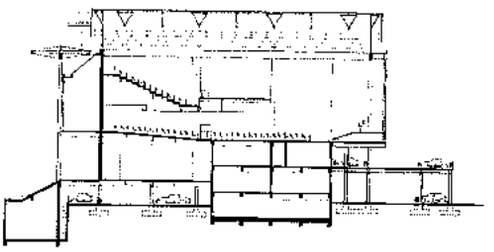
In this respect, no other remark is more true to its spirit than that of architect Min Hyun-sik. In designing Sungyak Church, he asserted that "the essence of the Protestant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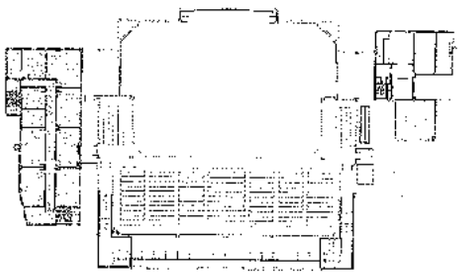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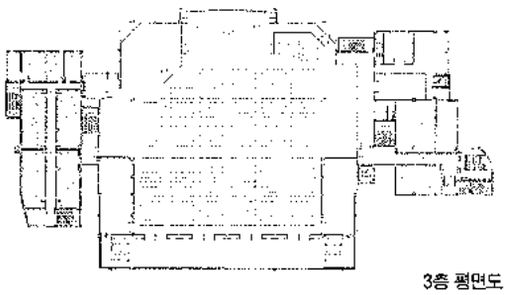
종단면도

0 2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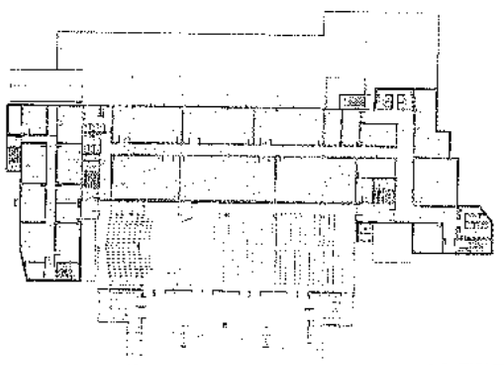
following Calvinism, is in the gathering of believers," and suggested a plan that marked a violent rupture from the traditional scheme consisting of altar and nave. Furthermore, he noted that "architectural expressions of transcendence have always resulted in displaying the negative aspects of holiness," and hence he tried to disregard the objective, emotional elements and placed his starting point at "pure program - events and happenings." (excerpted from C3, Nov 1997.) But is this so? Can people really, as the Reformists say, succeed to form a connection with God without the medium of religious authority? Can we literally take the words of Jesus that He will be wherever "the two or three of you are," and regard the organization, system, doctrine and architectural works of the church as necessary evils? Since the modern ages, power was handed down from God to us people. The notion of God as the core of existence has vanished. Instead, He became "consumed" as the object of personal religious beliefs. The world is more mature now - Whereas a child feels God by symbols and divinity, a grown-up can know Him without these. Jesus Himself actually taught us to destroy the sanctuaries, and, as the saying goes, it is better to live the life as if God is not here than to live the life of God as if you don' t have a life of your own. Translating this idea architecturally, we come up with an image of modern church that is rather a space of man than of God. Taking this as a should-be, however, the reality is still far different.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conscious and existence of mankind are forever always in a state of incompleteness. As phenomenology has taught us, a state of pure recognition, that of itself, irrespective of concrete context actually does not exist. To learn about the transcendental, we must experience its reified form, something our body can directly relate to. The world may be mature, but for this reason, it still calls for symbols and systems. This church retains the generally accepted elements of a religious architecture - the presence of a tower and red bricks as the choice of material. The exterior wall was built in bricks in extension from the existing factory building, and the tower was constructed as an extension of the steel structure which furnished a new transparent skin. These two elements were not direct imports from cliched images but results of logical conclusion. Still, I understand that, to the eyes of a pure modernist, it would be seen as eclectic, if not mass-driven. But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is is precisely the limit of architecture. Modern architects aspired to construct pure spaces and absolute beauty, but to no avail. These days no one is naive enough to believe that the construction of an empty space leads to pure architecture. Luther has done away with the mediating representative of God and made each of us God Himself. What we gained from this, however, was absolute solitude, and the Protestants are now returning to trend of the very ones they opposed to - the Catholics. It would also lead to similar results if we had eliminated the role of the architectural medium or symbol since architecture, just like us, is an offspring of this real world.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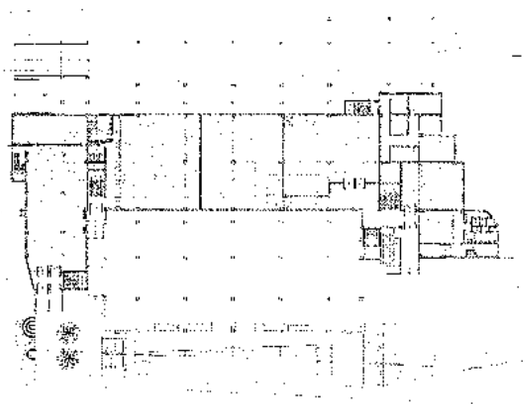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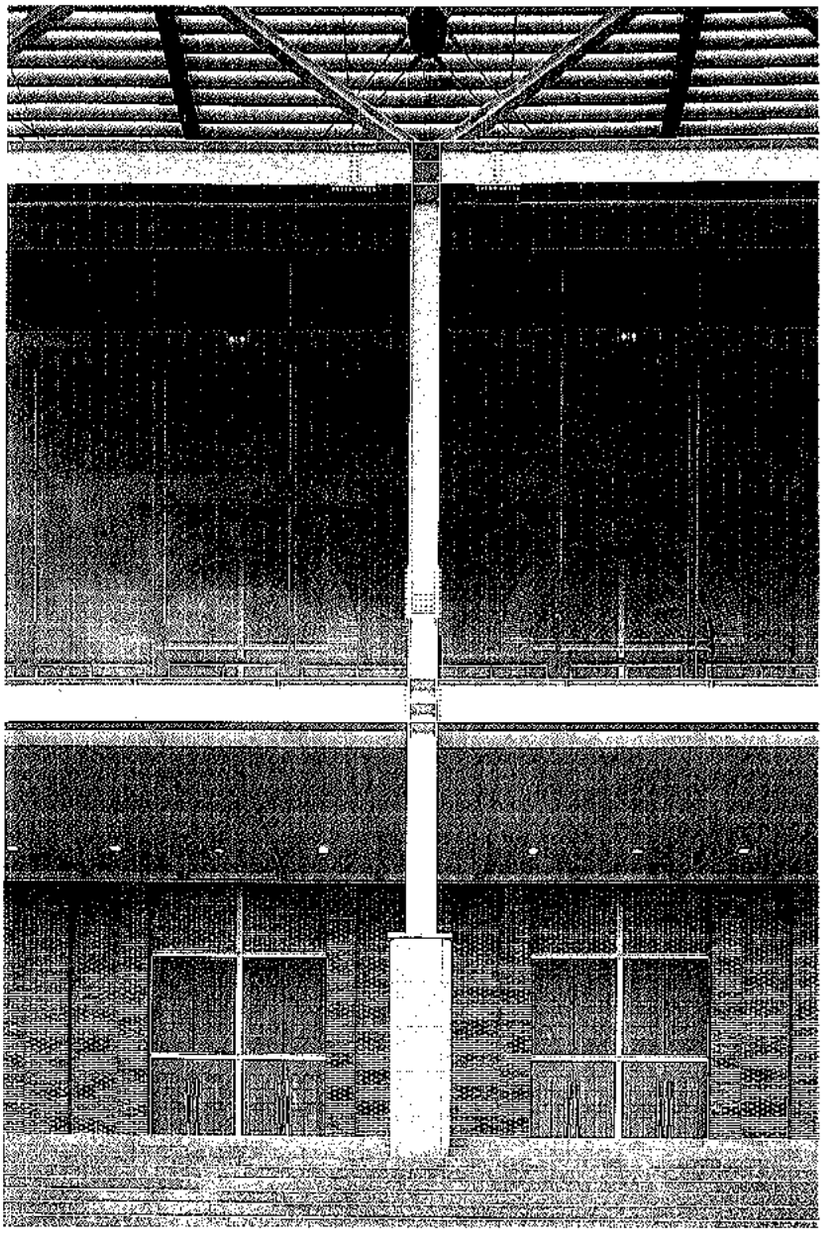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 2 5 10



1층 평면도



Location 215-1 Samsan-dong, Bupyung-gu, Inchon Area
Classification Semi-Industrial Area
Site Area 5,567.90m²
Building Area 3,101.83m²
Total Floor Area 9,702.87m²
Landscape Area 835.04m²
Building Coverage Ratio 55.71%
Gross Floor Ratio 152.79%
Stories 4 Stories, 1 Basement Floor
Structure Stee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s Base Panel
Interior Finishings Custom-Made Finishing over ALC Blocks
Construction Changhak Engineering, Ltd.
Design Period Feb 1998 - Dec 1998
Construction Period Oct 1998 - Dec 1999
Mechanical Installations Daewoong Industry
Electrical Installations Bul-e Electronics
Structural Design Chang · Inwoo Structural Engineerings
Project Designers Hwang Se-yul, Lee Chae-shin, Yoon Don-young

부평순복음교회 대담 interview
Bupyung Full Gospel Church

건축의 구조적 정직성
The Structural Honesty of Architecture

건축사 / 함인선(인우건축)
대담자 / 이은석(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3월6일 10시
장소 / 인우건축 소장실

대담광경 (왼쪽:이은석, 오른쪽:함인선)

이은석___ '건축은 반역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부터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축은 반역이다' 라는 제목 자체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야방가르드 형식' 또는 'new frontier 정신' 과 관계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건축가들은 항상 '안전' 에 대한 조심성 때문에 자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구조적인 부분에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의 구조사무실들과 많이 이야기 해보니 당연히 가능한 계획인데, 한국에서는 왜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함 소장님은 우리 나라 건축디자인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구조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인선___ 토목구조물의 경우는 구조적인 결과가 바로 형태적인 것을 결정하지만, 건축물에 있어서 구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건축구조에는 구조적 잉여(structural redundancy)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축가의 상상력을 제한시킬만한 불가능한 구조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조는 건축가가 원하는 형태나 공간을 보강(reinforcing)해주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서의 난점이라 한다면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너무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인 구조가 될 때의 건축미학적 문제입니다. 구조가 노출되는 건축 디자인에 있어 구조 요소가 어떻게 전체 디자인에 통합될 수 있으며, 디테일이 자체적인 미적 완결성을 얻느냐가 어려운 문제이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석___ 작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볼 때 그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 소장님 본인은 소위 '하이테크' 건축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인선___ 하이테크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초기 하이테크는 모더니스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테크놀로지를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기술로 인해 인간은 노동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신념하에 기계를 중요한 메타포로 사용한 것입니다. 대량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구조 자체가 그대로 구조이면서 입면의 장식이 되고, low cost를 실현하려 하는 노력이 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후기 하이테크는 구조가 지나치게 장식적이 되면서 매너리즘의 경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비싸집니다. 저의 경우, 초기의 하이테크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석___ 함 소장님이 작품에 임하는 자세는 기술이 건축의 노예로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축의 하이테크적 요소가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혹시 본인 작품 속에 후자와 같은 측면이 없는지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함인선___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노꼬레의 첨탑부분이나 제자교회의 목상 구조물은 구조적인 의미는 없으나, 매스의 완결성을 갖추어 주는 스크린으로서 기능하는 장식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아닌가가 장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식이 문제인 경우는 그것이 과도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검소함을 위하여 출발했을 노출구조가 오히려 더 비싸진다든지, 현란한 디테일에 의해 깊이 없는 건축적 내용을 은폐하려든지 할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건축에 있어 구조나 디테일은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요즘 흔히 사용하는 비싼 디테일들이 아닙니다.

이은석____**교회 종탑을 예로 들면 그것은 장식이지만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상징적 의미 자체가 분명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교회가 체육관이나 오디토리움과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적 내용을 위해 갖해지는 장식 이외의 건축적인 부분은 실제적인 기능과 구조의 필요에 의해서만 합리화가 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함인선_____그렇습니다. 예컨대 두 형강이 결합을 한다 했을 때 볼트 숫자만 맞추어 무심하게 결합시킬 수도 있고, Viollet-le-Duc이 철골의 결합점을 인체의 관절로 보았듯이 그 조인트가 미학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의 장식화는 이런 범위 내에서만 타당성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출되는 구조는 지나치게 노골적이지도, 지나치게 장식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의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은석____**부평 순복음 교회에서 긍정적인 점은 기존 공장 건물을 활용했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새 구조체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구조적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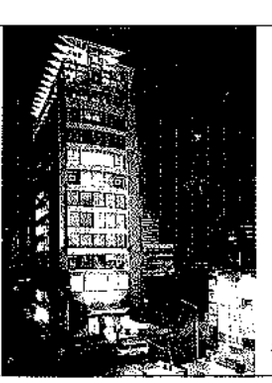
함인선____공장으로 쓰던 기존의 2층 RC 구조 위에 두 개 층이 더 올라가야 했으므로 새 구조는 가급적 가벼워야 했고, 더구나 증축 부분이 장스팬을 요구하는 회중석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벽돌 마감 건물을 어떻게 하면 새 디자인과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해결안은 본당부분은 기존 건물 벽의 연장으로써 닫힌 공간으로 만들고, 그 앞쪽의 로비를 싸는 외벽은 투명한 스킨을 가지게 하므로써 이중 피부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었죠. inclosed된 본당의 외벽은 기존 건물의 재료인 벽돌이 되고, 투명한 새 skin은 가는 철골과 유리를 이용하여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석____**기존의 공장의 벽돌 벽체를 하나의 문맥으로 인정하고 유리 스킨 안에 있는 교회의 파사드를 결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그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모더니스트들이나 하이테크 건축가들의 가장 큰 약점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더불어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해 무력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기서는 어떤 대안을 내었다고 보십니까?**

함인선____이 교수도 교회 건축을 의뢰 받으면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교회답게 해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답다라고 할 때 아마도 붉은 벽돌과 뾰족탑이 아이콘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모더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계도의 대상일 것입니다. 모더니스트들이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추상적인 미학이나 순수공간을 대중들에게 강요하며 따라오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중들은 그것에 대해 소외감만 느낄 따름이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어쨌건 붉은 벽돌과 뾰족탑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지만, 교회임을 알리는 장치로 나름대로 의사소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자교회

청운빌딩


우노꼬레

이은석___콜린 데이비스는 하이테크 적인 요소가 glorification of technology, omniplatz, mass production, plug-in-pod , 즉 기술에 대한 찬미, 하나의 큰 면적을 가지고 나누는 것,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재료나 디테일의 사용, 화장실이나 디테일 한 부분을 끼워 넣는 것 등으로 보았는데, 뒤의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가 이번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까?

함인선___기존의 분절이 많은 건물을 새로운 피부가 전체적으로 덮었다는 면에서 결과적으로 omniplatz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재를 비롯한 주요 마감재는 대량 생산된 조립식 부재라는 면에서 또한 구조모듈에 의해 반복 적용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mass production도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renovation을 하는 건물이다 보니 plug-in-pod가 적용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plug-in-pod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 건물의 life cycle에 적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의 기대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renovation 자체가 그것에 공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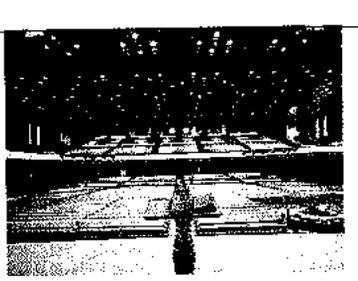
이은석___실제로 이러한 면들이 건축 시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함인선___이 프로젝트에서도 다소의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 완성한 분당 소망교회의 경우는 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등을 사용해서 평당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건축비용 초기비용 뿐 아니라 유지비용과 그 건물의 수명이 끝났을 때의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절감하려는 노력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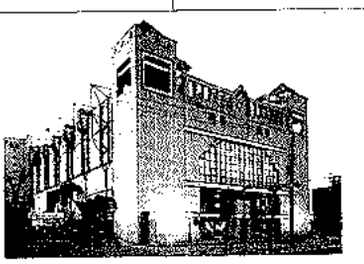
이은석___지금까지 기본적인 건축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는데, 교회로 좀 더 들어가서 함소장님은 교회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교교회와 구교교회의 성당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함인선___신교 교회는 개신교 자체만큼이나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일은 외재화되어 있던 신을 내재화시킴으로 일체의 제도적 형식적 틀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로써 교회당의 건축 역사도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각자가 신의 처소인 성도가 모이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원칙대로라면 개신교에는 교회당이 필요없는, 오히려 교회같은 교회가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더니스트들의 균질적 공간, 보편적 형태가 가장 개신교적인 교회에 적합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상징이 없는 교회가 참다운 개신교적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징과 비의, 외적 형식을 통하지 않고는 종교체험을 할 수 없는 인간은 '교회 같은 교회'를 원한다는 자체가 자기 모순이 아닌가?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딜레마와도 관계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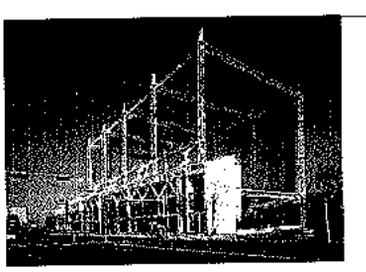
이은석___종교 개혁가 Calvin은 교회 안에 강연하는 테이블 외에는 아무 것도 놓거나 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캘빈이 설교했던 곳에 가보면 장식이 많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없는 편에 속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은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자교회를 보았을 때, 철골이 노출된 구조적으로 정직한 건물도 아니고, 외부의 재료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실내의 프로그램 등 제가 본 교회 건물 중 가장 풍요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사치스러운 교회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개신교에서 최대의 덕목으로 치는 근검, 절약의 측면에서 모순



성락교회 본당



성락교회 본당



청학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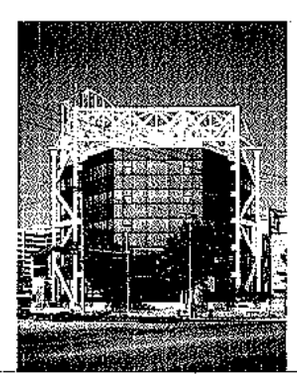
이 아닌가? 검소함에 대한 가치와 신의 영광을 천미하기 위한 사치 이 대립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으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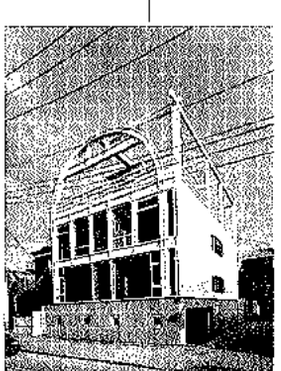
함인선___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저는 '과연 그것이 건축가의 몫인가' 라고 되물고 싶습니다. 제자교회처럼 평당 500만원이 들어간 교회에서부터 분당 소망교회처럼 평당 100만원의 교회까지 해보았지만, 건축주가 좋은 교회를 원한다는데 건축가가 사회를 생각해서 공사비를 줄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주 값싼 교회를 원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건축가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건축가의 카운터파트는 건축주라기보다는 건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중 얼마를 효용성 있는 곳에 쓰고, 얼마를 장식에다 쓰느냐하는 배분의 문제이지, 500만원을 절약해 선교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몫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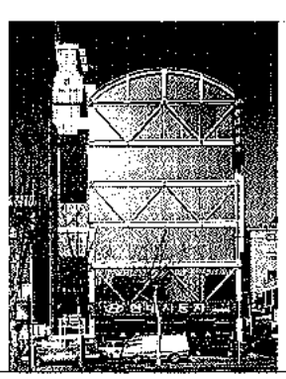
이은석___교회건축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평당 1000만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설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100평 미만인데, 20억 정도로 분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값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돈을 조금 들여서 깨끗하게 지으면 온갖 지탄을 받는데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교회도 본래의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자기 삶의 수준 정도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개신교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가난한 척, 누추한 집에 사는 척 하는 것은 더 우습고 기증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인선___그러한 지탄을 받는 것은 아마도 이 시대의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건축을 통해 과시를 하려고 하고, 교회당을 백화점 같이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 자본에 예속이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 이런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가가 주어진 예산 속에서 건축적 양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듯이 교회는 교회 자체의 양심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산의 몇 %를 건축에 쓰고, 몇 %를 봉사하는데 쓰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양심에 따르는 것이지 검소한 교회의 획일적인 잣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석___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균형있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비싼 교회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구조적 정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척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 특성을 충분히 잘 유지하시면서 더 근본적인 부분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건축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락교회 교육관


신사동 주택


태신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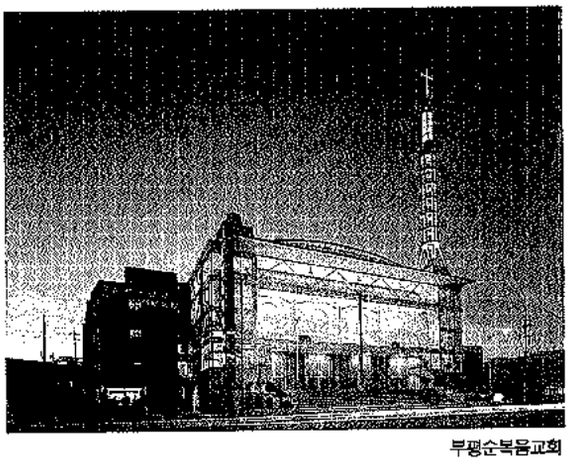
부평순복음교회 비평 critique

Bupyung Full Gospel Church

건축의 방식; 형식; 양식

Method, Form and Style of Architecture

함성호 / Eon건축설계사무실 대표, 건축비평가, 시인
by Ham Sung-Ho



부평순복음교회

"음(音)은 단지 열 두 개 뿐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파울 힌데미트

물론 12개의 음만이 세상의 모든 음은 아니다. 그러나 음악의 역사는 그것이 오음이든 칠음이든 간에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지니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스스로 어떤 한계를 자체에 노정하면서 가는 것은 비단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평면 회화는 평면이라는 한계와 동시에 그 가능성이 시작되었고, 문학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같이 그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말하자면 "장애속에서 해탈을 구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구도를 위한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의 비의를 드러내주는 단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구 같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용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의, "음은 단지 열 두 개 뿐이다"라는 문장은 음악의 한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곧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그 한계를 조심스럽게 극복한다. 그 말은 바로 한계/가능성의 사이에서 한계를 가능성으로 만드는 질적 변환의 촉매로 거론된다. 바로 거기에서 음악의 방식;형식이 나온다. 수와 음의 관계가 밝혀지고, 화성학이 이루어진다.

"There are only 12 tones - One must be extremely careful in treating them."

- Paul Hindemith

Of course, there are more sounds in this world other than these 12 tones. The history of music, however, has started from these limiting articulations, be it 5 or 7 tones. The development of an art medium through the applying one's own confinement does not simply concern the field of music - paintings were both paralyzed and enforced by its own flatness; literature was built upon its restrictions as written letters. In a word, art seeks truth through its own defects. This can be related to our quest for meaning not only in religious terms but in the daily lives.

Then what are we to interpret Hindemith's 'extreme carefulness' in his treatment of musical tones? "12 tones" refer to the confinements of music, but the sentence that immediately follows it connotes a subtle mastering of that restriction. It is a catalyst that converts limitation into a new possibility, in the threshold of these two contrasting states, and at this state, the method and form of music are found. The relation between numbers and tone become disclosed, and harmonics is born.

The renaissance had a similar impact on architecture. That period is actually devoid of any specific styles, but during that era, various layers of structural, material experiments were accumulated and formed a method, form or style of architecture. Arches and vaults finally gave the traditional method of masonry a diversity of architectonic applications, and helped to establish architecture as an independent genre. This coincided with the departure of paintings from architecture. Art, until that point positioned awkwardly between the creator and the patron, gained its own independence by freeing itself from the socioeconomical determinants and recognizing its very own momentum - a heart of its own.

But this point of zenith, as in almost every other case, didn't last long. With the advent of new materials such as steel and glass, architecture once again was entangled within the

서양 건축사에 있어서 르네상스기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우리가 그 시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서양 건축사에 있어서 실험되었고, 발명되어졌던 모든 구조와 재료의 방식들이 집대성되어 하나의 방식;형식;양식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아치와 볼트는 조적식 구성법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다양한 버전을 완성했고, 그럼으로해서 건축은 비로서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회화가 건축에서 분리된 때와 그 시기를 같이 한다. 페트론과 예술가 사이에 놓여있던 예술의 독립은 이렇게 사회 경제사를 넘어 예술 자체의 동력에서도 기인한다.

그러나 항상 절정고지의 나날들은 길지 않다. 철과 유리 등의 새로운 재료의 혁신을 맞이한 건축은 다시 한 번 재료의 속성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건축의 방식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근대 이후의 건축은 아직 그 방식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음악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그 한계의 가능성 마저 버린 현대 음악의 운명과도 같은 모습이다.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불협화음 속에서 꾸준한 모색이 이루어지듯이, 현대 건축의 운명도 그와 같다. 단지 건축은 음악보다 더 사회 경제적 현상들과 긴밀함으로 그 모색이 더 수동적이라는 것 뿐이다. 건축은 더 적극적으로 전시대의 방식을 청산하지 않았고, 못했으며, 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현대건축이 겪고 있는 이 혼돈은 이러한 건축 예술을 이루고 있는 질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미켈란젤로의 일화가 말해 주듯이 그 재료에는 재료가 되고 싶은 무엇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현대 건축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함인선이 철골을 선택한 이유도 그 질문에 대한 탐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함인선은 철골조를 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달고 다닌다. 그가 보여준 몇 몇 작업들과 공식적인 그의 발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작업을 건축계에 짧지 않은 시간에 각인시켰다. 이를테면,

"도시 얘기할 때 건물이 제일 신경써야 되는게 '컨텍스트' 입니다. 하지만 과연 '텍스트' 와 '컨텍스트' 라고 얘기할 만한 컨텍스트가 과연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예 도시에서의 컨텍스트 자체는 그만 두고라도, '텍스트와 컨텍스를 얘기할 만한 논의구조라는 컨텍스트' 조차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컨텍스트'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컨텍스트'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개체와 전체의 문제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는 항상 개체가 개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운데에서만 개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체라는 것을 전체

problems of material and its relation to styles, and even to this day, does not seem to have found the right track. It is quite analogous to the state of contemporary music, who has lost, along with music's own limits, the very potential which those limits provide. Constant explorations are being made through the bottomless dissonance, and likewise,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wandering through unsettled grounds - The only difference is that, since architecture relatively has a strong connection with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t is rather less active in its quests than the other. Architecture didn't, couldn't, or rather didn't feel the need to break away from the classical styles. The chaotic situation of today's architectural scene could be deeply rooted in the medium's bond with materiality. As we have seen in the anecdote of Michelangelo, a material has some sort of will to be that material. We, at this point, should once again boldly face this problem.

Architect Ham In-sun's choice of steel structure as the main material for his recent work - the Bupyung Full Gospel Church - can be viewed in connection to this question. It is well known that Ham is very fond of this specific material and structure, and through his works and remarks, he has succeeded in providing us with a very strong impression as an architect. For instance, "When we talk about the city," he once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almost always happens to be context. But when we say context, it actually needs a text to go along with it in the first place. We do not even have a context of logical infrastructure where we could debate over issues of text and context, let alone a context within the urban structure. In this respect, I truly believe it is more sincere primarily to concern ourselves with the issue of context itself. With context, what we are actually talking about is the problem of element and whole. Elements never exist on its own - they become significant within the structure of the whole. What divided the element from the whole and isolated them was the Western idea of rationalism, upon whom scientific thinking based their idea and established an opposing relationship between an element and its whole. The only way an element could be 'right,' in this narrow respect, was to break away, become independent from the whole." Here, Ham is substituting

하고 분절시켜서 단절화시킨 것이 소위 서양의 합리주의이고, 그 합리주의에 근거한 과학사상에 의해서 부분과 전체는 항상 대립적이고 개체가 전체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되는 것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식으로 안목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라고 말 할 때의 함인선은 컨텍스트의 문제를 아예 '시간'이라는 문제로 치환해서 본다. 그리고 거기에서 철골이 가지는 한시성이 나오고,

"구조가 타당한 이유가 한 두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건축미학적인 입장의 문제죠. '장식자체는 비도덕적이다' '정직한 구조가 미적으로도 아름답다' 이런 미학적인 입장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상황' 이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 할 때의 그는 절제를 순수 미학적인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인 합리의 문제로 가져온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해진다.

"제가 설계한 가로 건축물들이 왜 스트럭쳐만 남기고 안을 다 비웠느냐? 그건 이거예요.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물이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혼이 들어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건축물은 자기자신의 자생력을 가지는게 아니라 건축가의 의지의 표상이 돼버려요.…(중략)…그래서 제가 입면을 포기한 겁니다. 입면을 포기하고 시스템을 들여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다 흰색만 썼나? 색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가로건축에 관한 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하나의 비평행위를 하는겁니다. 입면이라는 것이 건축가의 제일 중요한,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겁니다"

다소 인용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길게 건축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건축가의 논리와 작업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그의 논리는 다소 비약이 없지 않지만, 그 비약 안에서 지극히 논리적이다. 함인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축의 문법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을 쓰고 있다. 그가 선택한 철골이라는 재료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그 재료를 대하는 그의 논리는 그가 가진 특특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사고는 그의 작업과 무관하다. 그의 건축의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흔히 언행일치를 지고의 선으로 생각해 온 우리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의 작업은 일반적인 철골의 단순한 사용법을 따르고 있고 그 때문에 비난의 여지 또한 충분하다. 부평 순복음 교회에서 그의 논리를 읽어 내기란 지극히 어렵다. 어쩌면 그는 철골의 혐오감을 더 극대화(의도적인지 모르지만—그렇게 읽혀지지는 않는다.) 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 사회, 경제적인 논리에 건축이

the problem of context with that of time, which in turn provides the temporal limitations of the steel structure. "Structures can be deemed right or just in one or two respects. One concerns the viewpoint of architectural aesthetics, where we often talk of the immorality of decorations or the aesthetical beauty of rational structures. The other would be a field relating to its situation." We should note that when he speaks about these issues, he is relocating the notion of temperance and control from the realm of aesthetics to that of socioeconomy. This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Why does my street buildings rid themselves of their inner content and display their skeletal structures? It all comes to the matter of the architect who considers his work as part of himself. It is a work that is created by the devotion of his soul. But it is exactly this point which strips away the autonomic strength of the work and make them a mere representation of the creator's expressive will. [...] And that is why I have come to let go of the building's surfaces. By giving up the control over their elevations, I could establish a system. And then people ask me why I always choose the color white. It is actually not a choice of white but a refusal to choose any kind of color. When I talk this way about the works in an urban fabric, I am in the process of writing a criticism on them. Most architects consider the envelope of their buildings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part, something that is even as precious as their own life, and this is what I am trying to stand against."

The reason I have quoted his rather lengthy remark is my way to diminish the crack between the logic and reality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Ham, while at points jumping in his logics, is completely following a logic within the process of those leaps. He does not work with a general language of architecture. The choice of steel structure itself is nothing special, but the logic with which he deals with the material is based on his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which actually has nothing to do with his profession as an architect.

Which is then the very root of his problems. In a cultural atmosphere where consistency of one's speech and deeds is taken as an utmost virtue, Ham and his works, adopting

복무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건축의 방식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재료가 가진 속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재료가 되고자하는 바를 생각해야 한다. 과연 함인선은 문화 사회학적 문제를 넘어서, 재료 구조적인 문제에서 철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재료 구조적인 문제란 철골의 일반 디테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이미 앞에서 음악이 구축되는 방식을 통해 누누히 설명해 온 바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함인선의 부평 순복음 교회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축은 보여지는 실재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말해지는 논리가 전부일 수도 없다. 건축의 담론은 논리와 실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면 철저한 과학적 가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가설은 완벽한 가설의 '체계'를 전제한다. 이것이 바로 '종이 건축'도 건축일 수 있는 이유이고, 건축의 문법이 이루어지는 요지이다. 그래서 비평의 대상에는 분명한 문법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기존의 문법이든 전혀 새로운 문법이든 간에, 어쨌든 비평의 텍스트는 건축가의 작품과 '사고'이지, 건축가의 '논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함인선은 평키이다. 그러나 평키의 자멸을 과감히 취할 수 없는 지적인 펑키이다. 부평 순복음 교회는 그저 철골조 건물이었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단어에 좀 더 무게를 싣는다면 그의 작업은 '건물'이다. 그가 이 말을 받아 들인다면 나는 다시 부평순복음 교회를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함인선은 그의 논리를 다시 직조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보고나서 쓸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겠다고 편집자에게 말했다. 그리고나서 현장에 가기 전에 함인선의 최근 작업들을 살폈다. 그리고 부평 순복음 교회를 보고 나서는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말의 성찬마저 귀한 우리 건축 현실에 함인선은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평 순복음 교회의 철골은 마치 함인선의 논리를 위해 실제적인 건축의 조직과는 아무 상관없이 억지스럽게 얽혀있었다. 마치, '나는 철골을 쓴다'라고 외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가 하루빨리 자신이 구축한 철골의 허위의식을 벗어 던지고 정말 철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축의 방식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the basic and generalized use of steel strucutre and therefore seemingly devoid of the complexity of his remarks, are exposed to various levels of criticism. It is indeed quite difficult to read his logics in the Bupyung Full Gospel Church - Whether he intended to exaggerate the repulsive feelings for steel structures, we do not know.

Architecture, however, should not be serving and following the logic of society and economy. We should once again think of architectural styles,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and what those materials aspire to become. Is Ham approaching steel in terms of materiality and structure - which of course is not confined to the problems of generalized details of construction, as I mentioned in comparison with the construction of music - or is he still deliberating within the frame of culture and soci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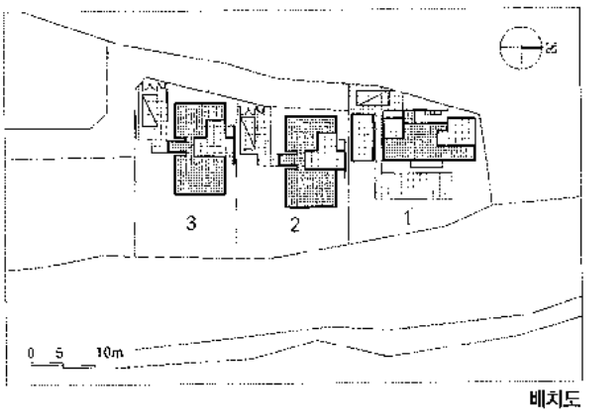
Simply said, this work of Ham, the Church itself, cannot be an object of discussion. We should not limit our architectural debates to the built substance. But neither should we only talk of the logic behind his writings and remarks. The discourse on architecture concerns both logic and realized forms, or scientific hypothesis. In the latter case, the hypothesis should be supported by a perfect system of thoughts, and it is in this respect that we can consider paper architectures as part of true architectural works. It is also the basis on which architecture establishes its syntax, and it is this syntax of a work tha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criticism. The text resulting from the syntax, be it new or existent, is a mixture of the architect's work and thoughts, not simply his logic. Ham's new Church is a simple work of steel structure - more of a 'building' than the so-called 'architecture.' There is no arguing that Ham is an important member of our architectural society, but this work falls short of our expectations. The entangled steel structure of the building was isolated from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seemed only to be in service of Ham's logics - which is more of a fallacy he himself has built around his preferred structure. Perhaps next time, he will be able to break away from his confines, and present us with an architectural method that is true to steel structure.

곤지암 주택 Ⅱ
Gonjiam Residence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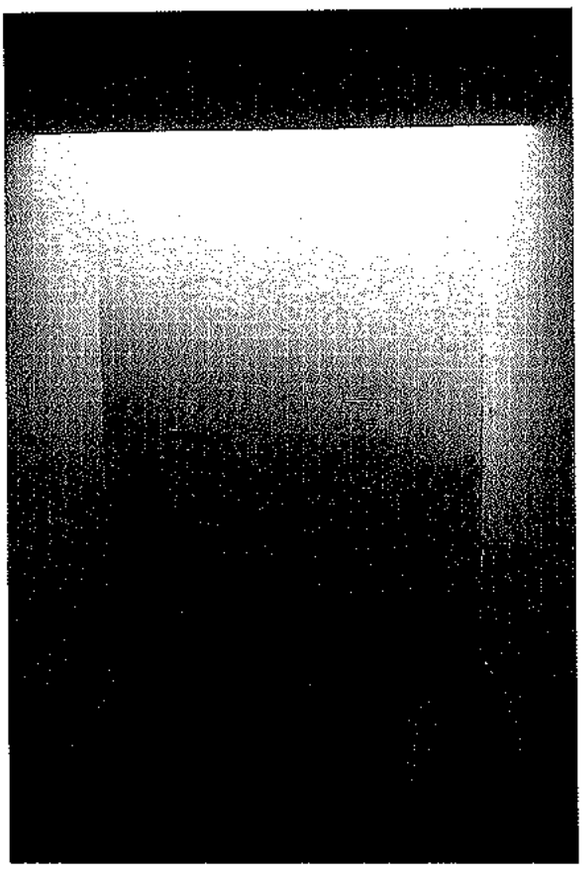
김석환 /건축사무소 터 · 울
Designed by Kim Suk-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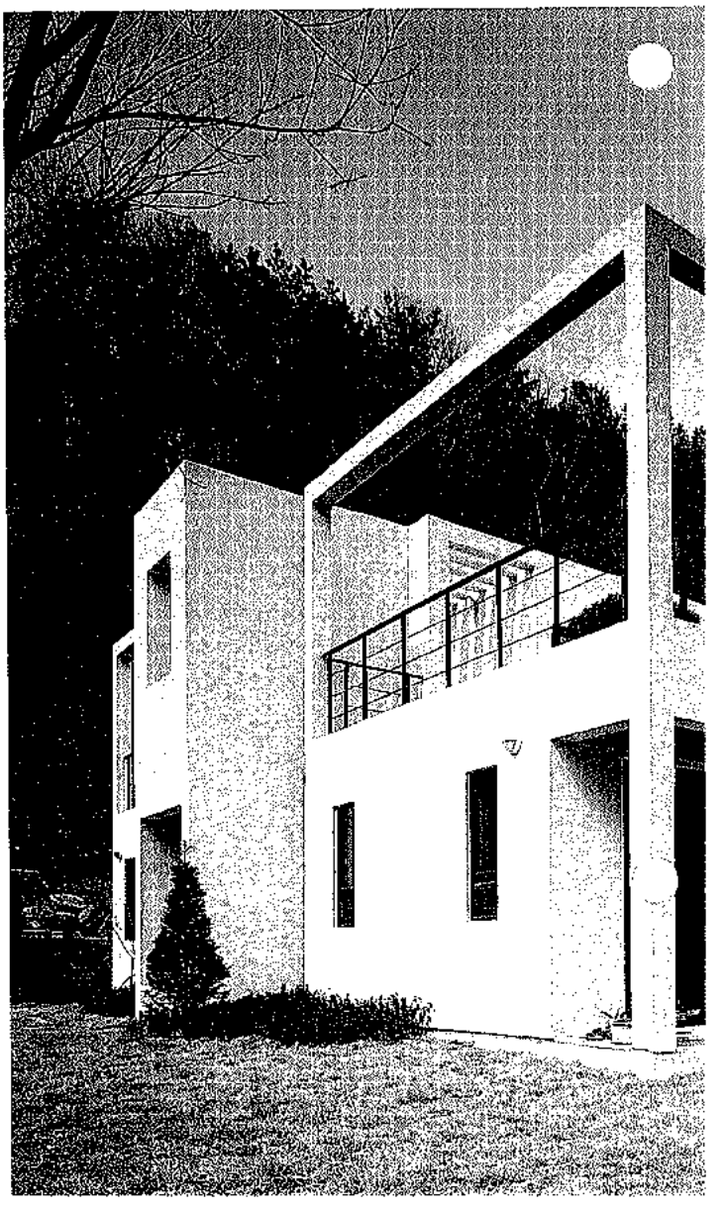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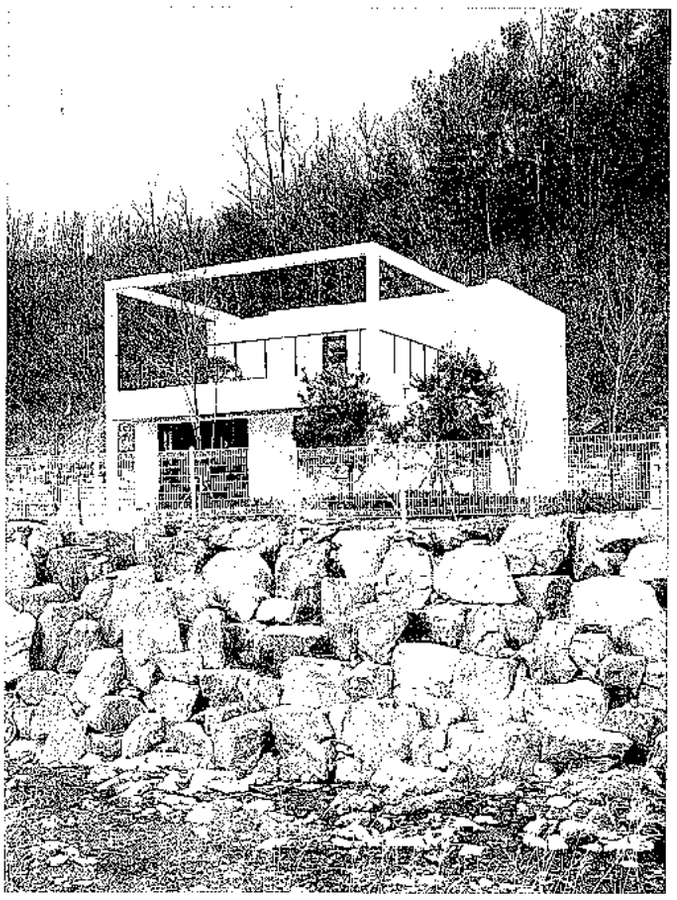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엄미리 93-3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326.00m²
건축면적	117.17m²
건폐율	37.08%
연면적	115.01m²
용적률	36.40%
조경면적	180.00m²
최고높이	5.8M
규모	지상 2층
구조방식	R.C조
설비방식	심야전력
주요내장재	석고보드위 벽지. 락카페인트
주요외장재	드라이비트 시스템
설계기간	'96.10 ~ '97. 5
시공기간	'97.10 ~ '99.12
기계설비	화신콘설탄트/최상현
전기설비	진산전기/유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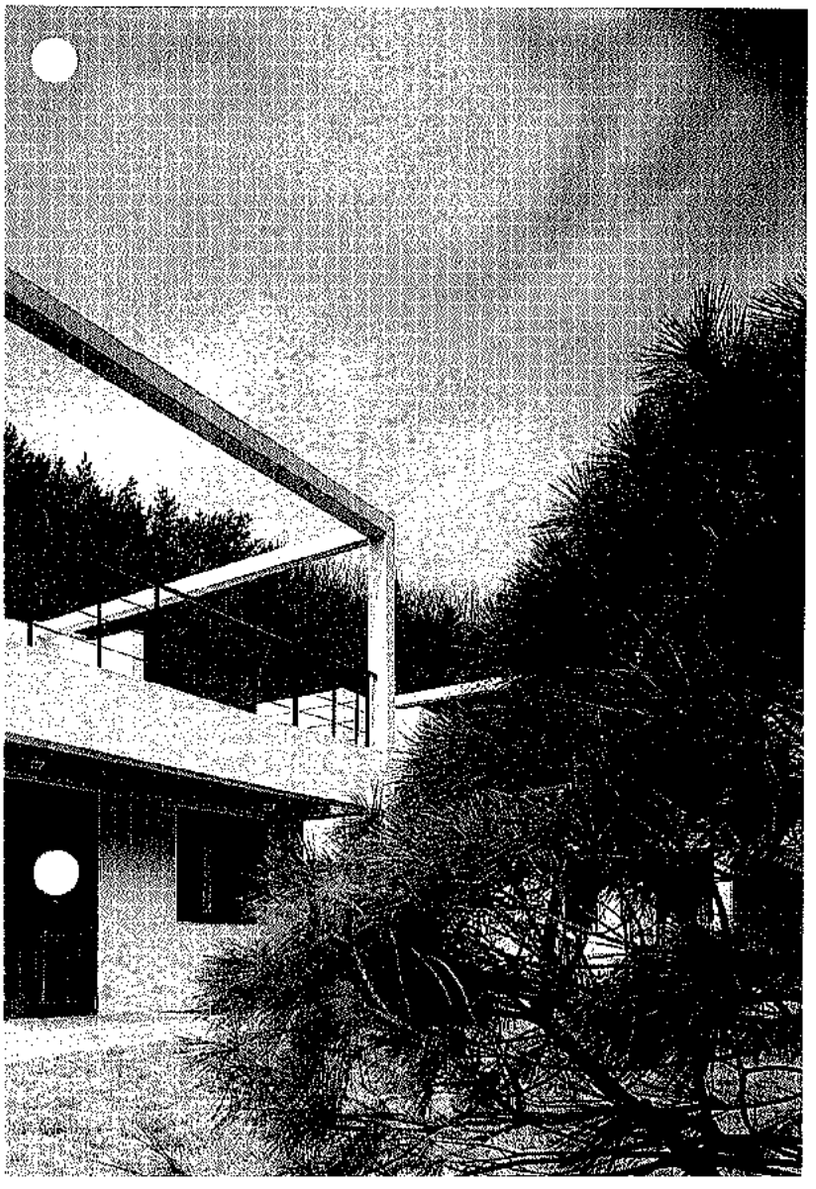


배치도









1998년초 발표했던 곤지암 주택은 단지 하나의 건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7채가 단지를 이루도록 기본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맨처음 지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완성된 집은 그것과 연속하여 이웃한 동일한 타입의 두채이다. 처음집보다 2개월 늦게 착공하여 97년말에 골조가 다 완성되었으나, 건축주가 부도가 나면서 그 곳의 모든 땅과 집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2년여 동안 방치된 채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서 그 곳을 갈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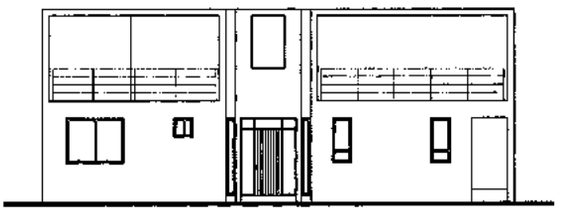
99년 6월 내장공사업을 하던 전 건축주에게 자재를 납품하던 철강 사업자가 채권자로서 찾아와, 중단된 집을 완성하겠다고 협조를 구하였다. 뜻밖에 집을 완성할 사람이 나타나니 나로서는 너무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었다. 공사에 식견을 갖춘 관리자도 없고, 숙달된 기능을 갖춘 업체에 맡길 일마저 직영 일꾼에게 맡기는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는 부딪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내하며, 구상이 조금이라도 더 실현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 단지를 구상할 때 나는 근대건축에 충실한 사례를 만들고자 했다. 그 생각은 아마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일지 모르나, 현재 우리는 여전히 근대사회의 패러다임속에 살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에 부합되도록 등장된 근대건축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나는 건축 수업을 해 오면서 그 근본적인 성질이 내안에 자연스럽게 바탕되어지기를 바랐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나의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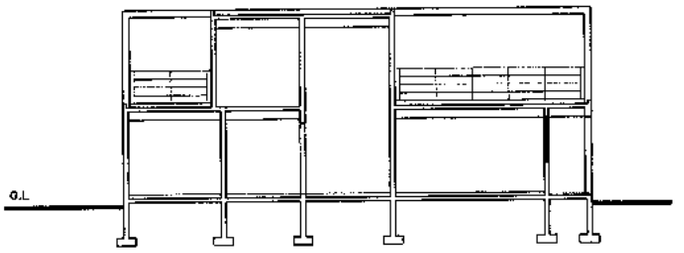
근래 몇 년간 나는 우리의 옛 건축물을 두루 답사하면서 자연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서적 측면에 호감을 느꼈고, 근대건축적 사고와 조금은 갈등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별개가 아닌 문제라고 여기게 되었다. 건축을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이미지가 되게 하는 방법과, 대비되게 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 있으나, 그 두가지 모두 자연과 관계맺기의 방식인 것이며, 공간적 연관에 의한 정서 창출은 형태와 무관할 수 있다. 나는 유기적 형태보다 피리미드처럼 윤곽이 뚜렷한 형태가 더 건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해 왔다.

건축의 요구는 추상의 수로 제기된다. 규모는 셀타화해야 할 체적의 합이며, 건축가는 결국 요구된 모든 방을 수용하는 총체적 부피의 건조물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규모는 건축을 어떤 크기의 사물로서 규정되게 하는 시금석이다. 제기된 규모의 수요는 구형안에서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구형은 공간을 형상으로 파악되기 전에 단지 내부 세계로 의식되게 한다. 그것은 건축 본래 의미에 부합되는 일이다. 건축은 마감재료에 따른 세부적인 분위기의 느낌 이전의 문제이며, 건축적 요구란 본래 내부생활에 알맞은 안정적인 부피의 공간, 그 자체로 충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건축의 외양을 아름다운 형태로 뇌리에 상징하지 않으며, 어떤 크기로 구축되어 드러나는 공간과 사물의 감각에서 경이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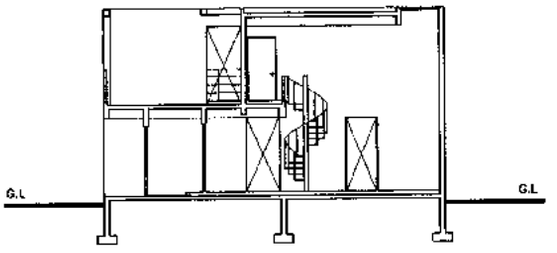
도로에 의해 설정된 경로로 대지를 들어서면 하나의 상자를 대하게 된다. 그리고 독립된 매스로 된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곳, 집의 중앙에 식당이 있다. 이곳은 가족들이 규칙적으로 빈번히 모여 단란함을 누리는 장소이다. 거기에는 생활의 편리에 제공되는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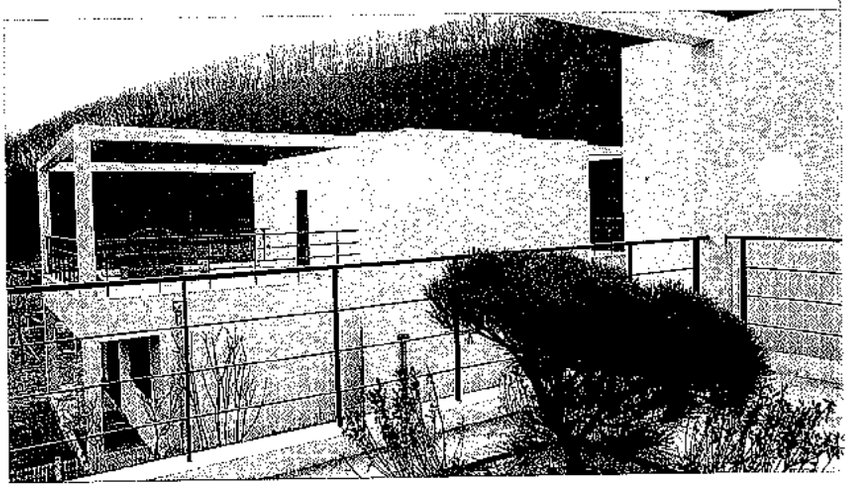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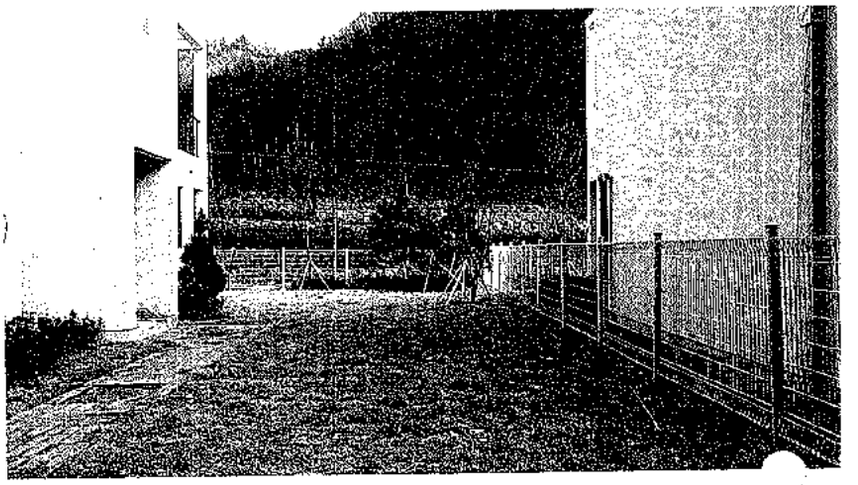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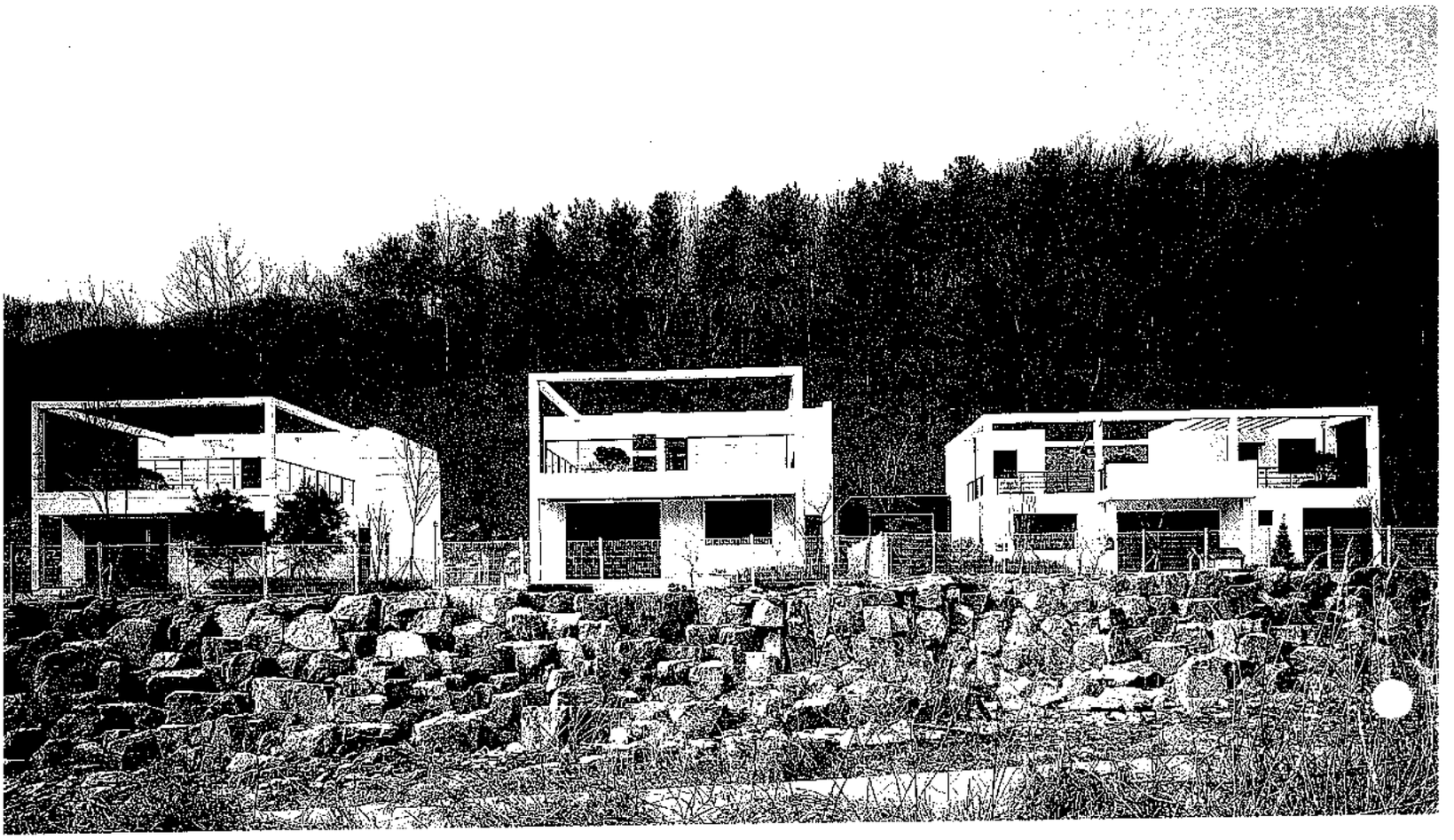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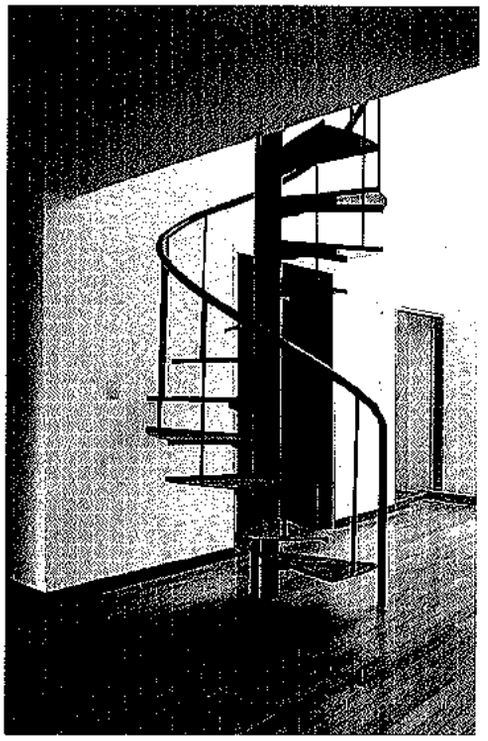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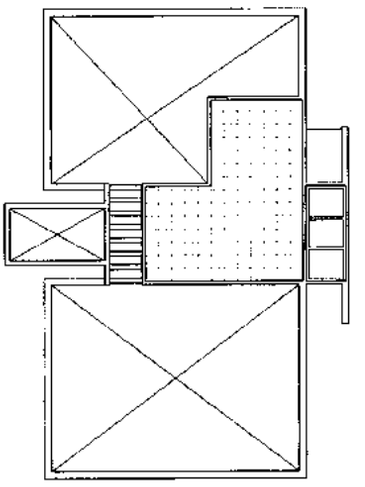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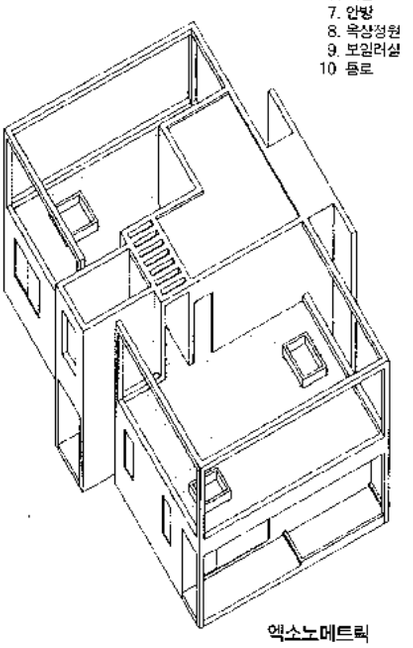
이랄지 욕실, 다용도실이 연계되어 있다. 식당 오른쪽에는 거실과 안방이 있고, 좌측 통로로 가면 욕실과 각자만의 방이 2개 더 있다. 그 방들은 매우 독립적이고 안정적이다. 각각 다른 쓰임의 필요로 전체로부터 구획된 방들은, 행동과 시선을 한정하는 또 다른 세계가 된다. 방들은 천정의 다른 높낮이나 창으로부터 유입된 빛에 의해 성격이 특징지워지며 그만의 정서를 갖는다. 이 집에서 식당은 빛의 광장이자 외부의 느낌이 소통되는 내부의 뜰이다. 수평의 빛과 수직의 빛이 비추어 공간의 감정을 이루며, 빛을 바라는 공간, 빛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공간이 되게 한다. 원형계단으로 지붕에 오르면 전망과 산책에 유용한 옥상정원이 있다. 이 곳은 단순한 빈 프레임에 의해 비움의 함축된 기운이 인식되게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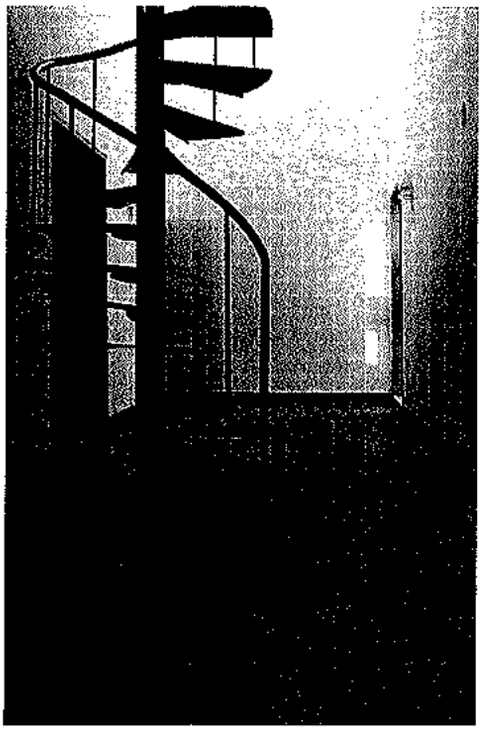
1. 방
2. 주방
3. 다용도실
4. 욕실
5. 식당
6. 거실
7. 안방
8. 옥상정원
9. 보일러실
10.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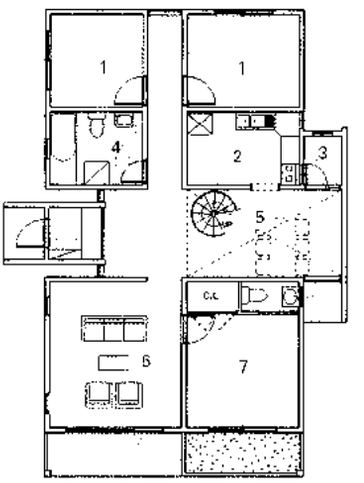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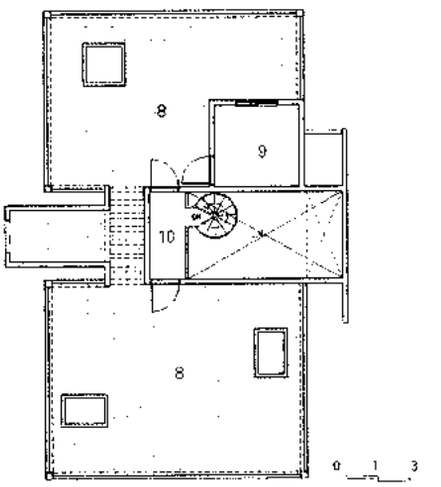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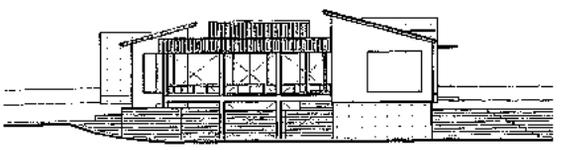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미제루(未濟樓)
Mije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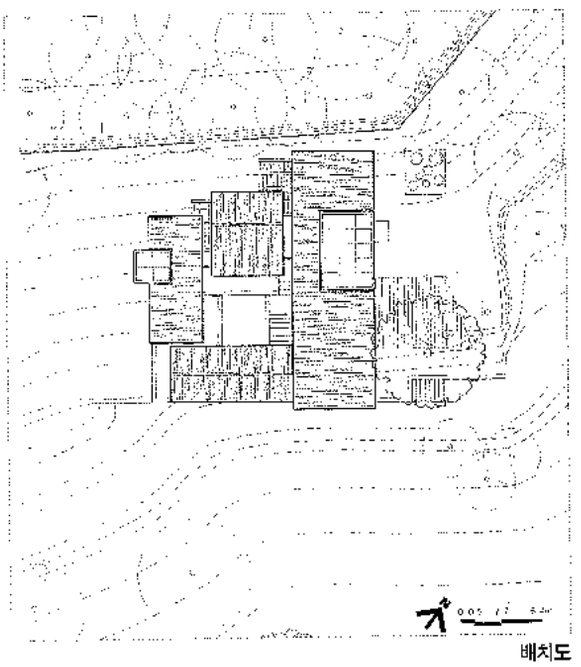
방철린 /(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ang Chul-Li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산 66-1, 156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480.00㎡
건축면적	152.61㎡
연면적	171.42㎡
건폐율	31.79%
용적률	28.68%
규모	지하 1층,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외부단열재 위 아크릴계 코팅재 마감
설계기간	1999. 1.~1999. 4.
공사기간	1999. 4. ~1999.11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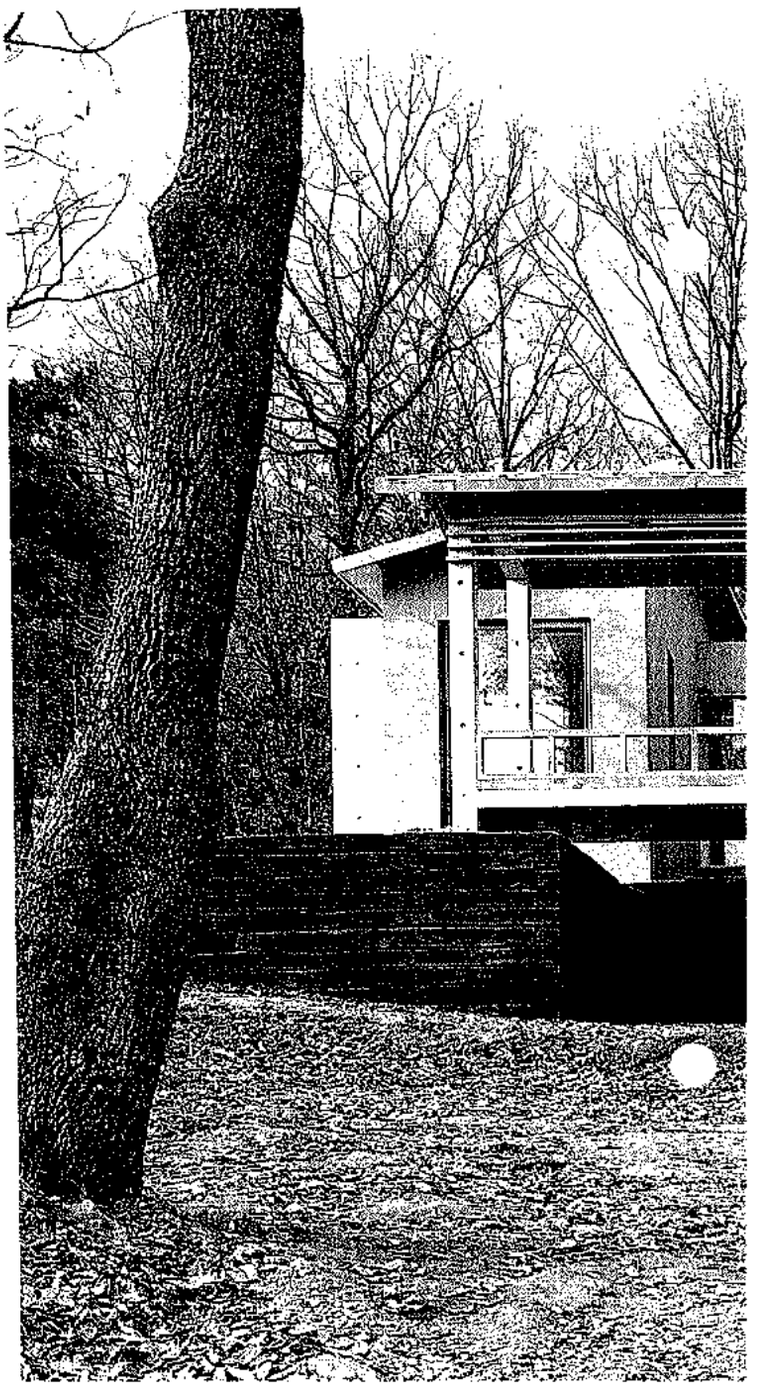


정면도



배치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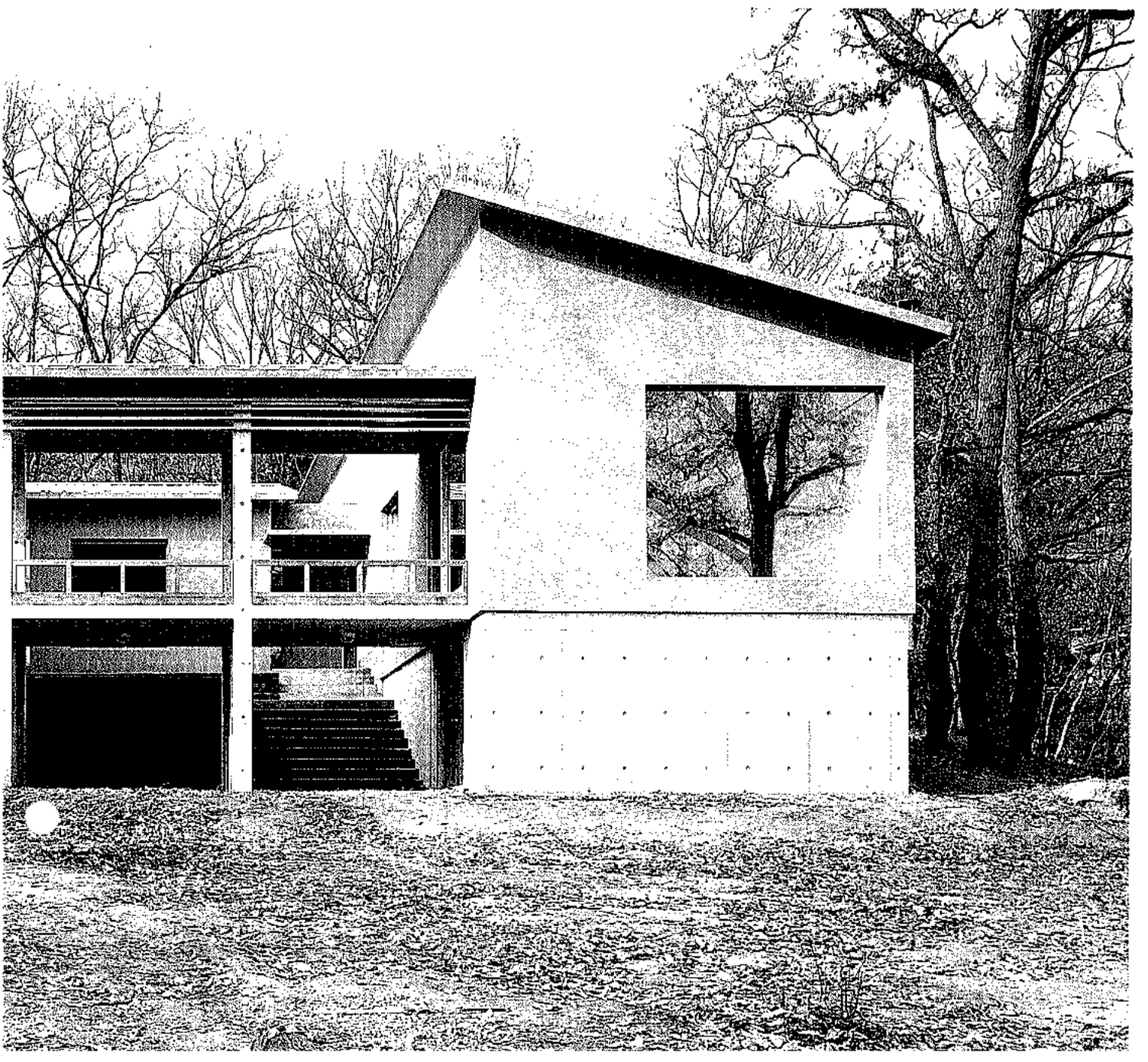
이 집의 부지는 강화도 민통선 검문소를 지나 양오리란 작은 마을에 있다. 풍수지리로 볼 때 이 부지는 명당지리여서 부지에 서있노라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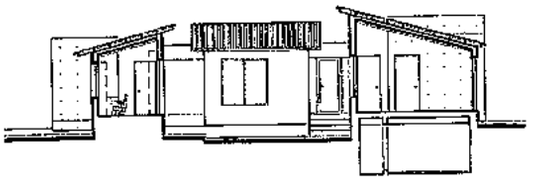
이곳에 거주할 건축주인 김교수 부부의 마음가짐과 정신은 전원생활을 할 덕목을 갖추고 있었다. 채소, 화초, 나무를 좋아하고 마을의 일원이 되려는 노력이 역력하며, 이 부근 선배교수와도 친분이 두터워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하였다. 새로 지어질 집의 개념들을 생각해 보았다. 가정 중심공간구축, 땅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제된 공간배치, 실내공간과 외부공간과의 필연적 관계형성, 「채」 개념의 현대적 적응-이러한 내용들이 이집을 설계하면서 생각한 개념의 틀이다.

이곳 양오리의 주택은 한국적 공간구성의 필연적 원리들을 중시하는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중심부에 마당을 놓고 주변의 켜에 건축주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실로 배치하고, 실들의 바깥켜에 대한 땅과 실내공간의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건축주의 마음가짐을 볼 때, 이곳에 누(樓)를 설치하는 것이 필연적 요소로 생각하였다. 또한 안방과 누를 1개의 축선상에 배치하는 방법도 시도하였다. 안방의 위치를 예전과 같이 폐쇄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오히려 집의 중심적 축선상에 위치시켜 이방의 주인이 곧 이 집의 주인임을 암시케 함은 물론 누를 통한 전면의 경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건축의 내외부공간 만들기는 나의 의지에 의한다기 보다 무위(無爲)의 개념으로 사람 · 자연 · 건축의 관계를 충실하게 맺어주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건축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은 자연스러움과 원래 거기 있었던 것 같은 조화로움 그리고 해학이 가득한 지혜로움을 간직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집에 있는 누의 이름을 미제루(未濟樓)라 하였다. 이는 64괘 이름에서 따왔다. 마지막 괘 이름인 「미제」, 그 바로 앞 괘인 63번째가 기제(旣濟)임에 반하여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늘 바뀌고 순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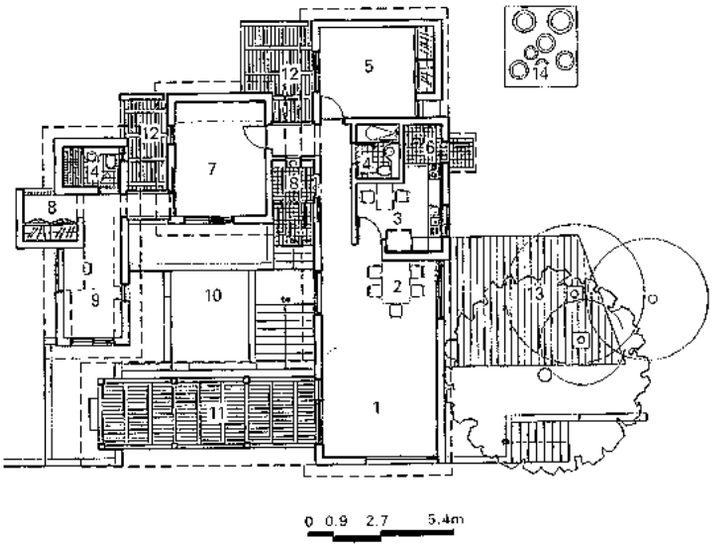
이곳에서 닦아지는 김교수의 학문과 다져지는 우정도 이 누의 이름이 의미하듯 늘 닦여지고 다져져서 깊어지고 새로워 질 수 있길 기대한다. (글:방철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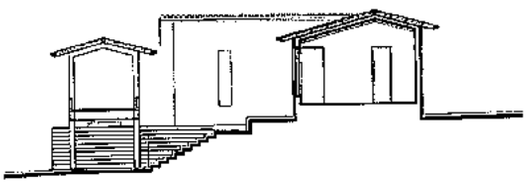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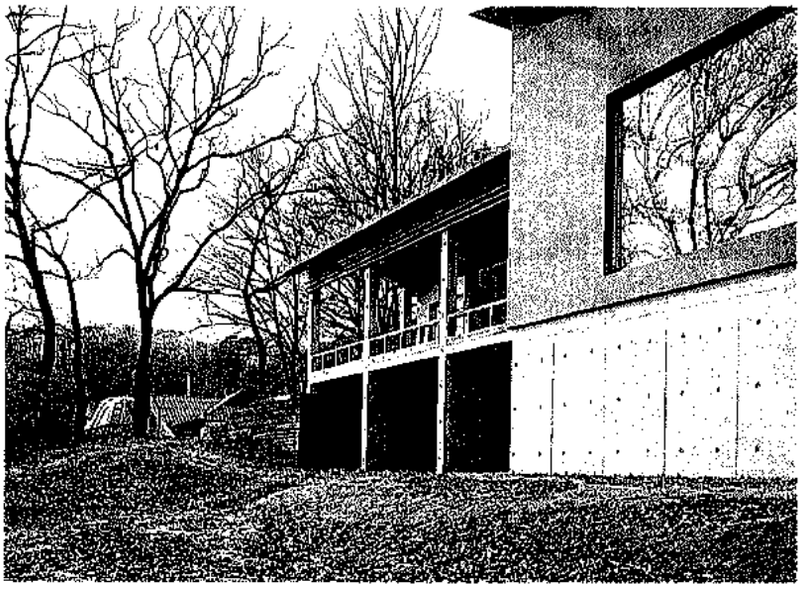
1. 거실
2. 식당
3. 주방
4. 욕실
5. 방
6. 현관
7. 안방
8. 갱의실
9. 서재
10. 마당
11. 루다루
12. 마루
13. 테크
14. 장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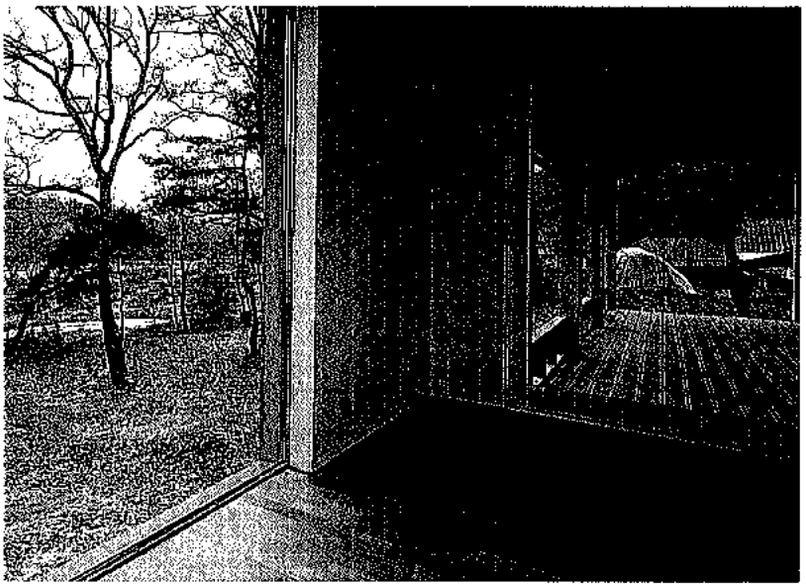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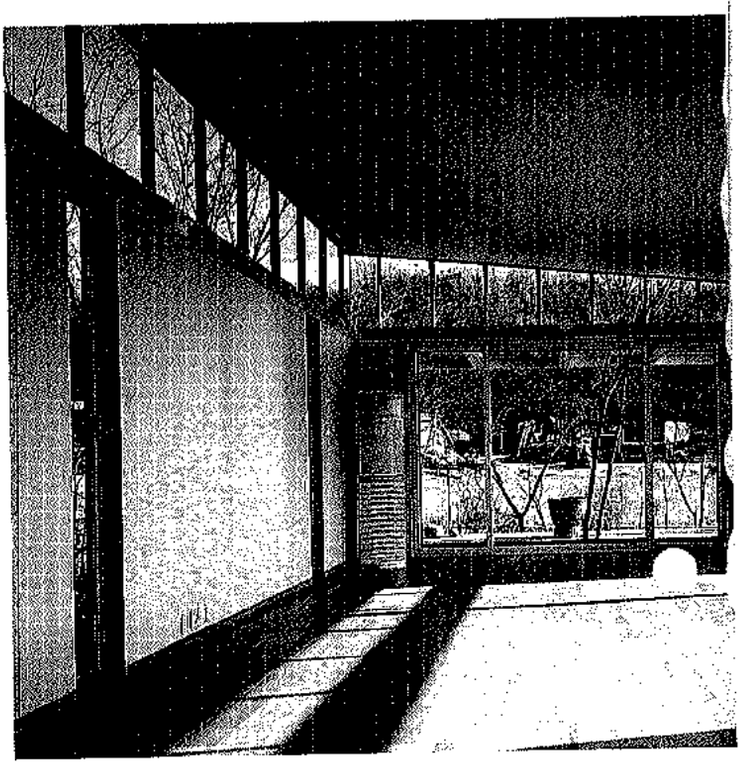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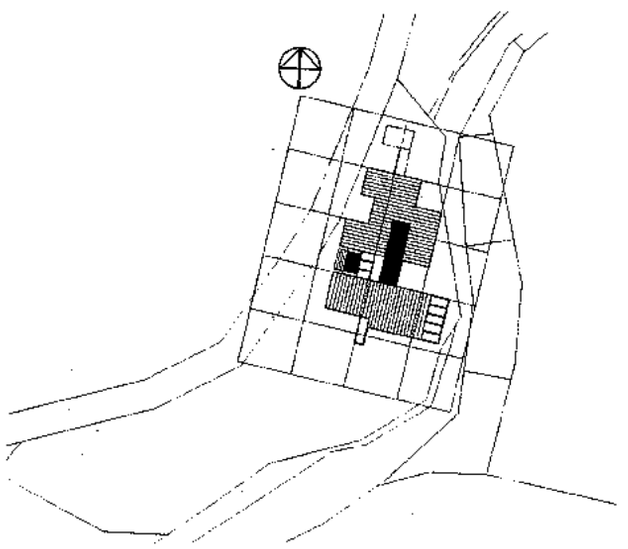
메탈릭
Metallic

김인철 /(주)건축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rl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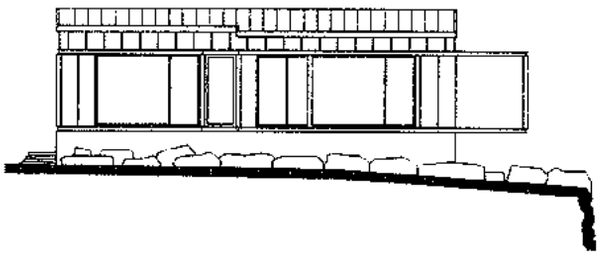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60-2
지역 · 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1,243m²
건축면적	163.68m²
건폐율	13.17%
연면적	159.84m²
규모	지상 2층
용적률	12.86%
최고높이	3.85m
구조방식	H-150×150×7×10 철골조
주요내장재	고급벽지, 고급천장지, 온돌마루
주요외장재	THK0.5 동판 가공 패널
주차대수	3대
기계설비	장진설비
전기설비	박태호
조명	신광조명
구조	아르키움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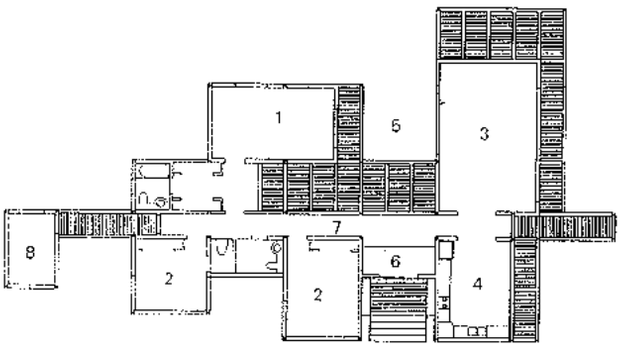
배치도

길현동의 〈경신교회(Neutrium)〉의 부도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4년 여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막막하였다. 거친 현장 그대로 인 채 살림을 꾸려왔던 교회가 겨우 기운을 차려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고 의논을 해 왔을 때 그런 대로 구실을 하게 하려면 창과 문이 달려야 했고, 난간을 설치해야 했다. 유창공업의 정사장을 끌어들인 것은 철물공사의 선행이 우선 조건이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공사비의 지불이었다. 겨우 숨돌리게 된 교회의 재정은 빈약할 뿐이었고, 영세업에 지나지 않는 유창에 선투자를 부탁하기도 어려웠다. 포천 어딘가에 있다는 목사의 교향땅이 공사비용으로 제공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해법이었다. 이리 저리 궁리해가며 겨우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지만 땅문서가 어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땅인지도 모른 채 마무리만 제대로 되기를 바랐다. 졸지에 현장소장이 된 정사장은 꾸역꾸역 자재를 들여왔고, 틈나는 대로 기능공들을 동원해 교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나고, 그뒤에도 유창공업은 〈메조트론(Mesotron)〉과 〈김옥길기념관〉등의 현장에서 계속 연결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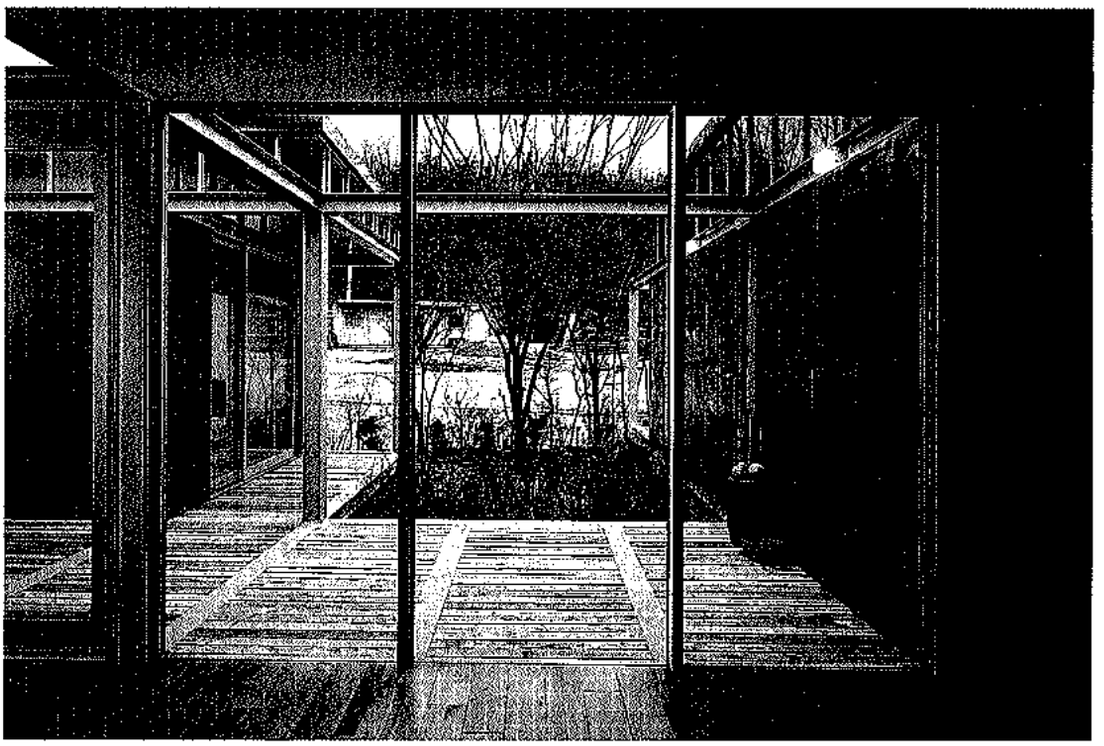
1. 안방
2. 방
3. 거실
4. 주방
5. 안마당
6. 현관
7. 툭도
8.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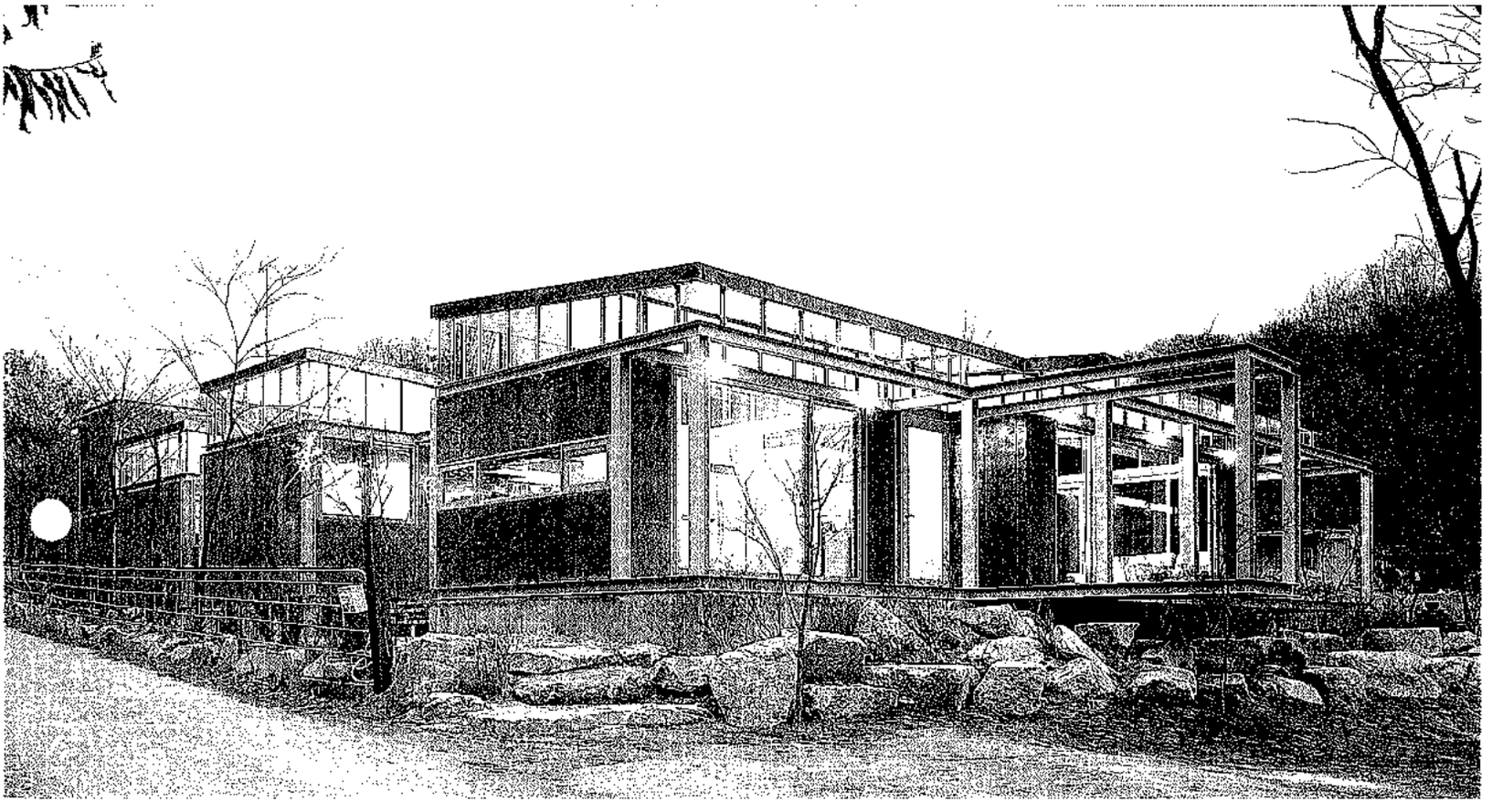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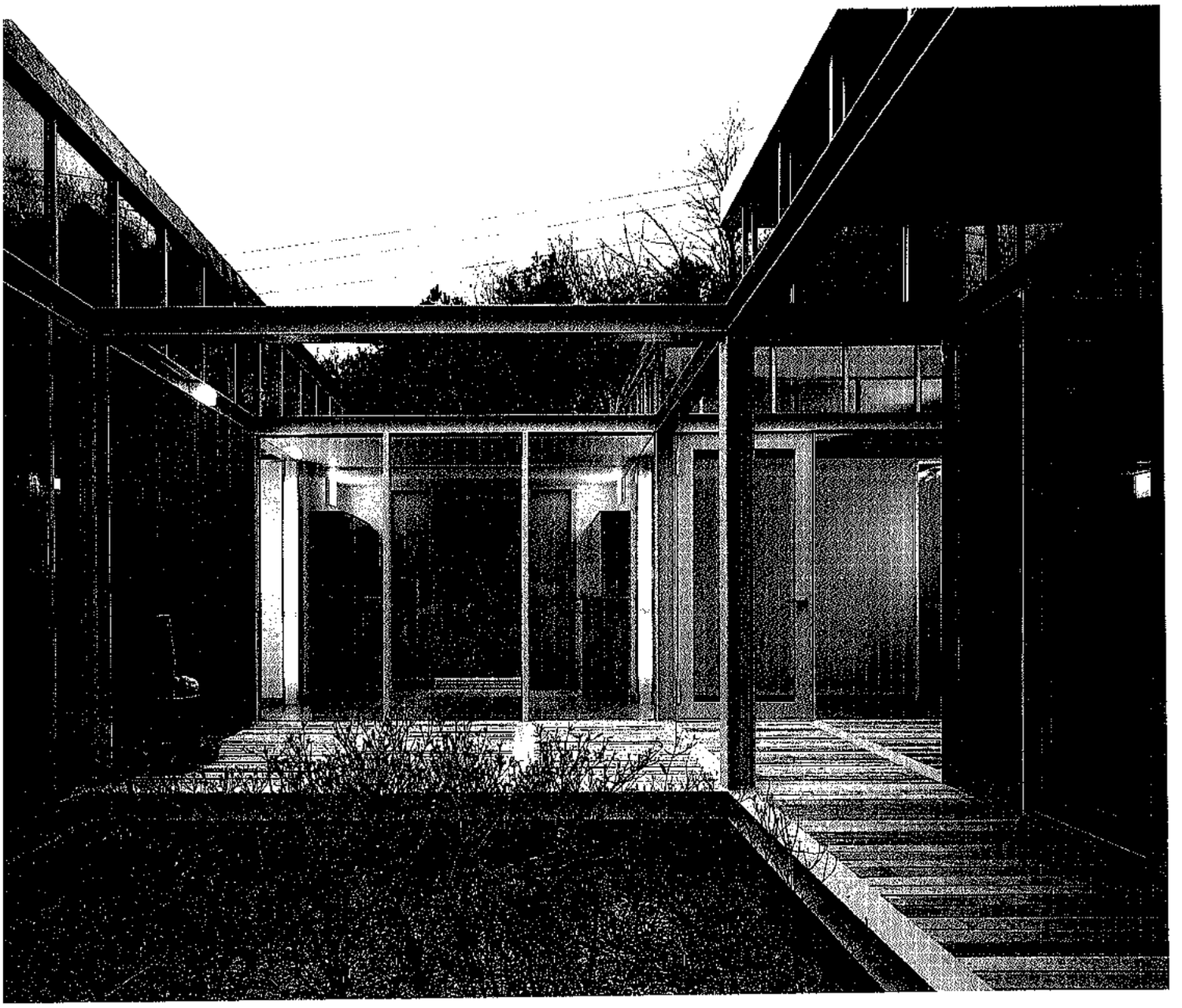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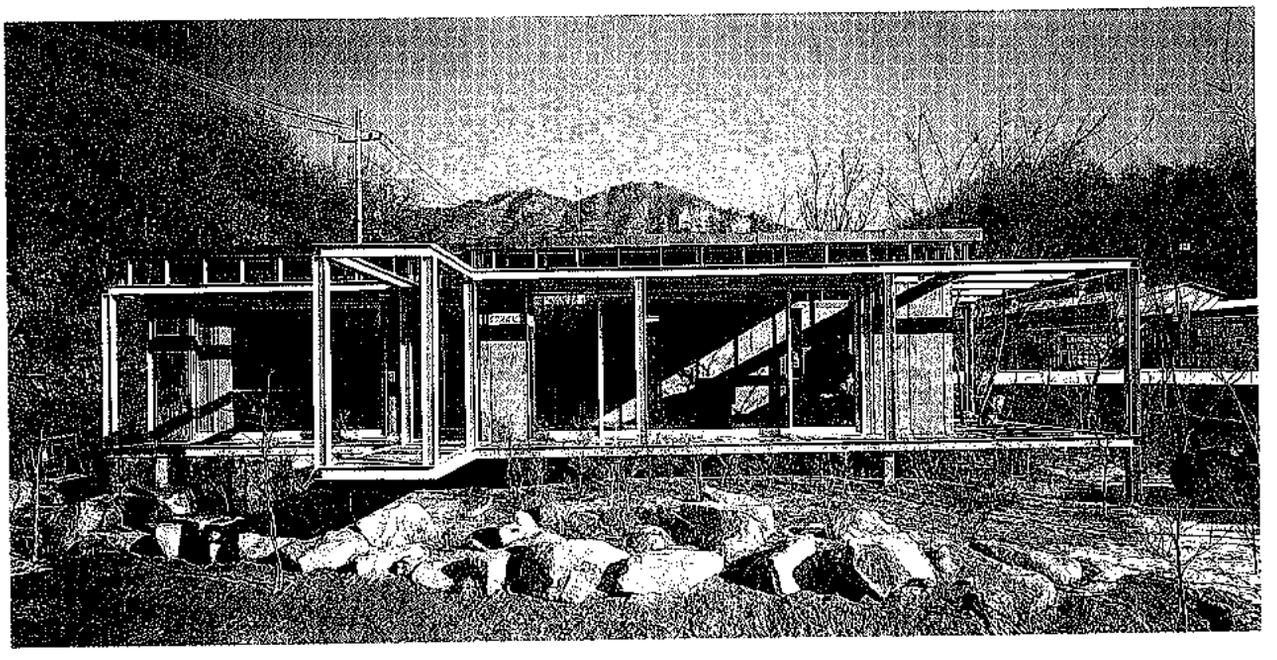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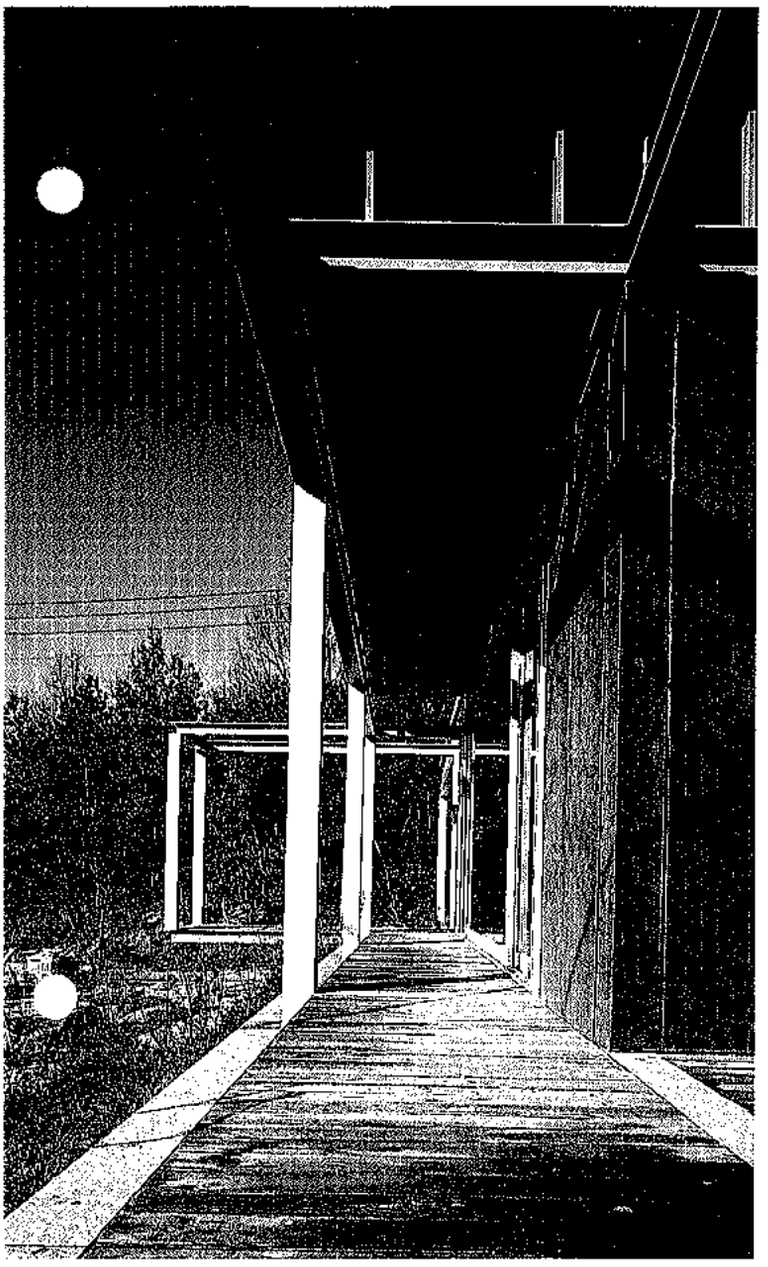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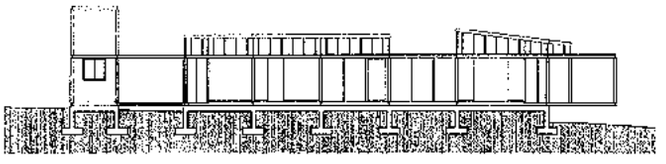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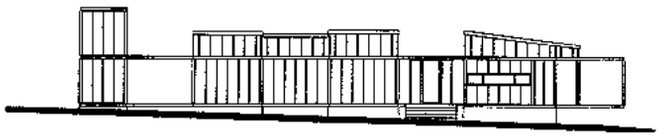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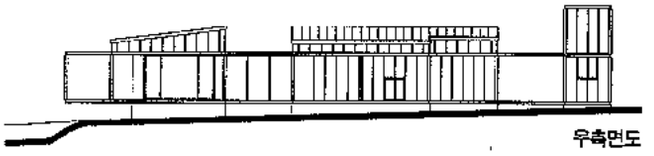




종단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있었다. 올해 여름 정사장이 포천 땅에 집을 짓고 싶다는 뜻을 말하였을 때 그것이 어떤 곳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내는 데는 한참 뜸이 들었다. 현장을 갔을 때, '아! 이런 곳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외진 곳이지만 괜찮은 집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물어물 시작한 작업이 석 달만에 마무리되었다. 인테리어 작업이 아닌 것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생각이 완성된 셈이다. 단층의 철골구조이어서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지만, 설계와 현장작업이 동시에 벌어졌으므로 마감방법과 재료를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을 소모하였다. 철골과 샌드위치 패널, 유리와 동판, 석고보드와 마루판, 그리고 페인트만으로 집이 되었다. 철골업을 하는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주인에게는 익히 다룰 수 있는 재료들이었고, 관련된 공사들은 그동안 낯익혀 두었던 동료들이 도와주었다. 가볍고 얇고 선으로 느껴지는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땅에서 솟아오른 모양이 아니라 땅에 얹혀져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한 것은 그것이 땅을 점령하듯 차지하기보다 빌린 듯 놓여지기를 의도한 것이다. 산자락이 계곡으로 흘러드는 형국에서 무리한 자리잡기는 결국 또 다른 무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필요한 만큼의 축대를 쌓고 땅 고르기를 한 위에 집을 놓았다. 3.6m의 그리드와 2.4m의 높이로 꾸며진 형강프레임은 현장에서 자르고 붙여서 세워진 것이다. 공장제작과 현장조립의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라 블랙스미스의 손질이었던 셈이었다. 틀위에 올려진 지붕은 떠 있듯 보이게 하고 싶었다. 최소한의 하늘 가리개를 틀 위에 들어 올려서 비스듬한 틈사이로 이웃의 숲과 산봉우리와 구름이 자리잡게 하였다. 폭 1.2m의 기다란 복도는 뒷뜰에서 앞뜰로 나가는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고완된 것이다. 그것에 꿰이듯 방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사이는 벌여져 있다. 작위적인 질서를 갖기보다 알맞은 크기로 있을 곳에 두어져 있도록 하였다. 극적인 연출을 하거나 의도적인 손질을 하기보다 골고루 빛과 바람이 들 수 있도록 조절한 것이었다. 주어져 있는 틀 속에서의 자리잡기는 융통성의 구사만으로 충분하였다. 물질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으려 그동안 시도하였던 노출콘크리트가 무성(無性)화의 작업이었다면, 메탈은 무량(無量)화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 무성의 것으로 취급된 콘크리트의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갖는 양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로 비롯된 공간에 앞서 그 자체가 일차적인 지각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부피가 비중으로 압축된 메탈의 사용에서 선과 판을 감각으로 이용한다면 소재의 양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최소의 부재라기보다 금속성의 질감이 만드는 얇음을 염두에 두었다. 외부는 형강을 노출시키고, 틀의 사이를 동판으로 마감하였다. 문과 창은 형강과 동판에 곧바로 접속되어 일체가 되도록 하였고, 유리의 투명함이 강조되어야 할 곳에는 가능한 한 프레임이 생략되었다. 자붕은 경사진 채 내밀어지지 않도록 틀 안에서 마무리되었다. 내부의 마감 역시 형강의 치수범위 내에서 조절되었다. 샌드위치 패널과 석보보드의 접착만으로 두께를 잡았으므로 실내의 선들은 외부의 선들과 일치하게 되었다. 투명한 사이로 드나드는 빛은 밝음과 맑음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공간의 내외가 같은 밝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굳이 내외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일체감이 만들어질 것이며, 맑음으로 트여진 구획은 주변의 숲과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하나로 어울리게 되는 또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였다. (글:김인철)

경기공업대학
Kyonggi Institute of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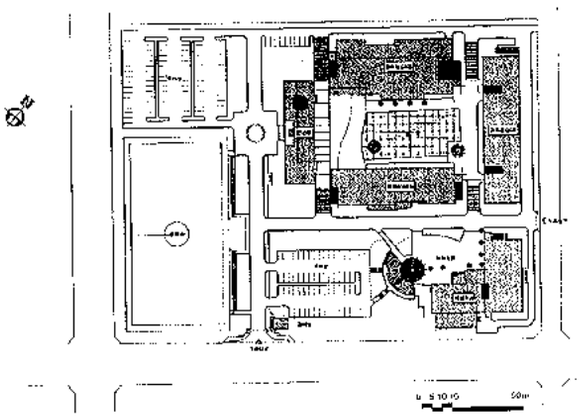
이충언 /(주) 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 - E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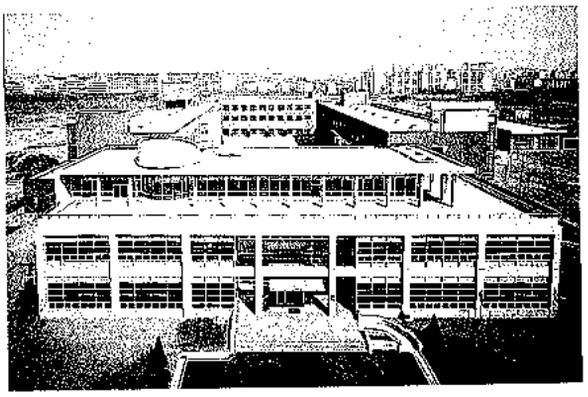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 정왕동 시화국가 공업단지 3가-102
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	4종 미관지구
건축면적	6,683.69m²
건폐율	20.25%
연면적	33,000m²
용적률	40.6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붉은벽돌+16mm컬러 복층유리
설계담당	양성수, 이상주, 송용훈, 김태훈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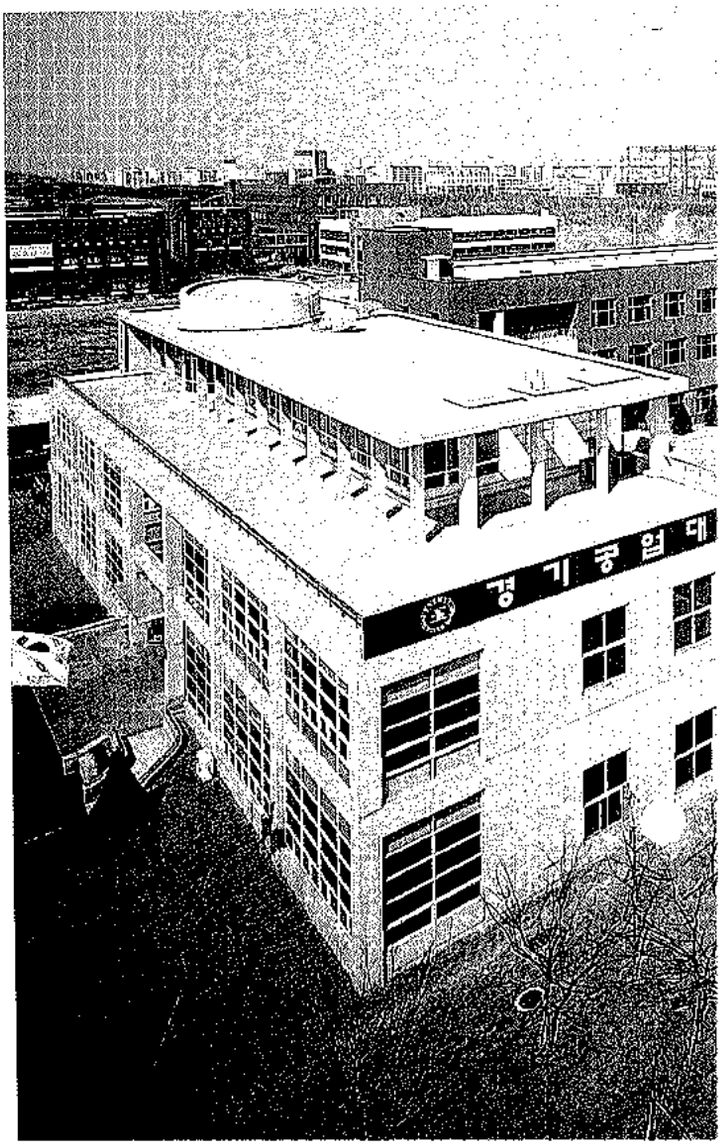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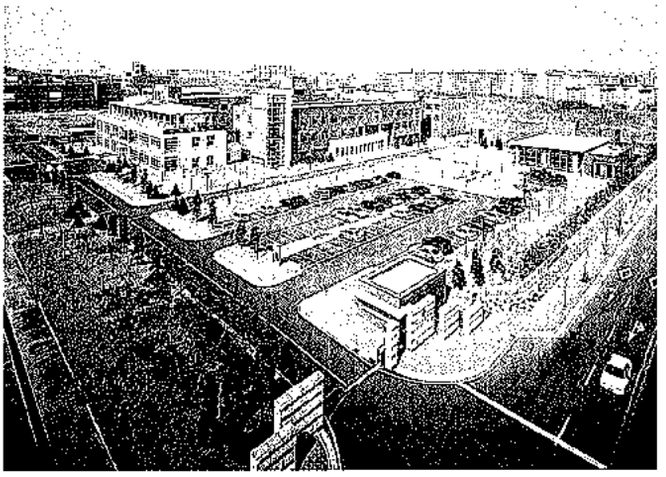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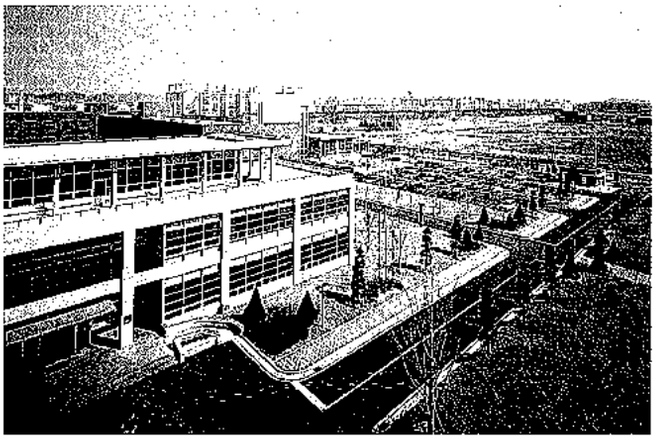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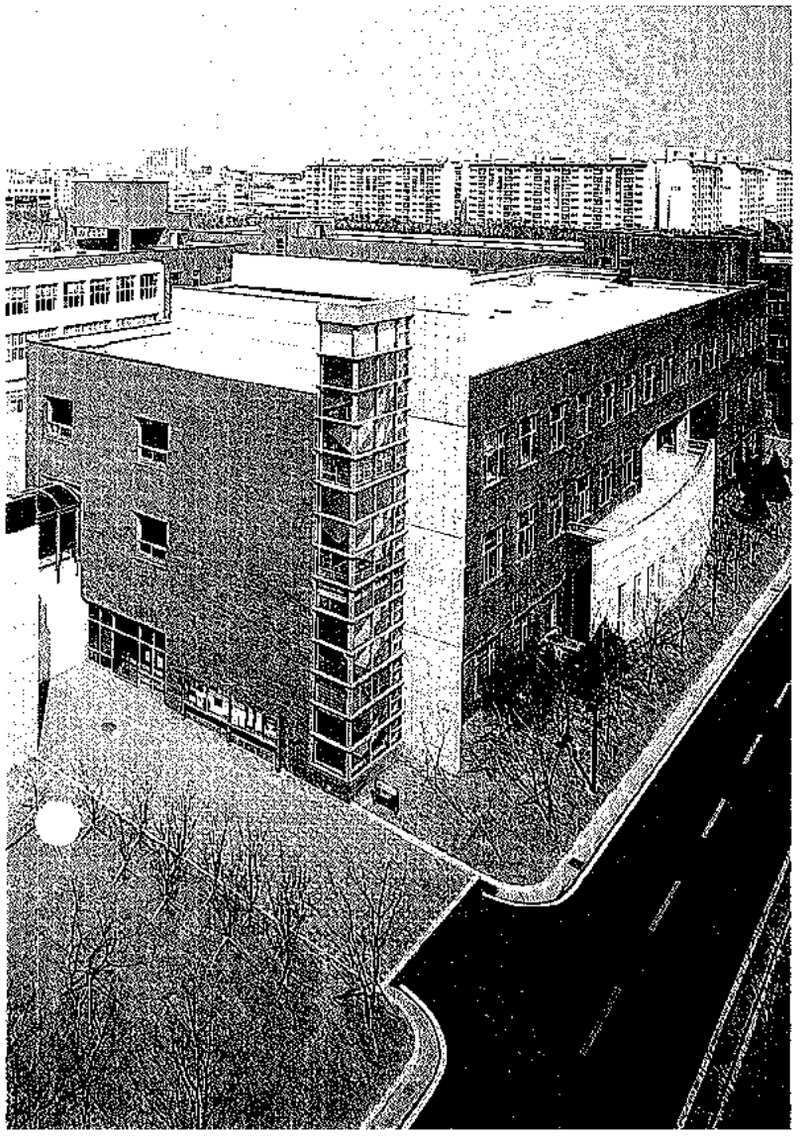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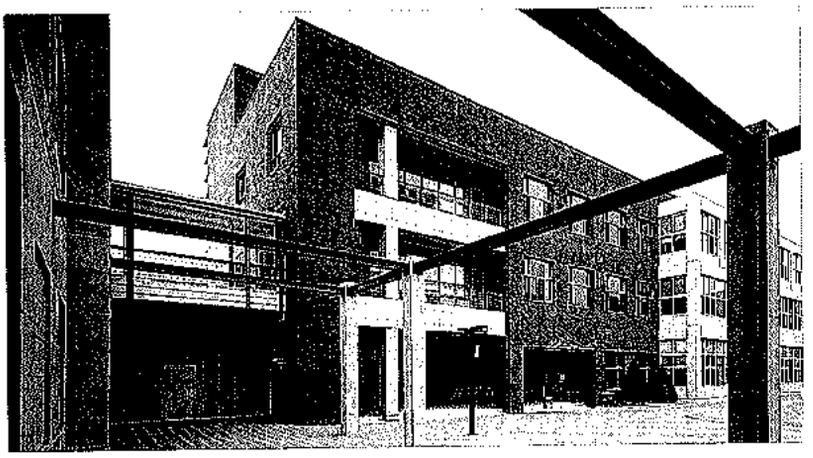
설계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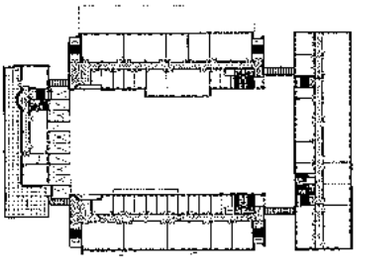
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이 프로젝트도 비전문가인듯한 행정가들이 만든 Space Program과 계약 후 100일이라는 설계기간에 난해한 건축심의를 포함한 인허가 업무와 착공까지 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일정이 자료 미비 및 비타협적인 교수사회의 자세 때문에 설계에 들여야 할 노력이 분산되는 어려움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짧은 시간 속에서 현장에 밀착된 기술교육이라는 설립취지에 사로잡혀 선정된 대단위 중소기업형 공업단지인 시화공단외곽에 위치한 부지는 학교의 주인인 교수 등에게는 마땅치 않은지 설계착수 한달여가 지나도록 안산과 시화지구를 수없이 왕복하였고, 주어진 면적과 요구되는 시설면적과의 괴리, 확정되지 않은 학과 및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되는 수많은 시행착오 등으로 마스터 플랜의 확정이 자꾸 늦어지고, 민원인을 전혀 고려치 않는 건축 심의행정 - 그들은 민원인들이 당하는 시간적 · 경제적인 손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 때문에 제대로 기본계획도 이루어지기 전에 인허가 업무부터 진행하고 개교일정에 맞춰 역으로 계산된 일정에 따른 시공사 선정을 위한 도면작성 등으로 건물을 다듬고 설계해야 할 귀중한 시간들이 허비되고 말았다.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심의도면 및 견적도면은 그 후에 진행된 계획 및 설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상상들이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빈약한 정보 및 행정가들의 독선, 사용자간의 소 이기주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Space Program은 필연적으로 계획면적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어졌으며, Master Plan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제외되어 기능 및 건물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실험실, 부족한 도서관 및 복지시설, 통합되지 못한 행정지원시설 등 사용상 비효율이 생겨나고 있으며, 예정된 증축이 되지 않으면 한개의 건물로는 너무 작은 건물등 형태상으로 완전하지 못한 건물, 비경제적인 건물도 생겨나게 되었다. 비록 덜 스터디되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설계에 임하는 자세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프로젝트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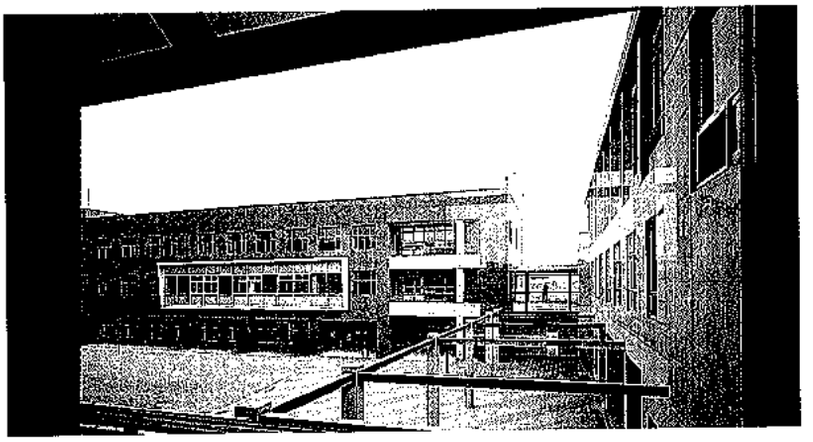
건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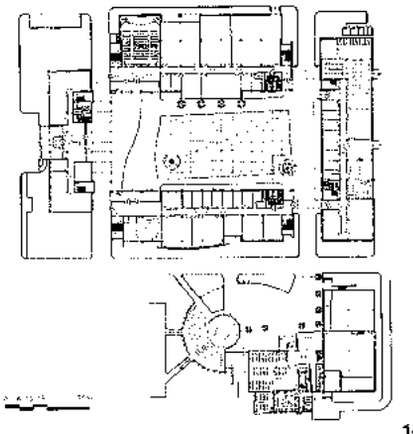
시화공단에 위치한 이 부지는 황량하고 매캐한 주변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프르름을 볼 수 있는 차단녹지에 인접해 있다. 바로 옆에는 같은 재단인 4년제 산업기술대학교가 있고, 바다방향으로는 심한 화공약품냄새를 내뿜는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밀집해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으로부터 대학 내부를 보호할 외피를 만들고 그 속에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했다. 그런 전제에 따라 부지의 가장외측(공단쪽)에 운동장 및 주차장을 녹지대와 같이 배치하여 소음 및 냄새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그 안쪽에 행정지원시설 및 복지시설을, 제일 안쪽에는 교육기본시설을 두어 보호된 환경속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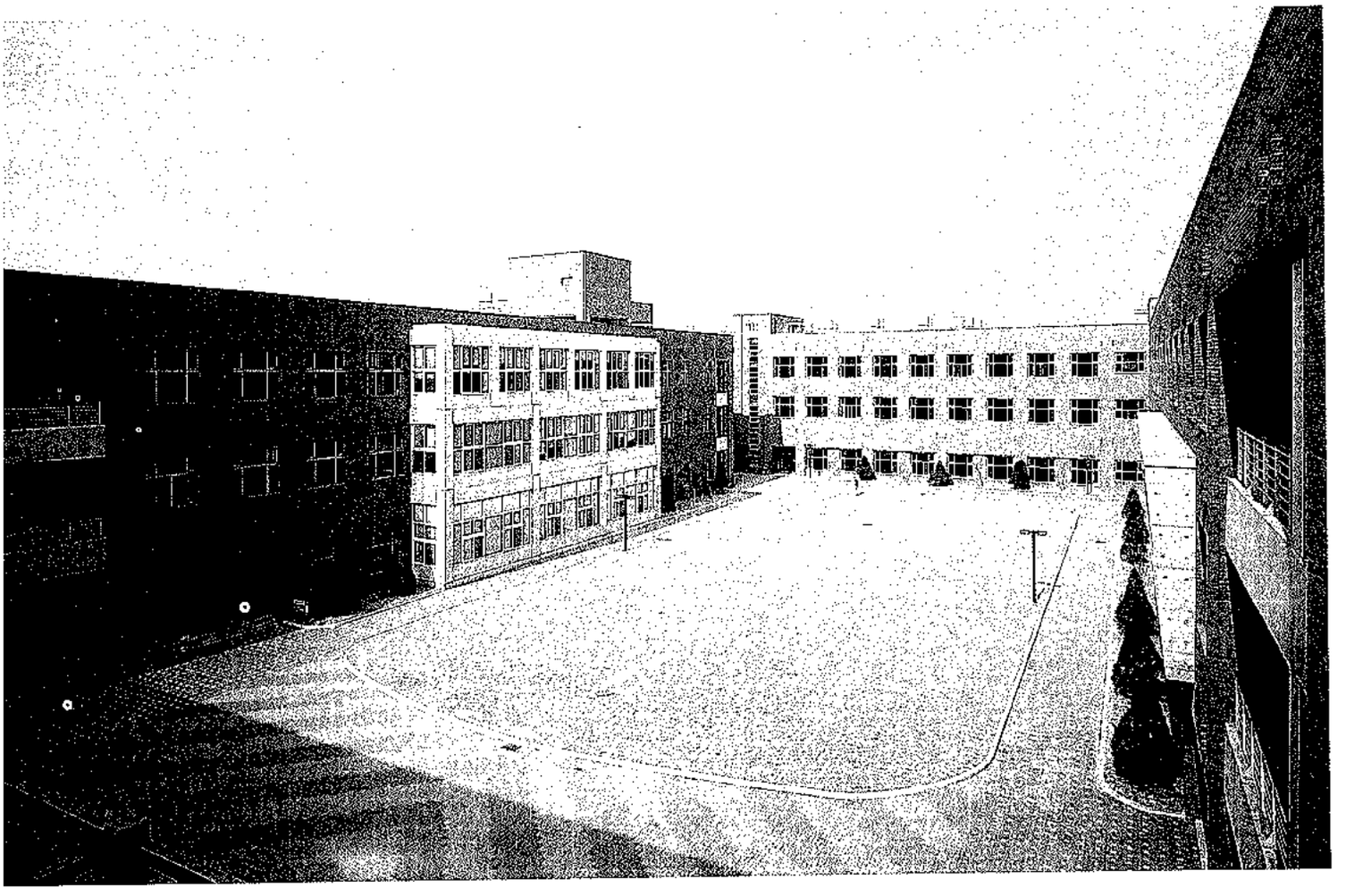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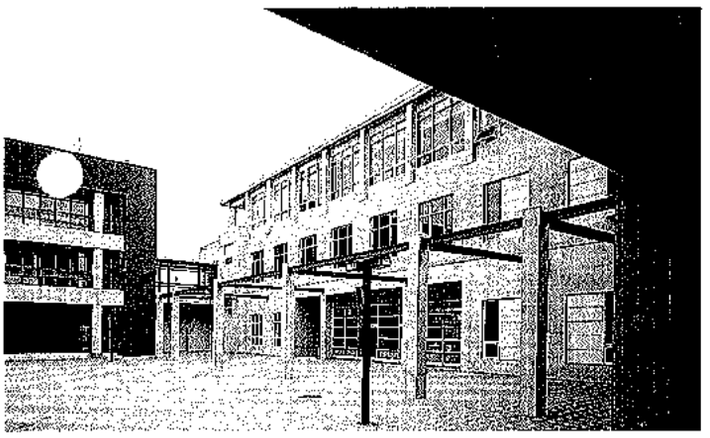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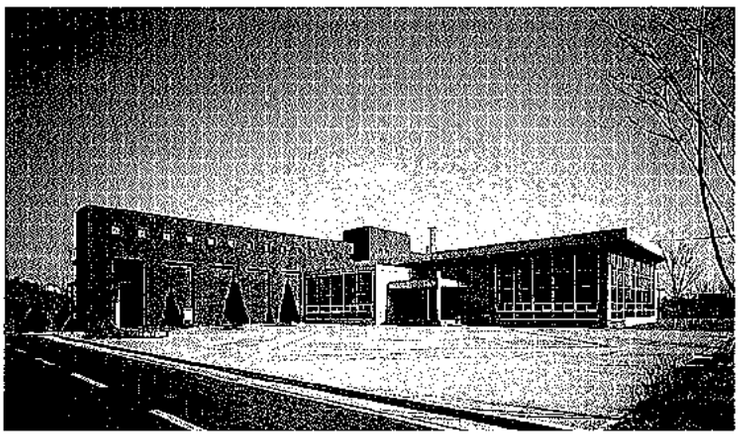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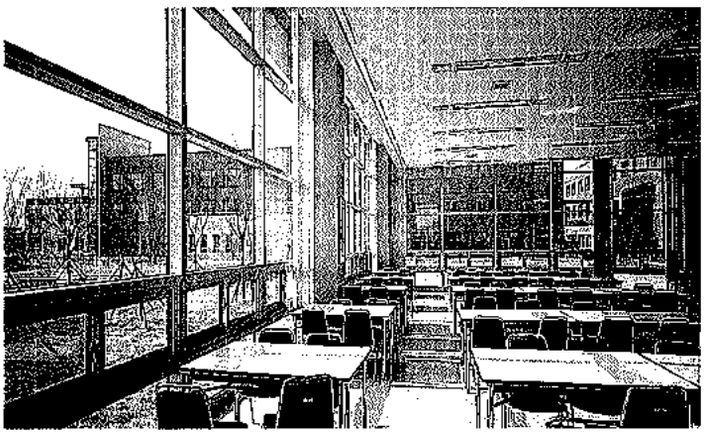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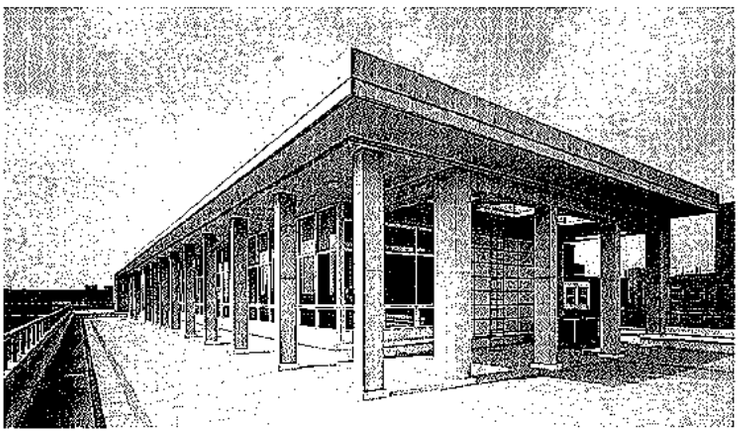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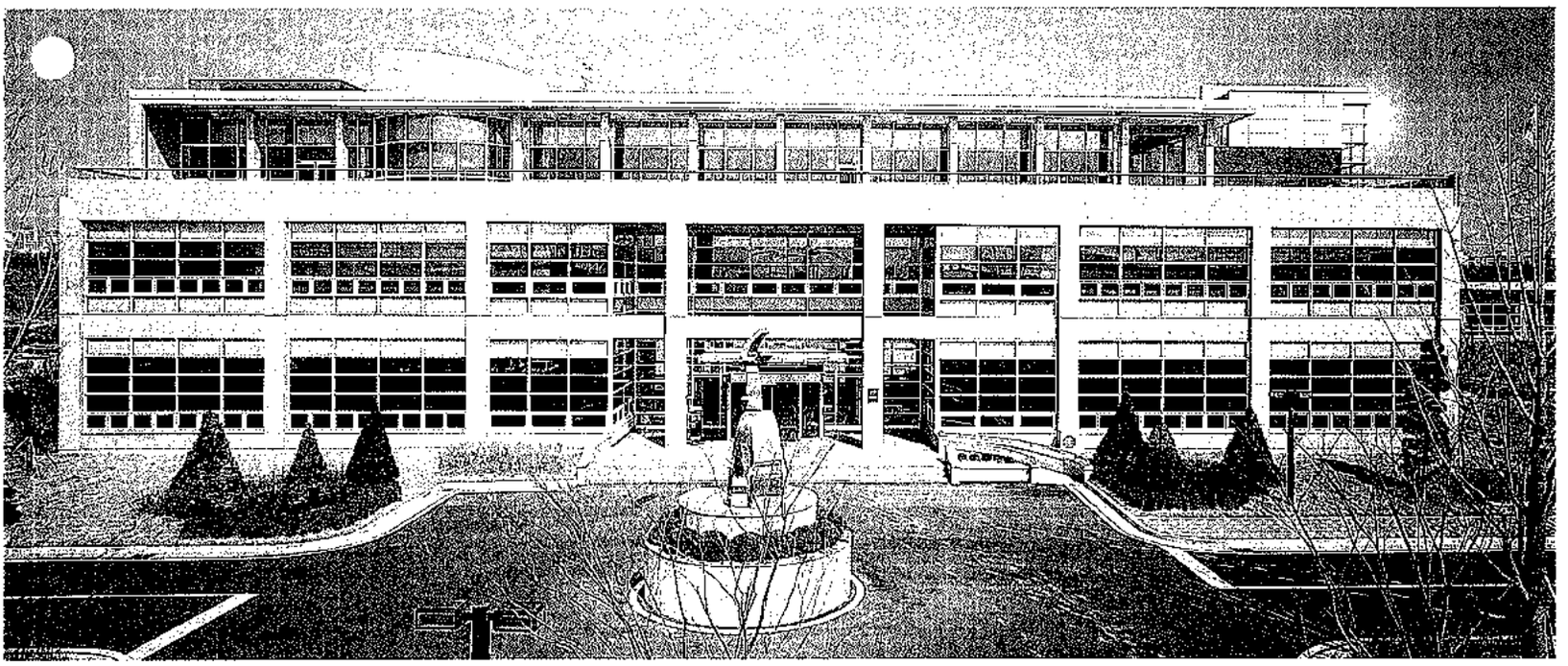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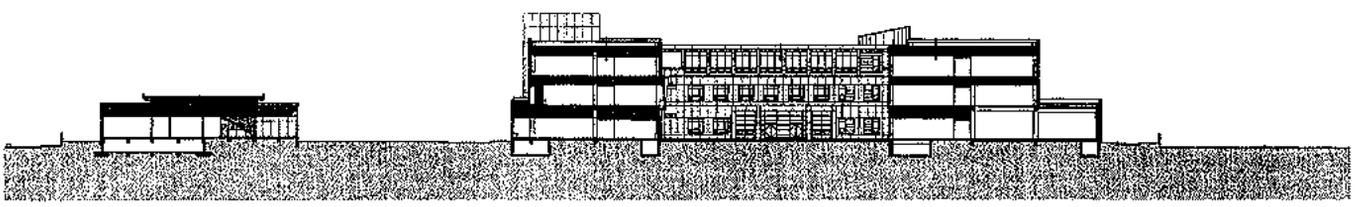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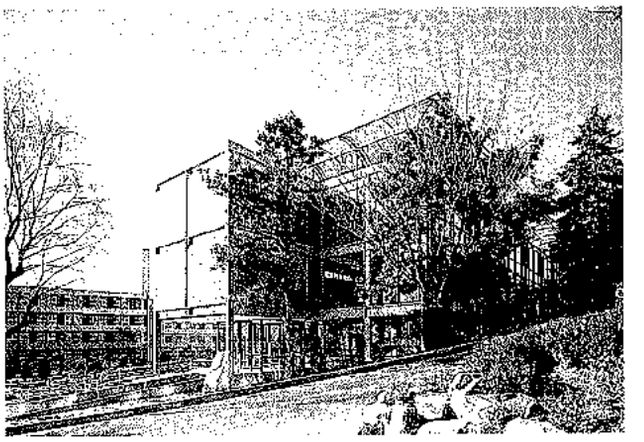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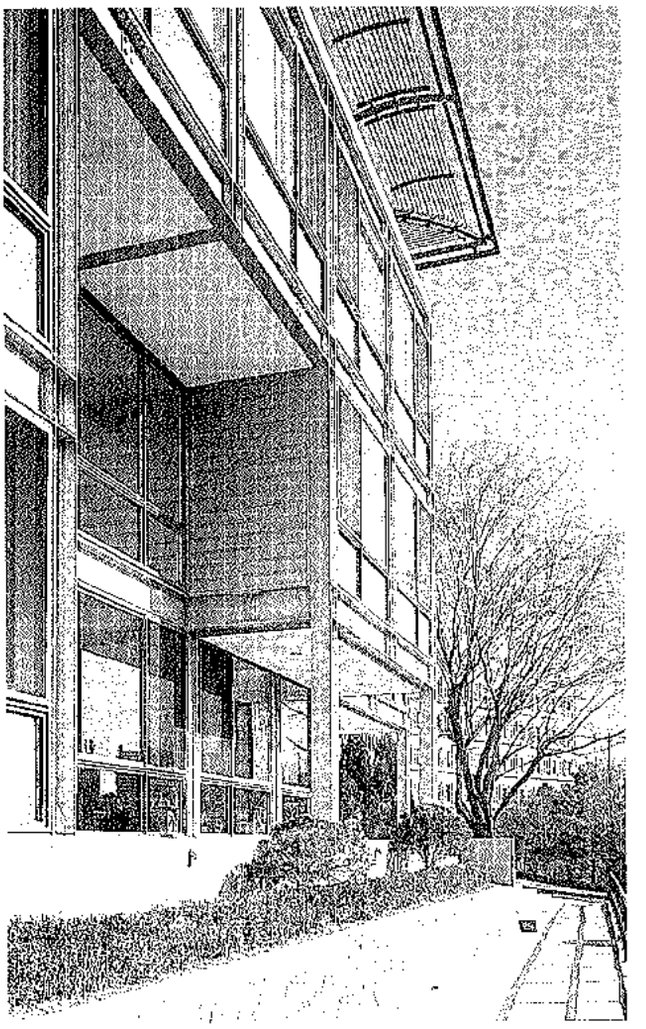
Enterprise Foundation Education Center, Soga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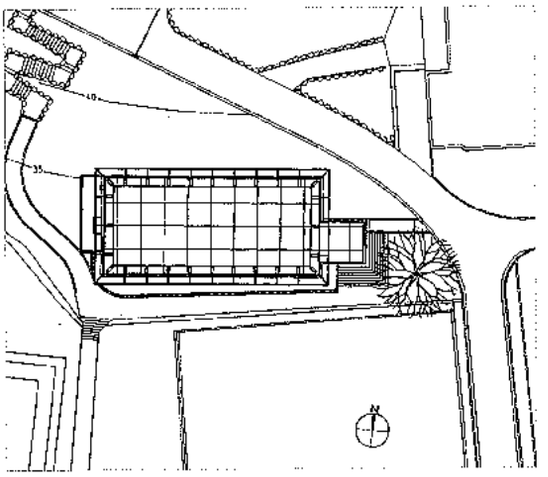
부대진 · 김무현 /(주)진아건축 ·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e-Jin & Kim Moo-Hyu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서강대학교내
대지면적	157,688㎡(학교전체)
건축면적	417.33㎡
연면적	1,158.28㎡
규모	지상3층
구조	철골조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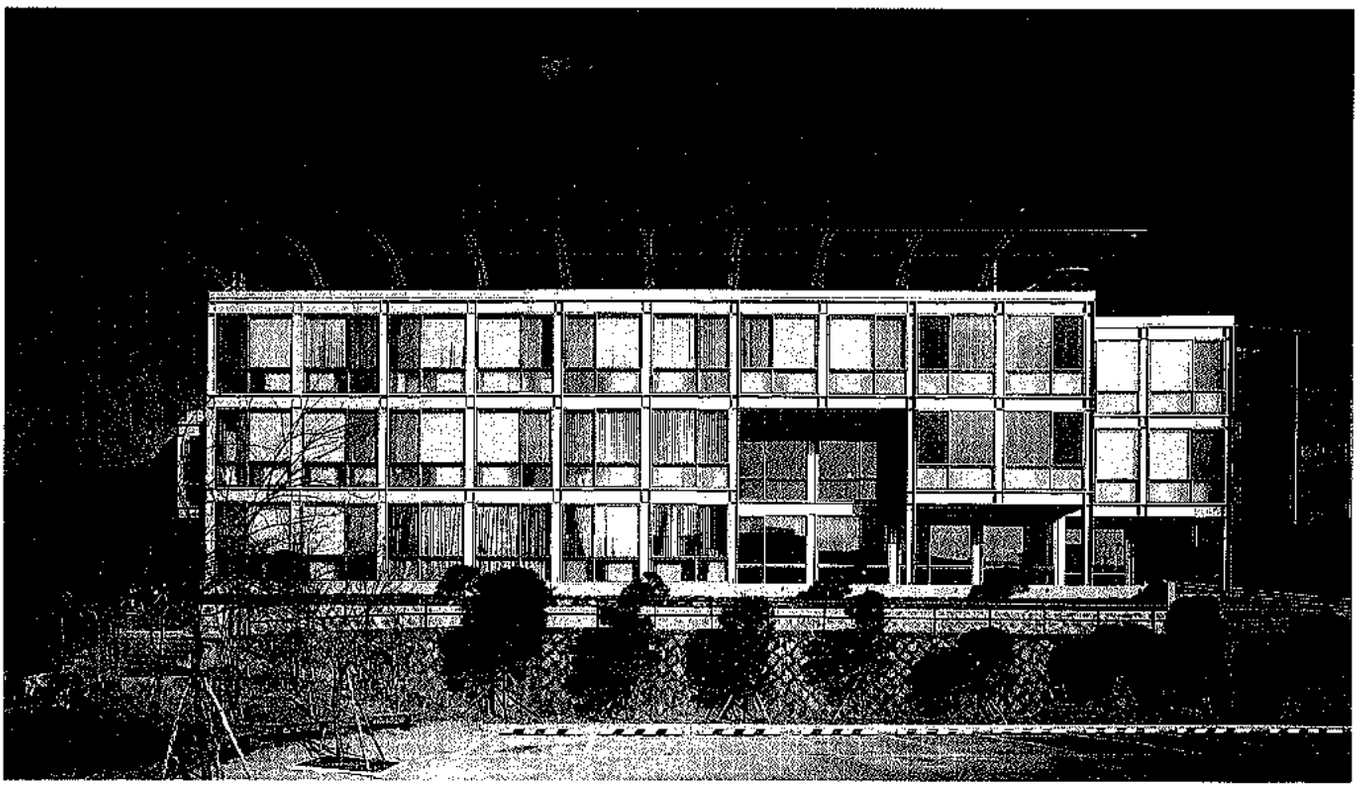






배치도

횡단면도



벤처라는 용어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졌다.

대학과 산업체가 연구와 실험, 기술개발을 공유, 보완하는 산학협동이 정부의 벤처 육성정책과 맞물려 각 대학마다 벤처관(창업보육센터)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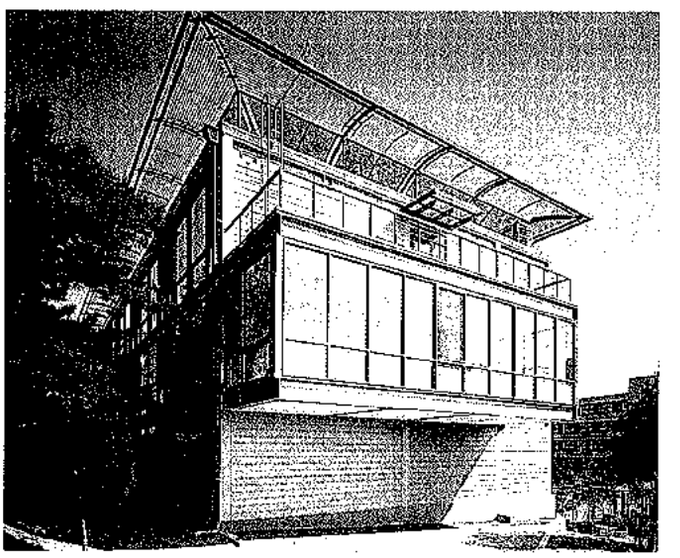
벤처라는 의미에 걸맞게 설계도 시공도 초고속이고 공사비 또한 초저가이다. 시간과 돈이 부족한 열악한 조건에서 나름의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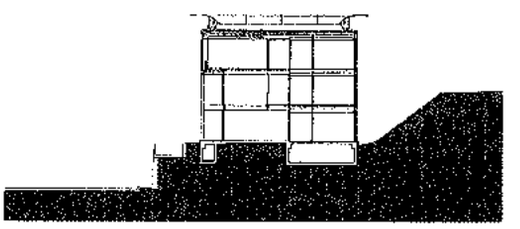
사회적 현상인 벤처가 이 시대의 건축에, 건축가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고 있는가.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변화가 등장했을 때, 이제껏 현실에 안주한 계층은 이를 인정, 수용하려는 경우는 드물다. 언제나 방어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오늘날 건축이란 분야는 가장 보수적인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른다. 장소와 시간이 돈으로, 원가로 환원되는 산업사회, 지식사회에 들어와서 건축가들은 한번쯤 자신의 작품에 들어간 시간과 결과물을 냉정하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 비교할 시기에 이른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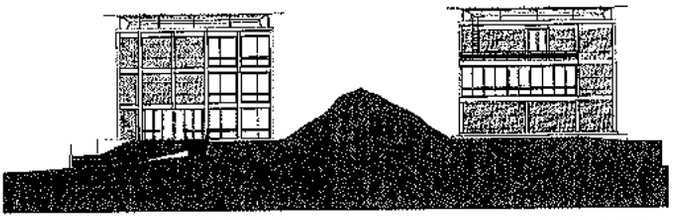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중심에 서서 과거의 전통과 양식의 단절을 경험하며, 새로운 환경에의 신속한 적응과 자기변화만이 생존의 요건이 됨을 인식하게 된다. 변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새로운 관점에서의 능동적 접근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 각 분야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고도 정보화 시대에, 효율성이 모든 가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플러스 샘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우리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차지해야 할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또 하나의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할애해야 할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생각케 하는 프로젝트다. (글: 부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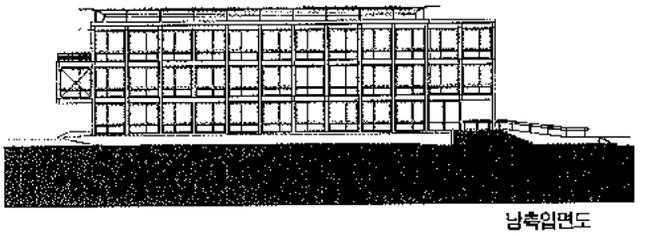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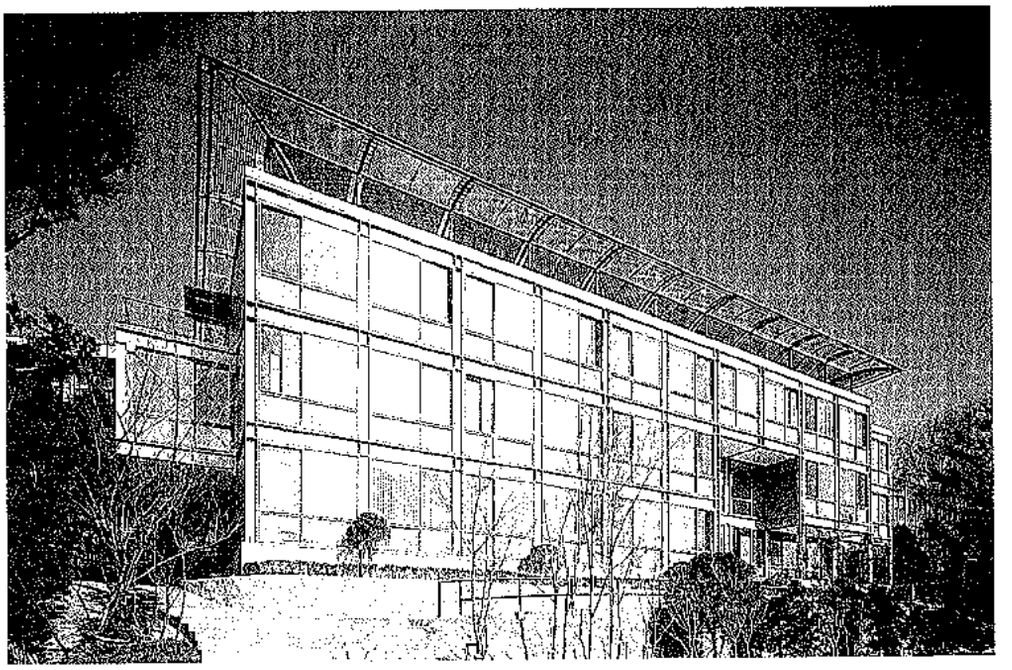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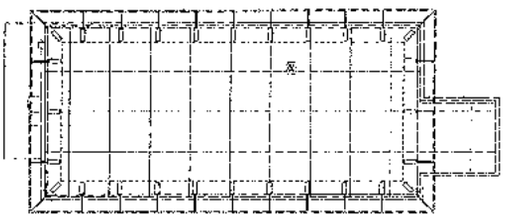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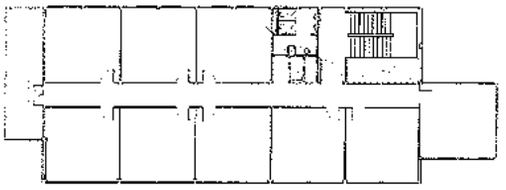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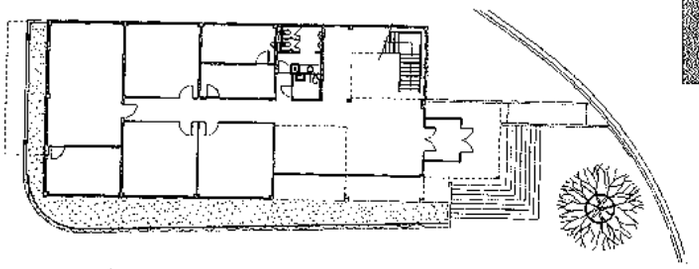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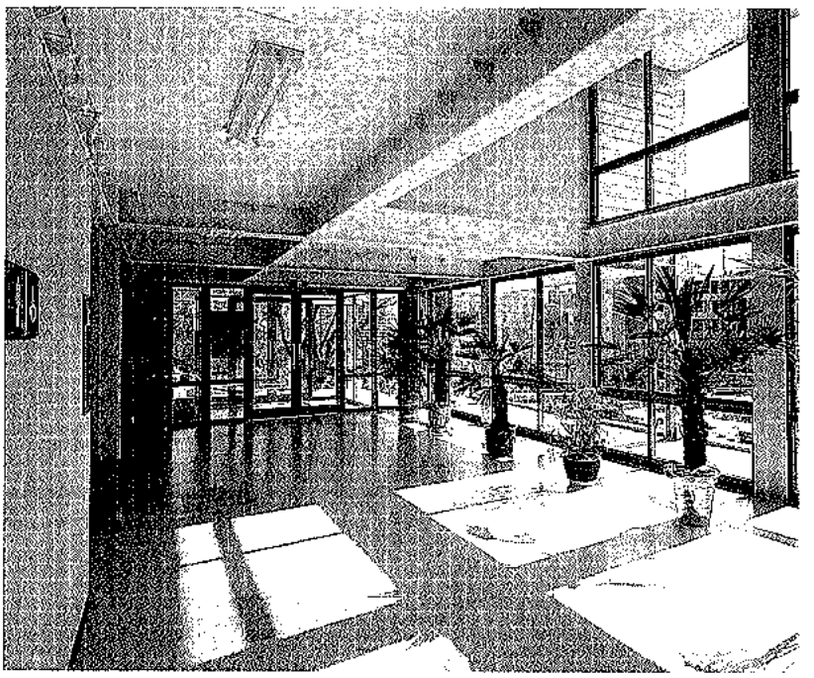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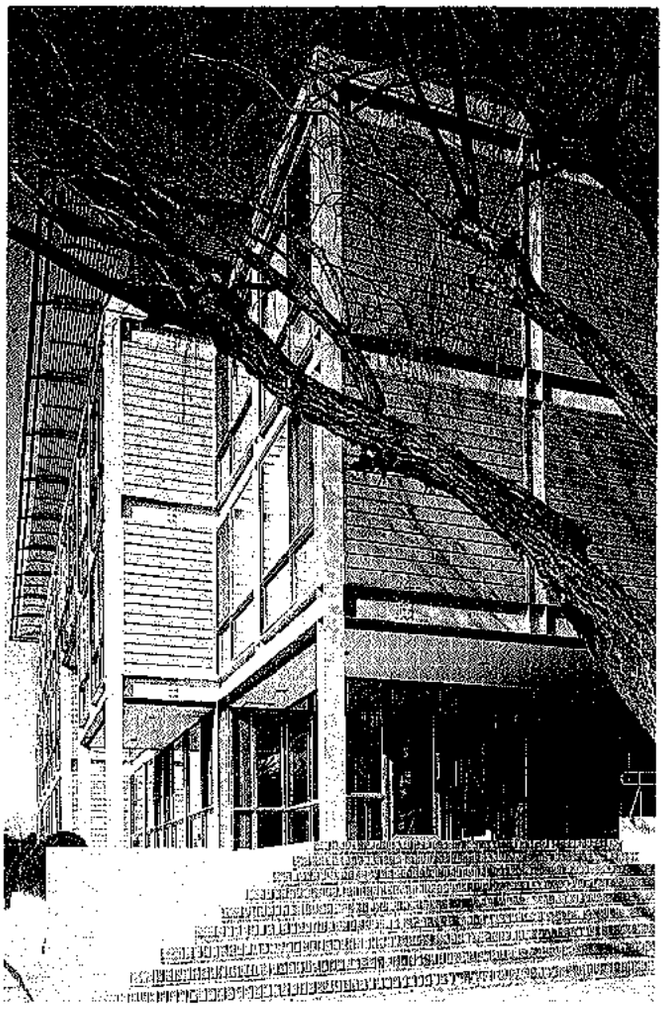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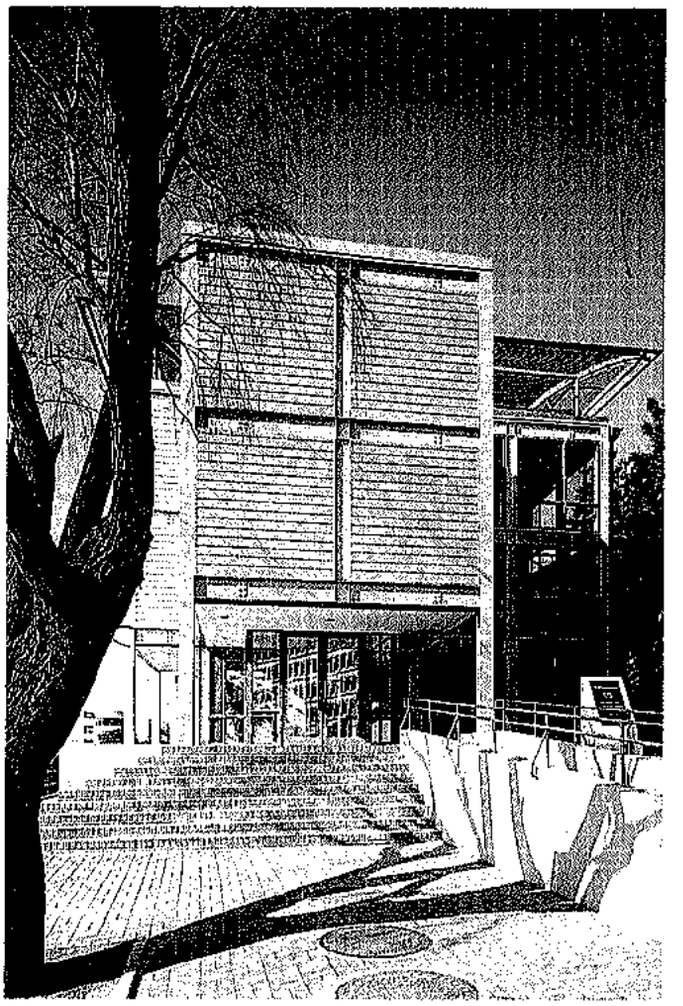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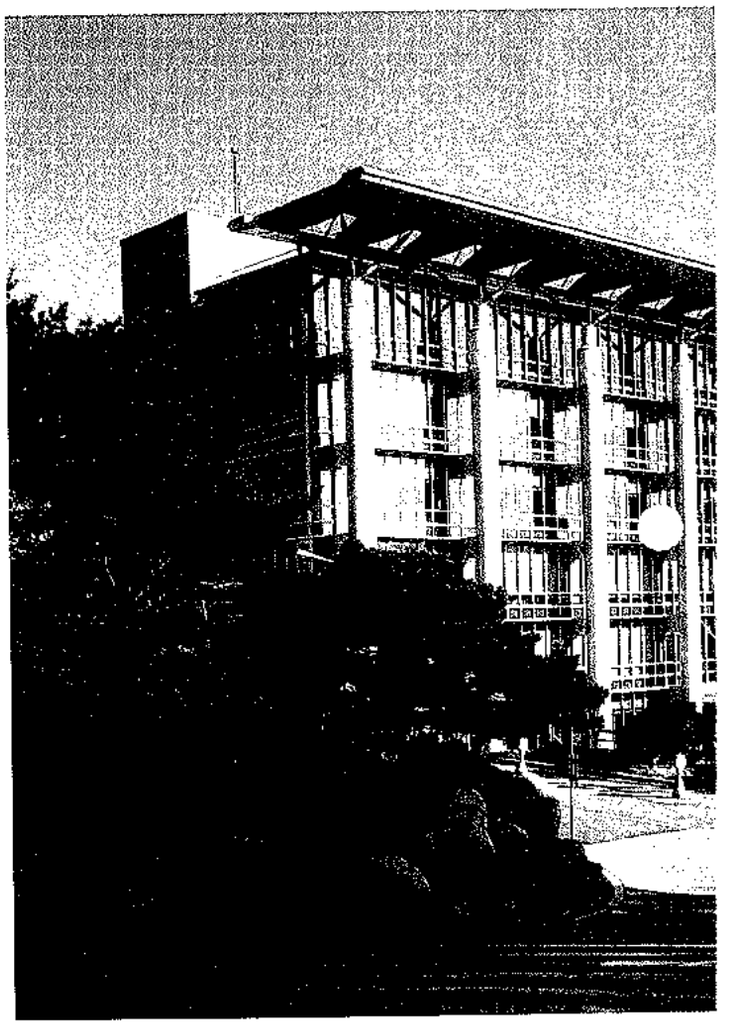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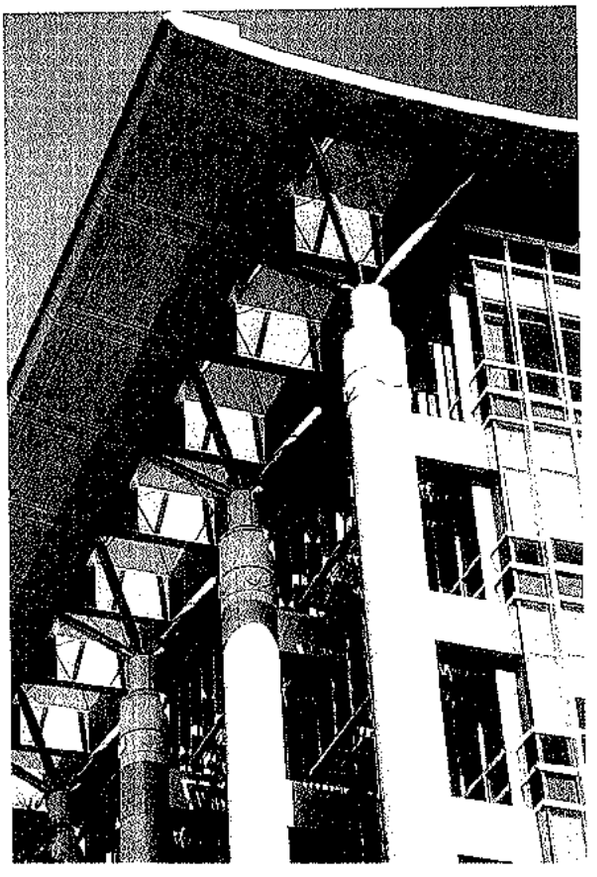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The 600th Anniversary Memorial Hall, Sung Kyun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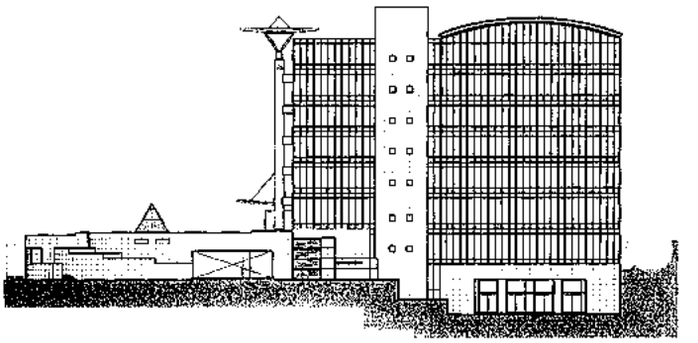
황일인 /(주) 일건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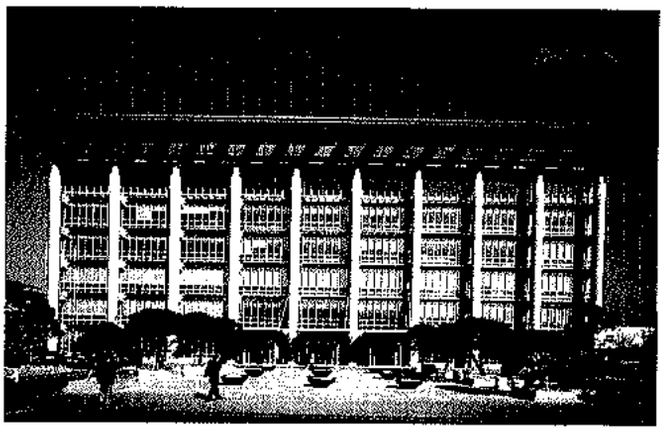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지역	일반주거지역
지구	풍치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21,160.8m²
건축면적	3,024.04m²
건폐율	14.79%
연면적	31,931.09m²
규모	지상 6층, 지하 4층
용적율	61.97%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압면텍스
외부마감	화강석, THK1.0mm SSTL 패널, THK24mm 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279대
기계설비	무애설비
전기설비	일진전기
설계담당	김인수, 최민호, 문병민, 김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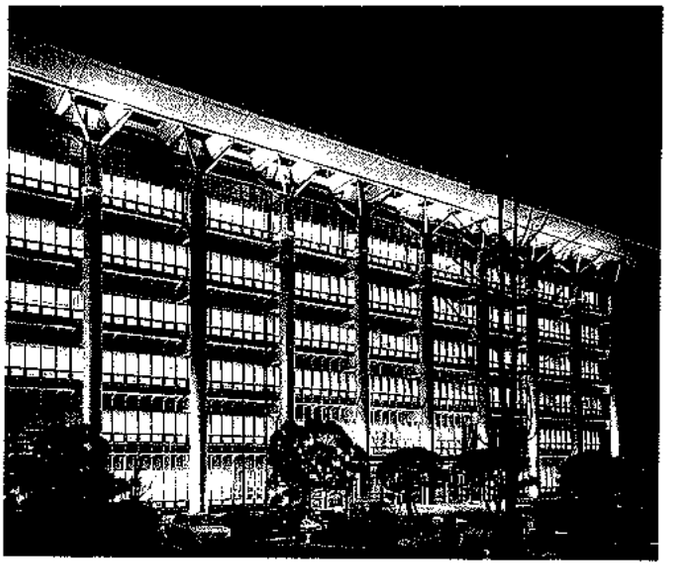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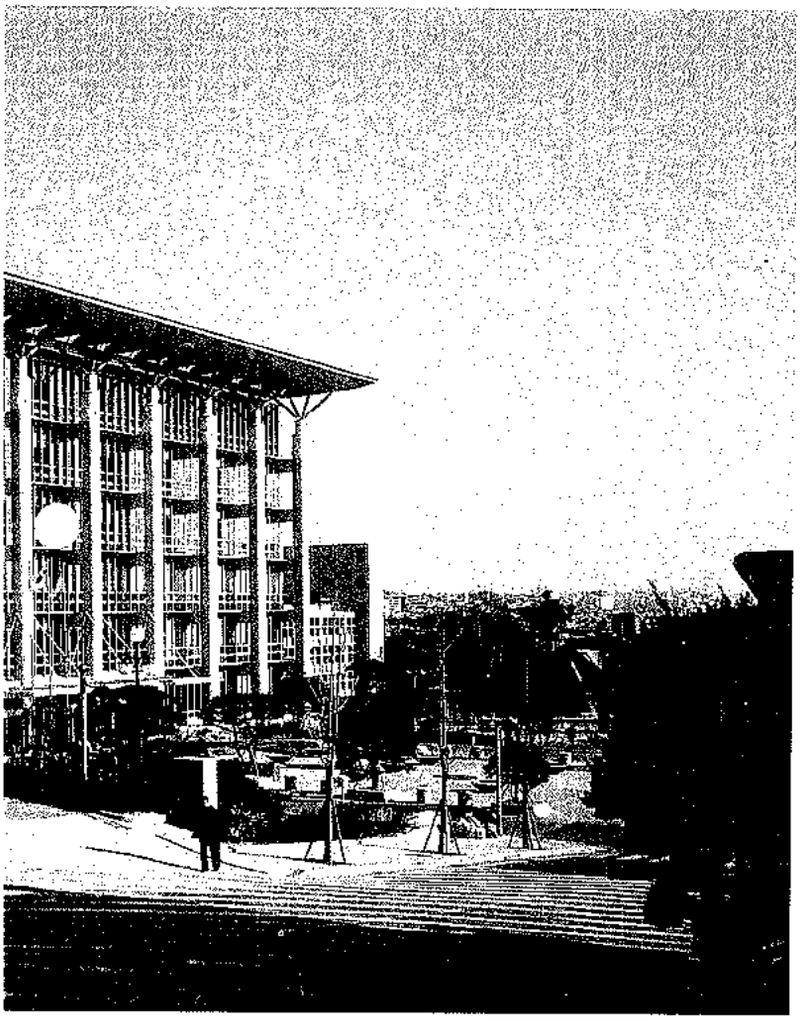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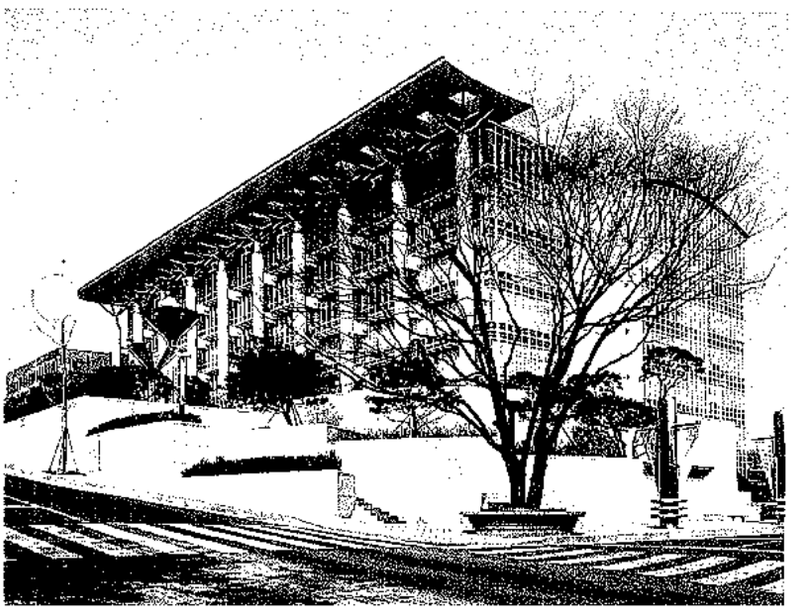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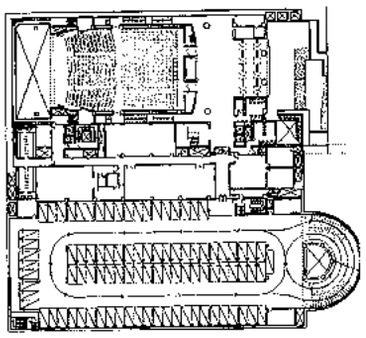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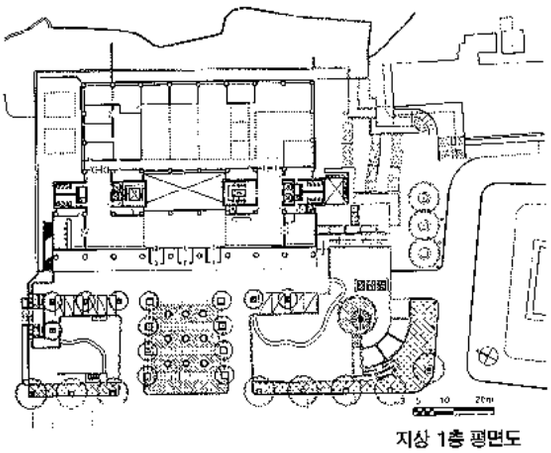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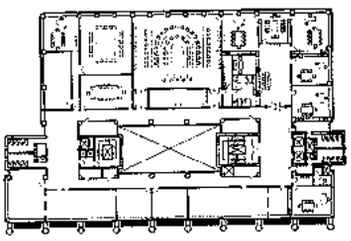
이 사업은 건학 6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건축물, 대학 캠퍼스의 구심적 건축물, 동양학 및 한국학 연구의 세계적 중심 기능을 갖는 건축물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학교의 상징적 건물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선진교육 지원을 위한 첨단 시설을 구비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600주년 기념관은 주 기능인 대학본부, 동양학센터 및 관련 연구소, 국제회의실, 박물관, 연회장 등 주 기능과 중강당, 집회장, 세미나실 등 학내의 학술지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의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이 건물의 사업목적에 나타나 있는대로, 대학의 중심 건물이 되면서 건학 600주년의 의미를 갖게하는 기념성과 상징성을 획보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대학 구내에 현존하는 명륜당, 대성전, 비천당 등의 전통건축에서부터 근현대 건축에 이르는 기존 건물과의 관계는 물론 주변의 자연적, 인문적인 기존의 캠퍼스 질서에 조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건물은 사용자에게 연구 교육 시설로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하며 경제성이 있고 유지관리에 용이해야 한다. 부지의 위치는 캠퍼스의 정문 옆에 위치한 성균관 구역에 근접해 있고, 이곳을 거쳐 캠퍼스 중심으로 집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디테일이 섬세한 전통 건축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계획부지 후면으로 전개되는 캠퍼스의 경관을 가능한 한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물을 소단위로 분할한 좁은 면이 성균관 구역 방향으로 향하게 배치하고, 건물을 주집입도로(대성로)에서 되도록 후퇴시켜서 캠퍼스 중심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해 대규모 복합기능에 상응하는 외부공간(전면광장)을 마련하였다. 여러기능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동선을 단순 명료하게 처리하였고 특히 중강당은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진입 광장과 입구를 주출입구의 혼잡을 피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제시한 한정된 규모 내에서 다양한 복합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공간분석 결과 비교적 작은 단위로 분할 사용하는 연구실 부분과 대단위 공간이 요구되는 두 부류의 공간 체계로 종합되었다. 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두 켜의 mass로 표현되고, 이 사이를 수직동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형상화되었다. 두켜 사이는 지하에서부터 최상층까지 아트리움으로 열려있어 건물내에서의 모든 부분은 자연 채광과 자연 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있다. 외장 디자인의 모티브는 전통 건축의 요소들을 원용하고 있으나 공법과 재료의 공업화, 첨단화 등 이 시점의 시대정신과 시간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는 캠퍼스내에 인접해 있는 전통건축의 설립시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간의 축을 보여주는 것이 건학 600주년을 증언하는 가장 생생한 상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하1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배치계획

- 광장과 건물의 향
  - 캠퍼스 통과동선과 기념관과의 완충, 진입공간 유지
  - 주 진인도로에서의 정면성 확보
- 합리적 동선체계
  - 대량 동선의 분리로 사용자의 편의 및 관리의 용이(강당, 박물관, 식당 등 별도진입)
  - 지형에 적응된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
- 기존 건축물과의 공간적 조화
  - 전면광장을 통해 도서관 및 유교대학과 자연스럽게 연결
  - 南 · 北측 공간을 소단위 분할함으로 기존 전통건축과 조화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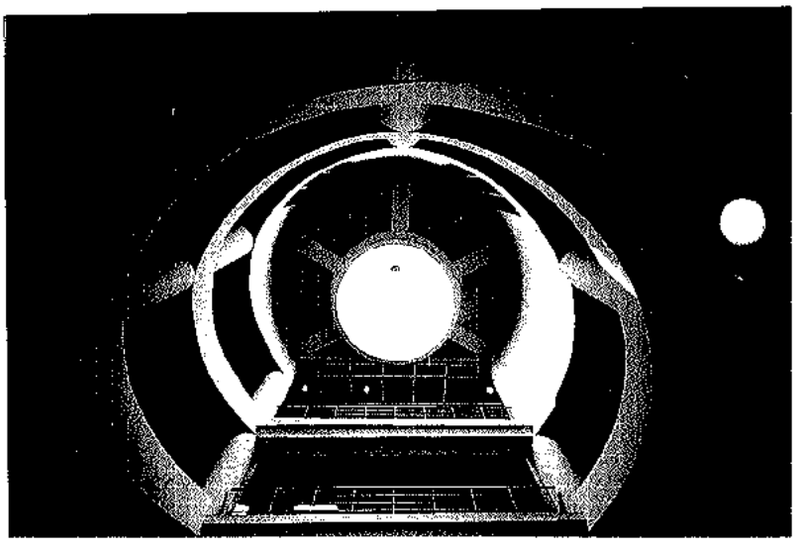
- 합리성 - 각 기능의 적절한 Zoning과 유기적인 연결로 공간 효율증대
- 융통성 - 자유로운 LAY OUT이 가능한 무주공간 구성
  - 대규모 공간 (21.6m×3.6m×16모듈)
  - 소규모 공간 (9.0m×3.6m×18모듈)
  - 서비스 공간
- 쾌적성 - 자연채광, 환기와 적정한 실내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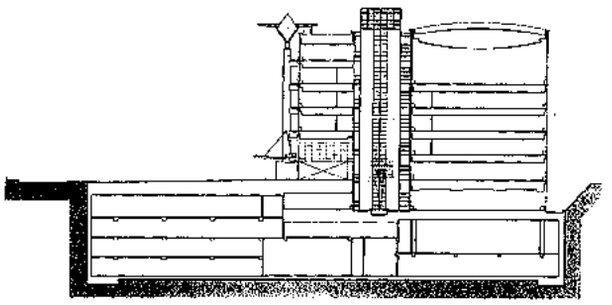
단면계획

- 명확성 - 각 기능의 독자적인 접근 용이, 개방된 수직 연결 체계 구성
- 효율성 - 가능별 Zoning이 단면에 반영, Lobby는 공간의 연속성과 개방감 부여, 중정은 내 · 외부 공간의 완충 공간 역할
- 쾌적성 - 개장된 중정을 통한 자연의 내부 도입, 전면부의 가변식 루우버 시스템 채용, 지하공간의 폐쇄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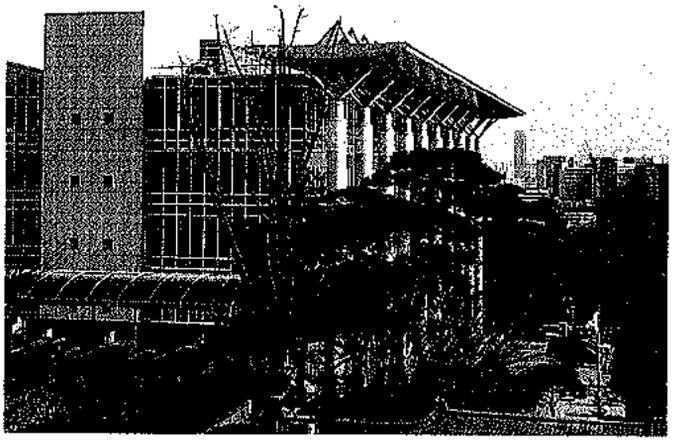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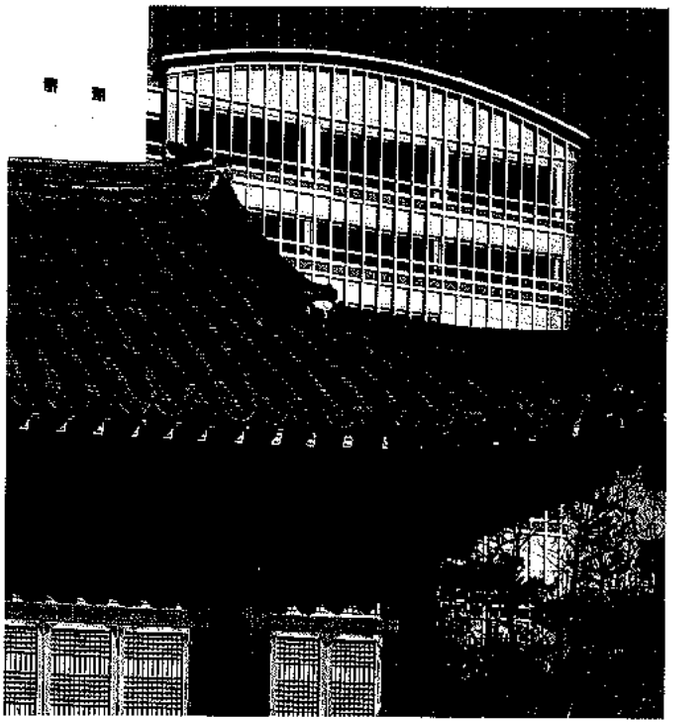
- 상징성 - 캠퍼스 중심, 한국학 중심
- 기념성 - 첨단재료 및 공법사용으로 600년 시간의 표현
- 전통성 - 전통적 공간 구성기법 및 의장요서 사용
- 인(仁) - 기존 환경 및 건축과의 조화
- 의(義) - 합리적 건축
- 예(禮) -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건축
- 지(智) - 공법, 자재의 첨단화, 용이한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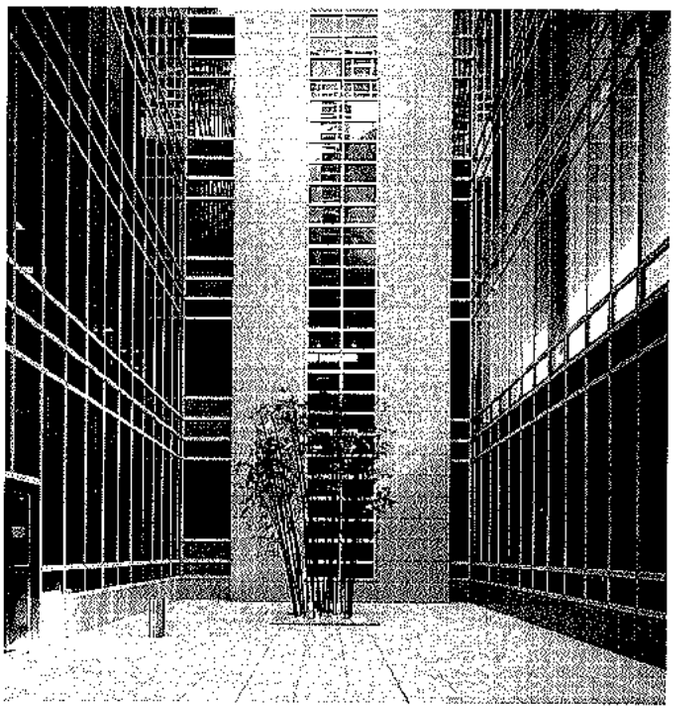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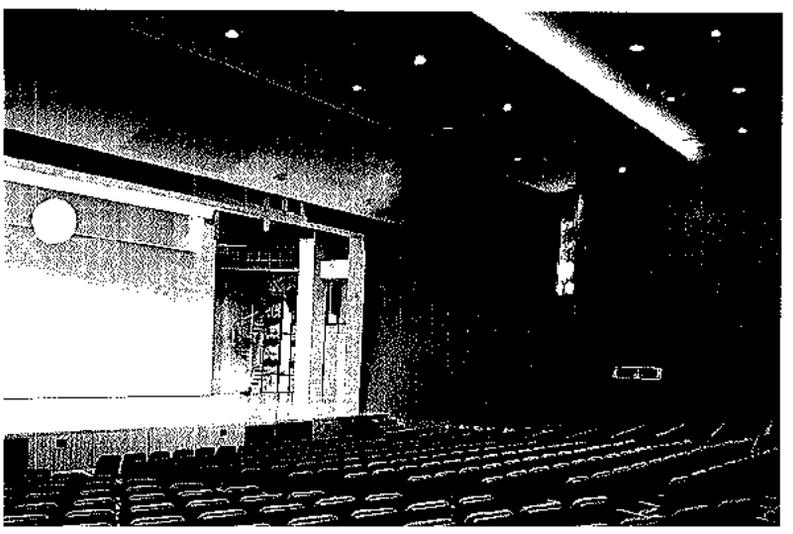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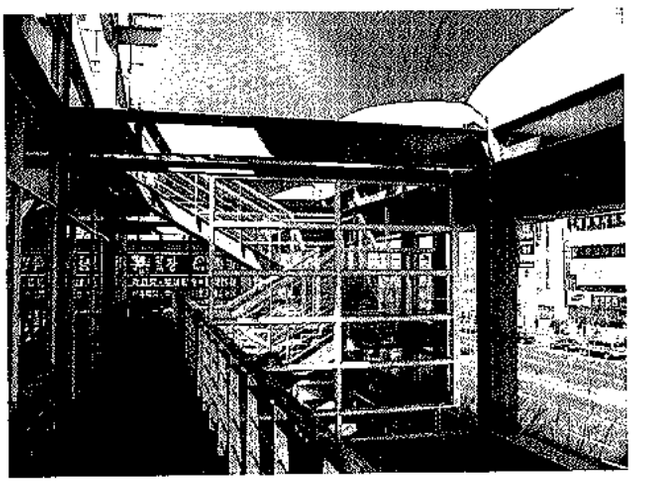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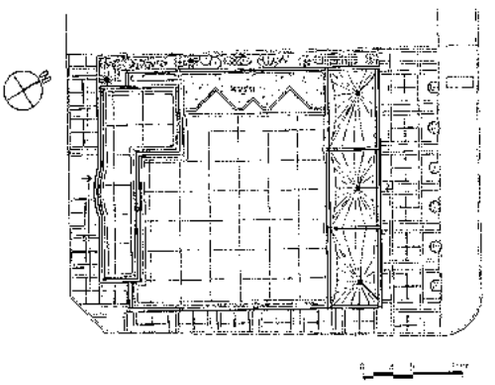
두산주엽빌딩
Doosan Juyeop Building

강철희 · 이 원 /(주)종합건축사무소 이 · 상
Designed by Kang Cheol-Hee & Lee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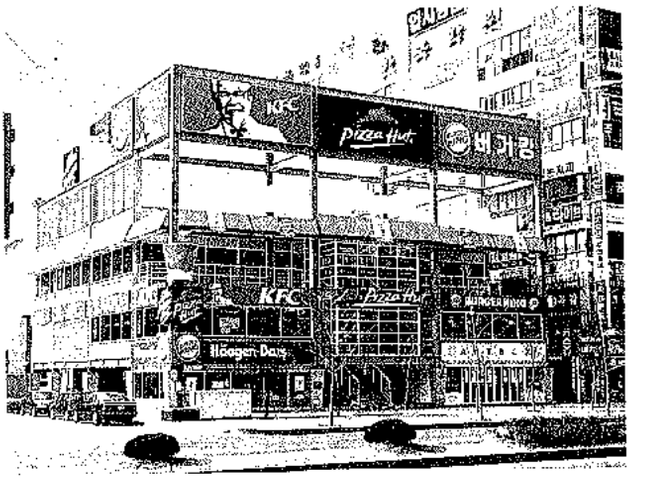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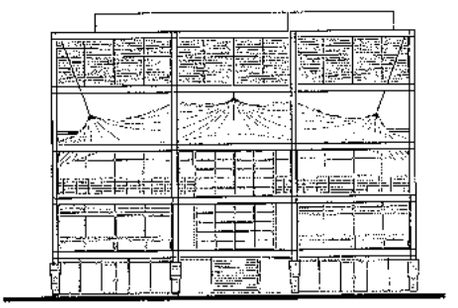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6-3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064.3㎡
건축면적	646.45㎡
연면적	1,482.59㎡
건폐율	60.74%
용적률	139.30%
용도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상5층
구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최고 높이	19.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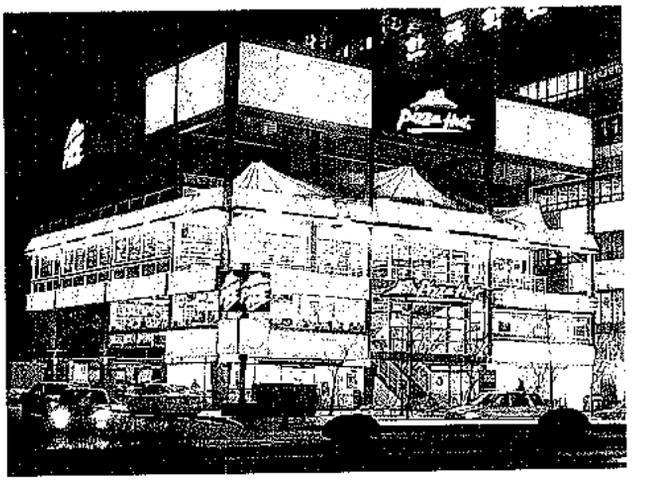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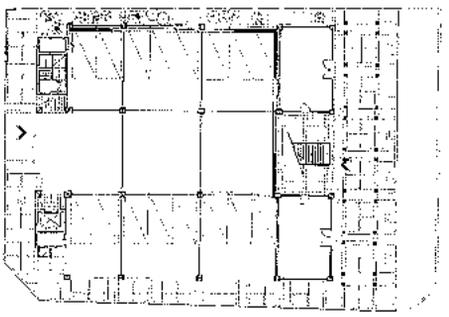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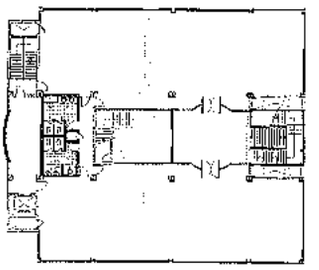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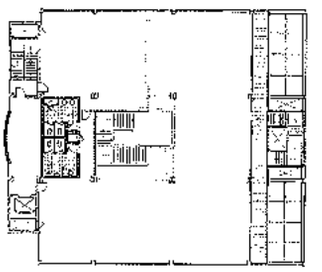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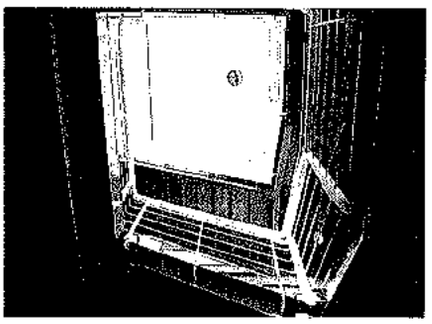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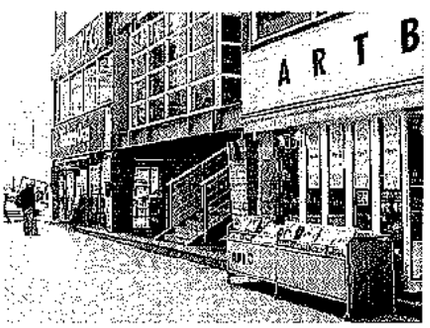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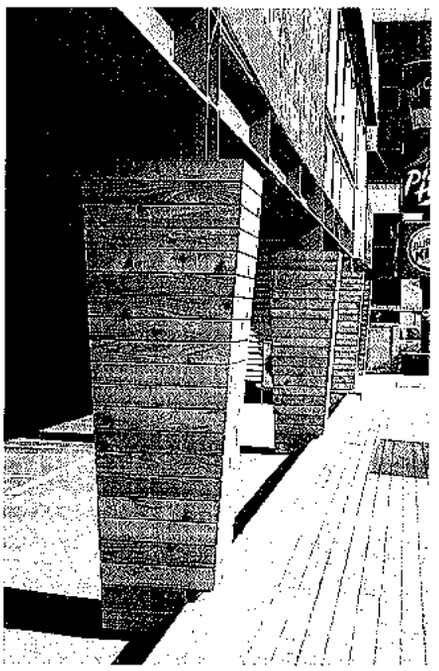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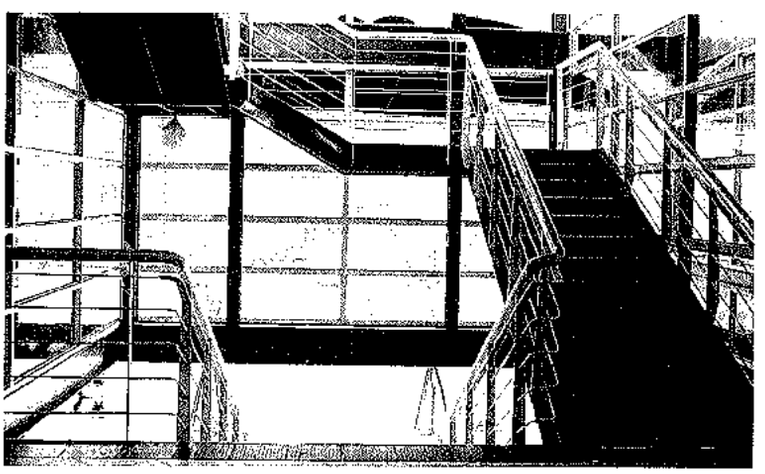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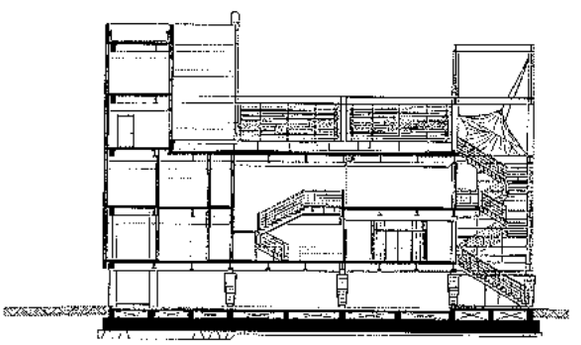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횡단면도

두산 주엽빌딩의 대지는 일산 신도시의 주엽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지로서 40M 전면 대로와 측면, 후면의 10M 도로에 접해 있다. 작금의 신도시가 그러하듯 건축물이 뿌리 박고 서야할 땅의 역사의 흔적이나 존재가치는 찾아볼 수 없는데다 또 다른 복병-획일화된 도시설계 지침-들, 가령 전면 공지확보, 건축지정선과 한계선, 층수제한(5층이상 10층이하) 등으로 인하여 가로변의 건축물은 일렬 횡대로 온갖 간판과 광고물로 뒤집어 쓴 채 도열하고 있어 시민들의 왕래는 많으나 섣불리 건물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훌러 가야만 하는 무형의 선이 도시와 건축사이에 그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산 K.F.C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위는 어떠해야 할까? 차라리 건물이 도시에 노출되어 건물의 요소들이 도시의 한 부분으로 제공됨으로써 보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두산주엽 빌딩의 건축적 구성 개념은 첫째로 이러한 도시적 요구가 기본이 되었다. 도시와 건축의 구분화보다는 상호관입 가능성이,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배치 방법이, 그리고 건축 요소들의 중간영역화 등이 건축에 요구되어졌다. 건축에 동원된 모든 건축요소들-피로티, 전면의 외부계단, 발코니, 상부의 막구조, 경사창을 통해 내외부가 교감을 갖게하는 투명창 등 모든 것들이 도시만들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도시의 무대장치로 쓰여지도록 구성되었으며, 이곳을 찾아 드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시 속의 건축, 건축속의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 바람을 가져본다. 이러한 건축적 개념들은 패스트 푸드점이라는 도시적 이미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개념으로서 디자인의 전제가 되었다. 둘째로 두산주엽빌딩이 도심의 상업건축물로서 시민들의 도시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적과의 동침으로 비유되는 굴지의 외식업체가 함께 입점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마케팅 전략에서부터 출발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대신 1층을 피로티로 처리하여 지상주차장을 확보하며, 서로 다른 아이템을 가진 입점업체들의 균형있는 임대조건과 고객의 접근성을 위하여 3층에 입점할 업체의 리셉션 홀을 2층의 중앙에 배려하게 되었다. 또한 전면의 반외부공간(Semi-Public Space)인 계단을 통하여 건물의 Roof Garden까지 고객의 흐름을 유도하여 한여름엔 별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

아름다운 주택을 꿈꾸며
Dreaming the Beautiful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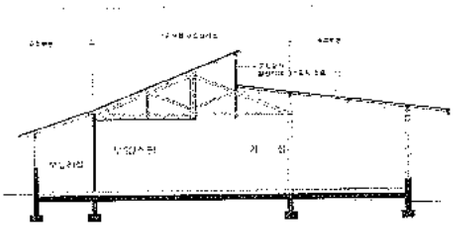
이관직 /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eek

주택설계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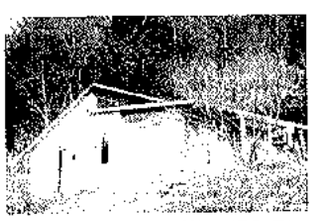
몇 년전 가까운 사람의 소개로 은평구에 상가주택을 설계하게 되었다. 건축주는 노인에 대한 봉사와 한국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젊은 분이었다. 건축가가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이해도 깊은 편이었다. 현실적인 이유로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건축주의 노력과 배려 덕분에 '진관외동 주택/담장낮은 집'은 완공되었다. 대로변에 2층 상가주택이고 규모도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다각형의 대지를 소화해 내면서 나름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지금은 1층은 건축주가 직접 국산차 등을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건축을 시작하고 최초의 자신의 주택인 셈이다.

또 한번 은평구 도로변에 삼각형의 자그마한 땅에 주택을 설계하게 되었다. 담장낮은 집 건축주의 소개로 한층이 20평이 채 안되는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이었다. 이른바 진관외동 II건물이다. 조그마한 슬레이트집이 있던 자리에 한가족 3세대를 구성하면서 면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계단실을 중심으로 반층씩 나누어 쓰는 스킵후로어 형식이 되었다. 대지를 침범한 이웃집과의 민원 문제며, 지적도와 맞지 않는 대지형상을 해결하고, 좁은 땅에 지하에 별도의 출입구와 법정주차장을 확보하느라 감리단계에서 고생을 했다. 그래서 두번째의 주택이 만들어졌다. 주택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에 앞서 건물이 가능하도록 해결하는 단계에 머무른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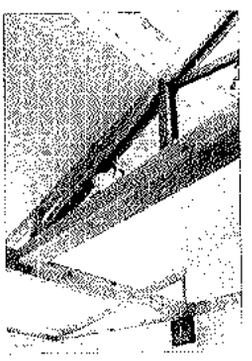
다가구, 다세대가 유행인 때에 연희동에 다가구주택을 설계했다. 여러 것을 거쳐 검토를 수없이 한 경우의 대지였지만 치밀한 면적과 기능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터였다. 주차장이 크리티컬한 건물이었다. 4대의 경우와 3대의 경우를 선택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4대의 경우 1층을 완전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완전히 땅에 묻혀서 근린생활로 계획해야하는 경우였다. 여러가지 검토 후에 건물 전면에 3대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엇갈린 계단을 이용하여 주차장 상부는 2개층이 되고, 건물 후면부는 3개층이 되는 스킵후로어로 해결하였다.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었다. 상부층에 건축주의 주택이 계획되었다. 스킵후로어의 마지막 층이었기 때문에 1.5층 높이의 거실이 가능했다. 주차장이 건물연면적



마석농가주택 단면도



마석농가주택 전경



마석농가 주택 내부 -
기존목재트러스와 고창이 보인다.

담장 낮은 집

을 제한했으므로 주택의 면적이 그리 넓지 못해서 거실에 부엌 식당이 함께 있는 LDK로 계획되었고 상부에 천창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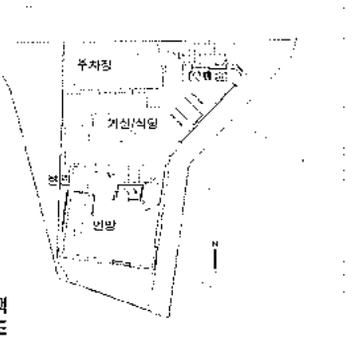
그 후에 역삼동에 상가주택설계를 했다. 강남이지만 큰길에서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1층 상가, 2층 다가구이고 3,4층이 주택인 복합 상가주택이었다. 골목에서 다양한 풍경으로서의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노력했다. 하우스플랙스(Houseplex)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이번에는 상부에 주택을 계단실을 중심으로 스킵후로어로 해결하고 거실의 공간감과 각 실에서 외부로의 다양한 조망과 골목에서의 배경으로서의 다양한 주택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전원주택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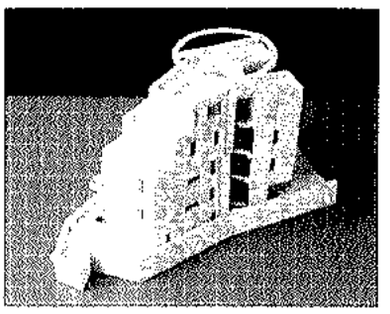
그렇게 복합건물로서 주택을 몇번하게 되면서 빈 땅에 처음부터하는 주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 빈 땅에 처음부터 주택을 온전히 그린다면 정말 좋은 건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빈 땅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여러 다른 건물의 경험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결국 여러 제약 속에 뜻한대로 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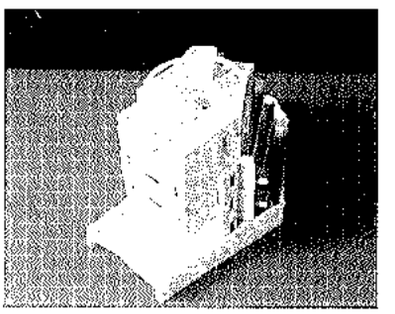
그러던 중 어른들이 미국에서 10여년만에 귀국하시어 예전에 사시던 블록집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기회가 생겼다. 83년(필자는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다)에 아버님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것이었다. 돼지 사육을 위한 창고에 딸린 관리사로 지은 것이어서 단순하고 엉성했다. 그나마 남쪽으로 샤시를 이어내서 거실로 쓰고 있었고, 후면의 부엌을 가자면 방을 통해서 가야할 정도였다. 개보수를 할 요량으로 지붕목조 트러스를 남기고 블록의 일부를 철거하여 평면을 재조정하고 지붕경사를 일부 연장하여 고창을 만들었다. 남향을 전망을 위주로 서향으로 바꾸고 나중에 나무를 사다가 직접 차양공사를 하였다. 전원주택으로의 고급스런 모양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내가 손수 그리고 공사 보조 잡부도 하고 애를 만이 쓴 건물이 되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랑도 하곤 한다. 아파트의 부엌은 여러 제약으로해서 대부분 인공조명에 의존하는 어둠침침한 곳에 비해 마석의 집은 고창을 통하여 해가 들 정도로 밝은 거실-식당에 붙은 주방이 있고 어느 곳이나 환한 밝은 집이다. 초라하지만 그 옛날의 지붕속 목조 트러스를 거실쪽은 노출시키고 일부를 미송으로 보강하여 구조적인 맛을 살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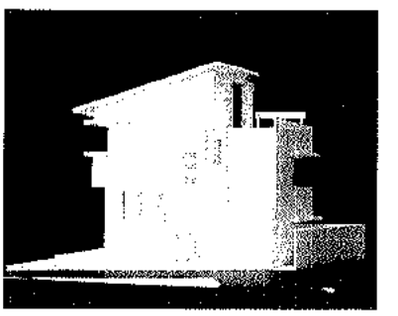
마석의 집도 준공한지 일년이 다되어 간다. 최근에 진관외동주택-담장낮은 집의 건축주가 그의 누님과 함께 지축동 북한산 부근에 그린벨트의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겠노라고 연락이 왔다. 그 건축주의 세번째 건물인 셈이다. 여러 사람에게 너무도 열심히 소개를 해주는 그분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자신의 집의 건축 설계를 맡기는 것이다. 현장을 답사하고 주택을 시작한다. 그야말로 빈땅에 처음부터 순수 주택으로 그것도 전원주택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감사와 감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대지 조건이 만만치는 않았다. 개발제한 전에 대지로 지정된 땅이어서 주택권이 있지만 한 필지여서 부동산사무소에서 이야기한대로 분할이 만만치 않았다. 구청에서는 당장은 필지 분할이 곤란하니 한 채를 짓고, 준공 후 필지 분할해서 나머지를 지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었다. 그것도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주택권이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건교부 질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



진관외동 II 주택
1층 평면도


연희동 다가구 주택 모델


연희동 다가구 주택 모델


진관 외동 II 주택 모형

고 답을 기다렸다.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애매하지만 일단 필지분할이 가능할 것 같은 답변이 나왔다.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지금 군협의(건축가능질의서)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두가족의 건축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조형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살사람을 위한 주택

그동안 설계를 해온 것이 증축, 개보수 등의 프로젝트가 하도 많아서 빈 땅에 조건없이 학교에서 하던 설계처럼 마음대로 해 보았으면 하고 생각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설계를 진행해보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신축이거나 증축, 개보수거나 사실 전혀 구분 없이 매 단계의 어려운 제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건축은 조건과 개념의 싸움이 된다. 조건은 무엇인지 확실한데 개념은 매번 자신을 더 괴롭힌다. 건축은 새로워야한다는데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왜 새로워야 하는가. 나의 건축에서 내가 드러내려는 것, 나의 것은 무엇인가. 사십의 중반, 우리나라에선 벌써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서 건축을 시작하려 하는데 중진이라니. 어쨌거나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하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박관념정도가 되었다. 위기가 기회라지만 기회는 다시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본다. 플라톤의 파르마콘이든 파라독스이든 어쨌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나에게 아니라 건축주에게 중요한 건축인 것이다. 보통 사람은 평생에 자신의 건물을 한번 지어보면 어쩌면 성공한 것인지 모른다. 그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직업적인 반복의 기회로 생각해 버렸던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한다.

외적조건과 내적개념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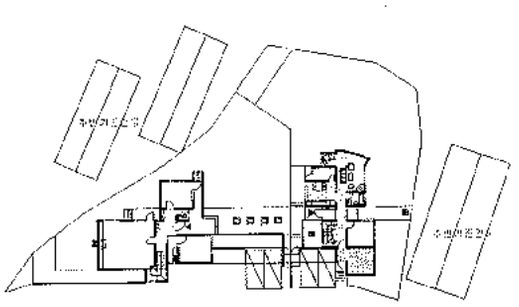
주택에서 개념이란 무엇인가. 건축일반론의 관점에서 주택은 조금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주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주택은 그 둘이 동일인이고, 장기적인 소유 혹은 거주의 상태에 있게 되며, 더구나 세대를 반복하여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또한 남에게 팔게 되거나 임대를 해버리면 설계 때 진행한 모든 협의 내용은 연속관계에서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결국 주택도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일반 건물에 있어서의 조건을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도 건축가의 개념의 표현일 수 있는 개별표현의 대상이 된다. 개별표현이라는 말은 공공성의 작품인 건축이 작가의 개별표현으로서의 작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한다. 주택은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설 주문을 하는 일차적인 건축주와는 별개로, 건축물로서 사용자의 순수한 공간-기능 관계를 이해하는 건축가의 해석에 의한 기능, 공간, 조형, 물성이 조화된 작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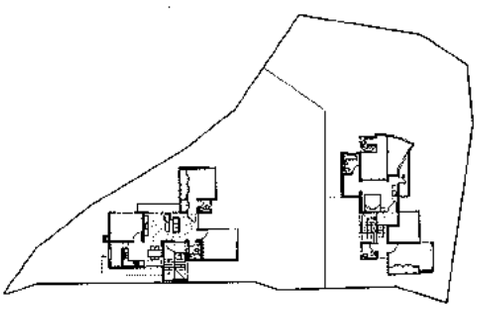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의한 집을 설계하고, 건축주의 돈으로 건설을 하는 것이므로 일차적인 관계에 의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건축주와 건축가의 작업은 '조건과 개념'의 갈등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지만 지축동 A, B주택이라고 부른다. 지축동 A의 건축주는 목사와 미술교사이다. 노모가 계시고 아이가 있다. 미술교사인 부인을 위한 작업장과 목사인 남편을 위한 이야기방이 요구되었다. 지축동 B의 건축주는 진관외동주택-담장낮은집의 건축주이다. 약사인 부인과 지금은 따로 살지만 같이 모실 수 있는 방이 필요한 부모가 있고, 아직 유아인 어린 딸이 있다. 딸에 대한 방과 공간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각별하다.

두건물은 지금은 하나의 필지이지만 정확히 면적을 둘로 갈라서 분할하고 독립적이지만 공동의 생활영역과 공간, 조형이 요구되어졌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생활과 소유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매매 처분



지축동 주택 A, B 1층 평면도



지축동 주택 A, B 2층 평면도

도 가능해야 한다.

우선 요구된 조건과 대지의 해석에 충실하려고 했다. 북한산을 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층에서는 담장처럼 둘러쳐 있는 나무위로 북한산, 도봉산의 봉우리와 능선이 기가 막히게 펼쳐진다. 초기의 착상은 건물 전체 계획 방향을 좌우한다. 중요한 기점인 착상은 공식이 없다. 대부분은 대지와 요구조건을 분석해 놓고 며칠이고 스케치에 의존한다. 그래서 대지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초기 단계에서 대지의 형태와 접근(access)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대지의 이용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A주택은 건축주의 노모가 텃밭을 희망하였고, 분할선을 정하면서 주택의 배치를 염두해 두었다.

초기 안을 만들고 첫 계획안 미팅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과 너무도 달랐다. 서면으로 만들어 주기까지한 건축주의 요구와 대지조건를 충실히 풀어서, 나름대로 건축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회의 때는 그런대로 긍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가 며칠후에 공동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전혀 반대의 의견으로 올라왔다. 조금은 난감했지만 주택은 건축주의 것이고, 설계는 그 주문에 대한 최선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정되고 지적된 내용에 따라 다시 작업을 했다. 그후에 계획안은 두세번의 변화를 겪었다.

주택 A는 계단을 중심으로 집중된 공간 구성이다. 건폐율이 20%로 제한된 조건이 건물을 압축되도록 만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건축주의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해법과 관련된다. 1층은 작업실과 이야기실이 계획되었고, 주택은 2층에서 현관을 별도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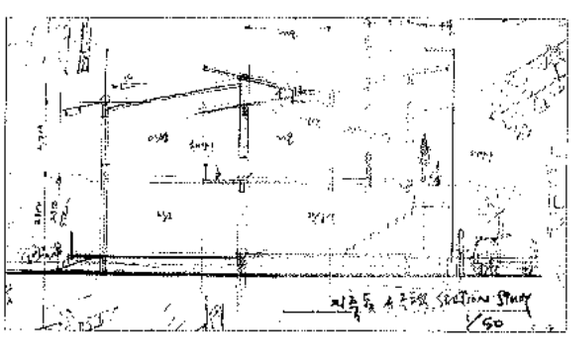
주택B는 현관에서 건너마당으로의 조망과 채광이 1층에서의 관심이었다. 1.5층에 위치한 아이방은 비교적 넓은 면적, 다락방, 고창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것이다. 2층의 주인방은 침실과 거실 공간으로 구분되고, 거실 부분은 아래층 거실과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동음 계단을 통해 동선의 연결도 고려했다. A주택과는 달리 공간을 중첩된 선적(linear)인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분산 공간을 생각했다.

사는 이에게 유쾌하고, 보는 이에게 아름다운 건물, 그러면서도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풀어가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조형 또한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이다. 지붕은 건축주의 비교적 강력한 요구로 경사지붕으로 검토되었고, 경제성과 시공성을 염두에 두었다. 지난번 건축을 통해서 건축주는 평지붕에서의 방수하자에 대해 예민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경쾌감과 비례가 지붕에서의 관심사이다. 사각적인 디자인과 개념의 문제는 언제 하나로 만날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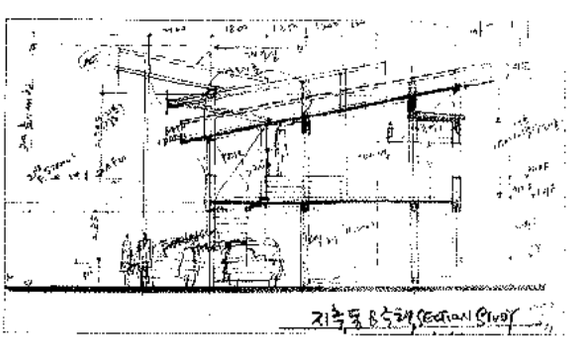
아직 최종의 물건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림단계에서의 수정과 고민이 건설 단계에서 하자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는 그림에서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설계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디자인은 보다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음은 확실하다.

새로운 개념을 세우고 건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아름다움을 위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모험 밖에 없음을 안다. 어떤 건물도 조건의 결정체이다. 조건과 개념의 갈등에서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갈등일 수 밖에 없음을 안다.

나의 건축, 우리의 건축, 한국적인 주택은 아마 나에게 몸에 밴 어떤 것(생각, 손, 마음, 근육, 팀, 조직, 프로세스, 컴퓨터…..)에 충실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지축동 주택 A 단면 스케치



지축동 주택 B 단면 스케치

지역건축탐방 16 - 북한(상)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North Korea

55년 동안 분단상태로 공존해 오면서 '우리건축'은 서로 다른 2개의 독특한 지역건축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한쪽은 '자본주의 현대건축',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 현대건축'이다. 두 지역 모두 현대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건축의 형식과 내용, 사고체계는 다르다. 건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것이라고 하지만 건축의 의미, 건축을 만들어 가는 사고체계, 건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두 지역이 전혀 다르다. 패션적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이고, 조금 무질서해 보이는 현대건축이 있는가 하면, 체제우월적이고, 웅장하고, 상징적이며, 도시기본구조에 맞춘 질서적이고, 조금은 비효율적인 면도 보이는 현대건축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엄존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대립의 흔적은 건축에 깊이 박혀 그 흔적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건축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기세이다. 건축이 정치분야와 무관한 듯하지만 그래도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건축이 체제를 선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의 정치성이다. 건축의 정치성이 건축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나 북한의 건축은 모두 '우리의 건축'이다.

지역건축 탐방이 지금까지는 같은 문화환경에서 표현되었던 지역건축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북한지역 건축은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문화환경에서 존재해 왔던 우리민족의 지역건축에 대한 이야기다. 언제까지나 북한을 대립의 상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이질화되었지만 동질성 회복은 우리시대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건축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학계에서도 세계 각국의 건축을 탐색하면서 정작 다른 한쪽의 건축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건축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건축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근해 가기 위한 발판으로 지역건축탐방 「북한」을 기획하였다. 지역건축탐방 「북한」을 기획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건축가나 관련 인사가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도해 볼 빌미조차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평양도시설계사업소에서 구조방면의 설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참여하여 이를 통해 북한 건축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 기획이 비록 우리끼리의 담론에 그치고 말았지만 빠른 시일에 남북한 건축인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디렉터 / 이왕기 (목원대 교수)〉

〈상편〉 **북한 현대건축의 변천** / 이왕기 ____ 74
북한의 도시계획과 그 전망 / 김현수 ____ 80
북한건축 답사기 / 김봉건 ____ 84
북한의 건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김병성 ____ 89

〈하편〉 북한의 주택실태와 주택정책 / 서우석
북한의 건설현황과 전망 / 장인숙
금강산에서의 건설 경험 /김나영
좌담 | 북한 도시, 건축의 개방과 통일 준비

북한 현대건축의 변천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odern Architecture

이왕기 / 목원대학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by Lee Wang-Gee

또 하나의 지역건축

같은 민족이 같은 역사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냉전 이데올로기 건축양식은 서로 다른 지역성을 표방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과 분단의 역사로 남·북의 현대건축은 세계사 속의 독특한 지역건축을 표출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건축적 교류는 한번도 없었다. 정치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건축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장벽은 무너졌으나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그 잔영이 크고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민족'은 이데올로기를 넘을 것이고 시간은 역사의 장을 채워갈 것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북한 건축에 대한 정보는 체제 우위를 위한 '전시(展示)건축'이라는 것이 전부이다. 이제 문화로서 '지역건축'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해온 행태의 반복이다. 건축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되고 과시의 상징물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북한의 현대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민족동질성 회복에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건축계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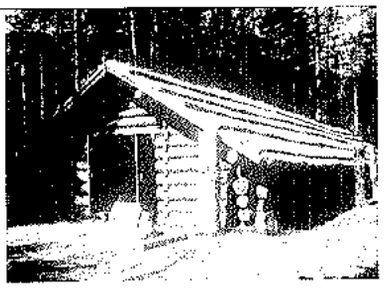
북한 현대건축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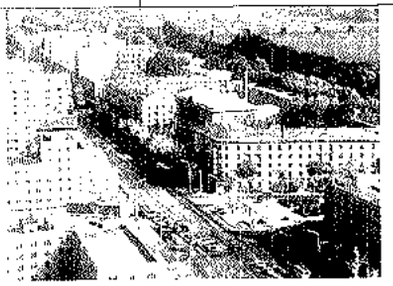
1926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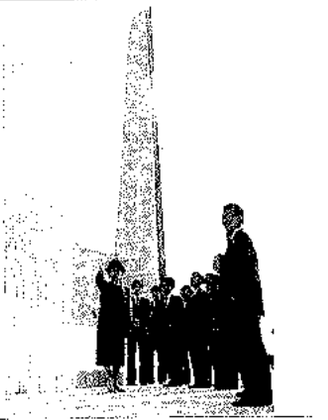
북한 현대건축의 흐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권력자 개인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역사학에서는 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역사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변천 과정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타도제국주의 기치를 내건 시점으로부터 북한의 현대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북한의 현대건축은 이와 같은 현대사의 맥락을 철저히 추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현대건축의 시발점은 1926년부터이다.

그러면 왜 그들이 현대의 시점을 우리에게는 생소한 1926년으로 했는가? 그것은 김일성이 'ㅌ ㄷ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약자)'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에 나선 시기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건축의 기술사적으로나 양식사적으로 기록될만한 뚜렷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사 종속관계에 의해 설정된 현대건축의 시점은 우리의 시각과는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 건축사와 같이 부문사에 대한 시대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 일반사 시대구분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사는 일반사의 틀을 따라야 하는 것이 건축사를 비롯한 북한 학문의 특징이자 한계라 하겠다. 이와 같이 해방 전부터 현대건축의 변천시기를 구분범위에 포함시키면 여섯 번의 시기가 되고, 해방후부터 본다면 다섯 번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제1기: 일제강점기


북한의 현대건축 1기에 소개되는 항일투쟁 밀영지 군사시설


해방 후 가장 일찍이 개발이 이루어졌던 본평양의 승리거리


해방 직후 실시되었던 보통강 개수공사 기념탑

북한에서 현대건축의 첫 번째 시기는 1926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들은 이 시기를 〔1920년대 후반기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의 건축〕으로 부른다. 이 시기는 일제 식민통치로 인해 민족건축의 정상적인 발전이 억제되고 형형색색의 반인민적인 건축이 성행했던 시기로 보았다. 실제로 도시와 건축은 일인들의 생명과 재산, 군수,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억제 당했다.

최고통치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현대건축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건축을 우리 나라의 현대건축으로 취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현대건축의 초기에서는 항일 유격 근거지의 각종 시설물이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이루어진 현대건축의 대표적 실례로 취급하고 있다.

제2기: 해방 후 건국시기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해방 후 민주건설시기 건축」으로 부르며 시간적으로는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이다. 현대사에서 소위 민주건설시기로 구분하고 건축사 시대구분도 이것을 따르고 있다.

1946년 5월 10일에는 '북조선건축동맹', 동년 6월1일에는 '북조선건축위원회', '북조선건축공업' 등의 건축관련 조직이 발족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북조선건축동맹이 발족될 때 회원 수는 약 300여명 정도였다. 국가형태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종 조직구성과 법령을 제정하고 도시정비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승리거리는 해방후 가장 먼저 정비한 거리 중 하나이다.

1945년 12월 평양에 국립중앙역사박물관(현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개관하고, 이어서 청진, 함흥, 신의주, 묘향산, 해주, 외금강 등 지방과 김일성대학 내에 역사박물관을 설치하였다. 1946년 평양에 과학연구기관, 박물관, 도서관, 4개의 극장, 7개의 영화관, 100여 개의 민주선전실, 19개의 구락부를 건설하였다.[1]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위원회를 만들었다. 주택위원회에서는 일본인주택, 친일파주택, 지주주택, 예속자본가주택 등 모두 2,641동을 몰수하여 노동자, 사무원, 농민들에게 배정하였다. 평양을 새로운 면모로 변환시키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보통강 개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문학예술 및 과학분야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없애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본적인 것을 배제하고, 민족적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강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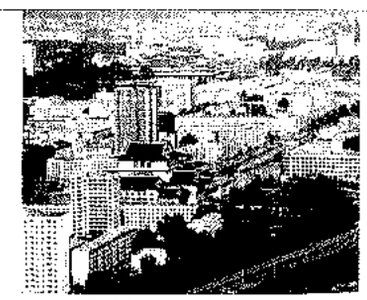
당시 건축의 전반적인 특징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튼튼하고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에 맞는 형식〕[2] 을 띠고 있도록 하였다. 건축 양식적 특징은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근로인민 대중의 사상미학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고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제3기: 한국전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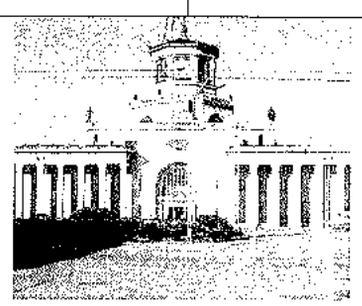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건축〕이라 부르며, 한국전쟁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의 모든 건축은 전시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는데 지하구조물이 이때 특히 많이 건설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주로 반공대피시설이었으나 전쟁 말기에는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한 주택과 공공시설물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전쟁 중이던 1951년 초에 평양시 복구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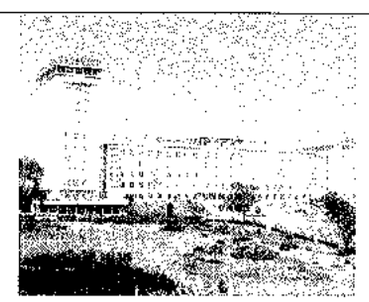
1) 『조선전사 23권(현대편)』, 315쪽
2) 『조선전사 24권(현대편)』, 4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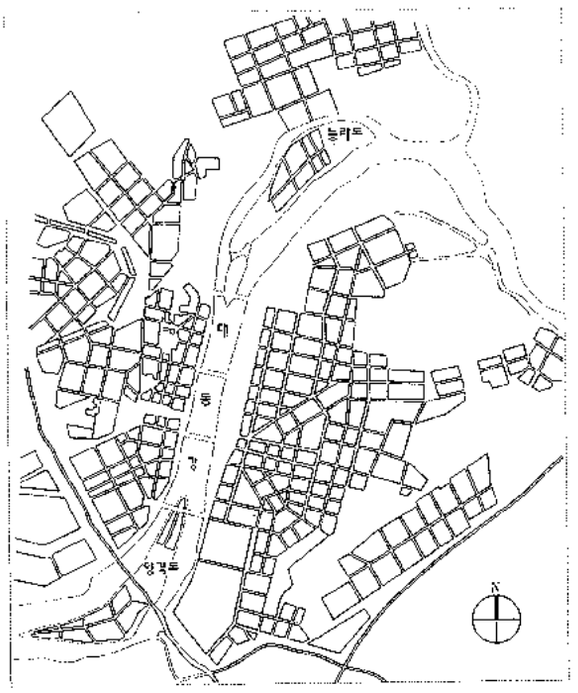
60년대 전통양식을 응용하여 건립한 평양대극장은 도시에서 주변의 랜드마크역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평양역



사회주의체제 정비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평양학생소년궁전



전쟁중이던 1951년 김정희가 작성한 평양도시계획도

총계획도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계획은 김정희가 담당하였는데 그는 김일성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모스크바 건축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1960년대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72년 김정희는 평안남도 도시설계사업소 안주분소장으로 좌천되었다가 그곳에서 1975년 11월 사고로 사망하였다.

1952년의 '내각결정 제82호'는 "주택 표준설계 현상모집"을 하였다. 이 설계요강을 보면 ①재래식 주택의 결함을 퇴치하고 양식적으로는 민족적 특색을 살릴 것. ②다층으로 하며 농촌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시적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고려하며, ③지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어야 하며, ④보기에 아름다워야 하며, ⑤주요 구조부재와 부품을 규격화하여 공장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다.

전쟁동안 많은 건축물은 파괴되었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건축문화재가 재난을 당했다. 파괴된 역사적 건축물은 평양의 부벽루, 의주 남문, 희천의 위성관, 성천의 동명관, 해주 부용당, 개성 남대문, 보현사 대웅전, 만세루, 명월당, 장서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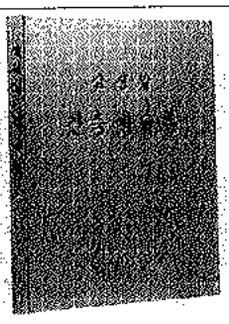
제4기: 전후복구시기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건축〕이라 한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부터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1960년까지가 이 기간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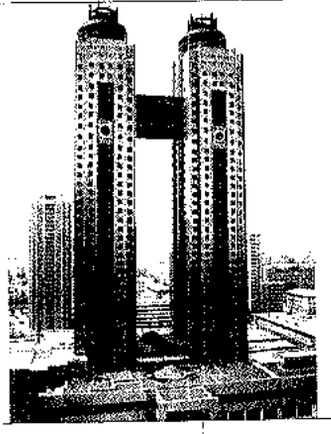
김일성은 1956년 1월 30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건설속도와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는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두 번째는 건재생산의 공업화, 세 번째는 건설의 기계화를 역설하였다.[3] 설계를 표준화하면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재생산을 공업화하고, 건설의 기계화를 실현하게 되면 예산과 부족한 건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건축에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었다. 도시 · 건축 분야에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첫째, 인민의 민족적 풍모의 특성을 반영한 조선의 고유한 민족건축양식을 도시형성에 직접 받아들임으로서 건축예술의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높이며, 둘째, 도시형성에서 독창적이며 사실주의적 모범을 훌륭히 보여준 가치있는 고전건축수법을 현대도시구성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셋째, 현대도시형성 및 현대건축물과 시설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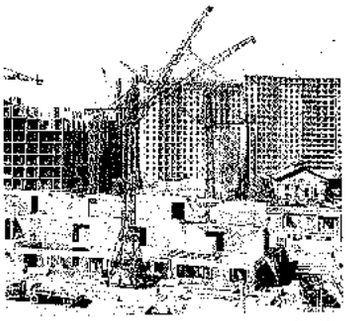
3)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1986.



김정일의 저서인 '건축예술론'



사회주의 우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겨진 고려호텔



평양의 주택건설 모습

에 인민의 정신적 풍모의 특성과 미에 대한 감각적 이상을 나타냄으로서 천리마시대, 노동당시대의 건축술을 한 계단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4]

이 시기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동구권으로부터 공장건설과 도시건설을 위한 원조가 있었다. 이들 원조국에서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건축양식이 북한에 직접 도입되었고, 그 영향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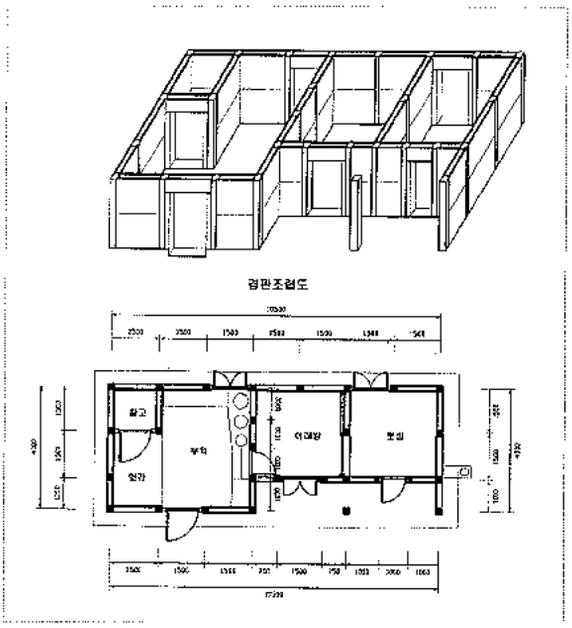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이때 조립식 건축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시와 관련하여 배치를 다양화하고 정면은 가능한 거리에 면하게 설계하였다. 특히 모서리 부분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평면을 꺽움형으로 하고 층수를 높이거나 탑을 배치하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공공건축의 특징은 규모를 웅장하게 하고 대칭적 수법을 적용하였다. 층고를 일반건축에 비해 높게 처리하고 벽체 또한 육중하게 만들었다. 덧기둥이나 벽기둥을 세우고 처마와 창, 문의 개구부 변두리를 풍부하게 장식하여 기념비적 효과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였다. 구 소련의 건축문화가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살림집에 페치카를 놓는 등 많은 소련식 건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그들은 뒤늦게 이를 교조주의로 비판하면서 6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제5기: 사회주의 체제 정비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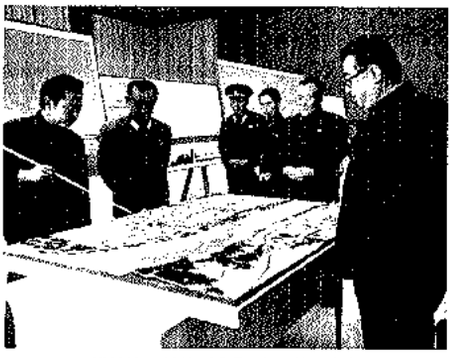
1961년부터 1970년까지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건축]이라고 부른다. 제1차 7개년 계획이 수행되는 시기이며, 1961년에는 제4차 노동당대회가 열렸다. 이 때 10대 건설대상이 지적되어 중요한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대형골조, 대형층막, 대형판벽을 비롯하여 크고 가벼운 부재 생산이 그 동안 조립식 건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조립식 주택을 개발하여 부족한 농촌지역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기도 하였다.

1964년 12월에 있었던 '조선 건축가동맹 제2차대회'에서는 조선 건축가동맹이 건설분야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였고,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대회에서 김정희 위원장은 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다. 첫째는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당과 혁명에 충실한 붉은 건축가, 건설가 술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건축창작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아담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건설공업화 방침을 관철하며 절약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건설기술을 세계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축가동맹 구성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현상모집, 전람회, 견학, 이론토



1960년대 조립식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4) 리재선, 도시형성에서 민족적 특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건축과 건설 1967-1]


평양의 도시와 건축을 지도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론회, 과학발표회, 강습회 등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한다.[5] 1960년까지 이루어졌던 소련건축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 시기에 있었다.

이 시기 후반에 들어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건축물들이 건설되었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이상으로 삼는 도시 · 건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규모 주택건설과 '인민대중'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였다.

이 기간동안 도시와 농촌에 80만세대의 주택이 건설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규격화, 공업화, 기계화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고, 장식은 거추장스러운 사치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건축양식의 특징은 건축에서의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를 규격화하여 사용하였다. 구조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표현수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건축적 창조성은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발휘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건축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북한 현대건축의 전 기간을 통하여 표정없는 건축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였다고 본다.

5) 『건축과 건설 1965년 1월호』

제6기: 사회주의 우월성 표출시기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시기 건축)이라 부른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려는 시기인데 1970년부터 1980년대 전반기까지이다. 이때가 되면 건축을 하나의 예술로 생각하고 창조적인 형식을 찾게된다. 이 시기에 최고 권력층으로 부상하면서 건축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그는 '건축도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건축창작도 반드시 비반복적 이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많은 건축가들에게 창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는 지도자수업 중에 얻은 건축지식을 바탕으로 1992년 「건축예술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건축가뿐만 아니라 당원, 근로자, 건축노동자들에게 읽게 한다. 그는 건축행위도 하나의 혁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동안 인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기본이념과는 달리 거대한 건축물과 기념비들이 주로 이 시기에

〈북한 현대건축의 시대구분과 특징〉

명 칭( )안은 북한명칭	기간 및 시대상	건축적 특징	대표적인 사례
제1기: 일제강점기 (1920년대 후반기~1945년 건축)	1926.10~1945.8 김일성의 항일투쟁 시작부터 해방까지	타도제국주의동맹운동, 식민지청산, 항일투쟁을 위한 밀영지 임시건축물이 주요대상.	항일 발치산 사령부, 혼련소, 무기수리소, 병사휴게소, 병원, 군수품제작소, 인쇄소 등.
제2기: 해방후 건국시기 (해방 후 민주건설시기 건축)	1945.8 ~ 1950.6 해방직후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근로인민 대중의 사상미학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함.	모란봉극장, 조선노동당 평안남도위원회청사, 김일성 종합대학 본관, 만경대 혁명학원, 해주의과대학, 강원도인민위원회청사, 중앙종합병원, 노동신문사, 평안북도인민문화회관, 흥남공업대학 등.
제3기: 한국전쟁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건축)	1950. 6 ~ 1953. 7 6.25 전쟁 기간	전시에 건설된 모든 건축은 전시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	모란봉 지하극장, 원산 신풍지하극장, 원산 총정리영화관, 평양인민시장 등. 전후평양시복구계획
제4기: 전후복구시기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건축)	1953 ~ 1960 : 전후 체제 복구시기로부터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시기	설계의 표준화, 건재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추진 외형적으로는 건축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	김일성광장, 평양역사, 모란봉극장, 국제여관, 종합청사 1호,2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대동문화영화관, 평안남도인민위원회청사, 평양대극장, 옥류관 등.
제5기: 사회주의체제 정비시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건축)	1961~1970 제1차 7개년 계획 수행시기	건축의 공업화 추구. 건축의 과학화, 건설부재의 대형화,경량화 요구, 건축에서의 장식성 배제.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평양학생소년궁전, 지역청년회관, 소년단야영소, 평양교예극장, 김일성종합대학 1호교사, 천리마기념탑. 보천보전투기념탑 등.
제6기: 사회주의 우월성 표출시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투쟁시기 건축)	1970~1980년대 전반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려는 시기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자 수업으로 각종 건축사업에 관여. 건축을 하나의 예술로 생각하고 창조적형식을 요구. 남북한 경쟁으로 과시적 건축물이 나타남.	만수대 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 혁명열사릉, 삼지연 대기념비, 주체사상탑, 평양개선문, 인민대학습당, 평양제1백화점, 만수대 예술극장, 만수대의사당, 2.8문화회관, 방상판, 함흥대극장, 청류관, 평양산원, 고려호텔, 국제친선전람관, 평양체육관, 창광원, 김일성경기장, 량강호텔 등.

많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에 기념물과 거대건축물이 많이 나타나게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김정일 자신이 권력을 이용하여 김일성 유일사상을 고취하고 그의 행적을 전 인민에게 확고히 심어주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과의 대립적 견지에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1980년 2월에 조선건축가동맹 제3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1964년 제2차 대회이후 근 16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현재 조선건축가동맹위원회 위원장은 김응상으로서 국가건설위원회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그는 5.1경기장, 만경대소년학생궁전 등의 설계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이른바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설물'이라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1989년 말에는 평양시에 3만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했다.

'우리건축' 그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반세기 동안 절대 권력자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북한의 현대건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을 근간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현대건축의 발전은 '당의 현명한 영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영도는 언제나 위대한 하나의 최고통치자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듯이 건축을 훌륭한 정치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일인독재를 위한 도구로서의 건축'이 남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북한건축이고,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건축'이 북에서 알고있는 남한의 건축이다. 아직도 왜곡과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다. 상호 이해와 동질성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제 머지않아 남북간 직접적인 교류의 물꼬가 터질 것 같다. 경제계에서는 비공식적인 교류를 공식화하고 정상적인 교류관계를 확립하려는 계획이며, 정부 차원의 교류도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통일도 그리 먼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우리 건축계에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는 '북한건축 바로알기'부터 '북한건축 이해하기'로 이어져야 한다.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가 만들어낸 건축도 분명 우리의 '건축역사'이다. 이제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반추해 보건대 건축계에서 통일에 대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의 건축적 수준과 그들이 이룬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북한이해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북한건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체제우위적 논리'나 '동정론'보다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와 이념이 다른 나라의 도시와 건축양식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아야 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건설시장이 아닌가? '이념의 북한건축'에서 '문화현상으로서 북한건축'으로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건축분야의 통일 준비작업은 결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건축계에 주어진 과제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남북 건축의 민족적인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건축정보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통일직후 예상되는 건설업계의 혼란, 국토 · 도시개발의 방향, 건축기술자 문제, 그리고 도시의 건축 문제들은 혼란없이 지속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작업이다. 평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어서 통일 후 건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 한국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 도시계획 unban planning
North Korea

북한의 도시계획과 그 전망

Urban Planning of North Korea and its Prospects

김현수 /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 Kim Hyun-Soo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로 남과 북은 각기 서로 다른 이념과 수단으로 도시와 국토를 만들고 가꾸어 왔다. 분단된 지 60년이 가까워지면서 남북한의 도시, 서울과 평양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진이나, 필름, 방문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념이나 개발수단,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정치 경제체제의 차이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일의 과정에서, 혹은 통일 후 북한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혹자는 평양시를 역사적 박물관으로, 관광지로 보전하고 가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도시는 나름대로의 형성원리와 변화의 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관찰하여 변화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향후의 도시 변화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 도시가 계획되고 형성되어 온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북한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역시 앞선 사례의 경험으로부터 그 틀을 빌려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북한의 도시계획

1848년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도농균형개발(都農均衡開發,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own and country) 정책, 즉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균형개발' 정책이다. '도농간 격차해소'는 공산당 선언 이후로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주의 계획의 목표로 제시되어 왔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근대 도시계획의 기원이 19세기 유럽 산업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공업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 때 '근대 도시계획'과 함께 출발한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다. 즉, 사회주의 운동은 19세기 산업사회의 계급간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 공간적으로 반영된 것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념인 것이다. 김일성 선집에 의하면 북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념 역시 농공병진(農工竝進)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서, 도시의 공장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간의 생활격차해소를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균형개발이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뿐 아니라 도시구역 내에서도 추구되었는데 평양의 경우, 행정구역이 도시적인 18개 구역(區域)과 농촌적인 4개 군(郡)으로 구성되어 도시 내에서의 도농균형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 도시성장규모의 억제(control of city size)정책이다. 자본주의 도시의 병폐가 지나치게 비대한 도시의 규모에서 기인한다는 사회주의 도시관(都市觀)은 맑스-엥겔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도시규모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주위에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왔다. 도시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외부 불경제에 따른 폐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도시관리비용이 증가하며, 확대된 통근거리와 익명성의 증가는 사회주의 공동체의 場인 커뮤니티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도시규모억제는 도농균형개발정책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간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성장이 억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대도시 주위에 위성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평양시 주위로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평양시의 행정구역도 도시중심기능을 가지는 중심도시권과 공업생산 기능의 준위성도시권, 농업생산 기능을 주로 하는 위성도시권으로 구분하여 '도농간의 균형'을 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1년 북한의 당중앙위원회에서는 평양, 함흥, 청진 등의 대도시 주위에 소규모 위성도시를 건설할 것을 결의한 바 있고, 회천을 비롯하여 구성, 덕천, 기양 등지에 도시와 노동자구들이 확장, 신설되었으

며 특히 평양 주위에 자족적 위성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자족적 계획단위(self-contained planning unit)의 설정이다. 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도시와 농촌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 군과 같은 공간계획단위가 자족적이어야 한다. 자족적인 계획단위의 설정은 모스크바 기본계획에 잘 나타나 있는데, 1971년 기본계획에서는 모스크바 전역을 8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은 100만 인 규모로 설정하여 그 내부에 주거, 생산, 교육, 위락 등의 기능이 자족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각 지역의 중심에는 도심적 기능을 부여하여 구도심까지의 이동을 제한하였으며, 각 지역사이에는 녹지대(green wedge)를 설치하여 위락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간의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각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계획 기법인 주택소구역계획을 도입하여 북한의 대도시들은 위계적인 계획 단위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넷째, 이러한 도시계획의 이념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모든 지적활동과 그 결과물로서의 출판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활동이 중앙당에서 제시하는 준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평가되므로, 백과사전류의 출판이 활발하다. 북한의 백과전서에 나타난 도시계획이란 "도시영역 안에 건설될 건물과 시설물, 거리와 공장, 녹지 등을 상호 연관 속에서 계획하고 배치하는 안(案)을 말한다. 도시건설계획이라고도 한다. 도시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은 도시건설을 위한 기술문건들을 준비하는 단계의 사업으로서 도시건설전망과 도시건설의 질적 수준을 규정한다."라고 정의된다. 이 외에도 도시를 사상교양의 장(場)으로 조성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김일성 우상화 시설물을 건설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하여 북한도시계획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정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에는 도시계획의 집행수단,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으며, 물리적인 계획안을 위주로 하는 청사진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세 가지 계획이념은 어디까지나 문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칙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의 도시가 계획되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의 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특히 우리 나라의 도시와 비교할 때에는 항상,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상황과 절차, 그리고 그러한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주의 계획을 접할 때에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고, 시민의 주택과 직장의 결정과 배정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의 메카니즘 : 시장의 도입

커다란 두 가지 변화

이러한 원칙 아래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도시가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가를 추측해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나, 점진적 개방정책에 따라 혼합경제 체제의 상황에 있는 도시들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도시에서 일어날 획기적인 변화라 생각된다.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등의 동구 대도시에서는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변화가, 상하이 등 중국 남동 해안의 대도시들에서는 혼합경제 체제의 채택에 따른 과도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privatization)이며, 둘째는 국영기업의 조업중단에 따른 주거서비스체계의 붕괴이다.

사유화와 토지이용의 분화

국유화되어 있던 토지와 주택이 사유화되면서 임대료와 지가가 형성되며 토지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 잠재력이 생겨나고 토지이용의 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상업시설이 집중된 중심상업업무지구가 등장하여 자본주의 도시와 비슷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모스크바의 경우, 1989년부터 사유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해에 118호에 불과하던 사유화 주택수가 1992년에는 365,000호를 헤아리게 되었다. 또한 모스크바 중구역의 경우 1993년까지 국영상점의 78%가 사유화되어, 본격적인 상업지역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도 모스크바시 중구역에서 가장 빠르게 사유화되고 있는데 이는 상업용도로의 전용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공동주택 거주자들도 개별 주택이나 방을 사유화하거나 혹은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일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스크바에 진출하려는 서방기업에 의한 오피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사유화가 증가하면서 입지에 따른 주택가격의 차등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심부근, 지

하철역 인근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고주택가격은 푸시킨스카야역(Pushkinskaya metro station) 인근에서 형성되고 있다.

국영산업의 붕괴와 이동성의 증가

모든 생산시설이 국유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일 뿐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들의 주택과 주거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단위 국영기업체 중심의 직주근접의 정주 단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체제통합에 따라 보다 생산성이 높은 자본주의 기업이 유입되고, 국영기업들은 조업중단이나 축소를 겪게 되며, 이에 따라 주택이나 주거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직장의 폐쇄에 따라 직주근접체계가 붕괴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주거서비스 공급의 중단에 따라 보다 더 나은 주택과 서비스를 찾아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남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체제통합의 초기 단계에 대규모 인구이동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상하이와 같은 중국의 남동 해안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인구증가 속도가 연평균 4-6%인 것에 비하여 자동차가 연평균 20-30%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시설의 확충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1985년 상하이 인구가 1,220만이던 것이 1994년에는 1,36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6년에서 1991년간, 자동차는 40%, 자전거는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통행자 중에서 보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1981년 58.4%에서 1991년 30.2%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확산과 토지이용의 재구조화(reconfiguration of urban land use)에 기인한다. 1980년대의 토지개혁 이후로 직주근접을 이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든 결과이다. 이 기간동안 새로이 건설된 주택단지는 교외지역에 건설되어 통근거리가 계속 증가하여 왔다. 이는 또한 노동시장의 등장과 기업에 의한 주택공급의 중단에 기인하고 있다. 경제개혁 이전에 주택은 도시개발과정과 제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관계가 서서히 단절되면서 직주분리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다.

북한도시의 예상되는 변화와 과제

사회지역(Social Area)의 형성

북한의 경직적인 사회계층제도와 주택배분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평양과 같은 북한의 대도시에 이미 사회지역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대동강변의 남측 지역은 외교, 대학, 국제, 예술기능을 중심으로 특화 되어 평양내의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통일 후 이러한 지역의 변화가 주목된다.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 과정이 진행되면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지역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직주근접 체계와 이동성

북한 경제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고려할 때, 도시내부의 혹은 도시간 인구이동은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국영 기업소에 의한 주택공급과 이에 따른 직주근접의 공간체계는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도 선호되어 왔다. 북한 정권의 붕괴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국영기업소의 폐쇄나 조업축소가 예상되며, 이 경우 다른 사회주의 도시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다. 도시내부의, 혹은 도시간 이동성의 증가는 북한정권 붕괴의 초기 혼란과 더불어 통일과정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생활서비스의 공급체계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는 가족이며, 주거의 구성도 가구(家口)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세대를 수용하는 주택 내부에는 이들의 의식주와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는 가족이 아닌 사회주의 공동체(socialist commune)로서, 도시공간 내에서는 주택소구역(micro-district)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택이란 기본적인 휴식과 취침의 역할만 담당하고, 나머지 가사활동은 주택 외부의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주택소구역에는 밥공장, 빨래공장, 식당, 김치공장, 공동작업장, 탁아소 등이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지방정부나 당해 기업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기업소의 폐쇄나 정권의 붕괴는 이들에 의하여 공급되던 서비스의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주거서비스 공급체계의 붕괴를 가져와 주민들은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찾아 이동하게 될 것이다.

도시확산

기존의 구 도심을 피하여, 새로운 개발은 도시 교외부에 집중될 것이다. 특히 주거지의 경우, 다른 사회주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교외부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아 직주통근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지역간 인구이동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기회와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찾아서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간의 소득격차와 실업률을 고려할 때 2011년부터 2020년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할 인구는 약 590만-620만 정도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 명은 고용기회가 집중된 수도권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계획가의 과제

전제

통일에 대비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하에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시민사회의 유지와 자유시장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지난 50여년 동안 독재정권에 억압받아 온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은 존중되고 보상되어야 한다. 셋째, 구사회주의 도시에서의 변화 경험과 남한도시가 경험하고 있는 병폐로부터 충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도입해야 한다.

고용기회와 서비스공급 체계의 안정화

생산성이 낮은 국영기업소의 도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북한지역내 국영기업소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북한지역 내 인구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 지역 내의 경제기반, 공업단지재배치, 기반시설투자 등은 반드시 기존의 정주패턴, 주민주거서비스 공급체계와 연관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통일 정책 중 경제개발계획은 반드시 국토계획, 공간계획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토지반환

구사회주의 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는 새로운 소득계층을 발생시키는 기본적 동인을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도시공간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특히 남북한의 복잡한 분단역사는 중국이나 동구, 소련보다 훨씬 더 복잡한 토지반환문제를 가지고 있다. 토지반환원칙을 고려할 때, 공간적 배분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지역

북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당 특권층이 존재하며, 이들의 주거수준은 상당한 규모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이 통일 후에도 유력한 사회지역을 형성해 갈 것이며, 특히 사유화의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사유화 대상 자격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요구된다.

도심과 공공시설

평양의 도심은 통일 이후, 혹은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한 개발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도심의 넓은 공원과 공지, 거대한 공공시설물 등을 생각할 때, 이를 적절하게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려 깊은 마스터플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화의 대상과 방법, 즉 도심부의 주거와 공공시설물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 사유화할 것인지, 혹은 공권력을 발동하여 공공용지로 확보할 것인지가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이 전환기 북한도시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계획가와 계획체계

통일 한국의 건축가와 계획가는 '변화의 메카니즘'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의 도시개발방식과, 자본주의 방식과의 차이점을 알고, 일어날 문제를 예상해 본 다음,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 정부와 행정체계는 붕괴하겠지만, 사회주의적 사고(socialist way of thinking)와 생활양식(socialist way of life),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어 온 사회주의적 도시공간구조(socialist urban form)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통일 후 오랜 동안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삶을 담을 기반을 마련하는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통합을 통한 진정한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확신한다.

북한건축 답사기

A Survey on North Korean Architecture

김봉건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
by Kim Bong-Geon

방북기회가 오다

한반도의 중간을 가로지른 38선이 이 땅에 분단의 비극을 잉태한지 어느 덧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같은 민족, 동일한 언어를 지닌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단절되어 남북한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 곳과 같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봄이 오면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에도 생명의 기운이 그 싹을 틔우듯 아무리 인위적으로도 막으려 해도 이 땅에 도래한 통일의 기운은 어찌할 수 없는지 최근 수년간 남북교류의 기운이 조심스럽게 꽃피기 시작하고 있다.

남북교류는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부간의 직접적인 창구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그 특색이다. 그 동안 다른 분야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 교류는 거의 진전이 없어 분단이전의 상황 외에 최근의 변화에 대한 것은 거의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다. 다만 홍보용 잡지인 '조선화보' 등과 제삼국에서의 귀동냥을 통한 극히 제한된 소식만이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금강산을 위시한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촬영한 생생한 자료를 소개하기 시작하여 그 동안 북한지역내의 건축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바 있다.

필자는 98년 경향신문사의 '남북통합문화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단의 일환으로 두번에 걸쳐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업은 남북한의 문화유산 35,000여건을 전산화하여 인터넷에 띄우는 사업으로 국경없는 전산망을 통하여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해외동포들에게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목표로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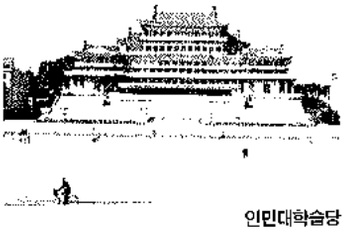
북한 방문은 정보화사업의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나 그 과정 중에 북한 건축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회는 미리 세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북한측의 필요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비록 피상적이긴 하지만 북한건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방문자는 평양, 묘향산, 사리원시 등이었다.

대동강 주변의 경관

평양은 옛부터 관서지방의 중심지로 고조선의 왕검성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고려 시대의 수도가 있던 유서깊은 곳이었다. 평양에 도착하기 이전 과거 번창했던 고도(古都)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였다.

평양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동강이라는 큰 강이 도시중간을 흐르고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이다. 주민들은 편의상 평양을 크게 동평양과 서평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평양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곳으로 방형구획의 시가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서평양은 원래 평양이 있던 곳이다. 최근에는 보통강 서편에 대규모 도시건설이 진행되어 청춘거리, 광복거리 등이 개발되었다. 동, 서평양

대동강변 주변의 녹지


인민대학습당

평양개선문

은 대동교, 옥류교 등의 여러 다리가 연결하고 있으며 능라도, 양각도, 두루섬 등이 대동강 중간 중간에 놓여 있다.

서울 한강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고층아파트가 도시경관을 둘러싸고 있으며, 최근에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조성한 체육공원이나 소규모 녹지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평양은 모란봉에서 대동문 등에 이르는 곳의 과거 평양성 일대와 대동강변을 따라 길게 조성된 강변 녹지는 좌우가 아파트로 막힌 한강변보다는 그래도 자연의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었다.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시각적 포인트인 능라도에 5.1경기장으로 불리는 시설물이 자리하여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 경기장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북한이 1980년대에 건립한 것으로 평양에서 본 다른 어느 건축물보다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생각되었다.

조선식건축물

평양거리에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도 외관을 우리 전통건축을 응용하여 지은 조선식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대동강변의 평양냉면 식당인 옥류관, 김일성광장 앞의 인민대학습당, 중구역의 인민문화궁전 등이 그 대표적인 건물들이다. 이들은 광주박물관 건물과 같이 지붕, 난간 등을 전통건축의 형태를 차용하면서도 재료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은 건물들이다. 한국에서도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성이란 논란이 70년대에 활발히 논의되면서 많은 시도가 있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1960년대 옥류관, 평양대극장 건설을 계기로 주체성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건축적 테마로 등장하면서 공공건축에 있어 조선식건축이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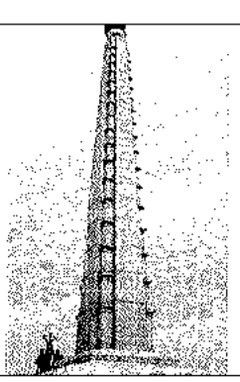
김일성 광장 앞에 위치한 인민대학습당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우선 4만여 평으로 기억되는 거대한 건물규모에 압도되었으며, 복잡한 기능을 하나의 건물에 담으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다양한 형태의 전통지붕을 덮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짓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김일성 광장에서 혹은 대동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은 커다란 괴체 위에 여러 개의 지붕이 중첩되면서 전통건축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축임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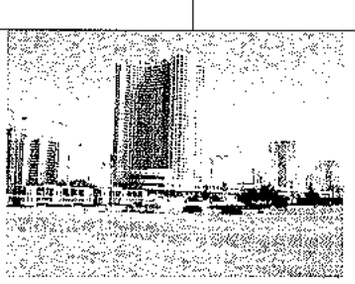
각종 선전조형물

북한은 사회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 사회주의 체제 선전을 위한 조형물들이 평양시 곳곳에 설치되어 이들이 도시경관의 강력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동강 서편의 개선문과 동편의 주체사상탑이다.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유사한 모습으로 과시적인 욕구가 엿보이는 조형물이다. 입면은 파리의 개선과 유사하게 처리하였으나, 지붕 부위는 유럽의 석조건축물과 달리 전통건축의 모티브를 응용하여 여러 개의 층단을 두고 서까래 등을 살려 처리한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완성도에서는 파리의 것에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다.

주체사상탑은 대동강변에 건립한 것으로 높은 탑상의 조형물이다. 서울의 남산타워와 유사하게 하부의 100미터 이상의 높은 구조물 위에 전망대 기능의 건물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상부 전망대는 혁명을 상징하는 횃불의 모습으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하였는데, 마치 붉은색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 건물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건설 당시 무거운 하중의 전망대를 100미터가 넘는 높은 곳에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고안하여 외국의 저명한 기술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주체사상탑


광복거리 초고층아파트

평양시내의 아파트

북한의 주택

평양시내의 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92년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는데, 개인주택을 브루조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내에는 주로 2가지 유형의 공동주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하나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6층 높이 정도의 아파트이다. 현재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체식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낡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와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흰색 등 몇 개의 지정된 색조로 마감한 외관으로 다양성이 결여된 획일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 하나는 1980년대 들어서 대규모 도시미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층아파트이다. 특히 만경대구역의 광복거리는 도로 폭을 100미터로 확장하고 길 양쪽에 서구화된 고층아파트를 많이 건립하였다. 아파트는 서울에서와 같은 일률적인 일자형보다는 일자형, 탑형, Y자형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고층아파트들은 시내의 저층아파트 보다 발전된 공법을 적용하여 건립하였으나 색조는 역시 흰색의 단일톤으로 통일하였다. 100미터 폭의 거리 양쪽에 늘어선 흰색의 고층아파트는 평양이 국제수준의 문화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으나 활기없는 거리 풍경은 국제화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다.

평양을 벗어난 농촌의 주택은 2~3층의 저층 공동주택혹은 단독주택의 모습도 가끔 눈에 띄었다. 그러나 공동주택들은 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이며 많은 건물들이 외장마감 없이 콘크리트색이 그대로 노출된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리원시로 가는 도중에 한국의 산간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점판암으로 지붕을 덮은 청석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재료의 조달에 따른 지방적 특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각종 문화시설

1980년대 평양시가지 미화사업을 하면서 보통강 남편에서 강변으로 연결되는 거리를 개설하고 그 이름을 청춘거리로 명명하였다. 청춘거리라고 하여 서울 명동, 종로와 같은 젊은이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들이 밀집하게 들어찬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자본주의적 활기는 퇴폐적이고 권장할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이곳에선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체육시설들만이 청춘거리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것인 모양이었다.

서울의 잠실, 올림픽 공원과 같이 각종 체육시설들이 콤플랙스를 이루고 있으나 수영경기장, 배트민튼경기장, 농구경기장, 탁구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축구장, 태권도 경기장 등의 건물이 도로 양편으로 열병하듯이 단조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서울의 스포츠 콤플랙스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특유의 규율과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들 건물들은 대규모 체육시설답게 상징적인 형태로 건축하였으나 개개 건물의 디자인의 완성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다.

김일성 광장 양편에는 조선역사박물관(사진10)과 조선미술박물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건물 입면은 전면에 석조기둥을 열지어 놓고 벽체를 개방하여 근대건축물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였다. 석조기둥의 상부는 서양건축물의 오더(order)로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입면 처리방식은 평양해방호텔 입면에서도 사용된 방식으로 석조건축에 기둥-보식의 구조표현법을 보여준 북한의 현대건축의 실례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호텔

북한의 농촌주택 전경

황해도 사리원시 청석집

평양 청춘거리 체육관

북한에서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그나마 최신의 현대식건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방북기간 중 평양에서 대표적인 외국인 투숙호텔인 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등에 투숙하거나 방문하여 이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고려호텔은 하부는 하나의 건물이나 상층부는 높은 타워형 건물 두 개를 세우고 최상층부는 서로 연결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외장재는 짙은 고동색 타일이며 내부는 회의실, 수영장 등을 갖춘 호텔이다. 건물 높이가 상당히 높아 평양시내 어느 곳에서도 눈에 잘 뜨이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양각도국제호텔은 고려호텔과 달리 외관을 전면 글라스로 마감한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현대식호텔로 주변의 대동강에 비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 호텔들에서 공통적인 것의 하나는 최상층에 모두 회전식당을 설치한 점이다. 회전식당은 서울의 남산타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식사를 하는 도중 식당 자체가 회전하여 시내 경치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회전식당은 외국인들의 필수관광코스로 되어 있음을 8.15축전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을 때 알 수 있었다. 저녁에 회전식당에 초대를 받았을 때 평양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칠흑과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어 실망을 하였다.

교육시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산실인 종합대학으로 중심건물인 본관은 1948년에 완공되었다. 건물 평면은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으며, 중앙부위는 앞으로 약간 돌출하고 입면을 좌우보다 높여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관은 조적식의 벽체에 지붕은 기와를 올려 근대건축물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잘 정리된 건축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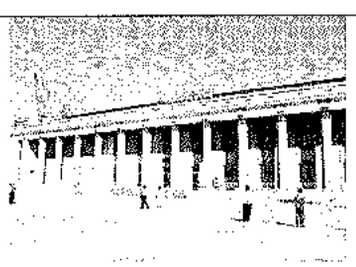
김책대학은 공업계통을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사각형 입면에 일정한 크기의 창호를 규칙적으로 낸 건물로 매우 단조로운 건물이다. 이러한 방식은 콘크리트 건물의 특성을 살려 단순하게 처리하는 수법으로 평양시내에서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건축의 디자인 해석방식이었다.

기타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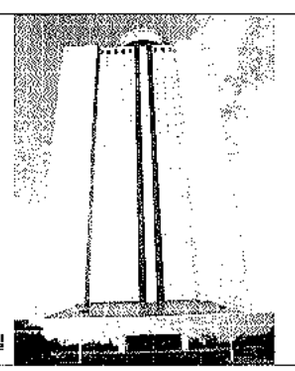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이 '지하궁전'이라 부르는 지하철은 깊이 100미터 속에 있는 시설로 1961년 인민경제7개년계획 기간 중에 시작하여 1973년 9월 1단계인 천리마선이 개통되었다. 역은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하여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여 오르내리고 있었다. 서울과 같이 지하철의 교통분담률이 높지 않은 듯 이용승객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지하역사는 모두 대리석 돔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모자이크, 샹들리에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객차는 오래되어 지하궁전이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지상의 지하철역사는 유리와 철 등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이 아닌 콘크리트를 이용한 근대건축물로 거리의 다른 건축물과는 눈에 잘 보이는 모습의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 이채로왔다.

북한의 개인의 사사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서울과 같이 상업활동이 활발치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상업용도로 별도로 건립한 건축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공공용의 상업시설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도 다른 용도 건축물의 1층에 자리하고 있어 마치 서울의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필자가 투숙했던 고려호텔 건너편에는 여러 음식점들이 거리를 따라 공동주택의 저층부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으나, 서울의 상업용


김일성광장에 접해 있는 조선역사박물관

멀리서 바라본 고려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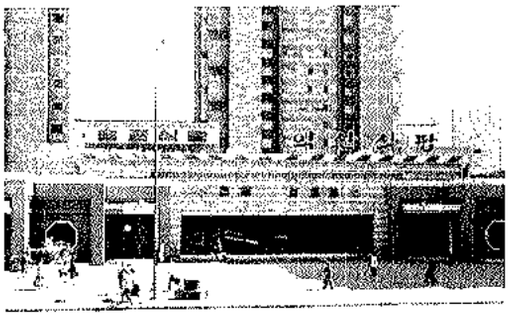

양각도 국제호텔

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기능적 필요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상업시설이 주는 활력감은 부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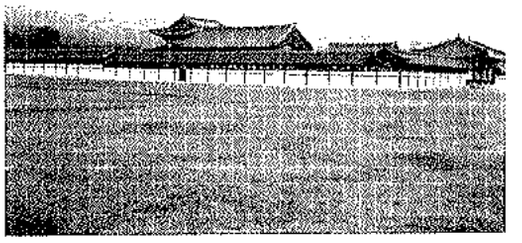
전통건축물

모란봉의 평양성 일대에는 을밀대, 최승대, 현무문, 청류정 등의 전통문화유산이 공원녹지 속에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공원은 평양시민들에게 귀중한 휴게공간으로 평양시민들이 친지들과 어울려 장구를 치고 놀면서 송편 등의 제사음식을 스스럼없이 남쪽사람들에게 건네는 우리 특유의 인심을 맛보기도 한곳으로 기억에 남는 곳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평양성의 성벽하부에서 단군시기의 유적을 발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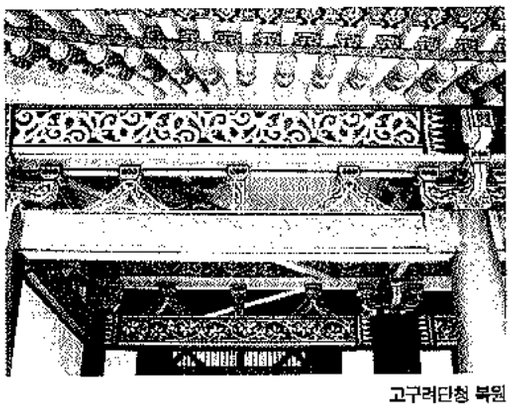
평양 교외의 고구려 동명왕릉을 견학하면서 최근 북한의 문화유적복원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동명왕릉에는 수호사찰로 정릉사가 있었으며, 그 존재는 발굴을 통하여 이미 확인된 바 있었다. 이번 방문중에 그 중심곽을 복원한 일곽의 건축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체사상의 중심에 서 있는 고구려와 관련된 북한의 건축물 복원개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 남아 있는 것을 연구하여 복원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단청 문양을 그대로 부위별로 모방하였으며, 단청색조와 지붕기와 색깔까지 현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동색으로 구워 낸 것에는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오랜 기간을 거쳐 변색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색조를 그대로 사용한 점에서 혹 고구려 건축은 조선시대의 건축과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앞선 것이 아닌지 의문시되었다.



평양거리의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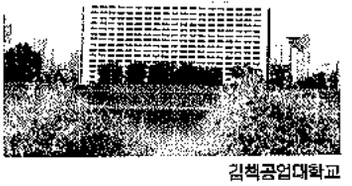


정릉사 복원모습



고구려단청 복원

김일성대학 본관



김책공업대학교

지하철역사

북한건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How are We to Approach the Architecture of Notrh Korea?

김병성 / (주)삼우설계 북한건축연구회 간사
by Kim Byung-Sung

우리에게 북한의 의미

북한은 우리에게 항상 상반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나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핏줄이 살고있는 곳 -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꿈에도 잊지 못하는 당신의 형제자매가 지금도 살고있는 나라 - 의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6.25전쟁을 일으켰고 아직도 가끔씩 무력도발 및 테러활동을 일으키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경계해야 할 나라, 그리고 가장 폐쇄적이고 교조적인 못사는 나라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불행히도 전자의 이미지보다도 후자의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다.

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동구 공산권은 몰락하여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 북한도 김일성이 죽고, 내부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국제사회에 문호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곧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다.

현재 북한은 나진, 선봉지구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부 남한의 기업이 진출하여 합작사업 등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기업은 북한지역에 대규모 공단개발을 계획중이고, 또한 금강산도 개방하여 남한 사람들이 제한적이나마 북한지역을 관광할 수도 있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 위기에 의한 체제붕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정부도 북한에 대해 개방유도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당위성 및 문제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 모두가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한다. 우리 또한 통일을 무척이나 갈망하고, 가까운 시일 내 통일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민족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 같다.

일부정치집단과 소수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통일방식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논문도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관심분야, 즉 정치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다. 또한 그 내용도 통일의 당위성을 개진하거나 추상적인 통일론에 머물고 있다.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 각론적인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료 및 정보의 부족

적대적이건 가장 가까운 나라이건 간에 북한은 미래에 우리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게 될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정보는 차치하고라도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관련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더 심하다. 관련 연구논문도 거의 없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타 분야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 같다. 손에 꼽을 정도의 몇몇 학자가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논문과 망명인사의 몇 편의 글에서나마 얼핏 북한건축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고 통제가 심하여 접근하기조차 힘든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서 유학한 중국교포조차 대학에서 배우던 교과목을 본국에 돌아갈 때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이라는 사회는 우리 사회와 달리 다양성이 부족하여 발행되는 서적의 종류도 매우 적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등의 간행물이 1년에 약 400여종 정도의 소량이다.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더욱 나빠져서 더욱 더 줄었고, 북한에서 계간으로 발행되는 유일한 건축관련 잡지인 「조선건

축」도 중단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북한건축관련 정보나 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부족이 아닐까? 북한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보듬고 살 같은 핏줄이라기 보다는 여태까지 적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위협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미래에도 가장 충돌 가능성이 많은 적으로 간주되고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국내에서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는 모두 특수자료로 분류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지침(대통령령)에 의거 관리되고 보관된다. 통일원 북한자료실에서 일반국민 모두가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열람도 제한적이고 복사도 일정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당국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북한에서 발행된 서적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이 국내건축관련 업체는 단 2곳(국토개발연구원과 민간 건축설계업체인 삼우설계)뿐이다. 이런 사실은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동시에 우리 건축계의 관심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건축 연구의 필요성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어 갑자기 흡수통일이라도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과 남북한 주민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일 것이다.

통일이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사회와 북한사회가 합쳐서 살을 맞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사회 각분야는 북한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갈 것이다. 즉, 건축계는 북한 건축계와 통합하고 건축관련인사와 같이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건축계를 정확히 아는 것,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등이 통일 후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갈등과 혼란은 결국 우리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어떤 차이, 어떤 특징이 있나?

북한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우리 남한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지배체제와 이념의 차이, 그리고 55년이라는 세월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건축환경과 문화를 우리 남한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게 발전시켜 왔다. 사용하는 건축용어도 다르고 건축작업과정 및 목표, 작업환경도 다르다.

시기별 건축의 특징

북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기별로 특징을 지

능라도 경기장: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에서 제일 큰 경기장으로, 북한의 주요행사가 여기서 열린다.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끌고, 대동강중간에 능라도라는 섬에 있기 때문에 관객 들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닌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블럭의 맹주인 소련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 이라는 이념에 따라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 북한의 건축을 주도한 건축가의 대부분이 소련에서 공부를 하고 소련의 건축문화를 수입했다. 한국전쟁 말기 모스크바 건축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돌아온 김정희가 평양시 총계획도를 작성했으며, 우랄공대 건축학부를 졸업한 이 형, 신순경과 일제 때 건축을 전공한 노 식, 강처한 등이 주축이 되어 다층영구건물의 건축 및 건설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의 건축양식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층고가 높고, 강한 중심성을 띠고, 높고 좁은 창문, 1층에는 석조양식으로 장식하고, 벽체가 육중하면서도 문과 창개구부 주위 장식은 물론 처마장식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건물은 6.25동란 중 전국의 70~80% 가 파괴되었고, 평양은 약 90%가 완전히 파괴되어 현재 평양의 건물은 모란봉의 최승대, 을밀대, 현무문 등을 제외하면 거의가 한국전쟁 이후 새로 지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주요 건물들은 일본인이 헐어버리고 일제 때의 도청과 화신백화점은 현 체제가 헐어버렸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나머지 건물의 대부분이 폭격과 화재로 없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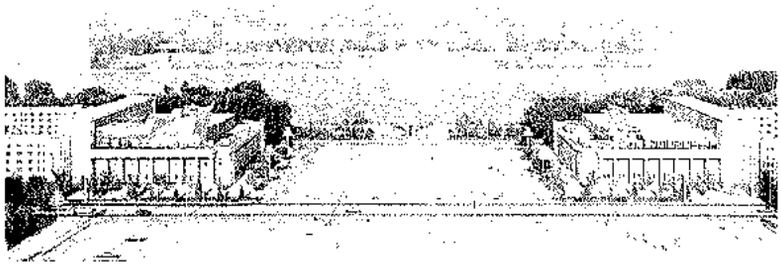
휴전 직후에도 북한은 러시아에서 유학한 건축가들을 앞세워 평양을 비롯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건설에 주력했다. 비록 많은 것이 파괴되었지만 사회주의 블럭의 원조에 힘입어 시멘트, 강재, 요업공장 등이 짧은 기간 내에 복구 · 확장되었으며, 평양을 비롯한 도시건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구라파 사회주의권 블럭의 나라들이 도시건설을 직접 지원하여, 헝가리가 평양, 동독이 함흥, 체코가 청진에서 도시 한구획을 맡아서 계획에서부터 시공까지 해주었다고 한다. 이들이 건설한 3~4층의 저층 건물들은 평양시에서는 70년대 중엽의 재개발로 완전히 사라지고 함흥과 청진에는 아직 일부분이 남아있다.

전후복구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1950년대에는 주택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건설의 가장 큰 과제였다. 주택의 표준화와 규격화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집단화하고, 밀집화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당시 북한 사회분위기와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축 및 건설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은 50,60년대에 북한사회가 직면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농촌에서는 2~3세대로 구성된 2층의 연립 주택이 조립식 공법으로 건축되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건물의 특징은 개성이 없고 무미건조하다고 한다.

주택부족 해결을 위해 북한은 최근 평양을 비롯한 원산, 청진, 남포 등의 도시에 5~10층의 아파트를 기본으로 하면서 4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2~3층의 연립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 또한 기존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60년대 중순부터는 전통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지어졌다. "민족적 건축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건물을 지어야한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북한 건축계



주체사상탑 : 김일성광장의 대동강 건너편에 있고, 평양 도시계획의 중요한 축이라고 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탑이다.

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 남한과는 달리, 전통건축의 지붕을 직설적으로 대입하여, 팔작지붕을 높이가 다르게 중첩시키고, 하부의 기단을 중요시하고, 층수가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덩어리와 지붕으로 구성된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느끼도록 기단에서 강하게 수평성을 부여하여 처리하였다. 평양의 옥류관,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등의 건물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 양식은 주체사상과 더불어 북한건축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사회주의적인 우월성을 표현할 의도로, 거대하고 높은 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된다. 이 건물들은 기능성, 효용성, 경제성보다는 체제의 우월성을 국내외에 선전하고 자부심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들이다. 고려호텔, 유경호텔, 5.1(능라도)경기장, 주체사상탑 등이 사회주의 우월성을 표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념비적 건축물들이다.

또한 평양을 사회주의국가 도시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평양에서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원 속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시켰다. 특히 평양 중심부인 본평양에서는 모든 건물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계획하여 굴뚝을 없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해가 없는 도시건설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농촌에는 2~3층의 문화 주택을 실리카트 벽돌(일종의 발포벽돌로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무게가 가볍다고 함)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김정일의 교시"건축도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건축창작도 반드시 비반복적이어야 한다."에 따라 새로 짓는 건물들이 조형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동평양극장, 청년중앙회관, 빙상관, 평양교예극장 등과 창광거리, 광복거리의 다양한 형태의 살림집(아파트)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건축현황과 차이

북한에서의 건물은 개인소유가 없으며 개인건축도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건물은 국가소유이며, 개인은 이용권리만 가진다. 모든 건물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당과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여 지어진다. 국민 개개인은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신분등급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업적 목적과 다양한 계층의 의도에 의하여 건축되어지는 자본주의와 달리 다양성이 부족하다.

북한 도시건축의 특이한 점은 상업 · 업무기능의 건물이 가로변에 배치되는 자본주의 도시와는 달리, 고층아파트와 공공건물이 가로변에 배치되어 전체 도시경관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의 교육, 훈련을 위한 극장, 도서관 등의 집회시설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므로 탁아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아동을 위한 보조 교육기관도 많이 건설되었다.

건물은 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 PC공법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텔인 유경호텔도 철근콘크리트구조이다. 시멘트는 질이 좋아서 수출도 하지만 기타 건자재와 마감재는 조악하기 그지없고, 건설현장의 기계화 수준도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몇년 전 남한에 수입되어 들어온 시멘트 강도는 시험결과 우리제품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고 함.) 그래서 주요 건물의 유리 및 기타 마감재는 주로 동구권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건축설계는 국가기관인 각 단위 도당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설계사업소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다. 북한은 대표적인 주요건축물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백두산 건축설계연구원 같은 건축설계사업소를 정무원 산하에 두고 운영한다고 한다. 이 연구원은 도시설계를 담당하던 소규모집단이었으나 1989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 중심부에 연면적 10,000㎡인 건물을 마련하고 현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인민설계가와 공훈설계가 들을 비롯한 수 십명의 박사, 준박사급의 전문설계가들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젊은 설계가들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조직은 설계가들의 편의를 위해 실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설계실, 구조물설계실, 전기 시설물설계실, 설계역량실, 환경위생설계실, 건재설계실 등이 있다. 유경호텔, 국제친선전람관, 능라도 경기장, 창광거리 등이 이 연구원 작품이다.

또한〈조선건축〉이라는 건축 전문잡지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시공과 자재정보가 수록되어 있는〈건설과 건재〉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북한에는 「평양건설건재대학」이 건축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학이라고 한다. 이 대학은 약 3,0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리고 각 도마다 이런 건설전문대학이 있고, 현재 북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가가 평양건설건재대학 출신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현상설계가 있는데, 대상설계라고 한다. 중요한 국가사업인 경우에 조선건축가 동맹에 속해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가가 참여해야 하고 선정된 사람은 몇 급의 특진도 한다고 한다.

건축용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건물의 용도」를 「건물의 사명」으로,「계단」을 「층대」로,「에스컬레이터」를 「자동층대」, 「단면도」를 「자름도」로, 「주택」을 「살림집」으로, 「발코니」를 「내민대」로, 「계단실형 아파트」를 「섹지야식 살림집」으로, 「거실」을 「공동살림방」으로 표현한다. 「건축기법상 변화를 주는 것」을 「도섭을 부린다」로 표현한다. 이런 용어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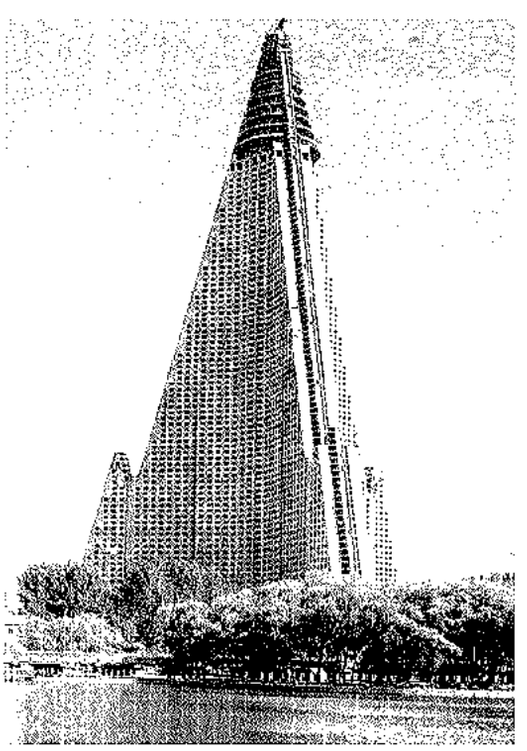
우리가 준비할 것은 너무도 많다. 통일의 주체는 우리 모두이다. 즉, 사회 각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국민 개개인이다. 정치체제나 제도가 통일이 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통일은 갈등없는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각자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끼리 서로의 차이를 알고, 존재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노력만이 통일후의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다. 우리 건축계는 북한의 건축계와 통합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같이 활동해야 할 것이다. 북한건축에 대한 우리 건축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위에 간단히 언급한 건축현황과 차이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할 주제는 많이 있다. 통일 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기존 건물의 재활용 혹은 리노베이션 문제, 건축분야 학자 및 기술자 현황, 어떤 건축대학이 있고, 건축교육은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가, 기술자의 수준 내지는 자격의 상호인정기준 등 아주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문제가 널려있다.

또한 연구활동과 더불어 통일전이라도 상호접촉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우리 건축가협회와 북한의 조선건축가동맹이 또는 우리학자와 북한의 학자가 남한의 설계사무소가 북한의 설계사업소와 서로 만나서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 방문하여 세미나도 하고 관심있는 건물을 함께 견학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여 공동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추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갖다 줄 것이다. 싫건 좋건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우리민족의 시대적 사명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 건축계는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북한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각론적인 연구를 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워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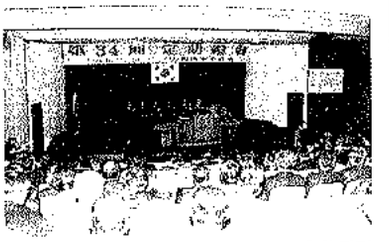


유경호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5층)로, 경제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백두산건축설계원 작품으로, 북한의 경제적 수준에 비춰볼 때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런 초고층건물을 설계하고 시공 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 하다.

협회소식 / 94
건축계소식 / 95
해외잡지동향 / 101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8
회원현황 / 110

제34회 정기총회

2000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 확정



총회 광경

장학증서 수여광경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 제34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4일(목)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대의원 498명 중 36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 5개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날 총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해 강윤모차관과 협회 고문 등 내외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 전회 회의록 승인, 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이의구 회장은 "최근 건축사법이 개정돼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제 전환,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협회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 등이 시행예정이지만,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임의단체화의 길을 걷고 있는 여타 단체들의 예를 보더라도 당초 우려와 달리 조직이 분할 또는 난립되는 일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건축사들도 결코 이합집산하지 않고 잘 결속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건설교통부장관은 강윤모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부는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건축교육학제 변경, 응시자격 조정 등 건축사자격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당분간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축사 여러분들은 이에 동요하지 말고 한국건축의 선진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건축사보수요율이 없어져 그나마 받던 설계비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해졌는데, 이와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의구회장은 "현재 모든 사안을 종합검토중이며, 이달 안으로 당국에 협회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고, 협회(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협회 자체적으로라도 보수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는 초반부터 협회현안 타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현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안건 및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1999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2000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국가간 건축사 상호인정에 대비해 경쟁력강화 방안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설계감리업무기준

마련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건축사관련제도 변화에 따른 대책마련과 건축자재정보 DB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 제3호의안: 2000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 승인의 건

- 원안승인(2000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를 1999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제4호의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승인

• 제5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일부 임원의 임기만료로 새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새 감사(1명)에 이영기(경북)대의원을 추천에 의해 선출했고, 이사(7명)는 회장에 위임키로 하고 오후 3시 50분 폐회.

건축법시행령개정안 "건축물 신고범위 확대" 철회요구

위법 부실건축물 양산 등 부작용 우려돼

소규모건축물의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우리협회가 부실건축물 양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우리 협회는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85㎡로 정해져 있는 신축주택 신고범위를 330㎡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와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확대 전환시켜야 부패가 근절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신고제가 허가제와 큰 차이가 없는 실정에서 행정절차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행정절차상 신고제가 허가제보다 간편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실제 우리의 건축민원행정풍토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고단계에서 공무원의 자의적 처리범위만 늘어나 오히려 부조리의 개연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밖에도 신고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금까지 건축사의 조사검사서에 의해 허가되던 것이 많은 공무원을 투입해 직접 조사확인후 신고수리하게되므로 행정처리 지연과 인력낭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도적으로 공사감리대상이 아니므로 위법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업자에 의한 위법 부실사례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와 부실시공에 대한 배상 및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오히려 건축주인 국민에게 적지않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330㎡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으로써 용도변경이 빈번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뀔 경우 구조 및 화재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위법 및 부실건축물의 양산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사 회원들의 여론 또한 이번 정부의 신고대상 확대 방침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이라며 정부가 진정한 부패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신고범위를 축소 ·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제3회 크리악어워드 수상작 발표

수상작예 「동우밸브콘트롤공장」
(김효만 作)

월간 건축인 poar가 주최하는 제3회 크리악 어워드(CRI-ARC AWARD/올해의 비평건축상) 수상작은 「동우밸브콘트롤공장(김효만/이로재김효만건축연구소)」으로 선정, 발표됐다. 제3회 크리악어워드의 후보작으로는 솔마당집(조병수), 진해해군사관학교성당(김성식, 김중근), 이동수패션사옥(이두열), 동우밸브콘트롤공장(김효만), 시안(부대진), 호서대음악관(정재현), 상촌재(원대연), 수백당(승효상), 주 · 휠라코리아사옥(김영희), 성신여대난향관(오섬훈), 임당동성당유치원(김종규), 명지대방목기념관(이종호) 등이었다. 이 상은 후보작들을 대상으로 월간 건축인 poar의 구독자들이 심사투표하여 그 중 최고 득표작에 수상의 영예를 안기는 형식이며, 상금 또한 독자들이 참여하는 건축상답게 전체 정기구독자의 1년간 구독료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크리악어워드의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미술작가 안필연씨 제작)는 매년 형상을 달리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트로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7회 간향건축문학상 발표

'죽은자의 집' 주제로

'죽은자의 집' 을 주제로 하여 지난 2000년 1월 31일 마감한 제7회 간향건축문학상 심사결과 당선작없이 가작에 주원규(충주대 전기공학과 3년, 부전공 건축)씨의 '심판의 기능으로서의 건축' 과 유혜숙(대구대 불문학과 졸업)씨의 'DOXAS적 상상의 세계' 가 선정됐다. 이번 제7회 간향건축문학상은 총 응모편수 7편이 예심없이 모두 본심에 올랐으나 응모자들이 전반적으로 글쓰기와 그에 따른 주제어 해석에 치밀하지 못하다는 결점이 드러나 당선작없이 가작 2편을 선정했다. 가작 2편은 다른 작품보다 주제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독특했고, 글쓰기에 대한 태도와 접근방법에 자기 수련이 되어 있었지만, 구성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25만원 상당의 부상과 상장이 주어진다. 심사는 함성호(스튜디오 이온 소장, 시인), 임종엽(숙명여대 교수), 이용범(poar편집장)씨가 맡았다.

건축사시험 일자

▷예비시험: 5월 14일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3월 13일~18일
- 시험장소: 4월 27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공고
- 합격예정자발표: 5월 26일

▷ 자격시험: 9월 3일

▷ 기타:http://www.kira.or.kr

서울건축학교, 2000/01 프로그램 안내

0306 ~ 0610

1997년 김수근 문화재단의 예술 교육 사업으로 시작하여 지난 3년 동안 설계 교육 과정과 여름 워크숍을 개설한 sa는 동시대의 건축가, 예술가, 지식인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식을 교환하고 지혜를 나누고 끊임없는 실험을 모색하는 곳이며, 함께 미래를 열어 갈 건축가들이 성장하는 장소이다. 이제 sa는 건축가가 진행하는 다양한 성격의 설계 스튜디오와 계절 워크숍, 이 시대의 첨예한 이론이 논의되는 세미나와 강좌(sa tuesday, sa friday)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행, 전시, 출판을 통하여 새로운 세기의 도시 건축 문화를 만들어 간다.

▶ 설계스튜디오
- 김 헌 스튜디오 (한양대, 미국 미시건 대학원졸업, 에다건축)
  verse - transverse : 5 phases
- 최문규 스튜디오 (연세대 대학원 졸업, 콜롬비아대, 가아건축)
  documentation of seoul
- 김승회 스튜디오 (서울대 대학원 졸업,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경영위치 건축연구소)도시 경계 면의 탐색 2
- 권문성 스튜디오 (서울대, 서울대 대학원 졸업, 아트리에17)
  전통건축 공간체계 읽기 2
- 윤평헌 스튜디오 (홍익대 대학원졸업, AA gdg diploma, shift건축연구소) fluid space 2
- 최 욱 스튜디오 (홍익대, 베니스 건축대 졸업, 최욱건축연구소)
  architectural composition

▶ 스튜디오 지정 크리틱
김영준, 김인철, 김종규, 민현식, 서혜림, 승효상, 이종호, 정기용, 조성룡

▶ 기 행
0324 금 - 0326 일
코디네이터 : 유홍준
(영남대 사학과 교수)
남평 문씨 세거지, 지산동 고분, 관룡사, 거제도 포로수용소, 영암사지, 해인사, 동계 정온 고택, 수승대

제3회 건축사진 강좌

4월4일부터 6월27일까지

청암 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에서는 제3회 건축사진강좌를 2000년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12주간으로 진행될 이 강좌는 임정의선생이 20여년간 체험했던 건축과 관련된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소형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야외촬영, 인테리어촬영, 암실작업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개인작업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할 수있는 수준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강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기간 : 4월 4일부터 6월 27일 (12주)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8시30분
- 장소 : 청암 건축사진 스튜디오
- 인원 : 12명 선착순
- 참가자격은 소개서와 참가비
- 신청은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전화 (02) 567-2700

팩스 (02)-569-0061

〈강의 내용〉

1주 - 사진의 역사 및 건축사진의 이해 (건축사진의 분류및 스라이드 강의)

2주 - 건축사진촬영에서 필요한 기자재 (카메라, 렌즈및 필림의 선택 연구)

3주 - 건축사진에서의 빛과 공간의 이해(자연광과 인공광의 비교)

4주 - 건축사진의 표현방법 (건축관련 잡지와 포트폴리오제작)

5주 - 건축사진에서의 테크닉 (타임,조리개,심도의 이용방법)

6주 - 건축모형촬영의 테크닉 (계획모형,단지모형,주거모형,)

7주 - 인테리어촬영의 테크닉 (백열등, 형광등에서의 촬영연구)

8주 - 야외사진촬영의 테크닉 (각종 현대건축물들을 중심으로)

9주 - 고건축촬영의 테크닉 (각종 전통건축물들을 중심으로)

10주 - 흑백현상 및 테크닉 (암실작업 실습)

11주 - 인화방법 및 테크닉 (암실작업 실습)

12주 - 작품제작 및 총평 (건축사진기행 - 1박2일예정)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특강 및 세미나

경기대 서울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 2000년 1학기 특강 및 세미나 일정이 발표됐다. 외부인사 및 건축전문대학원교수를 초빙하는 특강 및 세미나는 경기대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특강

3월 17일 잡설/문 훈(신한건축,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4월 14일 노메딕스(Nomadics)/오심훈(공간건축)

5월 12일 Recent Works/서혜림(힘마건축)

6월 9일 마이크로스페이스 탐구/민경식(민경식건축연구소, 경기대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세미나

3월 18일 빛과 공간/임정의 (사진작가)

3월 15일 창조마인드/장두이 (연극인)

3월 29일 환경을 위한 미술, 미술을 위한 미술/홍순명(조각가)

4월 12일 21세기의 인텔리전트빌딩/정준희(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4월 26일 Technic, Technology, Tectonics/박정수(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 문의: 02-390-5245

아시아디자인포럼 도쿄 2000

오는 7월 '동풍' 주제로

아시아디자인포럼 도쿄2000이 오는 7월 일본 도쿄에서 '동풍(East Wind)'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심포지엄과 전시회로 구성되며, 도쿄만(Tokyo Bay)에 대한 각 건축가들의 컨셉을 한자리에 모아 그 결과물을 출판할 예정이다. 공기와 물을 나타내는 '유동성'과 '소용돌이'를 주제로 하며, 각 참가자들은 이 개념을 그들의 작품에 표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작품전시회는 7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가츠요 세지마외 11명의 일본 건축가와 개리 찬(홍콩), 융호창(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의 아시아 건축가 10명이 초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섭(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회원이 참가한다.

예루살렘 건축세미나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올 해로 제5회를 맞는 예루살렘세미나가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예루살렘세미나는 1992년에 시작되어 격년제 포럼으로 진행하며, 세계적인 건축가와 비평가들이 그들의 근작들과 주요 건축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올 해 주제는 '공간의 재발명 - 20세기의 경계를 넘어서'이며, 다니엘 리베스킨트(미국 · 독일)가 의장을 맡고, 세실 발몬드(영국), 톰 메인(미국), 엔리케 노튼(멕시코), 카르메 피노스(스페인), 울프 프릭스(오스트리아), 로버트 스턴(미국), 베르나르 츄미(스위스), 케네스 양(말레이지아) 등과 이론가 찰스 젱크스(영국)가 참가한다. 문의: 972-3-512-0000, http://www.jersemar.org.il

아트센재센터 건축강좌

건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건축의 재발견

주제: 건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3월 14일 서울의 대표적 건축물 읽기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3월 21일 도시건축을 위한 메모/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3월 28일 서울의 예기치 않은 부산물들/김광수(팀반도시건축)
4월 4일 조윤석의 홍대앞 읽기/조윤석(공연기획자)
4월 11일 도시문화와 모더니티/김진송(목수)
4월 18일 서울의 시각환경과 문화/김민수
4월 25일 현대의 시대성과 서울의 현재성/김상기
5월 2일 폴토(Porto)와 알바로 시자(Alvaro Siza)/최 욱(최욱건축연구소)
5월 9일 렘 콜하아스(Rem Koolhaas)/김영준(이로재김영준건축연구소)

▷일시: 화요일 18시~21시
▷참가비: 12만원

주제: 한국건축의 재발견 (강사: 김봉렬)

3월 15일 한국건축의 종류와 특성
4월 12일 성리학적 이상과 유교건축
5월 17일 종묘건축답사
6월 14일 현대건축의 단면과 21세기의 화두-동숭동도시탐사

▷일시: 수요일 10시~12시
▷참가비: 14만원
▷문의: 아트선재센터 (02-733-8949)

한국건축가협회, 건축학교 설립

오는 6월 23일 여름학기부터

한국건축가협회는 2000년 6월 23일 여름학기부터 건축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이는 건축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BK21 디자인특화사업단에 연구의뢰하여 급변하는 건축문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건축가 양성, 실무건축가의 교육기회의 확대와 재교육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건축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그 실천 예비방안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오는 6월 23일 여름학기부터 시작하는 이번 디자인스튜디오는 7개 스튜디오에 각 10인의 학생으로 구성되고, 단위 스튜디오당 1인의 초빙교수와 조교로 운영된다. 주3회(월, 수, 금)각 3시간 이상의 스튜디오 강의로 단계별 평가와 전시기간중의 종합평가를 통해 건축가지에 우수작품이 수록되고,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전시된다. 건축설계 관련업무 종사자, 건축관련 학부 졸업자나 대학원 재학생, 건축관련 학부 3,4년생, 건축비전공자 중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지원서는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에서 교부받고, 한국건축가협회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아 서류전형과 포트폴리오(형식 제한 없음)를 통해 선발된다. 접수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5월 26일 발표한다. 문의: 02-743-8671

한국건설감리협회, 제3대 회장에 김무현회원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난 2월 22일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무현(진아건축 · 도시종합건축)회원을 제3대 회장에 선임했다. 부회장에는 이성희(용마엔지니어링 대표)씨와 김호(부림건축)회원을 선임했다.(02-3460-8656)

한국의 40대 건축가 10인전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4월 1일 보여지는 것과 찾는 것 / 김태우(KCAF건축)
4월 8일 Architectural Diary / 최 욱(KPC건축)
4월 15일 건축과 그 이외의 것들 / 김광수(팀반건축)
4월 22일 공간적 의미의 혼들림, 그 불안 / 김 헌(에다건축)
4월 29일 How to think design megabit / 공 철(Kc건축)
5월 6일 이일훈의 작업세계-보편과 특수 / 이일훈(이일훈건축)
5월 13일 잡종만들기 / 장윤규(장윤규건축실험아뜨리에)
5월 20일 Landpecture /헬렌박(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5월 27일 건축답사 / 양상현(순천향대 교수)
6월 3일 지어진 것과 지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 최삼영(가와건축)
6월 10일 건축의 사이성, 관계성 / 변

희협(시몽건축)

• 문의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02-739-6854~6)

2000 WORLD HABITAT AWARDS 공모

1차 제출물은 7월 1일까지

영국 The Building and Social Housing Foundation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거주자들에게 지속적인 미래를 제공하며, 현재 주택문제를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World Habitat Awards를 제정, 우수한 작품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있다. 올 해로 16회째를 맞는 World Habitat Awards의 수상작은 전세계에 작품을 장려하기 위해 홍보가 되며, UN이 정한 World Habitat Day에 시상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정부, 단체, 개인이며, 자료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은 영국소재 The Building and Social Housing Foundation 홈페이지 www.bshf.org를 참조할 것) 1차제출물은 7월 1일까지이며, 수상자에게 영국화폐 £10,000와 은트로피가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The Building and Social Housing Foundation Memorial Square Coalville Leicestershire LE67 3TU United Kingdom으로 문의하거나 주관단체 홈페이지(www.bshf.org)를 참고. 전화 +44(0)1530 510444, 팩스 +44(0)1530 510332, 이메일 BSHF@com-puserve.com, 디렉터 Mr. Peter Elderfield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교육일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신청자는 해당 과목 교육 시작 3일전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이틀전에 참가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접수는 전화로만 받는다.

0344-910-0052

인터넷 기초검색과정, 인터넷홈페이지

0344-910-0053

건설업적용 EC개론, EDI개론, 건설CALS개론, 건설인허가 시범사례, 표준문서 작성과정

0344-910-0054

조달EDI, 전자거래 쇼핑몰구축전략, 건설분야 특허정보활용, 건설신기술정책 및 사례, 공정관리실무

0344-910-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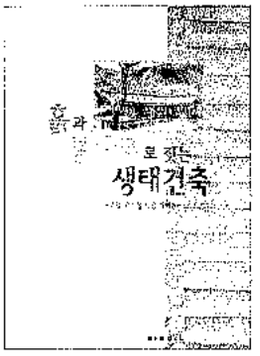
설계관리실무, 클레임 및 리스크 관리, ISO품질경영 체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과 정	내 용	일정 (14시~18시)
인터넷기초검색과정	- 인터넷개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 인터넷과 멀티미디어통신 - 정보검색, 인터넷상거래 및 마케팅	3/29, 4/11, 4/18, 5/8, 6/2, 6/7
인터넷홈페이지 I	- 작성법구상 -홈페이지구성파악 - 에디터사용법(기초)	4/12, 5/16, 6/20
인터넷홈페이지 II	- 에디터사용법(중급,고급) - 운영방법 - 검색엔진등록 및 홍보	4/13, 5/17, 6/21
건설업적용 EC개론	- 전자거래와 CALS - 전자거래의 촉진요인 - 전자거래 타입 - 인트라비즈니스 거래 - 건설업에서의 응용	4/7, 5/12, 6/14, 7/20
EDI개론	- 개요 및 구성요소 - 분야별EDI소개 - EDI활용 및 관련제도	4/19, 5/25
건설CALS개론	- CALS개요, CALS구조 및 기술, - 건설CALS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25, 5/24, 7/11
건설인허가시범사례	- 전자처리대상 인허가 시스템 구축방향 - 인허가 세부추진계획	4/26, 6/8
표준문서작성	- XML개요, - XML개발방법, - XML작성요령	5/18, 6/29
조달EDI	- EDI정의, -조달EDI시범사업, - 조달EDI확산사업(2차), - 조달EDI3차사업 - 범정부조달정보화 추진	5/23, 6/9
전자거래쇼핑몰 구축전략	- 인터넷상거래와 사이버몰 - 사이버몰 현황 및 전망 - 인터넷몰 구축전략, 전자지불시스템과 보안프로토콜	4/14, 5/30, 6/15
건설분야특허정보활용	- 지적재산보호제도 소개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권리범위 - 지적재산권 분쟁현황과 대응방안	3/24, 6/16
건설신기술 정책 및 사례	- 건설기술방향 - 건설신기술사례	5/19
공정관리실무	- 공사기간 관리 -공사수행계획 - 공정계획수립 -공정관리 - 공사기간의 연장	4/4, 5/10, 6/13, 7/5, 7/19
설계관리실무	- 설계관리이론 - 설계관리범위 및 내용 - 설계단계별 문제점 -설계관리 관련법제도	4/24, 5/26, 6/22, 7/6
건설클레임 및 리스크 관리	- 클레임의 내용 - 클레임의 발생요인 - 클레임의 유형 - 클레임의 통지와 제출 - 협의, 조정 및 중재	4/6, 5/29, 6/27, 7/12
ISO품질경영체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 ISO품질경영체제의 이해 -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품질경영체제 활용방안 - 건설업과 관련된 품질경영체제 현황	3/30, 4/10, 5/22, 6/23,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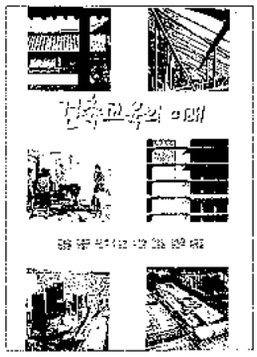
신간안내

흙과 통나무로 짓는 생태건축
건축교육의 미래
서양건축의 이해

◇ 흙과 통나무로 짓는 생태건축 - 주말 귀틀집 시공가이드



귀틀집은 오래된 그 역사와 영향력에 비해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람에게 좋고 자연에도 좋은 친환경적인 특성과 공사비가 저렴한 경제성을 귀틀집에서 찾을 수 있다. 『흙과 통나무로 짓는 생태건축-주말 귀틀집 시공가이드』는 그러한 귀틀집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1부 자연, 인간, 건축에서는 귀틀집의 가치와 좋은 자재를 선택하는 방법과 집을 잘 짓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고, 제2부 귀틀집 짓기에서는 집짓기의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통나무 교차부에서 아래, 위로 따내 물리도록 사방을 두르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메우는 정도로, 흙과 나무라는 재료를 간단한 축조원리로 시공할 수 있는 방법과 에너지 효율면에서 손색없고 건축물의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제안을 한다. 이것으로 옛건축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강준모지음/262쪽/1만3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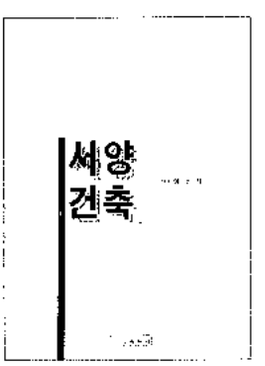


◇건축교육의 미래

건축교육은 WTO의 서비스협상 대상 분야로 21세기의 개방된 세계시장에 대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건축교육, 국제수준의 전문화된 건축교육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증된 건축교육 프로그램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범위와 내용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기한다. 또한 그러한 전문성과 사회윤리상을 갖춘 건축가를 길러내는 건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한다. 필진은 건축교육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8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김봉렬외 7인지음/181쪽/9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서양건축의 이해

모든 건축적 행위는 다양한 사회적 조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며, 또 극복하려는 의지적 저항 때문에 독창적 개인을 만들어 낸다. 이 독창적 개인으로부터 건축을 관찰하는 입장을 취해보면, 건축이란 정치적, 기술적, 문화예술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 다양한 사건의 새로운 요청에 정당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대 사회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은 기존 역사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물의 실체적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오히려 건축을 문화의 일부로 그 문명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 철학 등과 대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했다. 그것은 결국 기존의 역사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부문 만큼이나 다른 분야 특히 종교, 예술, 철학 등의 부분도 비중있게 다루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분야의 사진과 그림을 가능하면 많이 수록해서 서로 그 시대, 그 지역의 여러 분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대마다 건축물이 왜, 어떻게 그렇게 진화, 변화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해, 바로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은 우리시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건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데 있다. 특히 건축분야와 더불어 도시와 주거 혹은 기타 서양건축의 특징인 광장과 고대부터 인류가 그리던 이상향의 변천과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시에 적용되고 있었던가를 밝히기 위해 역사적인 이상도시의 전개과정 또한 부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호정지음/441쪽/1만8천원/도서출판 예문사 발행(0344-905-2100)



Domus
Architectural Review
World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u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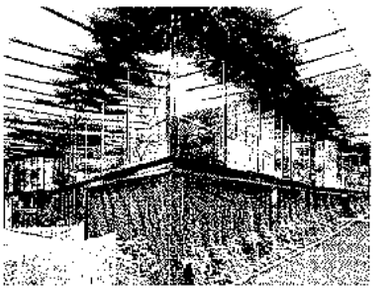
Domus

2월호

지금까지 Domus는 매달 주제를 정해 관련 작품들을 소개했으나, 본호부터는 특정 건축가와의 인터뷰로 시작해 작품 소개로 이어짐으로써 보다 유동적인 편집 방향을 잡았다. Herzog & De Meuron, Portzamparc의 최신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디자인 부문에서는 Marc Newson의 인터뷰 및 작품 세계, 그리고 식품 관련 상품들의 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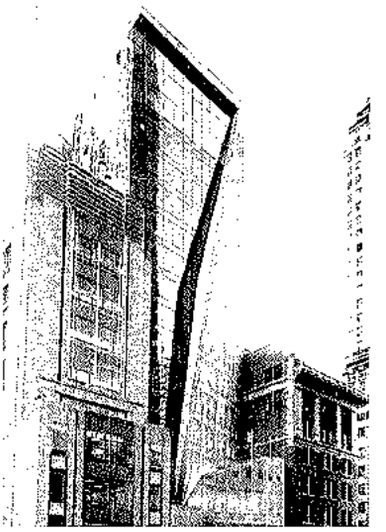
■ 작품

▶Herzog & De Meuron의 Basle Laufen Ricola 마케팅 사무실



주위 자연 환경을 건물 디자인에 최대한 이용한 이 작품은 다양한 각도의 유리면들로 둘러싸여 있어 저마다 다른 자연 풍경을 반사해 보여준다. 돌출되어 있는 지붕면에는 식물 줄기가 자라도록 되어 있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전체 이미지가 변화하게 된다. 자연을 이용해 건물의 내외부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Christian de Portzamparc의 뉴욕 LVMH 타워 빌딩



다양한 형태 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Portzamparc의 새 빌딩은 기존 뉴욕 건물들과 상이하게 다른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 일반 건물들이 수직적으로 구분된 외관을 갖고 있는 반면, 이 빌딩은 방사형으로 꽃잎이 피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기존에 선호하던 재료인 콘크리트에서 벗어나 도입한 흰색과 초록색으로 표면 처리된 유리면은 주위 건물들에 대한 반사율을 최소화하면서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자아낸다. 미스의 시그램 빌딩 이후 유럽 건축가에 의해 뉴욕에 만들어진 작품 중 가장 독특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밖에 ▶Tamás Karácsony, Péter Janesch의 헝가리 Perbál 장애인 재활원, ▶Mauro Galantino의 피렌체 Ugnano Mantignano 공동주택 계획, ▶Zvi Hecker의 독일 Duisburg 유태인 문화원, ▶Philippe Starck의 런던 St. Martins Lane Hotel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이벤트

작년 글래스고우 시에서는 "글래스고우 1999, 문화와 디자인의 도시"라는 제목 하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었다. 현재 문화와 도시적 삶에 있어 건축과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살펴본 이번 행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

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각 분야의 과거 업적 및 유물들에 대한 다양한 전시회와 아울러 미래 주택상의 제시 등 미래 지향적인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한 해로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동안 그 영향이 반향하도록 조직되었다.

■ 기타

▶디자이너 Marc Newson과의 인터뷰, ▶음식물 관련 제품 디자인, ▶Innsbruck의 근대 건축 목록 및 지도, ▶Kenneth Frampton의 Studies in Tectonic Culture, Behnisch & Partner 작품집 등 저서에 대한 소개 및 비평 등이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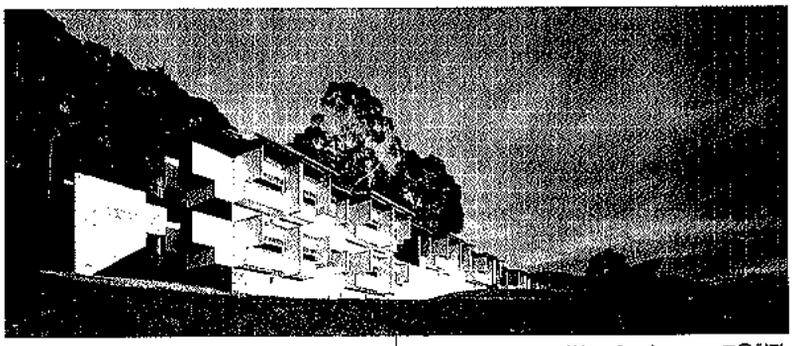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1월호

새 밀레니엄을 여는 첫 호인 만큼 건축의 재생성 및 환경 친화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작품 부분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그린 건축을 특집으로 설정하였다. 비트루비우스가 2000년전 건축 십서에서 견고, 편리, 즐거움의 3원칙을 제시했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해 복원이라는 요소를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린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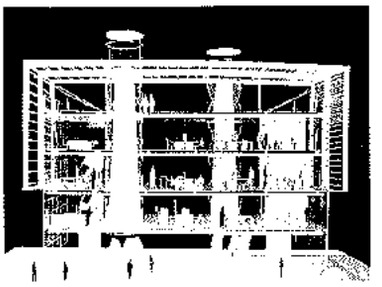
▶Glenn Murcutt, Wendy Lewin & Reg Lark의 오스트레일리아 West Cambewarra 교육 회관



West Cambewarra 교육회관

Murcutt의 최신작인 이 작품은 자연적 조건이 아주 잘 보존된 환경에 대해 최소한의 인공적 첨가를 추구했다. 넓게 펼쳐져 돌출된 지붕을 통해 주위 평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형태적으로 부각된 차양을 통해 건물 내부의 환경 조건을 제어하고 있다. 나무, 철, 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자연 색채를 그대로 살림으로써 주위 수목과 어우러지는데 성공하고 있다.

▶Mario Cucinella Architects의 이탈리아 Catania 사무실 프로젝트



중동 지역의 냉방 시설 방식을 응용한 Cucinella의 사무실 계획안은 건물 중간에 통풍 타워들을 삽입시킴으로써 사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나치게 기계화된 사무실 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외에 ▶Eva Jiricna Architects의 프라하 오렌지 농장, ▶Baumschlager & Eberle의 오스트리아 Mder 학교, ▶Gapp Architects, David B. Lewis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방문객 센터, ▶Ruy Ohtake의 브라질 Ubatuba 교육 회관, ▶BRT Architekten의 독일 Rellingen 산업 건물,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C. Kohlbecker의 독일 Sindelfingen 다지인 센터, ▶Enrique Browne의 칠레 산티아고 건축가 사무실,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역사

런던 그리니치에 있는 리처드 로저스의 밀레니엄 돔이 문을 연 시점에서, 영국이 계획했던 이전 건축 이벤트인 1951년의 Festival of Britain을 돌아보았다. 르 꼬르뷔제의 영웅주의와 스웨덴식 경험주의의 경합의 장이 되었던 이 행사에 대해 그 기원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 인테리어 디자인

각각 유리와 석재를 이용하여 근대적인 미니멀리즘 계열의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Eva Jiricna Architects의 런던 New Bond Street 보석가게, ▶Claudio Silvestrin Architects의 파리 Place Vendome 가게가 소개되어 있다.

■ 저서 비평

▶건축과 에로티시즘의 관계를 다룬 Francesco Colonna의 Hypnerotomachia Poliphili, ▶북경 도시 계획의 현황을 소개한 Wu Liangyong의 Rehabilitating the Old City of Beijing 등 저서들에 대한 간단한 비평

이 실려있다.

■ 기타

▶Bernard Tschumi의 뉴욕 콜롬비아 대학 학생관에 대한 비평, ▶레바논 사태로 파괴된 베이루트에서 일고 있는 도시계획 붐, ▶Eric Owen Moss, Thom Mayne, Coop Himmelblau 등 저명한 건축가들이 참가했던 쿠바의 하바나 프로젝트 1996 소개 등이 실려있다.

World Architecture

3월호

도시를 단위로 최근 건축 경향을 살펴보는 도시 특집에서는 Potsdamer Platz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베를린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서 각 나라들이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규모 교통 허브 프로젝트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었다.

■ 신작 소개

▶Bernard Tschumi의 프랑스École d'Architecture de Marne-la-Vallée

파리 교외에 위치한 이 학교 건물은 건물을 닫힌 체계가 아닌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Tschumi의 건축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대규모 건물군의 제1단계로 완공된 이 건물은 구체적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다용도 공간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며, 내부 논리로부터 외형이 결정되어 나가는 방식을 따랐다. 거대한 중정에 위치한 철망으로 둘러싸인 매스는 대형 강의실이며, 여러 브리지를 통해 건물의 각 공간으로부터 직접 연결되고 있다.

■ 도시 특집 - 베를린

베를린은 새천년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Potsdamer Platz 재개발 계획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년간 베를린 만큼 건축과 도시 하부 조직에 많은 투자를 한 도시도 드물다. 하지만 베를린에 유태인 박물관을 지은 Daniel Libeskind는 좀 다른 의견을 보이는데, 양적으로는 활발해 보였을 지 모르지만 신보수주의적 경향의 작품들만 양산해내었을 뿐 도전적인 모멘텀은 오히려 쇠퇴해버렸다고 평했다.

최근 베를린에 신축된 건물들로 Frank Gehry의 Pariser Platz DG Bank, ▶Helmut Jahn(Murphy /Jahn)의 Potzdamer Platz Sony Center, ▶ Mueller/Reimann Architects의 독일 외무부 청사, ▶ Dominique Perrault의 수영장 및 자전거 경주장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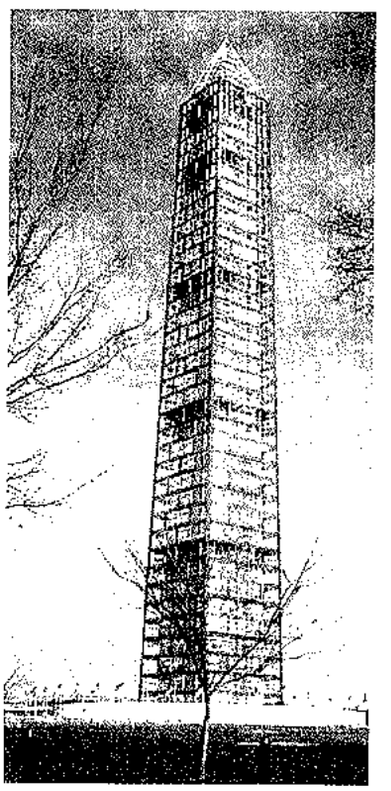
■ 교통 허브 프로젝트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들은 금세기의 주요 건축 프로젝트로 환승 공항 등 교통 허브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Foster and Partners의 Chek Lap Kok 국제 공항, ▶유럽 전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려는 Frankfurt, ▶덴마크의 해상 교량 Great Belt Fixed Link, ▶Ben van Berkel의 네덜란드 Arnhem 환승 시설 계획, Rem Koolhaas의 네덜란드 북해 해상 공항 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 저서 비평

▶오브제가 아닌 도시적 경험을 설계한 Jon Jerde의 작품들을 소개한 You Are Here, ▶Aldo van Eyck 작품집, ▶미래 지향적인 건축 계획안들을 간략히 집성한 Visionary Architecture, ▶Spiro Kostof의 The City Assembled - The Elements of Urban Form Through History 등 저서에 대한 소개 및 평가가 게재되어 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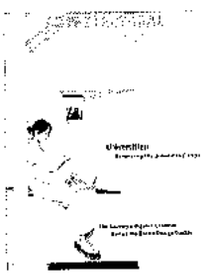
Michael Graves의 워싱턴 모뉴먼트

분석 분야에서는 ▶올 유럽의 9개 도시에 주어진 유럽 문화 도시상, ▶지난 50년간 영국에서 독일 건축가의 작품이 지어지지 못한 등 국제화 시대에 있어 교류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스페인 Ceuta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Ivaro Siza의 문화센터 계획안 취소 소식, ▶Toyo Ito의 첫 번째 해외 작품 계획, ▶Oscar

Niemeyer의 첫 번째 소설 출간 소식, ▶Renzo Piano의 Kansai 공항 증축 계획, ▶영구 보존될 계획이 추진 중인 Michael Graves의 워싱턴 모뉴먼트 수리용 설치물 이야기 등이 다루어져 있다. 아울러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색체 디자인, ▶새로운 마감 재료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cord

2월호



프로젝트 코너에서는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미국의 대학 시설물 건축의 최신작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빌딩 타입 스터디에서는 호텔 건축 개조를 다루고 있다. 과학 및 기술 부분에서는 내진 설계의 최근 경향 등을 소개하였다.

■ 실무 문제 - 설계 경기 제도에 대하여

설계 경기는 건축 사무소들이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며, 당선자들의 입지를 단기간에 확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심사위원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당선작이 나오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당선되지 못한 작품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도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점이 매우 불합리하며,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안이 마련된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계 경기 주최측과 상금, 일정,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비평 - 스타 건축가 제도가 과연 좋은 디자인을 낳을까?

유명인에 의해 전반적인 흐름이 결정되는 문화계의 풍토 속에서 건축가들은 그리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건축, 건축가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있거나 맥락을 벗어난 기괴한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뿐인 것 같다. 몇몇 건축가들만이 조명을 받는 것은 다양한 건축 문화를 만드는데는 역으로 작용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미국 캠퍼스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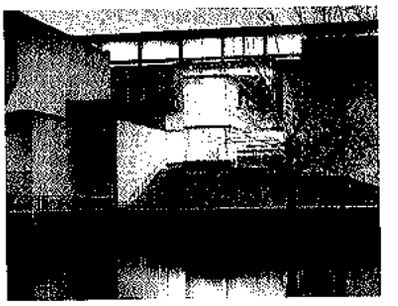
대학들의 전통이 깊어지면서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1999년에만 44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팽창에 의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사라져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배치계획과 조경 측면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행되고 있다. 개별 건축물로는 ▶Frank O. Gehry and Associates의 신시네티 대학 Vontz Center, ▶Bohlin Cywinski Jackson and Architecture +의 매서추세츠 주 Simon's Rock College Fisher Center, ▶Kieran Timberlake & Harris의 예일 대학교 Berkeley College가 소개되어 있다.

신시네티 대학 Vontz센터

■ 빌딩 타입 스터디 782 - 부띠끄 호텔

1990년대 초 바닥을 쳤던 호텔 건축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작으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부띠끄 호텔은 이 분야에서 건축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예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례들로 ▶Koning Eizenberg Architecture의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즈 Avalon Hotel, ▶McClier and Antunovich Associates의 시카고 Hotel Burnham, ▶Mallet Inc.의 시애틀 Ace Hotel, ▶Lemay Michaud Architecture Design의 몬트리올 Hotel Le Germain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매서추세츠대학 예술관

▶미국 공공 건물 건축계에 일고 있는 디자인 개선 경향, ▶사진 비평은 Kevin Roche, John Dinkleloo의 매서추세츠 대학 예술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축 과학 및 기술 부분에서는 ▶내진 설계의 새로운 경향, ▶작은 규모의 설계사무실로 하여금 대규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디지털 도구들, ▶조명 분야에 대한 새소식을 다루었다.

건축문화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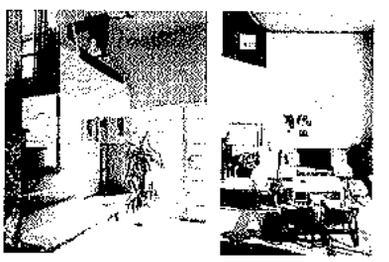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모더니스트 再考 II- 국내편'으로서 『일본 모더니즘의 30인』이다. 나카무라 타츠타로(中村達太郎)에서 무라노 토고(村野藤吾), 마에카와 쿠니오(前川 國男)을 거쳐 당게 겐조(丹下健三)에 이르기까지 1880년대에서 1900년대에 태어나 일본의 모더니즘 건축을 이끌어온 건축가와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 30인을 소개하고 있다.

■ 특집-일본 모더니즘의 30인

▶ 이번 특집은 지난 99년 5월호에 소개된 『모더니즘의 33인 모더니스트 再考 I- 해외편』의 자매편이 된다. 일본에서의 모더니즘 형성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을 주로 집중 조명하는 순서이다. 소개되는 사람들은 주로 1880년대에서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로, 요시다 이소야(吉田五十八), 당게 겐조(丹下健三)등 통사에서 빼놓지 않고 소개되는 건축가들과 이에 덧붙여 내무성 등에서 활약한 조직내 건축가들, 그리고 연구자, 출판 미디어에서 활동한 사람들 등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 폭넓은 시점으로 모더니즘 형성에 기여한 사람들 조명하고 있다. 일본의 大正期이후 유럽의 모더니즘과 접하게되면서 나타난 일본 건축계의 변화와 모더니즘에 대해 촉발된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 보는 특집으로 21명이 30인의 모더니스트들에 대한 논설을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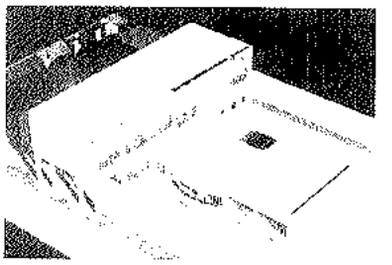
▶ 이 특집에서 다루고 있는 모더니스트들은 일본의 건축사가들이 '일본의 근대건축'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부분과는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근대건축'이라는 단어는 소위 '고전적 모더니즘'과는 다른 뜻으로, 건축이 근대성을 띠기 시작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문호 개방 이후부터의 역사를 주로 서술하고, '고전적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모더니즘 건축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그 서술을 별로 할당하고있지 않은데 반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1910년대부터 주로 활동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을 추구한 작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모더니즘이 일본에 도입되어 자기화하는 과정과 유럽과 어느 정도 동시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가늠해 보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으며 현재의 숙제 또한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는 구성이 되고 있다.

▶ 21인의 論者들이 그 활동을 서술한 30인은 다음과 같다. 나카무라 타츠타로(1860-1942), 사노 토시히카타(1880-1956), 스나미 타카시(1887-1980), 후지이 코지(1888-1938), 콘 와지로(1888-1973), 안토닌 레이몬드(1889-1976), 무라노 토고(1891-1984), 고야마 마사카즈(1892-1970), 우에노 이사부로(1892-1972), 이시모토 키쿠지(1894-1963), 야마다 마모루(1894-1966), 요시다 이소야(1894-1974), 쿠라타 치카타다(1895-1966), 모리타 케이이치(1895-1983), 호리구치 스테미(1895-1984), 이시하라 켄지(1895-1984), 이마이 켄지(1895-1984), 이토오 마사부미(1896-1960), 쯔치하라 카메키(1897-1996), 키시다 히데토(1899-1966), 사토오 타케오(1899-1972), 야마코시 쿠니히꼬(1900-1980), 사카무라 쥰조(1901-1969), 카와키타 렌시치로(1902-1978), 야마구치 분조(1902-1978), 타니구찌 요시히로(1904-1979), 시라이 세이이치(1905-1983), 마에카와 쿠니오(1905-1986), 코사카 히데오(1912-), 당게 겐조(1913-). 이들 30인에 대한 논설을 21명이 나누어 집필하였으며, 사진과 도면 등 도판과 함께 소개되고 있으나, 도판자료 보다는 논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있다.



쯔치하라 카메키

사카무라 쥰조



마에카와 쿠니오

a+u

2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지난 1월호에 이어 "Image of Glass(유리의 이미지)"의 2번째 순서로 꾸며졌다. 근대건축이후 건축에 적극적으로 도입된 유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이미지를 최근의 작품들로 살펴보는 순서가 되고 있다. 2월호에서는 12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1월호와 2월호에서 모두 유리뿐만 아니라 얼음과 같은 투명성을 지니는 재료로 구성된 건축공간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집 - Image of Glass(유리의 이미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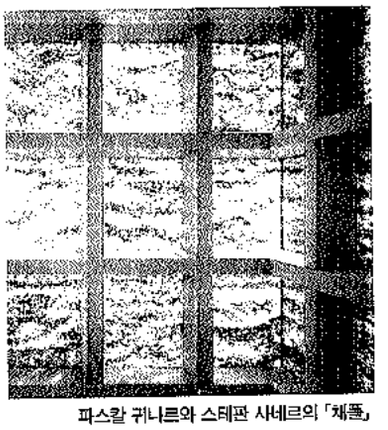
▶ 지난 호에 이어 유리로 구성된 공간을 지닌 작품을 소개하는 특집의 두 번째 순서이다.

유리는 20세기 건축에 가장 영향을 끼친 물질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유리가 그 다음세기에 들어와서는 컴퓨터의 힘을 얻어 더욱 혁신적인 제안의 가능성을 갖게되었다. 유리특유의 투명하고 변질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섬세함은 그대로 유리의 성질로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건축가, 구조가(構造家), 유리생산자, 시공자는 그 성질이 갖는 부가가치에 관심을 두면서 종래 유리가 갖고있던 이미지를 차차 바꾸어가고 있다. 이것은 시각효과의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건축이 갖는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유리가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은 그 환경에 따라 때로는 시적이며,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하게 보는 이의 심성에 다가간다는 점일 것이다. 나아가 현실세계와 유리된 가상세계나 지적인 공간의 이미지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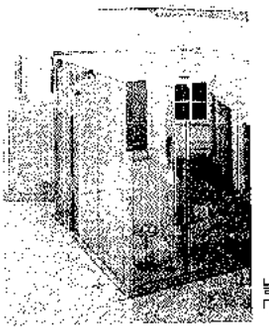
2편에 걸친 이번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을 통해 역사적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유리건축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자연의 이미지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유리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으며, 목재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져있는 유리라는 재료를 발견할 수 있다.

▶ 소개된 작품들을 보면 작가별로 다양한 유리의 얼굴들을 연출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스칼 귀나르와 스테판 사네르(Pascale Guignard & Stefan Saner)는 녹색의 유리파편들을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채워 넣은 유닛을 창문으로 쓴 고속도로변의 채플을 디자인하였다. 사방의 벽면을 모두 이 창문이 뒤덮어, 빛이 이 유닛을 투과하면서 녹색의 빛들을 밤·낮에 따라 건물의 밖과 안으로 쏟아내고 있다. 육중한 조적조의 벽으로도 둘러싸인 중정에 살며시 돌출되어나온 단층건물인 카페 브라보는 날바흐+날바흐(Nalbach+Nalbach)가 디자인하였다. 중정쪽으로 면한 벽을 모두 유리로 마감하고 반대편 내부의 벽은 거울을 설치해 카페의 내부공간을 중정의 한가운데로 옮겨놓았으며, 불투명한 조적조의 주변 벽들과 투명하면서도 때때로 반사하는 유리의 표면은 대조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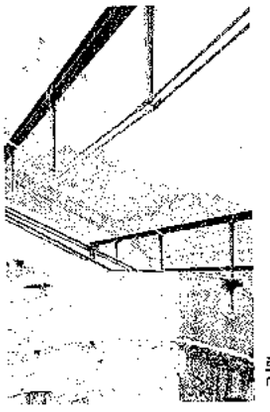
로베르 단츠(Robert Danz)의 고성(固城)에 덧붙인 유리지붕은 고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이나 증축에 자주 쓰이는 유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나가쿠라 타케히꼬(長倉威彦)는 쥬세페 떼라니와 피에트로 링게리의 유명한 미완성 작품 단테움(Danteum)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단테움의 '천국의 방'에는 100개(10×10)의 유리 기둥으로된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설계당시 무솔리니가 전쟁에 패하지 않았어도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을 유리기둥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컴퓨터로 재현해 내고 있다(이번 호 표지그림).



파스칼 귀나르와 스테판 사네르의 「채플」



날바흐+날바흐의 「카페브라보」



로베르 단츠의 「고성」

이밖에도 이토오 도요(伊東豊雄), 스테판 빌과 리벤 악티게일(St phane Beel and Lievan Achtegael), 에릭 반 에게라트(Erick van Egeraat), 프레스톤 스캇 코헨(Preston scott Cohen), MVRDV, 사다르+부가 아키텍츠(Sadar+Vuga Architects)

등의 유리파사드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신건축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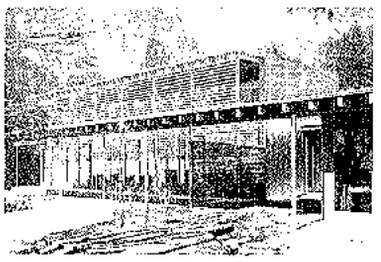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중·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아즈마 환경건축연구소의 墨鄕의 方庫(쿠로고 도서관), 시미즈 마사히로(横川正弘)와 하야시 키미꼬(林公子)의 아사바 여관 등 목조로 된 일본 전통건축의 분위기를 살린 작품들과 소우이치 하야루(承一針生)건축연구소의 나토리 디자인 스튜디오, Workshop DG의 Old M Cabin 등 현대적 감각과 등양건축의 공간감이 혼용된 작품들을 포함해 16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 작품

▶미즈 마사히로(横川正弘)와 하야시 키미꼬(林公子)의 아사바 여관은 350년의 역사를 지니는 아사바 여관의 증축이다. 산림 속에 자리잡은 이 여관은 일본 전통극의 무대를 기존 건물로 갖고 있으며, 객실의 수는 적으나 일본의 전통적인 타다미방의 객실을 마련해두고 있다.

아사바 여관

▶소우이치 하야루(承一針生)건축연구소의 나토리 디자인 스튜디오는 모더니즘 건축의 흔적과 일본 전통건축 모두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시골의 농지에 둘러싸인 이 설계사무소 건물은 도심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라이트의 탈라이센을 연상케한다. 건축가의 주택이 별동으로 연결되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주택의 동쪽에 긴 장방형의 사무소 건물이 자리잡고 이 사무소 건물은 서쪽으로 굽어지며 주택을 감싸듯이 'ㄱ' 자모양으로 되어있다. 사무소건물에서 굽어져나온 부분은 데크테라스로, 주택부분의 테라스와 나란히 위치, 그 사이공간의 독립성을 키워 주택 정원의 영역성을 확보하면서 주택과 사무소 건물의 연계성을 높여 묘한 어우러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용된 재료는 주로 금속재와 목재로, 일본 목조구조물의 분위기와 모더니즘 공간을 함께 연출해내고 있다.



나토리 디자인 스튜디오

▶Workshop DG의 Old M Cabin은 후지산 남쪽에 펼쳐진 경사면에 콘크리트로된 기단부와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목조 프레임의 건물을 얹은 건물. 침실-부엌 및 식당-욕실-침실 순서의 방들을 일렬로 배치했다. 특이한 점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목조의 건물이 들어가고 각 방들을 연결하는 복도는 그 사이공간에 계획했다는 점. 이 복도는 테라스처럼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어있고, 식당은 창으로 구획된 실내식당과 외부로 개방된 실외식당이 연결되어 위치하고있어, 각 방으로 이동시에는 항상 외부공간을 거쳐서 이동하게 되어있다.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는 그래픽 디자이너 부부. 부부 단 둘이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도심에 있는 기존의 주택 외에 별장 혹은 아틀리에 용도로 이 건물을 의뢰하였다.

■ 기타

▶요시다 이소야(吉田五十八)의 주택

요시다 이소야(1894-1974)는 일본의 근대건축가로서, 특히 주택분야에서 일본 전통건축을 계승하면서 근대건축을 실현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택작품중의 하나인 『猪股邸』는 재단법인노무행정연구소의 이사장을 지낸 猪股猛이라는 사람이 1967년에 요시다 이소야에게 설계를 의뢰한 것이다. 113평의 건평을 갖는 이 주택은 1999년 10월부터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 주택에 대한 사진과 함께 당시 요시다의 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한 野村加根夫가 제공한 이 주택의 눈여겨볼 부분과 디테일 등의 설명을 싣고 있다.

▶이상의 실현-20세기의 모던 하우스 신건축의 잡매지인 『a+u』에서 금년의 봄과 여름 특별판인 「이상의 실현-20세기의 모던 하우스」라는 특별판을 계획하면서 편집중인 주택들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들을 소개하고 있다.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1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99.1) 1백8십6만9천12㎡ 보다 244.8%(4백5십7만5천3백36㎡) 증가한 6백4십4만4천3백48㎡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 누계 1백8십6만9천12㎡ 보다 244.8%(4백5십7만5천3백36㎡) 증가한 6백4십4만4천3백48㎡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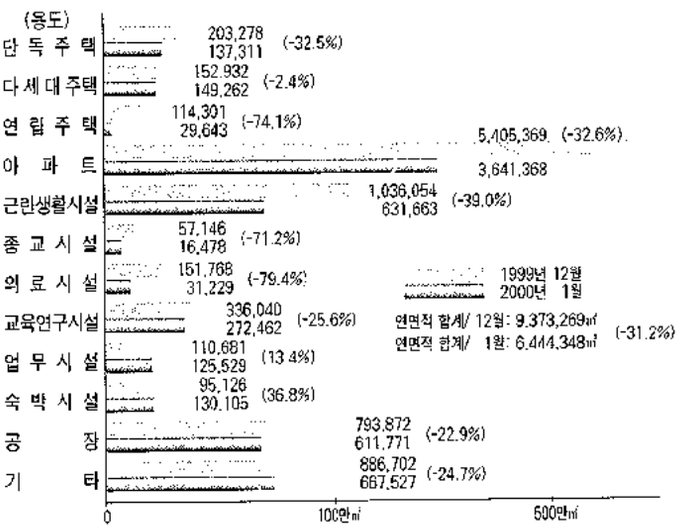
전월 12월분('99.12) 9백3십7만3천2백69㎡ 보다 31.2%(2백9십2만8천9백21㎡) 감소한 6백4십4만4천3백48㎡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799,071	2,608,307	1,809,236	226.4
	부 산	56,993	213,286	156,293	274.2
	대 구	105,449	316,902	211,453	200.5
	인 천	65,632	138,482	72,850	111.0
	광 주	65,592	72,833	7,241	11.0
	대 전	14,466	53,629	39,163	270.7
	울 산	16,025	31,816	15,791	98.5
	경 기	284,961	2,056,330	1,771,369	621.6
	충 북	41,213	343,719	302,506	734.0
	충 남	39,061	56,846	17,785	45.5
	전 북	59,239	78,747	19,508	32.9
	경 남	55,489	242,989	187,500	337.9
	제 주	11,492	24,527	13,035	113.4
감소지역	강 원	63,228	32,383	(30,845)	-48.8
	전 남	90,840	75,495	(15,345)	-16.9
	경 북	100,261	98,057	(2,204)	-2.2
합 계		1,869,012	6,444,348	4,575,336	2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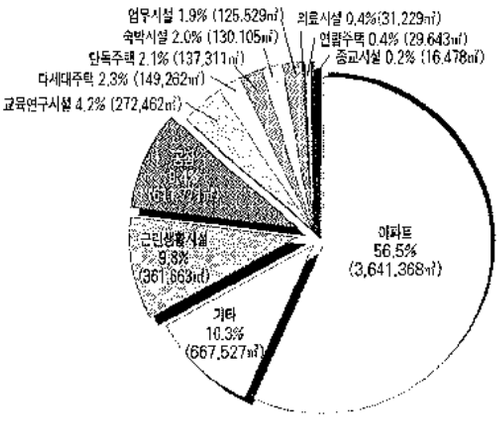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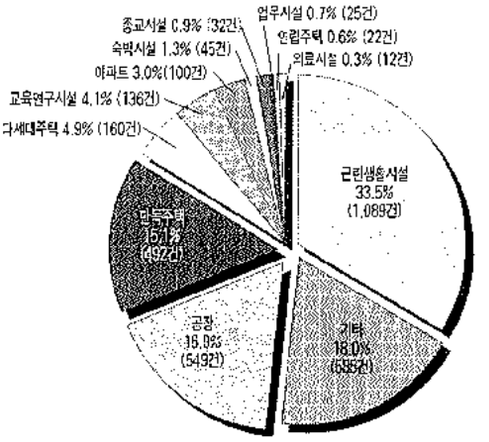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000년도 1월분)

구분 / 용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271	292	61,705	492	576	137,311	221	284	75,606	122.5	
다세대주택	34	35	15,715	160	168	149,262	126	133	133,547	849.8	
연립주택	10	10	16,478	22	23	29,643	12	13	13,165	79.9	
아파트	20	20	482,359	100	481	3,641,368	80	461	3,159,009	654.9	
근린생활시설	819	863	297,543	1,089	1,142	631,663	270	279	334,120	112.3	
종교시설	46	47	43,863	32	35	16,478	(14)	(12)	(27,385)	-62.4	
의료시설	10	10	15,954	12	12	31,229	2	2	15,275	95.7	
교육연구시설	94	102	303,170	136	153	272,462	42	51	(30,708)	-10.1	
업무시설	24	24	38,999	25	25	125,529	1	1	86,530	221.9	
숙박시설	30	30	54,545	45	46	130,105	15	16	75,560	138.5	
공장	256	304	223,265	549	782	611,771	293	478	388,506	174.0	
기타	395	470	315,416	585	689	667,527	190	219	352,111	111.6	
합 계	2,009	2,207	1,869,012	3,247	4,132	6,444,348	1,238	1,925	4,575,336	244.8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2000년 1월 누계분)



연면적 (총 6,444,348㎡)



건수 (총 3,247건)

용도별 합계 현황 (2000년 1월 누계)

구분 / 용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461	540	132,505	30	35	4,716	1	1	90	492	576	137,311
다 세 대 주 택	159	167	149,161	1	1	101	0	0	0	160	168	149,262
연 립 주 택	22	23	29,643	0	0	0	0	0	0	22	23	29,643
아 파 트	100	481	3,641,368	0	0	0	0	0	0	100	481	3,641,368
근린생활시설	927	974	560,940	149	155	47,403	13	13	23,320	1,089	1,142	631,663
종 교 시 설	18	20	11,924	14	15	4,554	0	0	0	32	35	16,478
의 료 시 설	5	5	22,018	7	7	9,211	0	0	0	12	12	31,229
교육연구시설	50	57	152,791	85	95	118,851	1	1	820	136	153	272,462
업 무 시 설	13	13	99,286	6	6	15,893	6	6	10,350	25	25	125,529
숙 박 시 설	39	40	126,738	6	6	3,367	0	0	0	45	46	130,105
공 장	295	472	379,412	253	307	231,967	1	3	392	549	782	611,771
기 타	436	510	579,572	142	171	78,323	7	8	9,632	585	689	667,527
합 계	2,525	3,302	5,885,358	693	798	514,386	29	32	44,604	3,247	4,132	6,444,348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000년 1월분)

구분 / 건축사회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249	251	799,071	447	447	2,608,307	198	196	1,809,236	226.4	
부 산	52	85	56,993	142	226	213,286	90	141	156,293	274.2	
대 구	73	73	105,449	243	243	316,902	170	170	211,453	200.5	
인 천	96	96	65,632	103	103	138,482	7	7	72,850	111.0	
광 주	106	125	65,592	100	121	72,833	(6)	(4)	7,241	11.0	
대 전	35	35	14,466	71	71	53,629	36	36	39,163	270.7	
울 산	41	42	16,025	66	66	31,816	25	24	15,791	98.5	
경 기	431	512	284,961	984	1,491	2,056,330	553	979	1,771,369	621.6	
강 원	170	177	63,228	91	98	32,383	(79)	(79)	(30,845)	-48.8	
충 북	110	121	41,213	112	183	343,719	2	62	302,506	734.0	
충 남	94	94	39,061	93	93	56,846	(1)	(1)	17,785	45.5	
전 북	45	45	59,239	84	84	78,747	39	39	19,508	32.9	
전 남	167	169	90,840	154	155	75,495	(13)	(14)	(15,345)	-16.9	
경 북	151	176	100,261	179	223	98,057	28	47	(2,204)	-2.2	
경 남	139	154	55,489	314	445	242,989	175	301	187,500	337.9	
제 주	50	52	11,492	64	73	24,527	14	21	13,035	113.4	
합 계	2,009	2,207	1,869,012	3,247	4,132	6,444,348	1,238	1,925	4,575,336	244.8	( )=마이너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1월)

(2000. 1. 31 현재)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277		2,847		689		536		221		240		263		147		855		173		189		178		195		104		250		317		73	
급 별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회 원 수		7261	16	2863	4	688	1	536	0	221	0	240	0	262	1	147	0	852	3	173	0	188	1	174	4	194	1	103	1	250	0	317	0	73	0
회원변동사항	입 회	136	0	32		6		3		6		4		9		4		29		9		8		2		7		3		8		5		1	
	재 입 회	7	0	2				1				1						1		1		1										1		1	
	전 입	13	0	4														4		1										1		1			
	전 출	-9	0	-2				-1		-2								-2		-1				-1											
	폐 업	-15	0	-5		-1		-1										-5								-1						-2			
	사 망	-3	0							-1						-1		-1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7,399	16	2,874	4	693	1	538	0	224	0	244	0	271	1	150	0	878	3	183	0	197	1	175	4	200	1	106	1	259	0	322	0	75	0
계		7,405		2,878		694		538		224		244		272		150		881		183		198		179		201		107		259		322		75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회원	건축사	7,389	2,874	693	538	224	244	271	150	878	183	197	175	200	106	259	322	75
	2급	16	4	1	0	0	0	1	0	3	0	1	4	1	1	0	0	0
	계	7,405	2,878	694	538	224	244	272	150	881	183	198	179	201	107	259	322	75
	비율(%)	100.0	38.9	9.4	7.3	3.0	3.3	3.7	2.0	11.9	2.5	2.7	2.4	2.7	1.4	3.5	4.3	1.0
준회원		23	13	7	0	0	0	0	0	0	0	1	0	0	0	2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공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024	2,365	16	7,405	
비 율	67.8%	31.9%	0.2%	100.0%	
사무소수	4,513	1,515	15	6,043	
비 율	74.7%	25.1%	0.2%	100.0%	